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768-14

# 2023년도 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2023. 12.



Hankook Research





# 일러두기

본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하고 (주)한국리서치에서 수행한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1. 본 보고서는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조사의 결과이며,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본 보고서의 통계자료(그래프, 통계표 등)에 기재된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항목별 합이나, 세부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 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3.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의수준:  $p < 0.1$ ,  $p^{**} < 0.05$ ,  $p^{***} < 0.01$
4. 본 보고서의 일부 특성별 통계량(성, 연령, 지역 등)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시 주의를 요합니다.
5.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임을 밝혀야 합니다.





# CONTENTS

<b>I. 조사개요</b>	<b>1</b>
1. 조사배경과 목적	3
2. 조사내용 및 방법	4
<b>II.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b>	<b>11</b>
표본 설계	13
가중값 작성	21
<b>III. 조사결과 요약</b>	<b>25</b>
<b>IV. 조사결과 분석</b>	<b>33</b>
1. 인권 인식	35
1)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35
2) 한국 인권상황의 전반적 평가	40
2. 인권 침해와 차별	68
1)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	68
2) 차별의 심각성과 차별상황 및 취약집단에 대한 인식	88
3) 인권침해의 경험	95
4) 차별의 경험	101
5) 인권침해, 차별의 가해자와 대응	109

# CONTENTS

3. 인권 관련 의견 .....	115
1) 주요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	115
2)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	126
3) 기후 위기와 인권에 대한 인식 .....	131
4)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	135
5)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139
6) 혐오표현의 경험 및 대응 .....	148
4. 인권 교육 및 개선 .....	162
1) 인권에 대한 인지와 교육 .....	162
2)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	172
3) 인권침해 또는 차별 해소 .....	181

**부록. 주요 항목별 상대 표준오차**

**부록. 통계 결과표**

**부록. 조사표**

# CONTENTS

## 표목차

표1-1   조사내용 및 항목 (2022년~2023년 비교) .....	4
표1-2   주요 용어 정리 .....	8
표1-3   응답자 특성 .....	10
표2-1   모집단 및 표본추출 .....	13
표2-2   시/도별 모집단 현황 .....	14
표2-3   층화 변수 .....	15
표2-4   층별 모집단 조사구 수 현황 .....	16
표2-5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	17
표2-6   17개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	18
표2-7   세부 층별 표본배분 결과 .....	19
표2-8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	23
표4-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	37
표4-2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	39
표4-3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	42
표4-4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본인 인권 .....	44
표4-5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전반적 인권 .....	46
표4-6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사회적 약자/소수자 .....	48
표4-7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여성 .....	50
표4-8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아동·청소년 .....	51
표4-9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노인 .....	52
표4-10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장애인 .....	53
표4-11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	54
표4-12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	56
표4-13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	57
표4-14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	58
표4-15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	60
표4-16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	61

# CONTENTS

표4-17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62
표4-18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63
표4-19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64
표4-20   인권의 사회적 효용(1순위)	67
표4-21   인권의 존중 정도-신체의 자유	69
표4-22   인권의 존중 정도-사상·양심의 자유	70
표4-23   인권의 존중 정도-종교의 자유	71
표4-24   인권의 존중 정도-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72
표4-25   인권의 존중 정도-집회·결사의 자유	73
표4-26   인권의 존중 정도-신속·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74
표4-27   인권의 존중 정도-공공 행정·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75
표4-28   인권의 존중 정도-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76
표4-29   인권의 존중 정도-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77
표4-30   인권의 존중 정도-주거권	79
표4-31   인권의 존중 정도-사회보장권	80
표4-32   인권의 존중 정도-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81
표4-33   인권의 존중 정도-노동권	82
표4-34   인권의 존중 정도-건강권	83
표4-35   인권의 존중 정도-교육권	84
표4-36   인권의 존중 정도-안전권	85
표4-37   인권의 존중 정도-환경권	86
표4-38   인권의 존중 정도-문화권	87
표4-39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정도에 대한 평가	89
표4-40   우리나라의 차별 정도에 대한 평가	91
표4-41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중복응답)	96
표4-42   사회, 문화, 경제적 인권침해 경험(중복응답)	98
표4-43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불이익(중복응답)	100
표4-44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여부	102
표4-45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_‘있음’만(1)	105
표4-46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_‘있음’만(2)	106
표4-47   차별 사유별 차별의 유형	107

# CONTENTS

표4-48   차별로 인한 피해·불이익(중복응답) .....	109
표4-49   인권 관련 의견-기업에 인권 존중 및 구제 법적 의무 부여 .....	116
표4-50   인권 관련 의견-장애인 이동권 보장강화 .....	117
표4-51   인권 관련 의견-외국인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화 .....	118
표4-52   인권 관련 의견-이주노동자 대상 고용허가제 개정 .....	119
표4-53   인권 관련 의견-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법 관련 조항 동일 적용 .....	120
표4-54   인권 관련 의견-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	121
표4-55   인권 관련 의견-안전한 임신의 유지/종결 법안 제정 .....	122
표4-56   인권 관련 의견-노숙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자 위한 주거지원 .....	123
표4-57   인권 관련 의견-의사조력자살 허용 제도 도입 .....	124
표4-58   인권 관련 의견-적극적 안락사 허용 제도 도입 .....	125
표4-59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 확인 여부 .....	127
표4-60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개인정보 입력 시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여부 .....	128
표4-61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공공장소의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여부 .....	129
표4-62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마이데이터 제공 .....	130
표4-63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132
표4-64   기후 위기가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 .....	133
표4-65   기후 위기 취약계층 정부 지원 필요도 .....	134
표4-66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주체성 .....	136
표4-67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문제에 참여 .....	137
표4-68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초중고 정규수업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	138
표4-69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북한이탈주민 .....	140
표4-70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이주노동자 .....	141
표4-71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성소수자 .....	142
표4-72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결혼이주민 .....	143
표4-73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노인 .....	144
표4-74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장애인 .....	145
표4-75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청년 .....	146
표4-76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여성 .....	147
표4-77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정도 .....	149
표4-78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중복응답) .....	151

# CONTENTS

표4-79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중복응답) .....	153
표4-80   혐오표현의 내용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대상(1순위+2순위) .....	155
표4-81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	157
표4-82   혐오 표현의 심각성 .....	159
표4-8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	161
표4-84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	163
표4-85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	165
표4-86   최근 1년간 인권 교육 경험 .....	167
표4-87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중복응답) .....	169
표4-88   인권교육 방식(중복응답) .....	171
표4-89   인권교육이 도움 된 정도 .....	173
표4-90   인권 교육의 필요성 .....	174
표4-91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높여야 할 대상 (1순위+2순위) .....	177
표4-92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 (1순위+2순위) .....	180
표4-93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	182
표4-94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	183
표4-95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	184
표4-96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	185
표4-97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	186
표4-98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	187
표4-99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	188
표4-100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1순위) .....	190
표4-101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	192
표4-102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침해·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 .....	193
표4-103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	195

# CONTENTS

## 그림목차

---

그림4-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	35
그림4-2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	38
그림4-3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	40
그림4-4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본인 인권 .....	43
그림4-5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전반적 인권 .....	45
그림4-6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사회적 약자/소수자 .....	47
그림4-7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	49
그림4-8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	55
그림4-9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59
그림4-10   인권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의견(1순위+2순위) .....	65
그림4-11   시민적, 정치적 권리별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의 변화 .....	68
그림4-12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추이 .....	78
그림4-13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 심각 정도에 대한 응답 비율의 추이 .....	88
그림4-14   한국 사회의 차별 심각 정도에 대한 응답 추이 .....	90
그림4-15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 응답 추이(1순위+2순위) .....	92
그림4-16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1순위+2순위) .....	94
그림4-17   시민, 정치적 권리별 침해 경험 비율의 추이(중복응답) .....	95
그림4-18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중복응답) .....	97
그림4-19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추이(중복응답) .....	99
그림4-20   차별 경험 비율의 추이 .....	101
그림4-21   차별 경험 응답자의 차별 사유 평균 개수의 연도별 차이 .....	103
그림4-22   차별 사유별 차별 경험 응답 비율 추이 .....	104
그림4-23   차별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추이(중복응답) .....	108
그림4-24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와의 관계(1순위+2순위) .....	110
그림4-25   인권침해나 차별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대 .....	110
그림4-26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응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중복응답) .....	111
그림4-27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중복응답) .....	112
그림4-28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의 결과 응답 .....	112

# CONTENTS

그림4-29   민간기관에 도움 요청 연도별 추이(중복응답) .....	113
그림4-30   민간기관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 .....	113
그림4-31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시 아무 대응하지 않은 이유의 연도별 추이 .....	114
그림4-32   인권 쟁점별 긍정 의견 비율 .....	115
그림4-33   정보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비교 .....	126
그림4-34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추이 .....	131
그림4-35   기후 위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추이 .....	133
그림4-36   아동·청소년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	135
그림4-37   선출직 정치인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시계열 추이 .....	139
그림4-38   혐오표현의 노출 경험 추이 .....	148
그림4-39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 추이(중복응답) .....	150
그림4-40   혐오표현의 대상 응답 추이(중복응답) .....	152
그림4-41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	156
그림4-42   혐오표현의 심각성 응답 추이 .....	158
그림4-4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응답 추이 .....	160
그림4-44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	162
그림4-45   인권 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	164
그림4-46   인권 교육 경험 추이 .....	166
그림4-47   인권 교육을 받은 기관 추이(중복응답) .....	168
그림4-48   인권교육 방식(중복응답) .....	170
그림4-49   인권교육이 도움 된 정도 .....	172
그림4-50   인권 교육의 필요성 .....	173
그림4-51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1순위+2순위) .....	176
그림4-52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추이(1순위+2순위) .....	179
그림4-53   인권 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추이 .....	181
그림4-54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2순위) .....	189
그림4-55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평가 .....	191
그림4-56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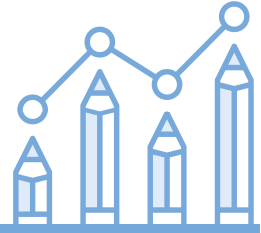


## 조사개요

1. 조사배경과 목적
2. 조사내용 및 방법



# | 조사개요



## 1

### 조사배경과 목적



#### 1) 조사목적과 법적 근거

본 조사의 목적은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인권교육 및 인권 증진방안을 조사하여 「국가인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한 승인통계이며, 본 조사의 승인번호는 일반 조사 통계 승인번호 제129001호이다.

#### 2) 조사연혁, 주기 및 시기

본 조사는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로 최초 실시되었으며,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제4차 조사는 「인권의식실태조사」로 이름을 바꾸어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조사 주기는 1년이다.

조사 시점은 2020년에는 8월부터, 2021년부터 조사 시점을 앞당겨 7월에 시작하였다. 2023년에는 7월 5일에 시작하여 9월 11일에 종료되었다.

#### 3) 조사기관

본 조사의 주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이며, 조사를 시행한 기관은 (주)한국리서치이다. 2019년과 2020년에는 통계청 통계대행과에서 조사를 수행했으며, 2021년 민간 조사기관으로 조사가 넘어간 이후 올해가 세 번째 조사이다.

## 2

## 조사내용 및 방법



## 1) 조사내용과 항목

2023년의 「인권의식실태조사」는 2022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거친 후, 데이터의 분석적 가치, 해석의 타당도, 결과의 활용도, 새로운 항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내용을 일부 삭제, 수정, 추가하였다. 또한 응답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방식을 수정하였다. 그 외의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하여 시계열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표1-1 | 조사내용 및 항목 (2022년~2023년 비교)

조사 부문	조사항목	2022	2023
인권인식	① 평소 '인권' 용어를 어느 정도 접하는가?	○	○
	②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가 명시된 것을 알고 있는가?	○	○
	③ 1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어떤가?	○	○
	④ 다음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보는가		
	1 본인의 인권	○	○
	2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	○
	3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인권	○	○
	⑤ 우리나라에서 다음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보는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	○
	⑥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1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가 차별을 하지 않는 것	○	○
	2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3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⑦ 인권과 관련된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2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3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	○
	4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5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⑧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	○

○ 동일하게 유지, ◎ 새롭게 추가, △ 부분적 수정, × 문항 삭제

조사 부문	조사항목	2022	2023
인권 침해 및 차별	① 인권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  (사상·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신속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공공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주거권, 사회보장권,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  ○  ○	○  ○  ○
	② 우리나라에서 누가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가?	○	○
	③ 인권 침해/차별을 받기 쉬운 상황은 무엇인가?	○	○
	④ 전반적으로 인권 침해가 어느 정도인가?	○	○
	⑤ 과거 1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	○
	⑥ 과거 1년간 인권 침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
	⑦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는가?	○	○
	⑧ 전반적으로 차별이 어느 정도인가?	○	○
	⑨-1 과거 1년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성별,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 장애, 연령, 경제적 지위, 고용형태, 학력이나 학벌, 인종/피부색/출신국가/출신민족, 신체조건, 혼인상황, 가족상황, 질병 및 병력, 출신지역,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	○
	⑨-2 어떤 유형의 차별을 받았는가? 신체적/언어적, 고용(일자리) 관련, 사회적 차별(따돌림이나 배제), 재화/용역(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	○
	⑩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는가?	○	○
	⑪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	○
	⑪-1 누가 인권 침해/차별을 가했는가?	○	○
	⑪-1-1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차별을 가한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는 무엇인가?	○	○
	⑪-2 인권 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	△
	⑪-2-1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어디인가?	○	△
	⑪-2-2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	○	○
	⑪-3-1 도움을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는 무엇인가?	○	△
	⑪-3-2 도움을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	○	○
	⑪-4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	○

조사 부문	조사항목	2022	2023
인권 관련 의견	① 인권에 관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기업에 인권 존중 및 구제 법적 의무 부여)	--	◎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	◎
	(외국인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화)	--	◎
	(이주노동자 대상 고용허가제 개정)	--	◎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법 관련 조항 동일 적용)	--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	◎
	(안전한 임신의 유지/종결 법안 제정)	--	◎
	(노숙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자 주거지원)	--	◎
	(의사조력자살 허용 제도 도입)	--	◎
	(적극적 안락사 허용 제도 도입)	--	◎
	②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	△
	②-1) 기후변화가 심각해진다면 개인 삶에 주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
	②-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
	③ 정보인권 관련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④ 개인의 금융, 건강 정보를 가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⑤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⑥ 가족, 이웃, 친구 중에 인권 취약계층의 사람이 있는가?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난민)	○	○
	⑦ 인권 취약계층이 정치적 대표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
	⑧ 지난 1년간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는가?	○	△
	⑧-1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는 무엇인가?	○	○
	⑧-2 혐오표현의 대상은 누구인가?	○	○
	⑧-3 혐오표현의 내용이 가장 심한 대상은 누구인가?	--	◎
	⑧-4 혐오표현을 접할 때 어떻게 했는가?	○	○
	⑨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
	⑩ 혐오표현을 법적 규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

조사 부문	조사항목	2022	2023
인권교육 및 개선	① 인권존중/차별하지 않기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을 얼마나 아는가?	○	○
	② 인권 침해/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을 얼마나 아는가?	○	△
	③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았는가?	○	○
	③-1 어디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는가?	○	○
	③-2 인권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가?	○	○
	③-3 인권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	○
	④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	○
	⑤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대상은 어디인가?	○	○
	⑥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은 무엇인가?	○	△
	⑦ 지난 1년간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에 참여했는가?	○	○
	⑧ 인권보호 및 증진, 차별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은 무엇인가?	○	○
	⑨ 인권을 증진시키는 정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	○	○
	⑩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	○
사회적 가치	① 향후 10년간 국가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경제성장, 국가 안보, 참여와 권리 보장, 환경 및 생태계 보호)	○	○
	②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	○	○
	③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	○

본 조사에서 조사된 항목과 관련된 주요한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표1-2 | 주요 용어 정리**

용어	내용
인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인권 침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
차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소수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편견을 조장하거나 멸시·모욕·위협을 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말함. 대표적인 혐오표현의 예로는 김치녀(여성혐오표현), 된장녀(여성혐오표현), 한남충(남성혐오표현), 맘충(자녀가 있는 여성혐오표현), 틈딱(노인혐오표현) 등을 들 수 있음
사상의 자유	어떤 관점이나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는 자유
양심의 자유	외부의 억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
의견제시와 표현의 자유	사람 내부의 정신을 외부로 공표하는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외부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공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처리 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권 중 빈곤해결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권 중 소득보장	인간으로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중 활동지원	장애로 인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안전권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
성소수자	자신의 신체와 다른 성이라고 생각하거나,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성적 매력과 애정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함.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대표적인 성소수자임
결혼이주민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된 외국인들. 이렇게 가족이 형성되면 다문화가족이라고도 함



용어	내용
이주노동자	외국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
난민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국가를 벗어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최근에는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른 국가로 피해가는 사람들도 난민에 포함됨
보호시설 중 보육원	부모, 친지 등의 양육자가 없거나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에게 공적인 양육자가 되어주는 시설
보호시설 중 요양원	치매,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집안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는 시설
보호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공기관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함 (정부 기관, 공기업, 학교 등)
민간기관	정부와 관련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는 기업, 병원, 시민사회단체, 복지시설 등을 들 수 있음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중전 국군기무사령부) 등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빛 공해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과도한 빛이 생기거나, 정해진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개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상태를 방해하는 경우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이 다양한 교통수단(공공교통수단 포함)과 도로를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의사조력자살	의사가 약물을 처방해주면 환자 본인이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놓아서 사망에 이르는 것
적극적 안락사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
시위	다른 말로 데모라고 하며,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집회	일반적으로 옥외집회를 말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

## 2) 조사개요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전국에 걸친 표본 추출을 통해 얻은 표본 가구의 만 18세 이상 국민이며, 최종적으로 조사된 표본은 9,070가구의 15,303명이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5일에서부터 2023년 9월 11일까지였다. 조사 방법은 일대일 면접조사로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득이한 경우 유치조사와 웹-모바일 방식의 조사가 병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결된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표1-3 | 응답자 특성**

구분	명	%
<b>성별</b>	<b>15,303</b>	<b>100.0</b>
남자	7,614	49.8
여자	7,689	50.2
<b>연령</b>	<b>15,303</b>	<b>100.0</b>
20대	2,622	17.1
30대	2,371	15.5
40대	2,783	18.2
50대	2,962	19.4
60대 이상	4,565	29.8
<b>지역</b>	<b>15,303</b>	<b>100.0</b>
도 시(동 부)	12,578	82.2
농어촌(읍면부)	2,725	17.8
<b>학력</b>	<b>15,303</b>	<b>100.0</b>
중졸 이하	2,350	15.4
고졸	5,645	36.9
대졸	7,080	46.3
대학원 이상	227	1.5
<b>직업</b>	<b>15,303</b>	<b>100.0</b>
관리자/전문가/관련 종사자	1,130	7.4
사무직	3,079	20.1
서비스/판매직	3,679	24.0
생산/기술직	1,327	8.7
농림어업 관련 종사자	576	3.8
단순노무직	725	4.7
기타	27	0.2
무직	4,760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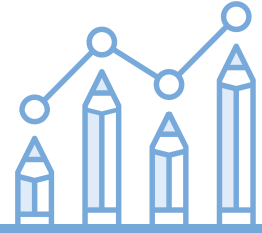
주 : 사례수는 최종가중치를 통하여 보정된 가중치 적용 결과(weighted analysis)이며, 백분율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1. 표본 설계
2. 가중값 작성



#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 1

## 표본 설계



###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표본 추출은 다단계 확률비례계통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략적 내용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2-1 | 모집단 및 표본추출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①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② 표본추출틀 : 2021년 통계청 등록 센서0스 조사구 리스트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① 표본규모 - 전국 9,000가구(표본가구 내 약 16,110명의 가구원) - 900개 조사구 추출 - 조사구 당 목표가구 10가구(조사구 당 25가구 추가 추출) ②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pm 2.0\%p$ (설계효과 6.56 적용)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① 층화 : 시/도(17개 권역), 동부/읍면부, 조사구 특성(아파트, 일반) - 분류지표 : 65세 이상 인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② 표본 배분 - 시/도 : 가구 수 기준 제곱근비례배분 - 시도, 동부/읍면부, 조사구특성(일반/아파트) : 비례배분 ③ 표본추출단위 - 1차(psu) : 조사구 → 확률비례계통추출 - 2차(ssu) : 조사구 내 가구(조사구당 10가구) → 계통추출 - 최종조사단위 : 표본가구 내 적격가구원 전수조사

모집단의 정의는 목표 모집단의 경우, 조사시점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이며, 조사 모집단은 조사가 곤란한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조사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이었다. 2021년까지 모집단 하한 연령은 19세였으나 2022년부터 18세로 바뀌었다. 시/도별 모집단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2-2 | 시/도별 모집단 현황

(단위: 개, 가구, 명)

시도	조사구(2021년 기준)		가구(2021년 기준)		인구(2021년 기준)	
	조사구 수	열%	가구 수	열%	18세 이상 인구	열%
전국	389,814	100.0%	21,448,463	100.0%	42,761,265	100.0%
서울	72,343	18.6%	4,046,799	18.9%	8,000,723	18.7%
부산	26,550	6.8%	1,431,365	6.7%	2,851,099	6.7%
대구	17,171	4.4%	1,000,931	4.7%	2,016,384	4.7%
인천	21,000	5.4%	1,183,610	5.5%	2,432,771	5.7%
광주	10,598	2.7%	615,693	2.9%	1,213,562	2.8%
대전	10,956	2.8%	640,085	3.0%	1,239,802	2.9%
울산	8,339	2.1%	451,432	2.1%	916,825	2.1%
세종	2,667	0.7%	145,295	0.7%	275,853	0.6%
경기	93,950	24.1%	5,290,662	24.7%	10,981,513	25.7%
강원	12,957	3.3%	674,728	3.1%	1,294,470	3.0%
충북	12,839	3.3%	695,611	3.2%	1,337,983	3.1%
충남	17,007	4.4%	915,634	4.3%	1,756,799	4.1%
전북	14,407	3.7%	772,471	3.6%	1,496,575	3.5%
전남	15,241	3.9%	777,358	3.6%	1,485,891	3.5%
경북	22,164	5.7%	1,156,645	5.4%	2,212,560	5.2%
경남	26,212	6.7%	1,378,982	6.4%	2,713,478	6.3%
제주	5,413	1.4%	271,162	1.3%	534,977	1.3%

출처: 2021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추출틀은 앞서 조사모집단 규정인 2021년 등록 센서스(통계청)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 리스트를 활용하였다. 표본 추출에서는 17개 시도별로 최종 데이터의 비교분석 결과에서 일정 수준의 통계적 신뢰성을 갖도록 표본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본설계에서 1차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가구원이다. 1차 추출단위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는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구들을 묶어 구성되며 대개 60~70여 가구로 이루어지며, 표본설계에서 층화는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의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층화는 행정구역 구분, 동부 및 읍면부 구분, 조사구 특성(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을 고려하였다.

- 1차 층화 : 8개 특광역시와 9개 도
- 2차 층화 : 동부/읍면부
- 3차 층화 : 조사구 특성(아파트/일반)

표2-3 | 층화 변수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3차 층화	총수
특광역시	특광역시 : 8개	없음 <sup>1)</sup>	조사구 특성 (아파트, 일반)	16
도 지역	도 : 9개	- 동부, 읍면부	조사구 특성 (아파트, 일반)	36

1) 8개 특·광역시에 대해서는 읍면부에 속한 조사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층 구성이 곤란하여 동부와 읍면부 구분을 통합하여 층화하였음

본 조사의 층별 모집단 조사구 수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표2-4 | 층별 모집단 조사구 수 현황**

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국	176,202	139,539	23,544	50,529	389,814
서울	31,145	41,198	-	-	72,343
부산	15,401	11,149	-	-	26,550
대구	10,053	7,118	-	-	17,171
인천	11,440	9,560	-	-	21,000
광주	7,019	3,579	-	-	10,598
대전	6,022	4,934	-	-	10,956
울산	5,134	3,205	-	-	8,339
세종	2,059	608	-	-	2,667
경기	46,684	30,721	6,609	9,936	93,950
강원	4,445	2,846	1,656	4,010	12,957
충북	4,290	2,763	2,082	3,704	12,839
충남	4,615	2,849	3,252	6,291	17,007
전북	6,075	3,715	778	3,839	14,407
전남	3,923	2,143	2,145	7,030	15,241
경북	6,287	4,715	3,126	8,036	22,164
경남	10,142	6,063	3,756	6,251	26,212
제주	1,468	2,373	140	1,432	5,413

표본의 크기는 생산되는 통계의 목표 표본오차 크기와 주어진 예산 및 조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본 조사의 목표 표본 크기는 전국 9,000가구 내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약 16,110명<sup>2)</sup>을 조사하는 것이다. 2022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당 평균 응답자 수는 1.79명이다<sup>3)</sup>.

2) 앞서 표본크기 산출식에 의해서 계산된 표본크기는 16,024명이며, 이에 따른 표본가구 수는 8,952가구이었음. 최종 표본 크기는 가구당 평균 응답자 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9,000가주로 조정하였으며, 표본가구 내 만 18세 이상 일반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3) 2021년 인구총조사에서 가구당 평균 만 18세 이상 가구원 수는 1.99명이지만, 가구내 응답률이 100%보다 낮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응답자 수가 1.79명(2022년 조사의 가구당 평균 응답자 수)이 되었음



아래 표는 2022년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설계효과 현황이다. 이 조사의 설계효과 값<sup>4)</sup>은 약 4.86~7.8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본 조사의 목표 허용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0\%$ (설계효과 6.56을 적용한 결과임)이다.

표2-5 |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조사항목	2022년도 조사 결과		
	추정값	95% 오차의 한계	설계효과
지난 1년 전과 비교한 인권상황(q3)	31.2%	1.7%	5.71
본인의 인권 존중 비율(q4)	88.4%	1.1%	4.86
전반적인 인권침해 여부(q12)	34.8%	2.1%	7.81
전반적인 차별 여부(q16)	37.6%	2.1%	7.86
평균	-	-	6.56
중위수	-	-	6.76

표본 배분은 시/도별 조사구에 목표 표본인 약 16,110명의 가구원을 배분하는 작업이며, 표본배분 단계에서 1차적으로 시/도별로는 2022년도 조사의 표본설계와 마찬가지로 시도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아래 식으로 17개 시/도별 표본을 배분하였다.

$$n_h = n \times \frac{\sqrt{N_h}}{\sum_{h=1}^{17} \sqrt{N_h}}$$

여기에서,  $N_h$ 는 각각  $h$ 시/도의 가구 수이고,  $n$ 는 전체 표본크기로 900개 조사구이고,  $n_h$ 는  $h$ 시/도의 표본 조사구 수이다.

제곱근비례배분을 적용한 이유는 조사 결과의 활용성과 다양한 심층분석을 위해 시/도별로 충분한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비례배분법과 비교하여 표본크기의 시/도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추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도 단위의 다양한 추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4) 설계효과는 집락추출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산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표2-6 | 17개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지역	모집단		비례배분 결과			제공근비례배분 결과		
	조사구 수	가구 수	조사구 수	표본 응답자 수	예상 오차의 한계	조사구 수	표본 응답자 수	예상 오차의 한계
전국	389,814	21,448,463	900	16,110	±2.0%p	900	16,110	±2.0%p
서울	72,343	4,046,799	170	3,040	±4.6%p	104	1,860	±5.9%p
부산	26,550	1,431,365	60	1,070	±7.8%p	62	1,110	±7.7%p
대구	17,171	1,000,931	42	750	±9.4%p	52	930	±8.4%p
인천	21,000	1,183,610	50	900	±8.5%p	56	1,000	±8.1%p
광주	10,598	615,693	26	470	±11.8%p	41	730	±9.5%p
대전	10,956	640,085	27	480	±11.7%p	41	740	±9.4%p
울산	8,339	451,432	19	340	±13.9%p	35	630	±10.2%p
세종	2,667	145,295	6	110	±24.4%p	20	360	±13.5%p
경기	93,950	5,290,662	222	3,970	±4.1%p	119	2,130	±5.5%p
강원	12,957	674,728	28	500	±11.5%p	42	750	±9.4%p
충북	12,839	695,611	29	520	±11.2%p	43	770	±9.2%p
충남	17,007	915,634	38	680	±9.8%p	50	900	±8.5%p
전북	14,407	772,471	32	570	±10.7%p	45	810	±9.0%p
전남	15,241	777,358	33	590	±10.5%p	46	820	±8.9%p
경북	22,164	1,156,645	49	880	±8.6%p	56	1,000	±8.1%p
경남	26,212	1,378,982	58	1,040	±7.9%p	61	1,090	±7.8%p
제주	5,413	271,162	11	200	±18.1%p	27	480	±11.7%p

주: 예상 오차의 한계는 설계효과를 반영하여 95% 신뢰수준에서 계산한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임

앞의 표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기준으로 2차 층화변수인 동부/읍면부 구분, 3차 층화변수인 조사구 특성(아파트, 일반)에 대해서는 조사구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각 세부 층별 표본배분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2-7 | 세부 층별 표본배분 결과

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국	405	308	56	131	900
서울	44	60	-	-	104
부산	36	26	-	-	62
대구	30	22	-	-	52
인천	30	26	-	-	56
광주	27	14	-	-	41
대전	22	19	-	-	41
울산	22	13	-	-	35
세종	15	5	-	-	20
경기	59	39	8	13	119
강원	14	10	5	13	42
충북	14	10	7	12	43
충남	14	8	9	19	50
전북	19	12	2	12	45
전남	12	6	6	22	46
경북	16	12	8	20	56
경남	24	14	9	14	61
제주	7	12	2	6	27

조사구 당 목표 가구 수는 10가구로 하며, 예비 표본 가구 25가구를 추가 추출하여 조사구 당 35가구를 표본 가구로 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층화 2단 집락추출법을 적용하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이다.

1차 추출 단위(psu) 추출 즉 세부 층 내 표본조사구 추출에 대한 분류지표는 조사구 특성, 65세 이상 인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등을 고려하였다. 조사구 특성 구분은 세부 층화 단계에서 층화변수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과 1인 가구 비율을 분류지표로 사용하였다.

1차 기준	• 65세 이상 인구 비율
2차 기준	• 1인 가구 비율

1차 추출 단위(psu) 즉 조사구는 위의 표에 주어진 각 세부 층에서 표본조사구 추출은 세부 층별로 조사구를 아래 분류기준과 주소지 코드로 정렬한 후, 조사구 내 가구 수 기준의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2차 추출 단위(ssu)인 가구는 추출된 조사구 내의 가구명부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조사구당 표본가구 수만큼을 계통 추출하여 조사하며, 각 표본 조사구에서 목표 조사 성공 가구 수는 10가구이다.

최종 조사단위인 가구원은 선정된 가구내의 만 18세 이상 가구원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조사원에 의한 선정 편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2

가중값 작성



### 1) 설계 가중값(Design Weight)

본 조사에서 설계가중치는 표본설계에서 사용된 층화2단 확률비례 계통추출법에 따라 조사구 내의 가구별 추출확률이 달라짐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사용될 기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H$  : 층의 수
- $N_h$  : 층  $h$ 의 모집단 조사구 수
-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해당 조사구의 총 가구 수)
- $S_h = \sum_{i=1}^{N_h} S_{hi}$  : 층  $h$ 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조사완료+조사미완+조사미착수)
-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조사 착수 가구 수(응답+거절)
-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응답)

본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각 표본 조사구에 대한 표본 추출률의 역수와 각 표본 조사구에서 가구조사 완료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설계가중치 } w_{hi}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한편 위 식에서 각 표본 조사구에서는 원칙적으로  $S_{hi} \approx M_{hi}$ 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무응답 조정은 표본조사구 단위로 진행하였다.

$$w_{2hi} = \frac{m_{hi}}{r_{hi}}$$

여기에서,  $m_{hi}$ 는  $h$ 층 내의  $i$ 조사구 내의 표본가구 수를 나타내며,  $r_{hi}$ 는  $h$ 층 내의  $i$ 조사구 내 실제 응답한 가구 수를 나타낸다.

최근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가구의 가구원 수 분포를 반영하고자 가구원 수를 다음 식에 따라 보정하였다.

$$BF_{ab} = \frac{G_{ab}}{\sum_a \sum_b (w_{1hi} \times w_{2hi})}$$

여기에서,  $G_{ab}$ 는  $a$  시/도,  $b$  가구원 수(1인, 2인, 3인, 4인 이상)의 모집단 가구 수를 나타낸다.

표본가구 내에서 적격 가구원을 전수조사 하지만 조사 불능 및 조사 불응의 사유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가구마다 가구원 추출률이 상이하므로 이를 보정하고자 표본가구 내 가구원 응답률을 반영하였다.

한편 사후층화 보정은 모집단과 표본의 구조가 유사하도록 2021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시/도 별(17), 연령대(5), 성별(2)의 구성비를 보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최종 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얻었다.

$$\begin{aligned} \text{최종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 계수} \times (\text{가구원 수 분포}) \text{보정 계수} \\ &\quad \times \text{표본가구 내 가구원 응답률 역수} \times \text{사후층화 보정 계수} \end{aligned}$$

모수 추정과 관련하여, 본 조사의 표본설계는 복합표본설계 방법이 적용되어 표본을 추출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모수 추정식을 적용하였다.

본 조사의 추정대상 모수는 모평균과 모비율이다. 모비율 추정량 및 분산추정은 모평균 추정방법과 동일한데, 모비율 추정은 조사변수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는 경우의 모평균 추정에 해당한다. 본 조사에서 중요한 각종 차별 경험률의 경우 전체 만 18세 이상 인구 중 각종 차별을 경험한 비율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성별 차별 경험률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사람 총수 추정 값을 만 18세 이상 인구 중의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모평균 추정에는 다음 식이 이용되었다.

$$\hat{Y} = \frac{\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h = 1, 2, \dots, H$  : 설계층을 나타내는 첨자
- $i = 1, 2, \dots, n_h$  :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 $j = 1, 2, \dots, m_{hi}$  : 가구 및 가구원을 나타내는 첨자
- $w_{hij}$  :  $h$ 층  $i$ 조사구  $j$ 가구(가구원)의 가중값
- $y_{hij}$  :  $h$ 층  $i$ 조사구  $j$ 가구(가구원)의 관측 값

또한 모평균에 대한 분산추정은 다음 식을 이용했다.

$$\begin{aligned} \hat{V}(\hat{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2 \\ - f_h &= \frac{N_h}{n_h} \\ - e_{hi\cdot} &= \left[ \sum_{j=1}^m w_{hij} (y_{hij} - \hat{Y}) \right] / w_{..} \\ - \bar{e}_{h\cdot} &= (\sum_{i=1}^{n_h} e_{hi\cdot}) / n_h \end{aligned}$$

모평균에 대한 표준오차는 다음 식을 이용하였다.

$$\hat{SE}(\hat{Y}) = \sqrt{\hat{V}(\hat{Y})}$$

모평균에 대한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추정은 다음 식을 이용하였다.

$$rse(\hat{Y}) = \frac{\sqrt{\hat{V}(\hat{Y})}}{\hat{Y}} \times 100(\%)$$

통계자료 공표 시 통계표 셀 내의 유효 표본크기가 너무 작거나 상대표준오차가 큰 경우 등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경우(분류, 항목)에는 유사한 층을 통합하여 통계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통계청의 「표본설계 및 관리 지침」의 제10조(표본오차의 기준)를 따랐다.

표2-8 |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구분	RSE<25%		25%≤RSE<50%	50%≤RSE
	n≥10	n<10		
표기	표기 없음	*	*	**
해석	신뢰도 높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다소 낮음	신뢰도 낮음





2023년도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 조사결과 요약





1

인권 인식



인권 의식을 구성하는 인지적인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 인권 용어를 얼마나 접하는지와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인권이라는 용어를 평소에 접한다는 응답은 80.2%로, 최근 3년 추이와 대비했을 때 미세한 감소 폭을 보이고 있으나 추세에 큰 변동은 없었다. 반면 우리나라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보호의 명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7%가 인지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좋아졌다는 평가는 29.7%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나빠졌다는 응답은 작년에 비해 증가한 15.1%로 나타나 2022년에 비하여 우리나라 인권 개선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2019년 이래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올해에는 처음으로 1.9%p 감소한 86.5%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 전반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은 71.0%로 나타났는데,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50.3%로 작년 대비 감소하였다. 사회적 약자/소수자 집단을 세분하여 인권이 존중되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이 2021년부터 3년 연속 가장 높았고(81.2%),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다(36.7%). 응답 추이를 분석했을 때,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높으나 추이는 2022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반면 장애인과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다른 약자/소수자 집단의 인권 대비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전년도 대비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도 조사 모두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95.5%), 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79.0%)’,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71.5%)’의 순서로 응답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80.9%는 본인에게 인권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공익을 위해 나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66.1%로 나타났다.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평가는 작년에 비해 증가한 71.5%, 인권에 의해 누군가가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응답은 77.0%로 나타났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응답은 작년과 비슷한 79.2%를 나타냈다.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 결과 기대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63.1%), 이어서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56.7%)’,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41.1%)’,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36.4%)’의 순서로 응답이 나타나, 약자 보호와 갈등이 없는 사회와 인권 존중의 관련성을 깊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 인권 침해와 차별



시민·정치적 권리 중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권리 항목은 종교의 자유(90.7%), 신체의 자유(87.8%), 사상·양심의 자유(82.9%),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81.5%) 등이었다. 반면 공공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67.3%),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66.1%)에 대해서는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해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조사에는 존중받는다라는 평가가 모든 항목에서 감소했다.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에 대해서는 주거권(87.6%), 교육권(84.9%), 건강권(82.7%),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80.8%)는 존중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노동권(67.9%)과 안전권(68.7%)의 긍정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23년에는 주거권을 제외한 8개 항목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감소했는데, 특히 안전권에서의 긍정 응답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8.5%p).

한국 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2020년 이후부터 절반 이하의 응답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3년에는 작년에 비해 3.8%p 증가한 38.6%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3.7%였고, 이 또한 작년에 비해 6.1%p 증가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권 침해에 비하여 차별이 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인권 침해 및 차별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에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된 집단은 경제적 빈곤층이었고, 이어 장애인, 노인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층이 인권 침해나 차별에 취약하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편이나, 2021년 이후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은 보호시설 생활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조사에서 높은 순위였던 경찰/검찰의 조사·수사 상황은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병원 치료·입원, 재화·용역 이용, 직장, 유치원·어린이집, 가정 등 일상 생활에 관련된 상황이 인권 침해나 차별 발생에 취약하다는 응답은 작년 대비 증가했다.

본인의 인권 침해 경험을 물었을 때 복수 응답을 반영했음에도 권리 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모두 7% 미만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에 비해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를 경험한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난 침해 유형은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3.2%)이었다.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 경험 중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을 제외한 7개 항목은 작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감소하였다.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중에서는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려움(6.8%)을 겪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22년부터 새로 추가된 일터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5.2%로 나타났다.

시민, 정치적 권리 혹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침해로 인해 정신적·감정적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59.0%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체 상해를 입었다는 응답 비중은 감소했지만, 재산·금전상 손해와 명예 실추의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23년에는 20.8%로 작년 대비 6.5%p 증가했다.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차별 사유로 높은 응답을 보인 상위 세 항목은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였으며, 세 항목의 응답 비율은 작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성별로 인한

차별은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연령이나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은 일자리 관련 차별의 형태로 행해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차별로 인해 정신적·감정적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은 72.8%로 작년보다 증가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는 가족/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남성, 50대에 의해 행해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직장 상사나 상급자, 이웃 또는 동호회, 동창회 등 내가 속한 집단의 사람, 학교 선후배, 친구, 동료, 학원강사, 학교 교사, 대학 교수 등 사회적 활동으로 형성된 관계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3년에 들어서 크게 증가했다. 가족 또는 친인척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20.4%)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은 경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그 비율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12.5%p) 감소하였다. 반면 가해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했다는 응답은 증가하고 있다. 그 외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 SNS에 게시했다는 응답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각 3% 내외로 비중이 낮았는데, 도움을 요청한 기관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도 30%대 수준으로 낮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도움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3 인권 관련 의견

한국의 사회 변화에 대한 인권 관련 쟁점으로서 제시된 10개 문항들 가운데 가장 높은 긍정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기업에 인권 존중 및 구체 법적 의무 부여였고(87.5%) 이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87.2%),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법 관련 조항 동일 적용(84.7%)의 순서로 높았다. 이주노동자 대상 고용허가제 개정은 긍정 응답 비율 64.0%로 가장 낮았고, 의사 조력자살 허용 제도 도입(68.2%), 적극적 안락사 제도 도입(73.0%)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정보 인권의 각 쟁점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정보 입력시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작년 대비 감소했고, 개인의 금융, 건강 관련 데이터를 가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작년에 비해 10.2%p 감소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여부 체크 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는 응답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공공장소의 CCTV 촬영을 개인 사생활 침해로 여긴다는 응답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기후 위기(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증가, 생물 다양성 축소, 해수면 상승 등)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 기후 위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취약 계층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많았고, 기후 위기 취약 계층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0년 이후 계속 감소했고,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202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동·청소년이 부모·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결혼이주민에 대한 응답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년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여성에 대한 응답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과반인 항목 수는 2019년에는 1개(성소수자)였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2023년에는 4개(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결혼이주민)로 증가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023년 전체 응답자의 59.9%는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3.4%p 증가한 수치다.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5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로, 혐오 표현 노출 경험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혐오 표현의 접촉 경로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매체는 TV/라디오였다. 접했던 혐오표현의 대상은 정치인이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의 순서였다. 또한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 많이 언급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혐오표현의 수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을 접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질문한 결과, 71.9%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응답했다. 14.2%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편이었다고 했으며, 13.9%는 동조하는 의견이나 행동을 취한 편이었다고 응답하여 2022년 대비 5.1%p로 증가한 반면, 혐오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는 의견은 57.6%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인 68.9%를 나타내고 있다.

## 4

## 인권 교육 및 개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다는 응답은 60.7%로 모른다는 응답보다 높지만, 그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대응 요령에 대해서는 안다는 응답보다 모른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비율이 계속 증가 추세이다. 지난 1년 간 인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88.5%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인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2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인권 교육 경험률 개선과 함께 인권 교육 시 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응하는 요령이 함께 안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 민간기업/사업체를 통했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 비율은 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시민단체를 통해 교육받았다는 응답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교육기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감소 추이를 나타냈다. 인권 교육을 온라인(사이버)교육으로 받았다는 응답은 2020년 35.1%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상승하여 2023년에는 62.0%로 응답됐다.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2020년 36.2% 이후 10%대로 급감하였으나, 2023년에는 다소 회복한 32.2%를 나타냈다. 받았던 인권 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83.6%로 작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81.4%로 높은 편이지만, 2019년 91.8% 이후 응답 추이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검찰/경찰/법원,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 등의 기관

은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두 항목 모두 순위는 과거와 동일하지만,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언론 등 대중매체,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 사회에 인권 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장애인 인권과 혐오/차별 예방교육, 노동 인권, 집단 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앞서 집단 거주시설 생활인에 대한 취약성 인지가 높았던 결과와 상응하여 인권 교육이 시급한 주제라는 응답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위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소수자/약자를 위한 기부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각 연도별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10% 이상 비율을 보인 항목은 2019년에는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소수자/약자를 위한 기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의 3가지였지만 2020년에는 인권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소수자/약자를 위한 기부 2가지로 줄었고, 2021년부터는 10% 이상의 응답을 나타낸 항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해서는 인권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 대응 등이 제도적인 노력이 여전히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인권 침해와 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지만, 언론이나 차별받는 개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응답은 71.0%,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 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52.5%였으나, 두 항목 모두 작년에 비해서 긍정 응답이 감소했다.





#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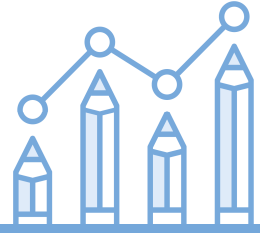
## 조사결과 분석

1. 인권 의식
2. 인권 침해와 차별
3. 인권 관련 의견
4. 인권 교육 및 개선





# IV 조사결과 분석



## 1

## 인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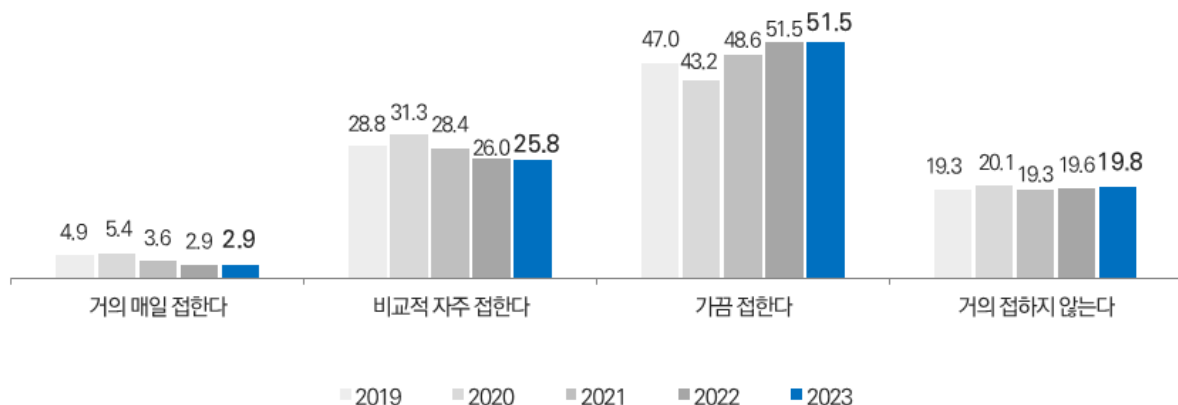
### 1)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 인권을 접하는 정도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접하는가’는 질문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평소에 접하고 있다(거의 매일+비교적 자주+가끔)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0.2%, 거의 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9.8%였다. 평소에 접하고 있다는 응답의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2023년 현재 인권 용어를 접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9년에 비해 0.5%p 감소, 2020년 대비 0.3%p 증가, 2021년 대비 0.5%p 감소, 2022년 대비 0.2%p 감소하여 미세한 감소는 있으나 추세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용어를 접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의 증감 추세는 0.5%p 증가(2019년 대비)→0.3%p 감소(2020년 대비)→0.5%p 증가(2021년 대비)→0.2%p 증가(2022년 대비)로 역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4-1 |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단위: %)



\*주: 이 보고서의 통계자료(그래프, 통계표 등)에 기재된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한 것으로, 이에 따라 통계표 및 그래프의 항목별 합계나,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다를 수 있다.

본 문항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 등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보면, 남성의 32.0%, 여성의 25.4%가 인권 용어를 거의 매일 혹은 비교적 자주 접한다고 응답해 남성이 여성보다 인권 용어에 대한 노출이 다소 높았다. 또한 거의 접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 15.7%에 비해 여성은 23.9%의 응답을 보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권 단어에 대한 노출이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인권 용어를 거의 매일 혹은 비교적 자주 접한다는 응답이 20-30대에서는 33.7%, 40-50대에서는 31.8%였으나, 60대 이상에서는 19.2%였다. 거의 접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30대 13.8%, 40-50대 15.1%, 60대 이상에서는 32.3%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인 60대 이상은 인권 용어에 대한 노출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고졸이하에서 인권 용어를 거의 매일 혹은 비교적 자주 접한다는 비율은 19.8%였던 데 반해, 대학교 재학 이상은 36.3%로 더 높았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인권 용어를 거의 매일 혹은 비교적 자주 접한다는 응답은 도시의 28.6%, 농어촌의 29.0%로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인권 용어를 거의 접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농어촌(25.7%)이 도시(18.5%)보다 많았다.

직업별로는 인권 용어를 거의 매일 혹은 비교적 자주 접한다는 응답은 관리전문직(47.7%)이 가장 높았고, 이어 사무판매서비스직(31.3%), 농림생산직(24.0%), 비경활인구(23.0%)의 순서로 나타났다. 인권 단어를 거의 접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비경활인구(27.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농림생산직(22.7%), 사무판매서비스직(15.0%), 관리전문직(10.8%),의 순서였다. 비경활인구의 경우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인권 용어를 자주 접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고, 인권 용어에 대해 거의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높으며 그 격차가 더 컸다.

종교 있음의 28.9%, 종교 없음의 28.5%가 인권 용어를 거의 매일 혹은 비교적 자주 접한다고 응답하여 종교 있음이 약간 높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 반면, 인권 용어를 거의 접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종교 있음(24.7%)에서 종교 없음(17.1%)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의 경우 진보(33.2%), 중도(29.3%), 보수(24.0%)의 순서로 인권 용어를 자주(거의 매일+비교적 자주) 접한다고 응답하였다.

표4-1 |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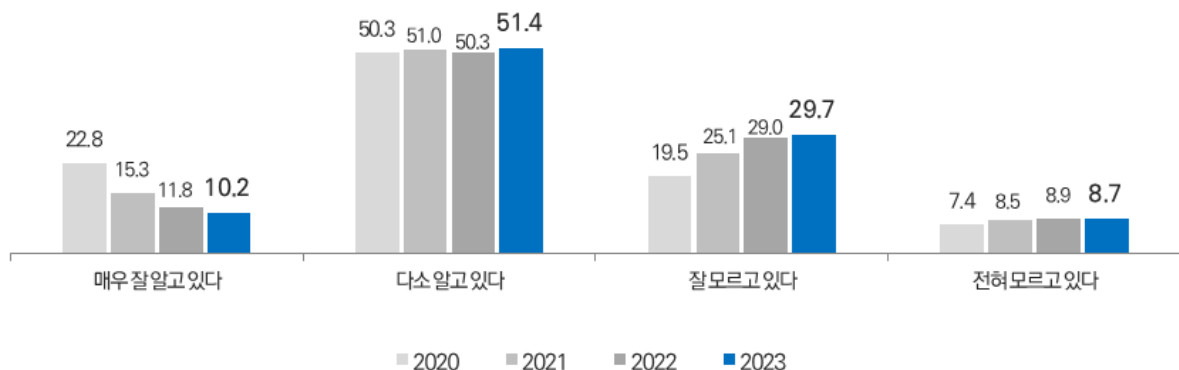
전체	거의 매일 접한다	비교적 자주 접한다	가끔 접한다	거의 접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2.9	25.8	51.5	19.8	100.0	
<b>성별</b>						
남자	3.3	28.6	52.4	15.7	100.0	229.854(3)***
여자	2.4	23.0	50.7	23.9	100.0	
<b>지역</b>						
도시[동부]	2.7	25.9	52.9	18.5	100.0	163.508(3)***
농어촌[읍면부]	3.4	25.7	45.3	25.7	100.0	
<b>연령</b>						
20~30대	3.7	30.0	52.5	13.8	100.0	947.067(6)***
40~50대	3.4	28.4	53.2	15.1	100.0	
60대 이상	1.3	18.0	48.4	32.3	100.0	
<b>학력</b>						
고졸이하	1.6	18.1	52.2	28.0	100.0	950.735(3)***
대재이상	3.9	32.4	50.9	12.8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8.0	39.7	41.6	10.8	100.0	813.388(9)***
사무판매서비스	3.0	28.3	53.7	15.0	100.0	
농림생산직	2.3	21.7	53.2	22.7	100.0	
비경활인구	1.8	21.3	49.8	27.2	100.0	
<b>종교</b>						
없음	2.8	25.7	54.4	17.1	100.0	80.888(3)***
있음	2.9	26.0	46.3	24.7	100.0	
<b>정치성향</b>						
진보	3.9	29.2	52.1	14.7	100.0	150.395(6)***
중도	3.0	26.4	50.3	20.4	100.0	
보수	1.8	22.2	52.8	23.2	100.0	

## (2) 헌법에 기본적 인권보호의 명시 여부를 알고 있는 정도

2023년도 조사에서 ‘우리 헌법에 기본적 인권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는 질문에 대해 안다(매우 잘 알고 있다+다소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1.7%로 2020년(73.1%)에 비해 11.4%p, 2021년(66.4%)대비 4.7%p, 작년(62.1%) 대비 0.4%p 줄어들어, 계속 감소세를 보이지만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다. 헌법의 기본권 보호 명시를 모른다(잘 모름+전혀 모름)는 응답은 26.9%(2020년)→33.6%(2021년)→37.9%(2022년)→38.3%(2023년)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그림4-2 |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매우 잘 안다+다소 안다)는 응답은 남성에서 68.1%, 여성에서 55.3%의 비율로 남성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도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는데, 내용을 안다는 응답이 20-30대에서 71.2%, 40-50대에서 66.4%, 60대 이상에서 45.4%로 나타나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도시의 62.2%, 농어촌의 59.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도시의 인지율이 더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은 해당 내용을 안다는 응답이 72.5%였던 데 반해, 고졸이하에서는 49.1%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명시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직업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명시 사실을 안다는 응답은 관리전문직(83.1%)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무관매서비스직(65.8%), 농림생산직(58.8%), 비경활 인구(52.3%)의 순서였다. 종교 여부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종교 없음은 63.7%, 종교 있음의 58.0%가 헌법상 기본권 보호 명시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치성향별로 봤을 때, 진보 70.3%, 중도 62.4%, 보수 53.5%가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대해 안다고 응답했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보수에서 9.9%, 중도에서 8.6%, 진보에서 7.3%로 나타나 안다는 응답과는 역순이었지만, 알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그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표4-2 |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

전체	매우 잘 알고 있다	다소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계	$\chi^2(df)$
☐ 전체 ☐	10.2	51.4	29.7	8.7	100.0	
성별						
남자	12.1	56.0	26.4	5.5	100.0	453.568(3)***
여자	8.4	46.8	32.9	11.8	100.0	
지역						
도시[동부]	10.2	52.0	30.0	7.8	100.0	150.070(3)***
농어촌[읍면부]	10.5	48.8	28.1	12.6	100.0	
연령						
20-30대	12.7	58.5	24.2	4.6	100.0	1,341.431(6)***
40-50대	11.4	54.9	27.8	5.9	100.0	
60대 이상	6.1	39.3	38.0	16.7	100.0	
학력						
고졸이하	5.9	43.2	37.3	13.6	100.0	1,452.129(3)***
대재이상	14.0	58.5	23.1	4.4	100.0	
직업						
관리전문직	29.7	53.4	13.4	3.5	100.0	1,133.371(9)***
사무판매서비스	9.8	56.0	28.5	5.7	100.0	
농림생산직	7.0	51.8	30.8	10.3	100.0	
비경활인구	8.1	44.3	34.5	13.2	100.0	
종교						
없음	9.5	54.2	29.0	7.3	100.0	91.297(3)***
있음	11.6	46.3	30.8	11.2	100.0	
정치성향						
진보	14.5	55.8	22.5	7.3	100.0	336.298(6)***
중도	9.6	52.8	28.9	8.6	100.0	
보수	7.7	45.8	36.6	9.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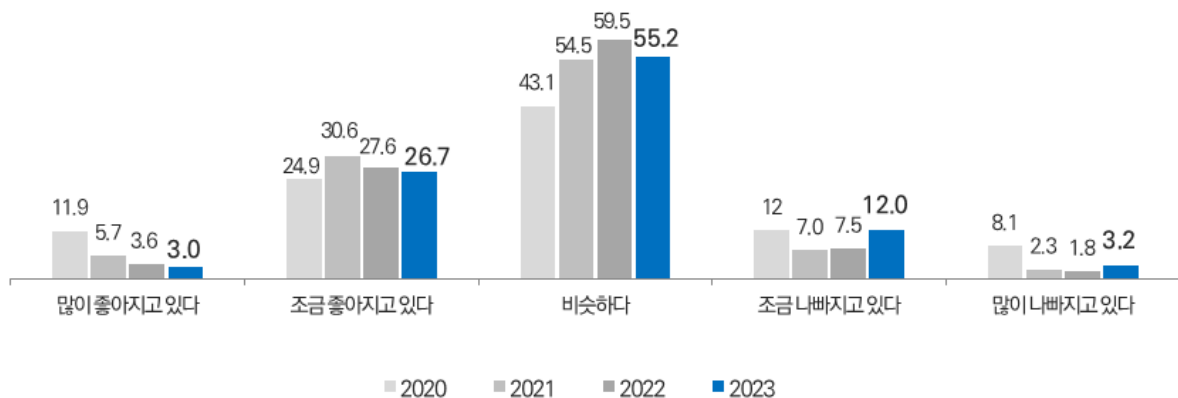
## 2) 한국 인권상황의 전반적 평가

### (1)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좋아지고 있다(많이+조금)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9.7%로 2020년(36.8%), 2021년(36.3%), 2022년(31.2%)에 비해 감소하였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55.2%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 대비 12.1%p 증가했으나 작년에 비해서는 4.3%p 감소한 수치이다. 나빠졌다(조금+많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15.1%로 2020년(20.1%)에 비해서는 5.0%p 줄었으나 2021년(9.3%), 2022년(9.3%)에 비해서는 5.8%p 증가한 것으로, 작년 조사에 비해 우리나라 인권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3 |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단위: %)



해당 문항에 대한 결과를 조사 대상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 등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별로 봤을 때, 좋아지고 있다(많이+조금)는 응답은 남성(31.8%)에서 여성(27.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나빠지고 있다(조금+많이)는 응답은 여성 15.6%, 남성 14.6%로 여성에서 높았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여성 56.7%, 남성 53.6%이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좋아지고 있다(많이+조금)는 응답이 40-50대에서는 31.9%, 20-30대에서 29.9%, 60대 이상에서는 26.7%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는 보였지만, 연령대 증가나 감소에 따른 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빠지고 있다(조금+많이)에 대해서는 40-50대가 16.4%로 가장 높았고, 20-30대가 15.6%, 60대 이상 집단에서는 13.0%였다. 비슷하다는 평가는 60대에서 60.3%로 가장 높았고, 20-30대에서 54.4%, 40-50대에서 51.7%였다.



거주 지역에 따라 보면, 도시의 30.6%, 농어촌의 25.5%가 좋아지고 있다(많이+조금)라고 응답했고 나빠지고 있다(조금+많이)는 응답은 도시 14.8%, 농어촌 16.6%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슷하다는 응답 비율은 농어촌(57.9%)이 도시(54.6%)에 비해 높았다.

학력별로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대학 재학 이상에서 더 높았고, (대재이상 32.7%, 고졸이하 26.2%),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 또한 대학 재학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대재이상 16.1%, 고졸 이상 14.1%). 작년과 비교 인권 상황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고졸이하 (59.7%)에서 대재이상(51.2%)보다 8.5%p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관리전문직(34.3%)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사무판매서비스직(32.5%), 농림생산직(27.3%), 비경활인구(25.9%)의 순서였다.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도 관리전문직(20.1%)이 가장 높았고 사무판매서비스(15.3%), 비경활인구(14.8%), 농림생산직(13.3%)의 순서로 나타나 농림생산직이 가장 낮았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농림생산직에서 가장 높아 59.3%였고, 비경활인구의 59.2%, 사무판매서비스직의 52.2%였으며, 관리전문직에서 45.7%로 가장 낮았다.

종교 없음에서 인권상황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30.2%,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55.4%로 같은 항목에 대해 각각 28.9%, 54.6%를 보인 종교 있음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가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고(36.2%), 다음으로 진보 (28.5%), 중도(25.9%) 순서였다.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진보(22.9%), 중도(14.6%), 보수(9.7%)로 나타나 진보가 가장 높았다. 비슷하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중도에서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4-3 |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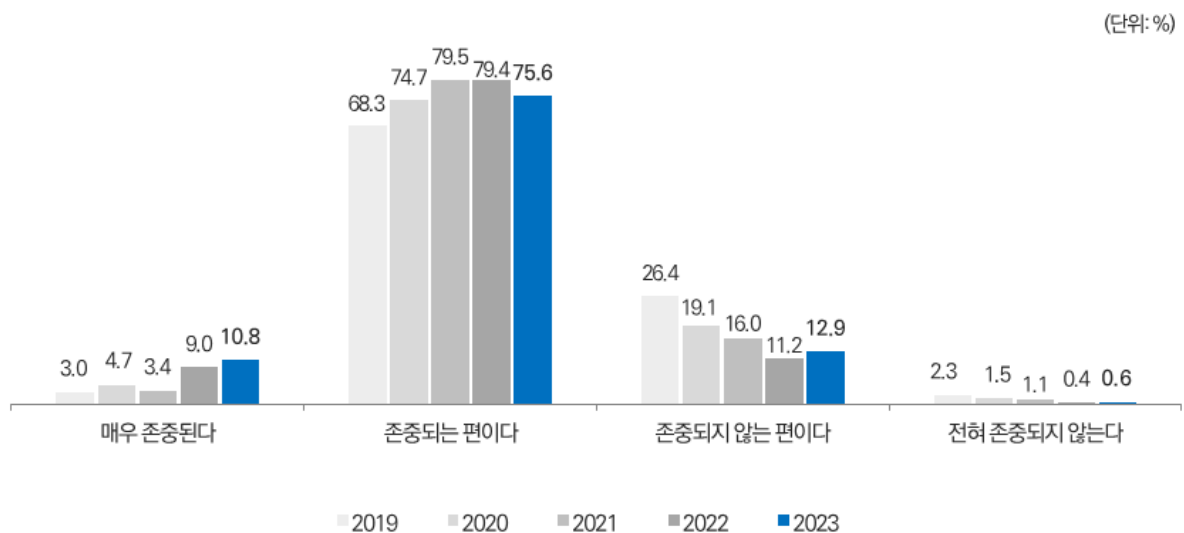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조금 좋아지고 있다	비슷하다	조금 나빠지고 있다	많이 나빠지고 있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3.0	26.7	55.2	12.0	3.2	100.0	
성별							
남자	3.4	28.4	53.6	11.7	3.0	100.0	16.166(4)**
여자	2.7	25.0	56.7	12.3	3.3	100.0	
지역							
도시[동부]	3.0	27.6	54.6	11.6	3.3	100.0	33.254(4)***
농어촌[읍면부]	3.0	22.5	57.9	14.0	2.7	100.0	
연령							
20-30대	3.6	26.3	54.4	12.5	3.1	100.0	114.175(8)***
40-50대	3.1	28.8	51.7	13.0	3.5	100.0	
60대 이상	2.3	24.4	60.3	10.2	2.8	100.0	
학력							
고졸이하	2.5	23.8	59.7	11.0	3.0	100.0	155.717(4)***
대재이상	3.5	29.2	51.2	12.8	3.2	100.0	
직업							
관리전문직	6.6	27.6	45.7	13.5	6.6	100.0	238.658(12)** *
사무판매서비스	3.0	29.6	52.2	12.7	2.6	100.0	
농림생산직	2.2	25.2	59.3	10.5	2.9	100.0	
비경활인구	2.7	23.2	59.2	11.5	3.4	100.0	
종교							
없음	2.9	27.3	55.4	11.7	2.7	100.0	11.382(4)*
있음	3.3	25.5	54.6	12.6	4.0	100.0	
정치성향							
진보	2.5	25.9	48.7	17.9	5.0	100.0	324.106(8)***
중도	3.0	22.9	59.5	11.6	3.0	100.0	
보수	3.4	32.8	54.1	7.8	1.9	100.0	

## (2) 우리나라의 인권 존중에 대한 평가-본인 인권

우리나라의 인권 존중에 관한 평가 중 본인의 인권이 존중된다(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는 응답은 86.5%로, 이는 2022년에 비해 1.9%p 감소한 수치이다. 존중된다는 응답은 2019년 이래 증가 추세였으나(2019년 71.3%→2020년 79.4%→2021년 82.9%→2022년 88.4%), 올해 처음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4-4 |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본인 인권



본인의 인권이 존중된다(매우 존중+존중되는 편)는 응답은 남성의 86.7%, 여성의 86.3%로 거의 비슷했고, 카이검증 결과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 외 특성에 따른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봤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본인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을 했는데, 20-30대 응답자의 87.9%, 40-50대 응답자의 87.1%, 60대 이상은 84.1%였다.

도시는 87.2%, 농어촌은 82.9%가 본인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답해, 도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본인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인식이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84.6%)에 비해 대재이상 (88.0%)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의 88.2%가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어서 농림생산직 87.6%, 사무판매회서비스직 87.2%, 비경활인구 84.4%의 순서로 나타났다.

종교 있음에서 본인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86.6%, 종교 없음에서 86.4%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에서 본인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88.3%) 이어서 중도(85.8%), 진보(85.4%) 순서였다.

표4-4 |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본인 인권

단위 : %

구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10.8	75.6	12.9	0.6	100.0	
성별						
남자	11.4	75.2	12.8	0.5	100.0	5.199(3)
여자	10.2	76.0	13.0	0.7	100.0	
지역						
도시[동부]	11.0	76.3	12.3	0.5	100.0	10.390(3)*
농어촌[읍면부]	10.2	72.8	15.9	1.2	100.0	
연령						
20-30대	12.7	75.2	11.5	0.6	100.0	55.728(6)***
40-50대	11.2	75.9	12.5	0.4	100.0	
60대 이상	8.3	75.8	15.0	0.9	100.0	
학력						
고졸이하	8.6	76.0	14.5	0.9	100.0	99.644(3)***
대재이상	12.7	75.3	11.6	0.4	100.0	
직업						
관리전문직	14.0	74.2	11.0	0.8	100.0	115.781(9)***
사무판매서비스	12.9	74.3	12.4	0.4	100.0	
농림생산직	7.6	79.9	12.1	0.4	100.0	
비경활인구	8.9	75.5	14.7	0.9	100.0	
종교						
없음	10.4	76.0	13.2	0.4	100.0	12.572(3)**
있음	11.6	75.0	12.4	1.0	100.0	
정치성향						
진보	12.3	73.1	13.7	0.9	100.0	52.147(6)***
중도	8.7	77.1	13.7	0.5	100.0	
보수	12.7	75.6	11.2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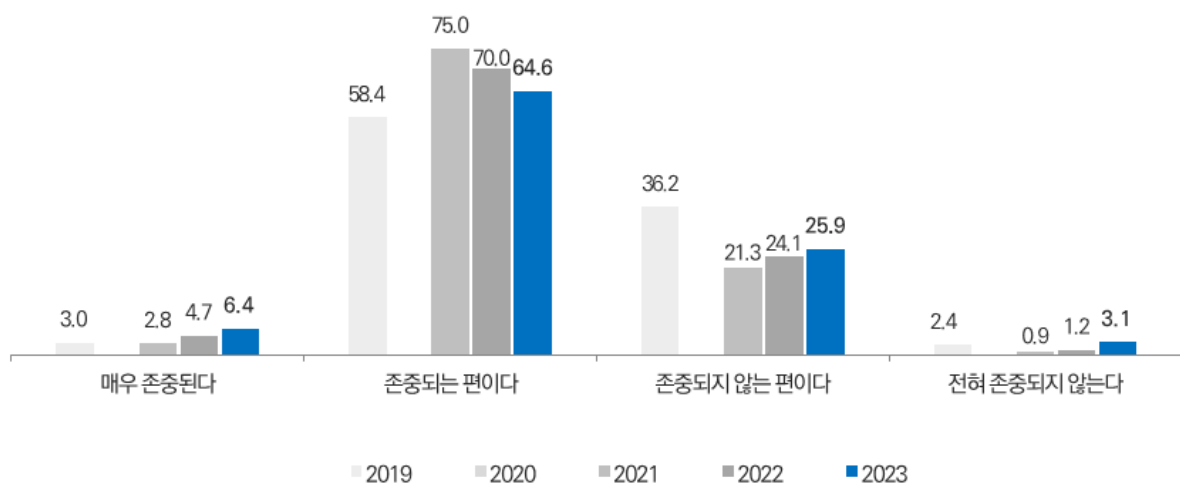
### (3)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2023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사회 전반의 인권이 존중된다(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는 응답은 71.0%였고, 존중되지 않는다(존중되지 않는 편이다+전혀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0%였다.

우리나라에서 사회 전반의 인권이 존중된다(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는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도 61.4%에 비해 2023년도는 9.6%p 증가했으나(71.0%), 2021년(77.8%) 대비해서는 6.8%p, 2022년(74.7%) 대비해서는 3.7%p 감소했다.

그림4-5 |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전반적 인권

(단위: %)



2023년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에 대해 남성 71.1%, 여성 70.9%가 존중된다고 응답해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는데, 도시의 71.4%, 농어촌의 69.4%가 사회 전반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20-30대에서는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72.1%, 60대 이상에서는 70.8%, 40-50대는 70.2%이었다. 반면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 또한 20-30대에서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50대 2.9%, 60대 이상 3.0%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이상은 71.4%, 고졸이하는 70.5%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직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 전반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농림생산직으로 74.4%였다. 그 외의 직업군에서는 사무판매팀서비스직 70.5%, 비경활인구 70.1%, 관리전문직 70.0% 순이었다.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면, 종교 없음의 71.2%, 종교 있음의 70.6%가 사회 전반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을 했으며 그 차이는 크지 않았던 반면,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에 있어서는 종교 있음 4.0%, 종교 없음의 2.5%가 해당 응답을 하여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에 따라 살펴보면, 보수의 77.7%가 존중된다고 응답했고, 중도는 68.1%, 진보는 68.0%로 비슷하게 나타나서, 보수 성향이 사회 전반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4-5 |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전반적 인권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6.4	64.6	25.9	3.1	100.0	
성별						
남자	6.8	64.3	25.9	3.0	100.0	1.862(3)
여자	6.0	64.9	25.9	3.1	100.0	
지역						
도시[동부]	6.7	64.7	25.8	2.8	100.0	1.377(3)
농어촌[읍면부]	5.1	64.3	26.5	4.2	100.0	
연령						
20-30대	7.5	64.6	24.5	3.3	100.0	34.025(6)***
40-50대	6.3	63.9	26.9	2.9	100.0	
60대 이상	5.3	65.5	26.2	3.0	100.0	
학력						
고졸이하	5.9	64.7	26.3	3.1	100.0	9.716(3)*
대재이상	6.9	64.5	25.6	3.0	100.0	
직업						
관리전문직	5.2	64.8	27.4	2.6	100.0	37.008(9)***
사무판매서비스	7.5	63.1	26.1	3.4	100.0	
농림생산직	5.2	69.1	23.4	2.2	100.0	
비경활인구	5.9	64.2	26.7	3.2	100.0	
종교						
없음	6.8	64.5	26.2	2.5	100.0	17.333(3)**
있음	5.8	64.8	25.4	4.0	100.0	
정치성향						
진보	6.4	61.6	27.6	4.4	100.0	222.160(6)***
중도	4.1	64.0	28.9	3.0	100.0	
보수	9.8	67.9	20.3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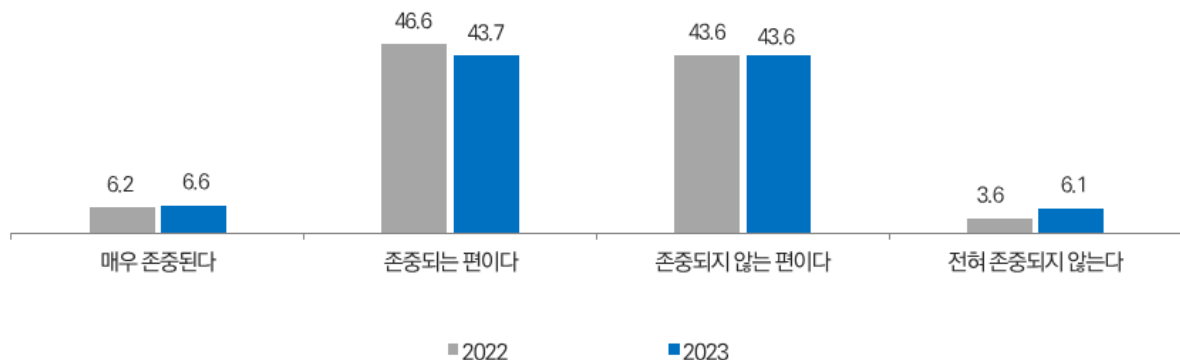
#### (4)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 존중 수준 인식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해 존중된다(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는 응답은 50.3%, 존중되지 않는다(존중되지 않는 편이다+전혀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7%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은 2022년 조사 결과인 52.8%에 비해 올해 50.3%로 2.5%p 감소하였다.

그림4-6 |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사회적 약자/소수자

(단위: %)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을 제외한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여부,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50.0%)에 비해 도시(50.4%)에서 존중된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높았고, 그 중 매우 존중된다는 의견이 농어촌(4.0%)에 비해 도시(7.1%)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20-30대 집단에서 가장 높은 52.4%였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에서 50.6%, 40-50대 집단에서 48.3%로 가장 낮았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의 50.9%가 긍정 응답을 했고, 대재이상은 49.8%가 긍정 응답을 하여, 1.1%p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생산직에서 51.1%로 존중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비경활인구 50.9%, 사무판매서비스직 50.1%였으며, 관리전문직은 47.0%로 가장 낮았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도 관리전문직에서 9.4%로 가장 높게 나타나 타 직업에 비해 관리전문직이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우리나라 인권 존중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는 0.6%p로 크지 않았는데, 종교 없음 긍정 응답이 50.5%, 종교 있음은 49.9%로 무종교자의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

정치성향의 경우 보수에서 긍정 응답이 5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도(48.7%), 진보(44.8%)의 순서

였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도 보수는 3.9%로 가장 낮았고 중도 6.5%, 진보 8.2%로 나타나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존중 수준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6 I**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사회적 약자/소수자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6.6	43.7	43.6	6.1	100.0	
<b>성별</b>						
남자	7.2	44.1	42.8	5.9	100.0	1.954(3)
여자	6.0	43.3	44.4	6.3	100.0	
<b>지역</b>						
도시[동부]	7.1	43.2	43.8	5.9	100.0	24.138(3)***
농어촌[읍면부]	4.0	45.9	42.8	7.2	100.0	
<b>연령</b>						
20-30대	8.3	44.0	41.1	6.6	100.0	69.718(6)***
40-50대	6.0	42.3	45.9	5.9	100.0	
60대 이상	5.4	45.2	43.4	6.0	100.0	
<b>학력</b>						
고졸이하	5.6	45.3	43.4	5.7	100.0	51.863(3)***
대재이상	7.4	42.4	43.8	6.5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5.9	41.1	43.6	9.4	100.0	97.040(9)***
사무판매서비스	8.3	41.8	43.3	6.6	100.0	
농림생산직	3.9	47.2	43.6	5.3	100.0	
비경활인구	5.8	45.2	43.9	5.2	100.0	
<b>종교</b>						
없음	6.7	43.8	44.0	5.5	100.0	22.547(3)***
있음	6.4	43.5	42.8	7.3	100.0	
<b>정치성향</b>						
진보	6.5	38.3	47.0	8.2	100.0	191.648(6)***
중도	5.1	43.6	44.8	6.5	100.0	
보수	8.7	48.4	39.0	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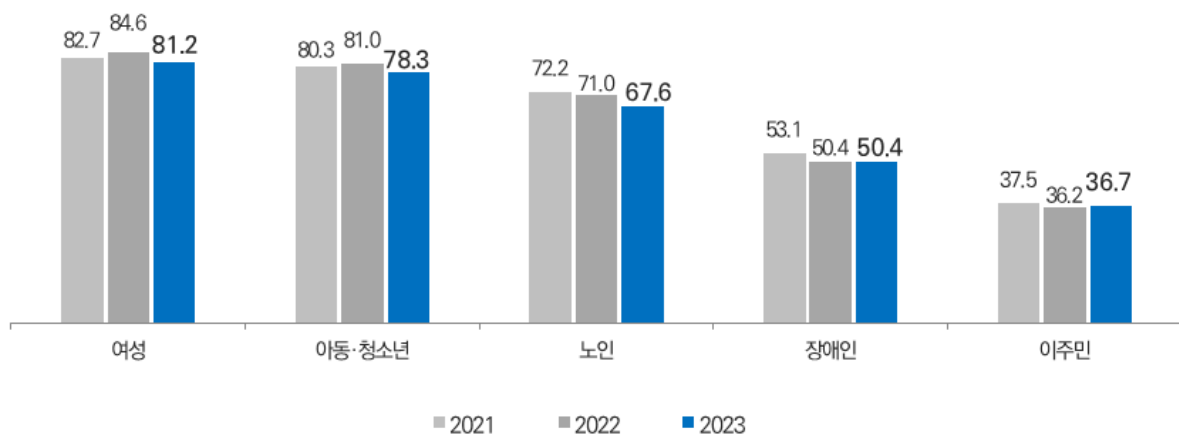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취약집단을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집단에 대한 인권 존중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각 세부 집단에 대해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비율을 보면, 여성은 전체의 81.2%, 이어서 아동·청소년 인권 78.3%, 노인 인권 67.6%, 장애인 인권 50.4%, 이주민 인권 36.7%의 순서로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2021년부터 2023년의 비율 추이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2021년에는 82.7%, 2022년에는 84.6%였으나 2023년에는 81.2%로 나타나 2021년에 비해서 1.5%p, 작년 대비 3.4%p 감소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인식은 2021년 대비 2.0%p, 2022년 대비 2.7%p 감소했다. 노인 인권 존중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은 2021년 대비 4.6%p, 작년 대비 3.4%p 감소했다. 장애인 인권 존중 항목은 2021년에 비해서 2.7%p 감소했지만 작년과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2021년에 비해서 0.8%p 감소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0.5%p 상승하였다. 즉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존중되고 있다는 인식 수준은 높지만 비율은 2022년 대비 감소하였고, 장애인과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은 다른 약자/소수자 집단의 인권 대비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작년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4-7 |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단위: %)



## ①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긍정 응답(매우 존중+존중되는 편)은 81.2%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여성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에서 성별을 보면 남성은 85.5%, 여성은 77.0%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여성 인권이 존중된다고 인식하였다.

도시의 81.4%, 농어촌의 80.5%가 긍정 응답을 했으며, 고졸이하(81.8%)가 대재이상(80.7%)에 비해 여성 인권이 존중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여성 인권이 존중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82.6%), 다음으로 40-50대 이상 80.8%, 20-30대 이상 80.4%의 순서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86.7%), 관리전문직(82.4%), 사무판매팀서비스(80.1%), 비경활인구(79.6%)의 순서였다. 가치관 특성 중 종교를 보면, 종교 없음의 81.7%가, 종교가 있음의 80.3%가 여성 인권이 존중된다고 응답했다. 정치성향을 봤을 때 보수에서 85.2%로 가장 높았고, 진보(79.5%)와 중도(79.4%)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4-7 |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여성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9.9	71.4	17.3	1.4	100.0	
성별						
남자	12.2	73.3	13.5	1.0	100.0	187.073(3)***
여자	7.5	69.5	21.1	1.9	100.0	
지역						
도시(동부)	10.0	71.4	17.2	1.4	100.0	17.842(3)***
농어촌(읍면부)	9.4	71.1	17.8	1.7	100.0	
연령						
20-30대	11.8	68.6	17.9	1.7	100.0	53.319(6)***
40-50대	8.9	71.9	17.9	1.3	100.0	
60대 이상	8.9	73.7	16.0	1.4	100.0	
학력						
고졸이하	9.0	72.8	17.0	1.2	100.0	26.496(3)***
대재이상	10.6	70.1	17.6	1.6	100.0	
직업						
관리전문직	14.1	68.4	14.8	2.7	100.0	72.062(9)***
사무판매팀서비스	10.5	69.6	18.2	1.7	100.0	
농림생산직	9.2	77.5	12.3	1.0	100.0	
비경활인구	8.3	71.2	19.4	1.0	100.0	
종교						
없음	10.3	71.4	17.3	1.0	100.0	23.165(3)***
있음	9.1	71.3	17.4	2.3	100.0	
정치성향						
진보	10.6	68.9	18.5	2.0	100.0	103.321(6)***
중도	8.2	71.3	19.1	1.5	100.0	
보수	11.6	73.5	13.9	1.0	100.0	

## ②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의 78.3%가 긍정 응답(매우 존중+존중되는 편)을 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6개 중 5개의 항목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성별을 보면 남성은 79.3%가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된다고 인식했고, 여성은 77.3%로,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된다는 인식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81.1%). 이어 40~50대에서 긍정 응답은 78.6%로 두 번째였고, 20~30대는 75.3%로 가장 낮았다.

지역을 보면 농어촌에서 긍정 인식이 79.2%였고, 도시는 78.1%로 농어촌에서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인식은 농림생산직에서 가장 높았고(84.5%), 이어서 관리전문직(81.1%), 비경활인구(77.7%), 사무판매서비스(75.8%)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치관 특성을 살펴보면, 종교 유무에 따른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교 없음, 종교 있음 모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이 78.3%이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가 81.8%로 가장 높았고, 중도는 77.8%, 진보는 74.8%였다.

표4-8 |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아동·청소년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13.9	64.3	18.9	2.8	100.0	
<b>성별</b>						
남자	15.1	64.2	18.3	2.4	100.0	15.215(3)**
여자	12.8	64.5	19.5	3.2	100.0	
<b>지역</b>						
도시[동부]	14.1	64.0	19.1	2.8	100.0	36.353(3)***
농어촌[읍면부]	13.3	65.9	18.1	2.7	100.0	
<b>연령</b>						
20~30대	14.9	60.3	21.3	3.4	100.0	78.921(6)***
40~50대	13.7	64.9	18.8	2.6	100.0	
60대 이상	13.1	68.0	16.5	2.4	100.0	
<b>학력</b>						
고졸이하	13.3	67.7	16.8	2.2	100.0	63.382(3)***
대재이상	14.5	61.4	20.7	3.3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8.2	62.8	16.9	2.1	100.0	109.410(9)***
사무판매서비스	14.8	61.0	20.2	4.0	100.0	
농림생산직	13.3	71.2	14.3	1.2	100.0	
비경활인구	12.0	65.7	20.2	2.1	100.0	
<b>종교</b>						
없음	13.6	64.7	18.8	2.9	100.0	1.262(3)
있음	14.5	63.7	19.1	2.6	100.0	
<b>정치성향</b>						
진보	14.4	60.4	21.7	3.6	100.0	81.032(6)***
중도	12.3	65.4	19.5	2.7	100.0	
보수	15.9	66.0	15.9	2.3	100.0	

**③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에 대해 전체의 67.6%가 존중된다(매우 존중+존중되는 편)는 응답을 하였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서 노인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남성 69.2%, 여성 66.0%). 농어촌에서 긍정 응답이 69.6%, 도시는 67.2%로 농어촌이 노인 인권 존중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은 집단에서 노인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30대에서는 긍정 응답이 68.9%, 40-50대에서는 67.2%, 60대 이상에서는 66.7%였다.

학력 면에서는 대재이상과 고졸이하 사이의 응답 비율 차이가 0.2%p로 크지 않았다(대재이상 67.7%, 고졸이하 67.5%). 직업 특성을 고려하면, 노인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집단은 농림생산직이었고(71.1%), 이어서 관리전문직(68.8%), 비경활인구(67.1%), 사무판매서비스(66.4%)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치관 측면을 보면, 종교 있음에서 긍정 응답이 더 높았지만(67.9%), 종교 없음(67.4%)과 차이가 0.5%p로 작았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에서 긍정 응답이 70.4%로 가장 높았고, 중도는 67.1%, 진보는 64.9%로 가장 낮았다.

성별을 제외하고는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9 |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노인**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9.8	57.8	28.8	3.6	100.0	
<b>성별</b>						
남자	10.2	59.0	27.5	3.3	100.0	5.996(3)
여자	9.3	56.7	30.1	3.9	100.0	
<b>지역</b>						
도시[동부]	10.1	57.0	29.3	3.6	100.0	27.672(3)***
농어촌[읍면부]	8.1	61.6	26.7	3.7	100.0	
<b>연령</b>						
20-30대	10.8	58.1	26.7	4.4	100.0	19.920(6)**
40-50대	9.3	57.9	29.8	3.0	100.0	
60대 이상	9.2	57.6	29.8	3.4	100.0	
<b>학력</b>						
고졸이하	9.1	58.4	29.2	3.3	100.0	12.140(3)**
대재이상	10.3	57.4	28.5	3.9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1.0	57.8	28.5	2.7	100.0	66.222(9)***
사무판매서비스	10.8	55.6	29.2	4.4	100.0	
농림생산직	7.9	63.2	27.0	2.0	100.0	
비경활인구	9.1	58.1	29.3	3.6	100.0	
<b>종교</b>						
없음	9.5	57.9	29.5	3.1	100.0	14.180(3)**
있음	10.2	57.8	27.6	4.5	100.0	
<b>정치성향</b>						
진보	9.9	55.1	30.4	4.7	100.0	73.578(6)***
중도	8.6	58.6	29.4	3.5	100.0	
보수	11.4	59.1	26.8	2.8	100.0	

## ④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는지에 대해 존중받는다(매우 존중+존중되는 편)는 긍정 응답 비율은 전체의 50.4%였다. 앞서 조사한 다른 사회적 약자/소수자 집단의 인권 존중에 대한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보다 남성에서 긍정 응답이 높았고(남성 52.2%, 여성 48.6%), 농어촌과 도시 사이에서는 긍정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농어촌 50.7%, 도시 50.3%). 다만 성별,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연령별 특성을 보면, 20-30대, 40-50대, 60대 이상의 세 집단에서 긍정 응답은 유사했다(20-30대 50.6%, 60대 이상 50.6%, 40-50대 50.0%).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긍정 응답이 더 높았으나(51.0%), 대재이상(49.9%)에 비해 1.1%p 차이로 격차는 크지 않았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생산직에서 긍정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51.1%로 가장 높았으나 사무판매서비스(50.4%), 관리전문직(50.1%), 비경제활동인구(50.0%)와 대비해 그 차이는 작았다.

가치관 특성에서 종교 있음의 긍정 응답이 51.8%로 더 높았고, 종교 없음에서 긍정 응답은 49.6%이었다.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보수의 56.5%가 긍정 응답을 해, 중도(49.6%)에 비해 6.9%p 높았다. 진보의 긍정 응답은 44.2%로 절반에 못 미쳤고, 긍정 응답에 있어서 보수-진보의 차이는 12.3%p였다.

표4-10 |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장애인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7.2	43.1	43.1	6.5	100.0	
<b>성별</b>						
남자	7.9	44.3	41.6	6.2	100.0	5.754(3)
여자	6.6	42.0	44.7	6.8	100.0	
<b>지역</b>						
도시(동부)	7.7	42.7	43.1	6.6	100.0	0.856(3)
농어촌(읍면부)	5.3	45.3	43.3	6.1	100.0	
<b>연령</b>						
20-30대	8.0	42.6	42.2	7.2	100.0	33.745(6)***
40-50대	6.6	43.4	44.1	5.9	100.0	
60대 이상	7.2	43.4	43.0	6.4	100.0	
<b>학력</b>						
고졸이하	7.1	43.9	42.1	6.9	100.0	18.766(3)***
대재이상	7.3	42.5	44.0	6.1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7.8	42.3	42.1	7.8	100.0	40.906(9)***
사무판매서비스	7.8	42.6	42.5	7.1	100.0	
농림생산직	5.9	45.2	44.3	4.6	100.0	
비경제활동인구	7.0	43.0	43.7	6.4	100.0	
<b>종교</b>						
없음	6.9	42.7	44.7	5.7	100.0	20.328(3)***
있음	7.9	43.9	40.3	7.9	100.0	
<b>정치성향</b>						
진보	6.0	38.2	47.3	8.5	100.0	156.094(6)***
중도	6.3	43.3	44.0	6.4	100.0	
보수	9.6	46.9	38.6	5.0	100.0	

**⑤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

결혼 이주자나 이주 노동자 등의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6.7%만이 존중된다(매우+존중되는 편)고 답변해 절반에 채 못 미쳤다.

해당 질문의 결과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앞서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남성에서 여성에 비해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남성 37.1%, 여성 36.3%). 농어촌은 40.9%, 도시는 35.8%가 긍정 응답을 하여,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5.1%p로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30대(38.3%)였고, 60대 이상에서 37.1%, 40-50대에서 34.9%였다. 고졸이하에서 긍정 응답은 37.7%로 대재이상(35.8%)에 비해 높았다.

직업 특성을 보면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집단은 농림생산직(37.9%)이었고, 사무판매서비스 36.9%, 관리전문직 36.2%, 비경활인구 35.7%의 순서였지만, 가장 높은 농림생산직과 가장 낮은 비경활인구의 차이는 2.2%p로 크지 않았다. 가치관 특성을 보면 종교 있음(37.4%)이 종교 없음(36.2%)에 비해 긍정 응답이 높았다. 정치성향 보수에서 긍정 응답이 42.1%로 가장 높았고, 중도가 35.2%, 진보가 32.5%였다.

**표4-11 |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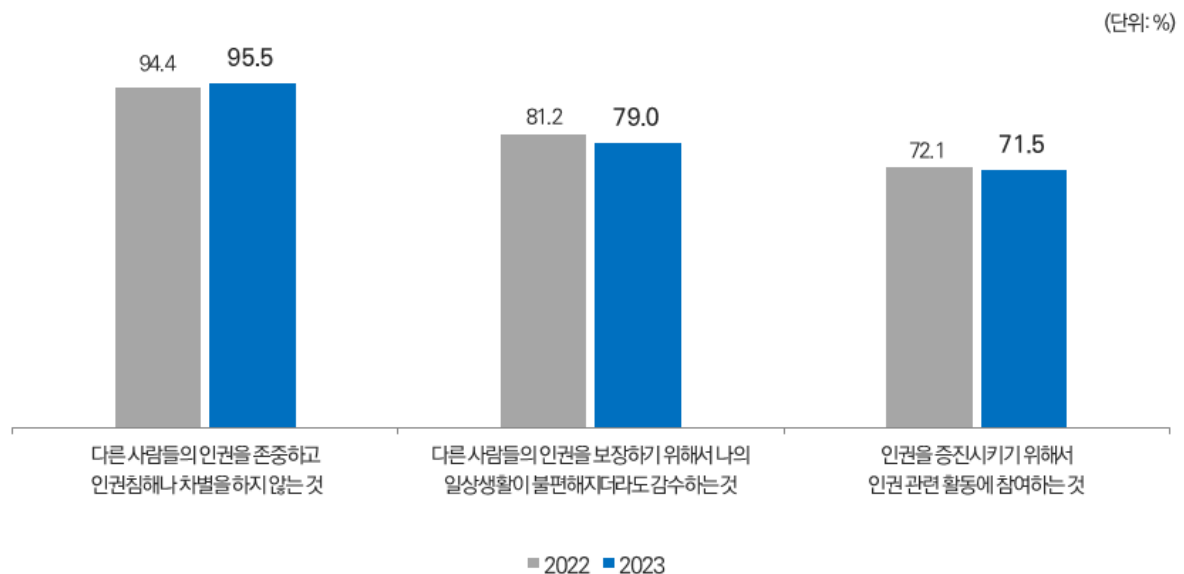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4.0	32.6	54.3	9.1	100.0	
<b>성별</b>						
남자	4.5	32.6	54.1	8.8	100.0	8.655(3)*
여자	3.6	32.7	54.4	9.4	100.0	
<b>지역</b>						
도시(동부)	4.1	31.6	55.2	9.1	100.0	20.785(3)***
농어촌(읍면부)	3.7	37.2	50.0	9.1	100.0	
<b>연령</b>						
20-30대	5.3	33.0	52.0	9.7	100.0	83.108(6)***
40-50대	3.8	31.1	56.4	8.7	100.0	
60대 이상	2.9	34.2	54.0	8.9	100.0	
<b>학력</b>						
고졸이하	3.1	34.6	53.2	9.0	100.0	58.953(3)***
대재이상	4.9	30.9	55.2	9.1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4.4	31.8	52.1	11.8	100.0	62.597(9)***
사무판매서비스	5.2	31.8	53.6	9.5	100.0	
농림생산직	3.0	35.0	54.2	7.9	100.0	
비경활인구	3.0	32.8	55.8	8.5	100.0	
<b>종교</b>						
없음	4.3	31.9	55.8	7.9	100.0	16.308(3)**
있음	3.5	33.9	51.4	11.1	100.0	
<b>정치성향</b>						
진보	3.4	29.1	56.8	10.7	100.0	108.542(6)***
중도	3.1	32.1	55.2	9.6	100.0	
보수	5.9	36.2	50.9	7.0	100.0	

## (5)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태도

2023년도 조사에서 각 문항별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매우 필요+필요한 편)을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왔고(95.5%), 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 지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79.0%,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71.5%였다.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순서는 동일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작년도 94.4%에 비해 1.1%p 상승했다.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작년도에 비해 2.2%p 감소했고,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작년에 비해 0.6%p로 소폭 감소했다.

그림4-8 |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 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긍정 응답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남성 95.8%, 여성 95.3%). 거주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에서 96.0%, 도시에서 95.4%가 긍정 응답을 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긍정 응답이 96.4%로 제일 높았고, 40-50대에서는 95.8%, 20-30대에서는 94.5%였다. 고졸이하에서 96.1%, 대재이상의 95.0%가 긍정 응답을 하였다.

직업별로 보면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집단은 관리전문직이었고(97.0%), 이어 농림생산직(96.4%), 비경활인구(95.9%), 사무판매서비스(94.7%)의 순서였다

가치관 측면을 보면 종교 있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96.7%),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이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보수 95.8%, 중도 95.5%, 진보 95.2%).

표4-12 |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단위 : %

전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chi^2(df)$
▣ 전체 ▣	37.6	57.9	4.2	0.2	100.0	
<b>성별</b>						
남자	37.5	58.3	4.0	0.2	100.0	1.597(3)
여자	37.8	57.5	4.4	0.3	100.0	
<b>지역</b>						
도시[동부]	36.6	58.9	4.4	0.2	100.0	67.303(3)***
농어촌[읍면부]	42.6	53.4	3.7	0.3	100.0	
<b>연령</b>						
20-30대	39.1	55.4	5.2	0.3	100.0	19.348(6)**
40-50대	37.6	58.2	4.0	0.2	100.0	
60대 이상	36.2	60.2	3.4	0.2	100.0	
<b>학력</b>						
고졸이하	36.5	59.6	3.6	0.3	100.0	31.776(3)***
대재이상	38.6	56.4	4.8	0.2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50.2	46.8	3.0	0.0	100.0	62.764(9)***
사무판매서비스	35.9	58.7	5.0	0.3	100.0	
농림생산직	36.3	60.1	3.4	0.3	100.0	
비경활인구	37.8	58.1	3.9	0.2	100.0	
<b>종교</b>						
없음	35.8	59.0	4.9	0.3	100.0	53.089(3)***
있음	40.9	55.8	3.1	0.2	100.0	
<b>정치성향</b>						
진보	40.1	55.2	4.5	0.3	100.0	41.507(6)***
중도	37.8	57.7	4.3	0.3	100.0	
보수	35.5	60.4	4.0	0.1	100.0	



## ②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태도 중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긍정 응답은 각각 78.9%와 79.1%로 여성에서 긍정 응답이 더 높았으나 0.2%p로 작았다. 농어촌의 긍정 응답은 79.4%로 도시의 긍정 응답(78.9%)에 비해 소폭 높았다. 성별과 거주 지역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긍정 응답이 79.6%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20-30대에서 78.9%, 40-50대에서 78.6%로 두 집단이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학력을 고려하면, 대재이상의 긍정 응답이 79.1%, 고졸이하는 78.9%로 유사했다.

직업 특성별로 보면, 집단별 긍정 응답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사무판매서비스 79.3%, 농림생산직 79.2%, 관리전문직 78.8%, 비경활인구 78.5%의 순서였다.

가치관 측면을 보면, 종교 있음이 80.1%로 긍정 응답이 더 높았고, 정치성향에 있어서는 진보가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중도 78.6%, 보수 78.2%의 순이었다.

표4-13 |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단위 : %

전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17.0	62.0	18.4	2.6	100.0	
<b>성별</b>						
남자	17.6	61.4	18.5	2.6	100.0	1.900(3)
여자	16.5	62.6	18.3	2.6	100.0	
<b>지역</b>						
도시(동부)	17.2	61.7	18.5	2.6	100.0	3.267(3)
농어촌(읍면부)	16.2	63.2	17.9	2.7	100.0	
<b>연령</b>						
20-30대	16.8	62.2	17.4	3.7	100.0	32.528(6)***
40-50대	17.6	61.0	19.4	2.0	100.0	
60대 이상	16.5	63.2	18.2	2.1	100.0	
<b>학력</b>						
고졸이하	15.9	63.0	18.4	2.6	100.0	20.616(3)***
대재이상	17.9	61.2	18.4	2.6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8.8	59.9	18.9	2.3	100.0	34.308(9)***
사무판매서비스	18.5	60.8	17.7	3.0	100.0	
농림생산직	13.9	65.3	18.8	2.1	100.0	
비경활인구	16.2	62.4	19.0	2.4	100.0	
<b>종교</b>						
없음	15.2	63.2	18.7	2.9	100.0	15.650(3)**
있음	20.2	59.9	17.8	2.1	100.0	
<b>정치성향</b>						
진보	20.1	60.7	16.8	2.3	100.0	58.179(6)***
중도	15.4	63.2	18.7	2.8	100.0	
보수	16.8	61.3	19.2	2.6	100.0	

### ③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태도 중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긍정 응답은 성별별로 유사했다. 여성의 경우 71.8%, 남성의 경우 71.3%의 긍정 응답이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도시에서 71.9%로 농어촌 70.0%에 비해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 집단의 긍정 응답이 73.7%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40-50대(72.0%), 60대 이상(68.6%)의 순서였다. 20-30대와 60대의 긍정 응답 차이는 5.1%p로 큰 편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다.

학력을 보면 대재이상은 73.4%의 긍정 응답을, 고졸이하는 69.4%가 긍정 응답을 나타냈다.

관리전문직은 75.7%가 긍정 응답하여 직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 사무판매 서비스는 73.5%, 비경활인구 69.4%, 농림생산직이 68.5%로 가장 낮았다.

정치성향은 집단별로 긍정 응답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진보가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보수 70.2%, 중도 69.9%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4-14 |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단위 : %

전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12.8	58.8	25.4	3.0	100.0	
<b>성별</b>						
남자	12.9	58.4	25.8	2.9	100.0	3.434(3)
여자	12.6	59.1	25.1	3.1	100.0	
<b>지역</b>						
도시(동부)	12.6	59.2	25.4	2.8	100.0	52.932(3)***
농어촌(읍면부)	13.3	56.7	25.6	4.4	100.0	
<b>연령</b>						
20-30대	12.9	60.8	24.1	2.3	100.0	113.036(6)***
40-50대	13.3	58.7	25.4	2.6	100.0	
60대 이상	12.0	56.6	27.0	4.5	100.0	
<b>학력</b>						
고졸이하	12.2	57.2	26.6	4.0	100.0	102.513(3)***
대재이상	13.3	60.1	24.4	2.2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3.6	62.1	22.4	1.9	100.0	126.840(9)***
사무판매서비스	14.4	59.2	24.2	2.2	100.0	
농림생산직	10.5	58.0	26.9	4.6	100.0	
비경활인구	11.5	57.9	27.1	3.6	100.0	
<b>종교</b>						
없음	11.9	59.5	25.6	2.9	100.0	7.046(3)
있음	14.2	57.4	25.1	3.3	100.0	
<b>정치성향</b>						
진보	15.1	61.1	22.0	1.8	100.0	148.653(6)***
중도	11.7	58.2	27.0	3.1	100.0	
보수	12.4	57.7	25.9	3.9	100.0	

## (6) 인권에 대한 의견

인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5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확인해본 결과, 문항별로 동의한다는 응답(매우 동의+동의하는 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첫 번째 문항인 '인권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19.1%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동일 문항에 대해서 2022년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0.2%였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근소하나마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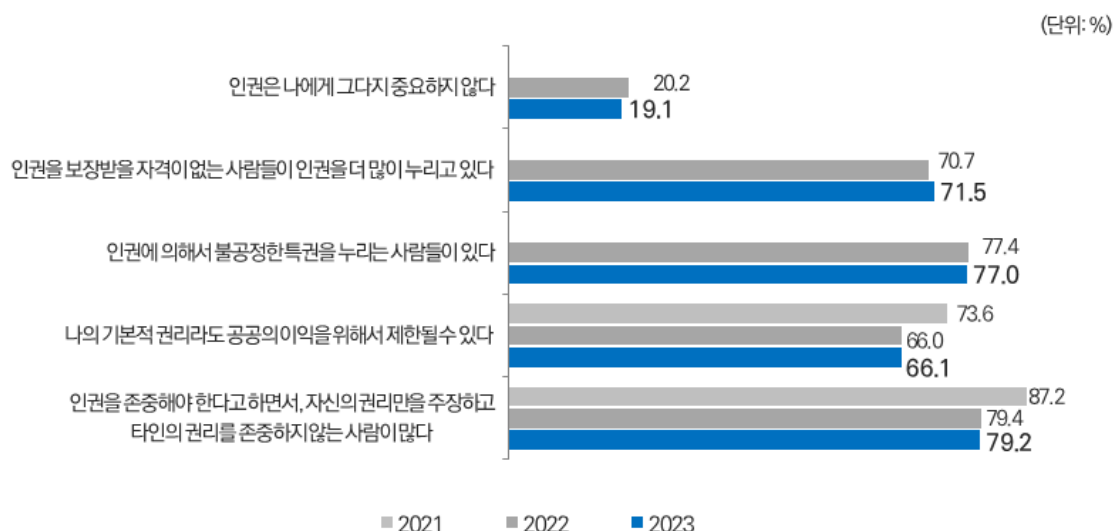
두 번째 문항인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에 대해서는 2023년에 전체 응답자의 71.5%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하여, 2022년(70.7%) 대비 0.8%p로 소폭 증가했다.

세 번째로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에 대해서 2023년 전체의 77.0%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2022년의 77.4%에 0.4%p 감소한 것으로 인식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네 번째로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에 대해서 2023년 응답자의 66.1%가 동의한다고 했다. 이는 2022년(66.0%)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2021년 조사에 비해서는 7.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2023년 응답자의 79.2%가 동의했으며, 이는 2022년(79.4%)과는 유사한 비율이며, 2021년 87.2%에 비해서는 8.0%p 감소하였다.

그림4-9 |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① 인권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인권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중 ‘인권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질문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권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남성 19.9%, 여성 18.3%), 도시(20.1%)가 농어촌(14.2%)에 비해 5.9%p 높았다.

연령별로 봤을 때, 40-50대 집단에서 19.9%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18.7%, 20-30대는 18.5%였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고졸이하 19.5%, 대재이상 18.7%).

직업별로 보면, 사무판매서비스직의 21.4%가 동의한다고 해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이어서 비경활 인구 18.4%, 농림생산직 15.8%, 관리전문직 15.6%의 순서였다.

가치관 특성별로 보면, 종교 있음에서 동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종교 있음 20.8%, 종교 없음 18.2%), 정치성향 중 보수에서 동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22.4%), 진보(17.9%), 중도(17.5%)의 순서였다. 성별을 제외한 응답자 특성별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4-15 |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단위 : %

전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2.7	16.4	45.1	35.8	100.0	
<b>성별</b>						
남자	2.8	17.1	44.1	36.0	100.0	3.654(3)
여자	2.6	15.6	46.1	35.7	100.0	
<b>지역</b>						
도시(동부)	2.8	17.3	45.8	34.0	100.0	69.223(3)***
농어촌(읍면부)	2.2	12.0	41.6	44.2	100.0	
<b>연령</b>						
20-30대	2.4	16.2	44.0	37.5	100.0	16.299(6)*
40-50대	3.2	16.7	44.6	35.5	100.0	
60대 이상	2.4	16.2	46.8	34.5	100.0	
<b>학력</b>						
고졸이하	3.0	16.5	47.0	33.5	100.0	41.527(3)***
대재이상	2.4	16.3	43.4	37.9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2.3	13.4	34.5	49.8	100.0	83.855(9)***
사무판매서비스	3.3	18.2	44.6	34.0	100.0	
농림생산직	2.3	13.5	47.1	37.2	100.0	
비경활인구	2.2	16.2	47.2	34.4	100.0	
<b>종교</b>						
없음	2.6	15.6	47.5	34.4	100.0	29.167(3)***
있음	2.9	17.9	40.7	38.5	100.0	
<b>정치성향</b>						
진보	2.0	15.9	41.9	40.2	100.0	77.021(6)***
중도	2.6	14.9	45.6	36.9	100.0	
보수	3.5	18.9	46.9	30.8	100.0	

## ②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2023년 조사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중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질문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남성 72.1%, 여성 70.9%), 거주 지역을 보면,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비슷했다(도시 71.6%, 농어촌 71.2%).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40-50대로 73.2%였고, 다음으로 20-30대가 71.5%, 60대 이상이 69.4%로 가장 낮았다. 학력 특성에서는 대재이상에서 71.7%가 동의했고, 고졸이하에서는 71.3%였다.

직업별로는 사무판매회사의 73.1%가 동의해서 가장 높았으며, 관리전문직(70.6%)과 비경활인구(70.5%)는 비슷한 수준의 응답 비율을 보였고, 농림생산직 종사 응답자는 69.6%로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가치관 특성을 보았을 때, 종교 있음의 동의 비율이 73.3%로 종교 없음(70.5%)에 비해 높았다. 정치성향 중 진보에서 동의 응답이 74.3%로 가장 높았으며, 중도가 71.6%로 두 번째였고, 보수가 69.1%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동의하는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성별과 종교 외의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16 |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단위 : %

전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19.2	52.3	23.0	5.6	100.0	
성별						
남자	19.8	52.2	22.6	5.3	100.0	6.131(3)
여자	18.5	52.5	23.3	5.8	100.0	
지역						
도시(동부)	18.9	52.6	22.6	5.8	100.0	26.908(3)***
농어촌(읍면부)	20.2	51.0	24.5	4.3	100.0	
연령						
20-30대	19.4	52.0	22.1	6.5	100.0	86.497(6)***
40-50대	20.0	53.2	21.5	5.3	100.0	
60대 이상	17.9	51.5	25.8	4.9	100.0	
학력						
고졸이하	18.4	52.9	23.7	5.0	100.0	29.070(3)***
대재이상	19.8	51.8	22.3	6.0	100.0	
직업						
관리전문직	25.3	45.3	25.1	4.3	100.0	110.720(9)***
사무판매회사	19.9	53.2	20.5	6.5	100.0	
농림생산직	18.0	51.6	24.9	5.5	100.0	
비경활인구	17.3	53.2	24.9	4.6	100.0	
종교						
없음	17.7	52.8	23.5	6.0	100.0	4.495(3)
있음	21.9	51.4	22.0	4.7	100.0	
정치성향						
진보	21.3	53.0	21.0	4.6	100.0	109.851(6)***
중도	17.4	54.1	23.5	4.9	100.0	
보수	19.9	49.2	23.7	7.2	100.0	

### ③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중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문항의 성별 특성을 보면, 남성의 77.2%가 인권으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인식했고, 여성은 76.7%로 나타났다. 도시는 77.3%, 농어촌은 75.4%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76.6%로 가장 낮았고, 40~50대가 77.3%, 60대 이상이 77.0%로 높았다. 학력별 차이를 보면 고졸이하에서 해당 문항에 동의한 비율은 77.5%로 나타나 76.5%를 보인 대재이상에 비해 높았다.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에서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응답이 8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사무판매서비스직이 77.4%, 농림생산직이 76.1%, 비경활인구 집단에서 76.0%였다. 가치관 특성면에서 봤을 때, 종교 있음에서 79.1%로 종교 없음(75.8%)에 비해 높았다. 정치성향에서 진보의 78.7%가 동의하였고, 이어 중도가 77.7%, 보수가 74.6%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연령, 학력, 직업, 정치성향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4-17 |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단위 : %

전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23.7	53.3	19.9	3.1	100.0	
<b>성별</b>						
남자	24.8	52.4	19.7	3.1	100.0	7.712(3)
여자	22.5	54.2	20.2	3.1	100.0	
<b>지역</b>						
도시(동부)	23.8	53.5	19.7	3.0	100.0	2.711(3)
농어촌(읍면부)	22.8	52.6	20.9	3.6	100.0	
<b>연령</b>						
20~30대	24.7	51.9	19.6	3.8	100.0	76.042(6)***
40~50대	24.5	52.7	19.9	2.8	100.0	
60대 이상	21.4	55.5	20.3	2.7	100.0	
<b>학력</b>						
고졸이하	22.6	54.9	19.7	2.8	100.0	31.865(3)***
대재이상	24.6	52.0	20.1	3.3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30.4	50.2	16.4	3.0	100.0	86.036(9)***
사무판매서비스	24.8	52.5	19.2	3.5	100.0	
농림생산직	22.2	53.9	20.7	3.2	100.0	
비경활인구	21.1	54.9	21.5	2.6	100.0	
<b>종교</b>						
없음	22.0	53.8	20.9	3.3	100.0	4.602(3)
있음	26.6	52.5	18.2	2.7	100.0	
<b>정치성향</b>						
진보	26.9	51.8	18.1	3.2	100.0	116.957(6)***
중도	22.5	55.2	19.6	2.7	100.0	
보수	22.8	51.8	22.0	3.5	100.0	

## ④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공익을 위해서는 나의 기본적 권리도 제한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지역별로 보면 도시의 동의 비율이 66.6%였고, 농어촌은 63.6%로 나타나 3.0%p 차이를 보였다.

연령을 보면, 40-50대에서 동의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67.8%), 이어서 60대 이상(67.0%)이었고, 20-30대에서는 63.2%로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재이상에서는 동의하는 응답이 66.8%였던 데 반해, 고졸이하에서는 65.2%로 1.6%p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가장 높은 동의 응답 비율을 보인 집단은 관리전문직(70.6%)이었고, 가장 낮은 집단은 농림생산직 종사자(63.6%)였다. 그 사이에는 비경활인구(67.9%)와 사무판매서비스직(65.0%)의 순서로 위치했다. 종교 유무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종교 있음의 동의 응답이 68.0%로 종교 없음(65.0%)보다 높았다. 정치성향에 있어서는 중도의 동의 응답이 66.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진보 66.2%, 보수 65.2%의 순서였다.

응답자의 특성별 차이를 카이제곱검증 했을 때, 성별과 학력 이외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18 |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단위 : %

전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12.4	53.7	28.3	5.6	100.0	
<b>성별</b>						
남자	12.9	53.8	27.3	5.9	100.0	1.986(3)
여자	11.8	53.7	29.3	5.2	100.0	
<b>지역</b>						
도시(동부)	12.4	54.3	28.2	5.1	100.0	42.636(3)***
농어촌(읍면부)	12.3	51.3	28.8	7.6	100.0	
<b>연령</b>						
20-30대	11.9	51.4	29.5	7.2	100.0	75.190(6)***
40-50대	13.5	54.3	27.3	4.9	100.0	
60대 이상	11.4	55.7	28.3	4.6	100.0	
<b>학력</b>						
고졸이하	12.2	53.0	29.3	5.5	100.0	3.914(3)
대재이상	12.5	54.4	27.5	5.6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3.4	57.3	25.4	3.9	100.0	72.090(9)***
사무판매서비스	13.8	51.2	28.2	6.8	100.0	
농림생산직	9.9	53.7	30.6	5.8	100.0	
비경활인구	11.4	56.5	28.0	4.1	100.0	
<b>종교</b>						
없음	10.7	54.3	28.9	6.1	100.0	28.549(3)***
있음	15.3	52.7	27.4	4.6	100.0	
<b>정치성향</b>						
진보	13.0	53.3	26.6	7.2	100.0	69.945(6)***
중도	11.5	55.1	28.6	4.8	100.0	
보수	13.1	52.1	29.4	5.4	100.0	



### 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79.5%, 여성의 79.0%가 동의했는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20-30대에서 80.0%로 높았고, 40-50대도 79.9%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60대 이상에서는 77.6%로 동의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학력별 특성을 봤을 때, 대재이상에서는 79.9%가 해당 문항에 동의한 데 반해, 고졸이하에서는 78.5%의 동의 응답을 보였다.

직업 중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인 집단은 관리전문직(84.9%)이었고,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인 집단은 농림생산직(77.8%)이었으며, 두 집단 간의 동의율 차이는 7.1%p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 사이에는 사무판매서비스직 79.3%, 비경활인구 78.7%가 위치하고 있다. 집단 간 응답 내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종교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종교 있음에서 동의하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종교 있음 80.8%, 종교 없음 78.4%). 정치성향 중 중도에서 동의하는 응답이 81.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진보가 80.1%, 보수에서 76.1%로 가장 낮았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4-19 |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단위 : %

전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22.8	56.5	18.4	2.3	100.0	
<b>성별</b>						
남자	23.7	55.8	18.1	2.5	100.0	5.337(3)
여자	21.9	57.1	18.7	2.2	100.0	
<b>지역</b>						
도시(동부)	23.0	56.3	18.5	2.2	100.0	6.966(3)
농어촌(읍면부)	21.9	57.0	17.9	3.2	100.0	
<b>연령</b>						
20-30대	24.3	55.7	17.2	2.8	100.0	86.844(6)***
40-50대	23.6	56.2	17.9	2.2	100.0	
60대 이상	20.0	57.6	20.4	1.9	100.0	
<b>학력</b>						
고졸이하	21.0	57.5	19.3	2.2	100.0	55.221(3)***
대재이상	24.3	55.6	17.7	2.4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29.6	55.3	13.4	1.7	100.0	118.715(9)***
사무판매서비스	24.1	55.1	17.7	3.0	100.0	
농림생산직	19.7	58.1	19.2	3.0	100.0	
비경활인구	21.0	57.7	20.1	1.2	100.0	
<b>종교</b>						
없음	21.5	56.9	18.9	2.7	100.0	13.589(3)**
있음	25.1	55.7	17.5	1.7	100.0	
<b>정치성향</b>						
진보	24.4	55.6	17.2	2.7	100.0	99.591(6)***
중도	22.1	58.9	17.4	1.6	100.0	
보수	22.4	53.7	20.8	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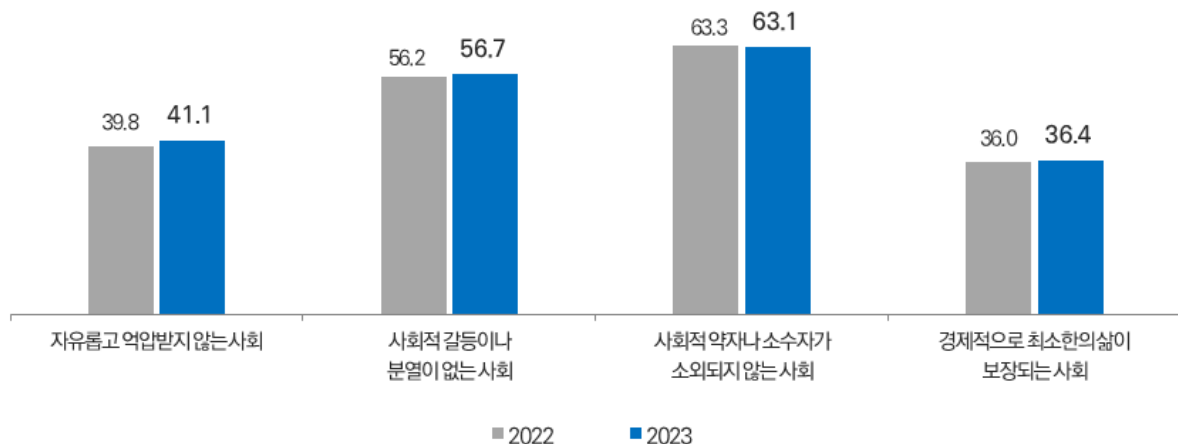


## (7) 인권의 사회적 효용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 2023년도 결과의 1위, 2위 응답을 합산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였다. 해당 항목은 2022년 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내용으로, 응답 비율은 올해 63.1%, 작년 63.3%로 비슷했다. 두 번째로 응답이 많은 항목은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였고, 응답 비율은 2023년에 56.7%이었으며, 작년 56.2%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세 번째는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로 2023년 41.1%의 응답을 받아 작년(39.8%)에 비해 1.3%p 증가했다. 마지막은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였고, 응답 비율은 36.4%였다.

그림4-10 | 인권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의견(1순위+2순위)

(단위: %)



1순위 선택을 기준으로 응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가 33.2%로 가장 높았다.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가 27.2%로 두 번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26.8%로 세 번째, 마지막은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12.9%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여성 모두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였다(남성 33.4%, 여성 32.9%).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에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27.9%)였던 반면, 여성의 경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27.9%)였다. 가장 적은 선택을 받은 내용은 남녀 모두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남성 13.0%, 여성 12.7%의 응답이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도시 거주/ 농어촌 거주 모두 항목별로 응답이 많은 순서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의 경우와 동일했다.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도시 33.3%, 농어촌 32.7%)→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농어촌 28.3%, 도시 26.9%)→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도시, 농어촌 모두 26.8%)→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도시 13.0%, 농어촌 12.2%)의 순서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응답 비율에 차이는 있었지만 각 연령별로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의 순서는 같았다.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40-50대 34.6%, 20-30대 33.2%, 60대 이상 31.4%)→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20-30대 27.9%, 40-50대 26.8%, 60대 이상 26.8%)→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20-30대 27.4%, 40-50대 26.6%, 60대 이상 26.4%)→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60대 이상 15.5%, 40-50대 12.0%, 20-30대 11.5%)의 순서였다.

학력별로 보면, 1순위는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대재이상 33.8%, 고졸이하 32.3%)로 동일했지만,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문항에는 차이가 있었다.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 문항이 대재이상에서는 27.7%의 응답으로 두 번째였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26.8%로 세 번째였다. 고졸이하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26.8%로 두 번째였고,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가 26.6%로 세 번째였다.

직업 특성을 보면, 1순위는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였다. 사무판매서비스의 35.1%, 비경활인구의 33.1%, 관리전문직에서 30.0%, 농림생산직에서 29.6%였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은 문항은 직업별로 달랐는데, 관리전문직(28.4%)과 농림생산직(28.6%)에서는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 문항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았고, 사무판매서비스직(27.0%)과 비경활인구(27.1%)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았다.

종교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문항은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로 동일했다(종교 없음 33.2%, 종교 있음 33.0%). 다만 종교 없음은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 문항을 두 번째로 선택했고(27.4%), 종교 있음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더 많이 선택했다(26.8%).

마지막으로 정치성향에 따라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문항은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로 동일했다(중도 33.5%, 진보 33.1%, 보수 32.8%), 그러나 중도와 보수에서는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은 데 반해(중도 27.6%, 보수 27.0%, 진보 26.7%) 진보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선택됐다(진보 27.9%, 중도 26.5%, 보수 26.3%).

표4-20 | 인권의 사회적 효용(1순위)

단위 : %

전체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계	$\chi^2(df)$
▣ 전체 ▣	27.2	33.2	26.8	12.9	100.0	
성별						
남자	27.9	33.4	25.7	13.0	100.0	9.034(3)*
여자	26.5	32.9	27.9	12.7	100.0	
지역						
도시[동부]	26.9	33.3	26.8	13.0	100.0	2.582(3)
농어촌[읍면부]	28.3	32.7	26.8	12.2	100.0	
연령						
20-30대	27.9	33.2	27.4	11.5	100.0	40.177(6)***
40-50대	26.8	34.6	26.6	12.0	100.0	
60대 이상	26.8	31.4	26.4	15.5	100.0	
학력						
고졸이하	26.6	32.3	26.8	14.3	100.0	22.304(3)***
대재이상	27.7	33.8	26.8	11.7	100.0	
직업						
관리전문직	28.4	30.0	28.1	13.4	100.0	45.215(9)***
사무판매서비스	26.6	35.1	27.0	11.2	100.0	
농림생산직	28.6	29.6	25.2	16.7	100.0	
비경활인구	26.8	33.1	27.1	13.0	100.0	
종교						
없음	27.4	33.2	26.8	12.6	100.0	8.894(3)*
있음	26.7	33.0	26.8	13.4	100.0	
정치성향						
진보	26.7	33.1	27.9	12.3	100.0	19.458(6)**
중도	27.6	33.5	26.5	12.4	100.0	
보수	27.0	32.8	26.3	14.0	100.0	

## 2

## 인권 침해와 차별

## 1)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로 나누어 우리나라에서 이들 권리에 속하는 다양한 권리 항목들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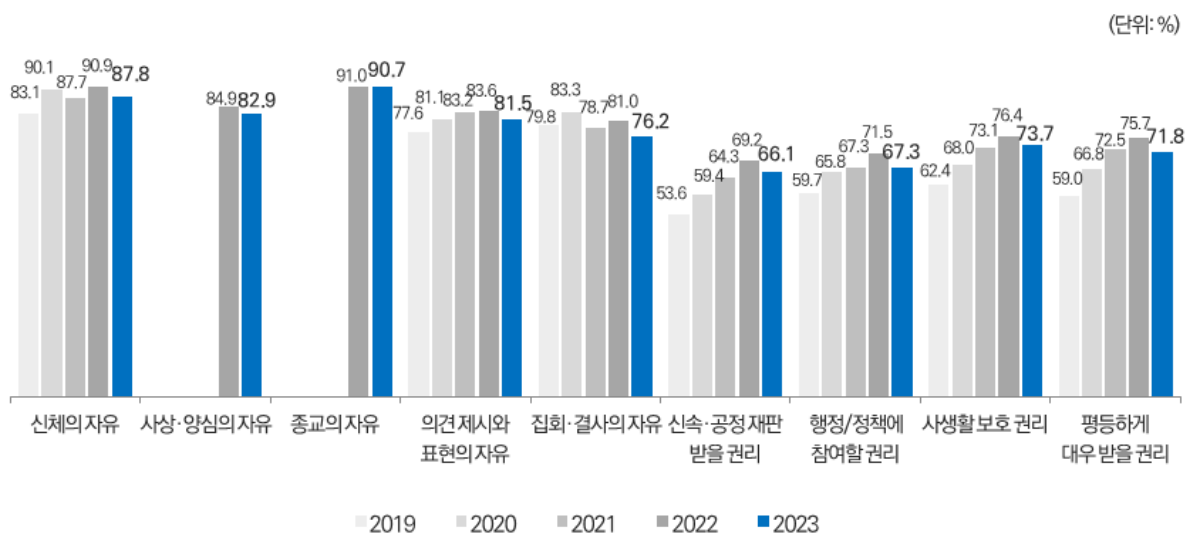
## (1) 시민,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도

시민,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 항목으로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9가지에 대해 얼마나 존중되는지 질문하였다. 아래 [그림 4-11]은 해당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매우 존중된다+존중되는 편이다)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023년도 조사에서 시민, 정치적 권리 중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종교의 자유였고(90.7%), 신체의 자유(87.8%), 사상·양심의 자유(82.9%),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81.5%)도 80% 이상의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어서 집회·결사의 자유(76.2%),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73.7%),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71.8%)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67.3%),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66.1%)에 대해서는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해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작년도와 비교하면 시민, 정치적 권리가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모든 항목에서 감소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존중된다는 응답은 2022년도 대비 4.8%p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3.9%p),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3.1%p), 신체의 자유(-3.1%p)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림4-11 | 시민적, 정치적 권리별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의 변화



## ① 신체의 자유 존중

응답자의 배경에 따라 신체의 자유가 존중받는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 정치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 지역에서 도시의 긍정 응답은 88.2%, 농어촌은 86.1%로 도시가 높았다. 연령에서는 20-30대가 가장 많은 긍정 응답을 했고(89.3%), 60대 이상에서 가장 적었다(86.6%). 학력에서는 대재이상(88.5%), 직업에서는 관리전문직(90.9%)과 농림생산직(90.7%), 종교에서는 종교 없음(88.8%), 정치성향에서는 보수(89.9%)에서 신체 자유가 존중된다는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4-21 | 인권의 존중 정도-신체의 자유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17.2	70.6	10.7	1.4	100.0	
<b>성별</b>						
남자	17.9	70.4	10.5	1.2	100.0	3.813(3)
여자	16.5	70.9	10.9	1.7	100.0	
<b>지역</b>						
도시[동부]	17.1	71.1	10.5	1.3	100.0	16.498(3)**
농어촌[읍면부]	17.5	68.6	11.6	2.3	100.0	
<b>연령</b>						
20-30대	19.8	69.5	9.6	1.1	100.0	30.498(6)***
40-50대	16.6	71.0	11.0	1.4	100.0	
60대 이상	15.1	71.5	11.6	1.8	100.0	
<b>학력</b>						
고졸이하	15.6	71.5	11.5	1.5	100.0	13.484(3)**
대재이상	18.5	70.0	10.1	1.4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20.1	70.8	7.8	1.3	100.0	31.237(9)***
사무판매서비스	17.4	69.4	11.6	1.6	100.0	
농림생산직	15.9	74.8	8.7	0.6	100.0	
비경활인구	17.0	70.1	11.3	1.6	100.0	
<b>종교</b>						
없음	18.2	70.6	10.6	0.6	100.0	71.819(3)***
있음	15.4	70.7	10.9	3.0	100.0	
<b>정치성향</b>						
진보	18.1	68.8	11.0	2.1	100.0	90.995(6)***
중도	15.2	71.7	11.9	1.1	100.0	
보수	19.3	70.6	8.7	1.4	100.0	

## ② 사상과 양심의 자유 존중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존중받는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83.1%)이 여성(82.6%)에 비해 긍정 응답이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 거주에서 긍정 응답이 83.8%로 농어촌(78.7%)에 비해 5.1%p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83.8%) 60대 이상(82.3%)에서 낮았다. 학력에서는 고졸이하가 83.8%로 대재이상(82.1%)보다 높았다.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85.7%)에서 가장 높았고, 사무판매서비스(82.0%)에서 낮았다. 가치관 측면에서 종교 없음(83.4%), 보수(85.6%)에서 긍정 응답이 높았다.

표4-22 | 인권의 존중 정도-사상·양심의 자유

단위 : %

전체	①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19.5	63.3	15.5	1.6	100.0	
성별						
남자	20.4	62.8	15.5	1.4	100.0	4.132(3)
여자	18.7	63.9	15.6	1.8	100.0	
지역						
도시(동부)	19.8	64.0	14.9	1.3	100.0	34.401(3)***
농어촌(읍면부)	18.4	60.4	18.5	2.8	100.0	
연령						
20-30대	21.6	62.3	15.1	1.1	100.0	33.428(6)***
40-50대	18.6	63.9	15.7	1.8	100.0	
60대 이상	18.5	63.8	15.9	1.8	100.0	
학력						
고졸이하	17.8	65.9	14.6	1.7	100.0	26.742(3)***
대재이상	21.0	61.1	16.4	1.5	100.0	
직업						
관리전문직	20.6	63.0	15.2	1.1	100.0	35.954(9)***
사무판매서비스	20.0	62.0	16.3	1.7	100.0	
농림생산직	17.7	68.0	12.8	1.5	100.0	
비경활인구	19.7	62.7	16.1	1.6	100.0	
종교						
없음	19.3	64.1	15.4	1.2	100.0	8.514(3)*
있음	19.9	62.0	15.8	2.3	100.0	
정치성향						
진보	20.1	61.5	16.2	2.2	100.0	94.658(6)***
중도	17.4	64.3	16.8	1.5	100.0	
보수	22.1	63.5	13.2	1.2	100.0	

## ③ 종교의 자유 존중

종교의 자유가 존중받는다는 응답에서는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 정치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도시(91.2%)에서 농어촌(88.3%) 보다 긍정 응답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90.9%), 20-30대에서 가장 낮았다(90.5%).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91.2%). 직업 특성을 보면 관리전문직(94.3%)에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았고, 사무판매서비스(89.0%)에서 가장 낮았다. 가치관 측면을 보면, 종교 있음(90.9%), 진보(92.1%)에서 긍정 응답이 많았다.

표4-23 | 인권의 존중 정도-종교의 자유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38.4	52.3	8.3	1.0	100.0	
성별						
남자	39.7	50.9	8.3	1.0	100.0	5.917(3)
여자	37.0	53.7	8.3	1.0	100.0	
지역						
도시[동부]	38.5	52.7	7.9	0.9	100.0	17.013(3)**
농어촌[읍면부]	37.9	50.4	10.3	1.4	100.0	
연령						
20-30대	40.5	50.0	8.2	1.4	100.0	29.596(6)***
40-50대	37.7	53.0	8.2	1.1	100.0	
60대 이상	36.9	54.0	8.6	0.5	100.0	
학력						
고졸이하	37.7	53.5	8.1	0.7	100.0	15.799(3)**
대재이상	39.0	51.3	8.5	1.3	100.0	
직업						
관리전문직	37.5	56.8	5.2	0.5	100.0	66.448(9)***
사무판매서비스	38.4	50.6	9.6	1.4	100.0	
농림생산직	38.0	54.8	6.3	0.9	100.0	
비경활인구	38.7	52.3	8.3	0.7	100.0	
종교						
없음	38.8	51.7	8.2	1.2	100.0	21.578(3)***
있음	37.5	53.4	8.5	0.6	100.0	
정치성향						
진보	39.2	52.9	6.8	1.0	100.0	53.775(6)***
중도	37.2	52.2	9.3	1.3	100.0	
보수	39.4	51.9	8.1	0.5	100.0	

## ④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는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성별과 종교를 제외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정치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 지역 특성별로 보면 도시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82.4%로 농어촌(77.5%)에 비해 4.9%p 높았다.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에서 82.4%가 존중된다고 응답했고, 20-30대에서도 82.3%로 나타나 비슷했던 반면, 40-50대에서는 80.2%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긍정 응답이 82.6%로 대재이상에 비해 2.0%p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가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림생산직에서 가장 높았고(83.9%), 사무판매회사에서 가장 낮았다(80.4%). 정치성향에 따른 응답 비율 차이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는데, 보수에서는 84.5%로 가장 높았고, 진보에서는 79.4%로 두 집단의 차이는 5.1%p였다.

표4-24 | 인권의 존중 정도-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19.1	62.4	16.9	1.6	100.0	
성별						
남자	20.1	61.4	17.0	1.5	100.0	4.386(3)
여자	18.2	63.4	16.8	1.6	100.0	
지역						
도시[동부]	19.4	63.0	16.2	1.4	100.0	22.079(3)***
농어촌[읍면부]	17.9	59.6	20.3	2.3	100.0	
연령						
20-30대	22.2	60.1	16.1	1.7	100.0	63.691(6)***
40-50대	18.2	62.0	18.1	1.6	100.0	
60대 이상	16.9	65.5	16.2	1.4	100.0	
학력						
고졸이하	17.7	64.9	15.8	1.6	100.0	38.176(3)***
대재이상	20.4	60.3	17.8	1.5	100.0	
직업						
관리전문직	21.2	59.5	17.4	2.0	100.0	54.367(9)***
사무판매회사	19.7	60.7	17.9	1.7	100.0	
농림생산직	16.8	67.1	14.3	1.7	100.0	
비경활인구	19.0	63.0	16.7	1.3	100.0	
종교						
없음	19.5	63.0	16.0	1.5	100.0	1.875(3)
있음	18.4	61.5	18.4	1.7	100.0	
정치성향						
진보	19.8	59.5	18.6	2.1	100.0	96.274(6)***
중도	16.8	63.9	17.7	1.6	100.0	
보수	21.8	62.7	14.3	1.2	100.0	



## ⑤ 집회 결사의 자유

응답자의 특성별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존중받는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성별과 종교를 제외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응답 비율 차이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도시에서 긍정 응답이 6.4%p 높았다(도시 77.3%, 농어촌 70.9%).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에서 존중된다는 응답이 79.0%였고, 다른 연령 집단에서는 각 74.8%여서 4.2%p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따른 긍정 응답은 거의 비슷했다(대재이상 76.2%, 고졸이하 76.1%). 직업별로 보면 관리전문직과 농림생산직에서 긍정 응답이 77.1%로 높았고, 비경활인구에서 74.8%로 가장 낮았다. 정치성향에서는 보수에서 긍정 응답이 79.3%로 가장 높았고, 진보는 5.7%p 낮은 73.6%였다.

표4-25 | 인권의 존중 정도-집회·결사의 자유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17.3	58.9	21.5	2.3	100.0	
<b>성별</b>						
남자	18.2	57.7	22.0	2.1	100.0	7.698(3)
여자	16.3	60.1	21.1	2.4	100.0	
<b>지역</b>						
도시[동부]	17.8	59.5	20.8	1.9	100.0	44.053(3)***
농어촌[읍면부]	14.9	56.0	25.0	4.1	100.0	
<b>연령</b>						
20-30대	19.4	59.6	18.9	2.1	100.0	47.302(6)***
40-50대	15.9	58.9	22.6	2.5	100.0	
60대 이상	16.5	58.2	23.0	2.2	100.0	
<b>학력</b>						
고졸이하	16.5	59.7	21.6	2.3	100.0	14.816(3)**
대재이상	17.9	58.3	21.5	2.3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7.2	59.9	20.9	2.0	100.0	26.644(9)**
사무판매서비스	18.4	58.2	21.0	2.4	100.0	
농림생산직	15.3	61.8	20.6	2.3	100.0	
비경활인구	16.7	58.1	23.0	2.2	100.0	
<b>종교</b>						
없음	17.4	59.8	20.8	2.1	100.0	5.524(3)
있음	17.0	57.4	22.9	2.7	100.0	
<b>정치성향</b>						
진보	18.6	55.0	23.2	3.2	100.0	118.511(6)***
중도	14.8	60.7	22.3	2.3	100.0	
보수	19.8	59.5	19.2	1.5	100.0	

⑥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

우리나라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존중되는가를 거주 지역별로 보았을 때 도시 거주 응답자의 66.8%가 존중된다고 응답했고, 농어촌에서는 62.6%가 존중된다고 해, 도시에서 4.2%p 더 높았다. 연령별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집단은 20-30대였고(68.2%), 가장 낮은 집단은 40-50대(64.9%)였다. 학력에 따른 응답 비율의 차이는 없었지만(두 집단 모두 66.1%), 매우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은 대재이상 집단에서 1.8%p 높았다(대재이상 12.0%, 고졸이하 10.2%). 종교에 따른 응답 비율 차이 또한 거의 없었다(종교 없음 66.1%, 종교 있음 66.0%). 직업별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집단은 사무판매서비스(66.9%)였고, 가장 낮은 집단은 관리전문직(64.2%)이었다. 정치성향에 따른 응답 비율 차이는 상대적으로 컸다. 보수에서 긍정 응답은 70.8%, 진보에서 긍정 응답 비율은 63.9%로 차이는 6.9%p였다. 카이스퀘어검정 결과 성별과 종교를 제외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26 | 인권의 존중 정도-신속·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11.2	54.9	30.2	3.7	100.0	
<b>성별</b>						
남자	11.7	54.6	30.0	3.7	100.0	2.878(3)
여자	10.7	55.2	30.4	3.7	100.0	
<b>지역</b>						
도시[동부]	11.6	55.2	29.7	3.5	100.0	19.451(3)***
농어촌[읍면부]	9.2	53.4	32.6	4.8	100.0	
<b>연령</b>						
20-30대	12.8	55.5	28.2	3.5	100.0	20.817(6)**
40-50대	10.6	54.2	31.1	4.1	100.0	
60대 이상	10.1	55.1	31.3	3.5	100.0	
<b>학력</b>						
고졸이하	10.2	55.9	30.3	3.7	100.0	9.983(3)*
대재이상	12.0	54.0	30.2	3.7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1.3	52.9	30.1	5.7	100.0	20.995(9)*
사무판매서비스	11.8	55.1	29.6	3.5	100.0	
농림생산직	9.1	56.6	30.9	3.3	100.0	
비경활인구	11.4	54.1	30.7	3.8	100.0	
<b>종교</b>						
없음	11.2	54.9	30.8	3.1	100.0	5.385(3)
있음	11.1	54.9	29.2	4.8	100.0	
<b>정치성향</b>						
진보	10.4	53.6	31.2	4.9	100.0	158.046(6)***
중도	9.0	55.1	32.5	3.4	100.0	
보수	15.1	55.7	26.0	3.2	100.0	

## ⑦ 공공행정,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우리나라에서 공공 행정,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존중받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배경별 응답 차이를 보았을 때, 지역, 연령, 직업,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여성에서 긍정 응답이 68.1%로 남성보다 높았고, 학력별로 보면 대재이상(67.5%), 종교별로는 종교 없음(68.3%)에서 긍정 응답 비중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농어촌에 비해 도시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3.7%p 더 높았다(도시 67.9%, 농어촌 64.2%).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69.4%가 긍정 응답을 해 가장 높았고, 40-50대에서 65.7%가 응답해 비중이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 보면 비경활 인구에서 68.0%, 사무판매서비스 67.9%, 농림생산직 65.7%, 관리전문직 64.2%의 순서였다. 정치성향은 보수에서 존중된다는 평가가 71.6%로 가장 높았고, 중도에서 64.4%로 가장 낮았다.

표4-27 | 인권의 존중 정도-공공 행정·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10.9	56.3	29.1	3.6	100.0	
<b>성별</b>						
남자	11.1	55.3	29.8	3.7	100.0	4.508(3)
여자	10.7	57.3	28.5	3.5	100.0	
<b>지역</b>						
도시(동부)	11.2	56.7	28.9	3.2	100.0	20.014(3)***
농어촌(읍면부)	9.4	54.7	30.5	5.3	100.0	
<b>연령</b>						
20-30대	12.4	56.9	26.6	4.1	100.0	29.573(6)***
40-50대	10.3	55.4	31.4	3.0	100.0	
60대 이상	10.1	56.8	29.1	3.9	100.0	
<b>학력</b>						
고졸이하	10.8	56.1	29.3	3.8	100.0	3.653(3)
대재이상	11.0	56.5	29.0	3.5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9.4	54.8	31.3	4.4	100.0	28.821(9)**
사무판매서비스	11.5	56.4	28.8	3.3	100.0	
농림생산직	9.9	55.8	30.2	4.1	100.0	
비경활인구	11.1	56.9	28.6	3.5	100.0	
<b>종교</b>						
없음	10.6	57.6	28.5	3.3	100.0	4.969(3)
있음	11.4	54.0	30.4	4.2	100.0	
<b>정치성향</b>						
진보	10.8	56.1	28.5	4.5	100.0	116.992(6)***
중도	9.0	55.4	32.4	3.2	100.0	
보수	13.8	57.8	24.9	3.4	100.0	

**⑧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우리나라에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는가에 대해 응답자 배경별로 살펴보면 성별, 지역, 종교를 제외한 연령, 학력, 직업,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76.2%), 20-30대에서 가장 낮았다(71.6%).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 75.4%로 대재이상보다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 직업별 긍정 응답 비율을 보면, 농림생산직에서 78.1%로 가장 높았고, 관리전문직에서 70.4%로 가장 낮았다. 정치성향에서는 보수에서 79.1%로 긍정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진보에서는 그보다 8.3%p 낮은 70.8%였다.

**표4-28 | 인권의 존중 정도-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12.2	61.5	23.0	3.3	100.0	
<b>성별</b>						
남자	12.4	60.7	23.3	3.6	100.0	3.424(3)
여자	12.1	62.3	22.6	3.0	100.0	
<b>지역</b>						
도시[동부]	12.7	61.2	22.9	3.2	100.0	3.956(3)
농어촌[읍면부]	10.1	62.9	23.3	3.7	100.0	
<b>연령</b>						
20-30대	14.7	56.9	24.3	4.1	100.0	93.514(6)***
40-50대	10.8	62.7	23.2	3.3	100.0	
60대 이상	11.2	65.0	21.2	2.6	100.0	
<b>학력</b>						
고졸이하	11.6	63.8	21.8	2.8	100.0	48.271(3)***
대재이상	12.8	59.5	23.9	3.8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0.6	59.8	25.9	3.7	100.0	89.094(9)***
사무판매서비스	13.5	57.9	24.7	3.9	100.0	
농림생산직	10.7	67.4	19.3	2.6	100.0	
비경활인구	11.7	63.6	21.9	2.8	100.0	
<b>종교</b>						
없음	12.3	62.1	22.7	3.0	100.0	3.398(3)
있음	12.1	60.5	23.4	4.0	100.0	
<b>정치성향</b>						
진보	11.3	59.5	24.7	4.5	100.0	173.604(6)***
중도	10.6	61.0	25.2	3.2	100.0	
보수	15.3	63.8	18.4	2.6	100.0	

## ⑨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우리나라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존중되는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 응답자(72.3%), 지역에서 도시 거주자(72.3%), 종교에서 종교 없음(72.5%)에서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연령, 학력, 직업, 정치성향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72.2%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존중된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고, 20-30대 이상에서 71.2%로 가장 낮았다. 학력에서는 고졸이하에서 대재이상 보다 긍정 비중이 높았다(고졸이하 72.4%, 대재이상 71.3%). 직업별로 긍정 응답 비율을 보면 농림생산직이 가장 높았고(74.2%), 관리전문직에서 가장 낮았으며(68.6%), 두 집단의 응답 비율 차이는 5.6%p였다. 정치성향에서는 보수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77.5%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진보(69.2%)의 응답 비율과의 차이는 8.3%p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4-29 | 인권의 존중 정도-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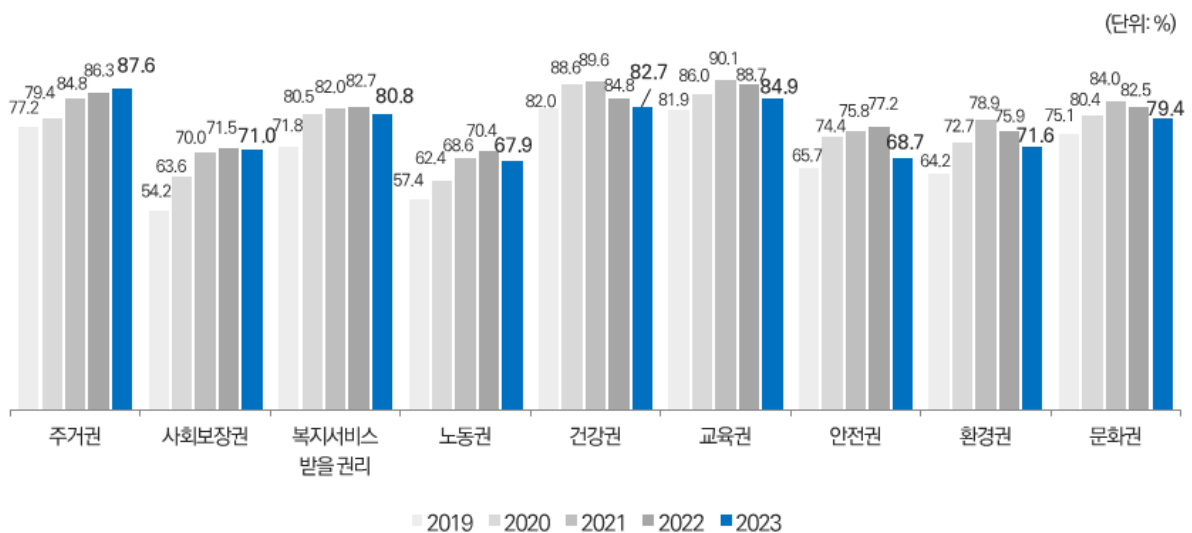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10.2	61.7	25.8	2.4	100.0	
성별						
남자	10.8	61.5	25.4	2.4	100.0	2.083(3)
여자	9.5	61.8	26.2	2.5	100.0	
지역						
도시[동부]	10.6	61.7	25.3	2.4	100.0	2.924(3)
농어촌[읍면부]	8.0	61.6	27.9	2.5	100.0	
연령						
20-30대	11.5	59.7	26.0	2.8	100.0	40.958(6)***
40-50대	9.4	62.6	25.6	2.4	100.0	
60대 이상	9.7	62.6	25.8	2.0	100.0	
학력						
고졸이하	10.0	62.4	25.3	2.3	100.0	17.584(3)**
대재이상	10.3	61.0	26.2	2.5	100.0	
직업						
관리전문직	8.7	59.9	26.4	5.0	100.0	43.791(9)***
사무판매서비스	11.4	60.3	26.0	2.2	100.0	
농림생산직	8.5	65.7	23.8	2.0	100.0	
비경활인구	9.7	61.8	26.3	2.3	100.0	
종교						
없음	10.3	62.1	25.5	2.0	100.0	7.020(3)
있음	9.9	60.8	26.2	3.1	100.0	
정치성향						
진보	9.9	59.2	27.4	3.4	100.0	161.532(6)***
중도	8.5	60.9	28.4	2.3	100.0	
보수	12.7	64.8	20.7	1.8	100.0	

**(2)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의 존중 정도**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를 9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존중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내용은 주거권(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권(빈곤 해결, 소득 보장),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돌봄, 요양보호, 활동 지원 등), 노동권(일할 권리, 공정한 노동 조건 보장,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건강권(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권리), 교육권(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을 권리), 안전권(범죄, 폭력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환경권(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문화권(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이다.

2023년 조사 결과 항목 중에서 비교적 높은 긍정 응답(매우 존중+존중되는 편)을 보인 것은 주거권(87.6%), 교육권(84.9%), 건강권(82.7%),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80.8%)였고, 이어서 문화권(79.4%), 환경권(71.6%), 사회보장권(71.0%) 순서였다. 반면 안전권(68.7%)과 노동권(67.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가 존중된다는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긍정 응답이 증가하고 있었고, 2022년에는 권리별로 증가/감소가 혼재되어 있었던 반면, 2023년에는 주거권을 제외한 8개 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2022년에 비해 감소했다.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항목은 안전권으로 8.5%p 줄었고, 환경권에서 4.3%p, 교육권에서 3.8%p, 문화권에서 3.1%p, 노동권에서 2.5%p, 건강권에서 2.1%p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에서 1.9%p 감소했다. 반면 주거권에 대한 긍정 응답은 작년에 비해 1.3%p 증가했다.

**그림4-12 |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추이**

## ① 주거권

주거권이 존중되는가에 대한 응답은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유무,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살펴보면, 농어촌이 87.9%로 도시 87.5%에 비해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88.2%로 40-50대(87.9%), 20-30대(86.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졸이하가 88.0%로 대재이상(87.2%)에 비해 높았으며,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이 90.7%로 존중받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관리전문직은 84.7%로 가장 낮았다. 종교 유무에 따른 긍정 응답은 두 집단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종교 있음이 소폭 높았고(종교 있음 87.7%, 종교 없음 87.5%), 정치성향을 살펴보면 보수(90.1%), 진보(88.1%), 중도(85.5%) 순으로 나타났다.

표4-30 | 인권의 존중 정도-주거권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14.5	73.1	11.6	0.8	100.0	
성별						
남자	15.5	72.3	11.5	0.7	100.0	6.445(3)
여자	13.6	73.8	11.7	0.9	100.0	
지역						
도시[동부]	14.0	73.5	11.7	0.9	100.0	77.626(3)***
농어촌[읍면부]	16.7	71.2	11.5	0.6	100.0	
연령						
20-30대	15.6	71.0	12.4	1.0	100.0	46.487(6)***
40-50대	13.6	74.3	11.3	0.8	100.0	
60대 이상	14.5	73.7	11.1	0.6	100.0	
학력						
고졸이하	14.9	73.1	11.1	0.9	100.0	12.121(3)**
대재이상	14.2	73.0	12.0	0.8	100.0	
직업						
관리전문직	13.3	71.3	13.8	1.6	100.0	48.432(9)***
사무판매서비스	15.2	72.3	11.9	0.6	100.0	
농림생산직	14.7	76.0	8.7	0.6	100.0	
비경활인구	13.7	72.9	12.3	1.0	100.0	
종교						
없음	15.0	72.5	11.9	0.6	100.0	9.144(3)*
있음	13.6	74.0	11.1	1.2	100.0	
정치성향						
진보	13.9	74.2	11.0	0.9	100.0	61.671(6)***
중도	13.1	72.4	13.8	0.7	100.0	
보수	17.0	73.1	9.0	0.8	100.0	

**② 사회보장권**

빈곤 해결, 소득 보장 등에 대한 사회보장권이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한 질문은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0-30대에서 긍정 응답이 71.5%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재이상이 71.2%로 고졸이하(70.9%)에 비해 높았다. 직업을 보면 비경활인구에서 71.8%로 가장 높았고, 관리전문직에서 66.3%로 가장 낮았는데, 그 차이는 5.5%p로 큰 편이었다. 가치관 특성을 보면 종교 없음에서 긍정 응답 비중이 더 높았고(없음 72.6%, 있음 68.2%),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에서 높았다(보수 73.9%, 진보 69.9%, 중도 69.7%).

**표4-31 | 인권의 존중 정도-사회보장권**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14.5	56.6	24.9	4.1	100.0	
<b>성별</b>						
남자	14.7	56.7	24.6	3.9	100.0	1.676(3)
여자	14.2	56.4	25.1	4.3	100.0	
<b>지역</b>						
도시[동부]	15.0	56.7	24.5	3.8	100.0	3.267(3)
농어촌[읍면부]	12.1	56.2	26.6	5.2	100.0	
<b>연령</b>						
20-30대	14.6	56.9	24.6	3.8	100.0	31.519(6)***
40-50대	14.6	56.2	25.4	3.8	100.0	
60대 이상	14.2	56.6	24.4	4.8	100.0	
<b>학력</b>						
고졸이하	14.7	56.2	24.4	4.7	100.0	23.440(3)***
대재이상	14.3	56.9	25.3	3.6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1.2	55.1	27.7	5.9	100.0	38.328(9)***
사무판매서비스	15.4	56.0	24.8	3.7	100.0	
농림생산직	14.1	56.7	25.3	3.9	100.0	
비경활인구	14.1	57.7	24.0	4.2	100.0	
<b>종교</b>						
없음	14.6	58.0	24.7	2.8	100.0	42.656(3)***
있음	14.2	54.0	25.3	6.5	100.0	
<b>정치성향</b>						
진보	15.4	54.5	24.9	5.2	100.0	79.539(6)***
중도	12.6	57.1	26.4	3.9	100.0	
보수	16.4	57.5	22.7	3.4	100.0	



## ③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돌봄, 요양보호, 활동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존중되는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결과를 보았을 때, 연령, 학력, 직업, 정치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서 60대 이상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81.2%로 가장 높았고, 20-30대 81.0%, 40-50대에서 80.4%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졸이하(80.9%)와 대재이상(80.8%)이 유사한 긍정 응답 비율을 보였다. 직업을 보면 농림생산직이 82.1%로 가장 높았고, 관리전문직에서 78.4%로 가장 낮았다. 정치성향에서는 보수가 83.4%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았고, 진보는 78.2%로 가장 낮았다.

표4-32 | 인권의 존중 정도-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21.6	59.3	17.2	1.9	100.0	
<b>성별</b>						
남자	22.2	58.6	17.4	1.8	100.0	3.657(3)
여자	20.9	60.0	17.0	2.1	100.0	
<b>지역</b>						
도시[동부]	22.2	59.1	16.7	2.0	100.0	2.642(3)
농어촌[읍면부]	18.5	60.2	19.4	1.9	100.0	
<b>연령</b>						
20-30대	22.7	58.3	16.7	2.3	100.0	25.120(6)***
40-50대	21.2	59.2	17.8	1.9	100.0	
60대 이상	20.8	60.5	17.1	1.7	100.0	
<b>학력</b>						
고졸이하	20.7	60.1	17.2	2.0	100.0	7.927(3)*
대재이상	22.3	58.5	17.3	1.9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6.4	62.0	18.6	3.0	100.0	25.682(9)**
사무판매서비스	23.2	57.6	17.1	2.2	100.0	
농림생산직	19.8	62.3	16.4	1.5	100.0	
비경활인구	21.5	59.3	17.5	1.6	100.0	
<b>종교</b>						
없음	22.3	58.8	17.2	1.7	100.0	4.371(3)
있음	20.3	60.2	17.2	2.4	100.0	
<b>정치성향</b>						
진보	20.8	57.4	19.6	2.2	100.0	91.696(6)***
중도	19.7	60.9	17.2	2.2	100.0	
보수	24.9	58.5	15.3	1.3	100.0	

**④ 노동권**

우리나라에서 노동권이 얼마나 존중되는지에 대해 응답자 배경별로 봤을 때 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긍정 응답을 많이 했고(여성 68.2%, 남성 67.5%), 농어촌에 비해 도시에서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도시 68.3%, 농어촌 65.7%). 연령에서는 20-30대에서 존중된다는 응답이 68.5%로 가장 높았고, 40-50대에서 67.3%로 가장 낮았다. 학력을 보면 고졸이하에서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고졸이하 69.0%, 대재이상 66.9%).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이 가장 높았고(69.6%), 관리전문직이 가장 낮았는데(65.5%), 차이는 4.1%p였다. 가치관 측면에서는 종교 없음이 더 높았고(없음 69.0% 있음 65.7%), 정치성향으로는 보수가 가장 높았다(보수 73.3%, 중도 67.1%, 진보 62.4%).

**표4-33 | 인권의 존중 정도-노동권**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13.8	54.1	27.7	4.5	100.0	
<b>성별</b>						
남자	14.2	53.3	27.8	4.7	100.0	9.690(3)*
여자	13.3	54.9	27.5	4.3	100.0	
<b>지역</b>						
도시[동부]	13.9	54.4	27.6	4.1	100.0	23.013(3)***
농어촌[읍면부]	12.9	52.8	27.8	6.5	100.0	
<b>연령</b>						
20-30대	14.4	54.0	26.3	5.2	100.0	55.725(6)***
40-50대	13.9	53.4	28.5	4.2	100.0	
60대 이상	12.8	55.1	28.0	4.0	100.0	
<b>학력</b>						
고졸이하	13.4	55.6	27.2	3.8	100.0	38.928(3)***
대재이상	14.1	52.8	28.1	5.1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1.0	54.6	29.2	5.2	100.0	53.118(9)***
사무판매서비스	15.3	52.8	27.1	4.8	100.0	
농림생산직	12.1	57.5	26.5	3.9	100.0	
비경활인구	13.1	53.9	28.7	4.2	100.0	
<b>종교</b>						
없음	14.0	55.1	27.1	3.8	100.0	8.856(3)*
있음	13.3	52.3	28.7	5.7	100.0	
<b>정치성향</b>						
진보	13.0	49.5	31.2	6.4	100.0	176.392(6)***
중도	12.0	55.2	28.8	4.1	100.0	
보수	17.0	56.3	23.1	3.5	100.0	

## ⑤ 건강권

우리나라에서 건강권이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거주 지역, 연령,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보면 도시(83.0%)에서 긍정 응답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84.4%로 가장 높았다(40-50대 이상 82.0%, 60대 이상 81.8%). 직업을 보면 관리전문직과 농림생산직 두 표본에서 84.1%로 긍정 응답이 높았고, 사무판매회사에서 낮았다(81.9%). 종교 있음에 비해 종교 없음에서 더 높았고(없음 84.2%, 있음 80.1%), 보수에서 가장 높고(84.7%), 진보에서 가장 낮았다(80.5%).

표4-34 | 인권의 존중 정도-건강권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19.3	63.4	15.2	2.0	100.0	
<b>성별</b>						
남자	19.8	62.8	15.4	2.0	100.0	0.366(3)
여자	18.9	64.0	15.1	2.0	100.0	
<b>지역</b>						
도시[동부]	19.4	63.6	15.1	1.9	100.0	18.171(3)***
농어촌[읍면부]	19.0	62.4	15.9	2.7	100.0	
<b>연령</b>						
20-30대	20.6	63.8	13.5	2.1	100.0	20.420(6)**
40-50대	18.2	63.8	16.1	1.9	100.0	
60대 이상	19.2	62.6	16.1	2.2	100.0	
<b>학력</b>						
고졸이하	19.2	63.8	15.0	2.0	100.0	7.337(3)
대재이상	19.4	63.1	15.5	2.0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8.1	66.0	13.8	2.2	100.0	22.534(9)**
사무판매회서비스	19.7	62.2	16.0	2.1	100.0	
농림생산직	18.3	65.7	14.5	1.4	100.0	
비경활인구	19.6	63.3	14.9	2.2	100.0	
<b>종교</b>						
없음	19.3	64.8	14.4	1.4	100.0	16.523(3)**
있음	19.3	60.8	16.7	3.2	100.0	
<b>정치성향</b>						
진보	19.9	60.7	16.8	2.7	100.0	91.612(6)***
중도	17.4	65.2	15.7	1.8	100.0	
보수	21.6	63.1	13.4	1.9	100.0	

**⑥ 교육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는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결과를 봤을 때, 성별을 제외한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을 보면 도시(85.3%)에서 농어촌(83.0%)에 비해 긍정 응답이 높았다. 고졸이하(86.0%)가 대재이상(83.8%)보다 2.2%p 더 높았다.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에서 85.4%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20-30대 85.2%, 40-50대에서 84.2%였다.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의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88.6%였고, 사무판매서비스가 82.7%로 가장 낮았으며, 둘의 차이는 5.9%p로 상대적으로 컸다. 가치관 측면을 보면 종교 없음에서 3.2%p 더 높았고(종교 없음 86.0%, 종교 있음 82.8%), 정치성향 중 보수에서 가장 높았으며(87.4%), 진보 성향에서 가장 낮았다(83.3%).

**표4-35 | 인권의 존중 정도-교육권**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22.9	62.0	13.8	1.3	100.0	
<b>성별</b>						
남자	23.5	61.0	14.2	1.2	100.0	7.248(3)
여자	22.2	62.9	13.5	1.3	100.0	
<b>지역</b>						
도시[동부]	22.6	62.7	13.4	1.4	100.0	38.616(3)***
농어촌[읍면부]	24.2	58.7	16.1	0.9	100.0	
<b>연령</b>						
20-30대	24.4	60.8	13.6	1.2	100.0	33.174(6)***
40-50대	22.3	61.9	14.4	1.4	100.0	
60대 이상	21.9	63.5	13.4	1.2	100.0	
<b>학력</b>						
고졸이하	23.1	62.9	12.9	1.1	100.0	23.434(3)***
대재이상	22.6	61.2	14.7	1.5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24.5	62.5	10.7	2.4	100.0	61.141(9)***
사무판매서비스	22.6	60.1	15.9	1.4	100.0	
농림생산직	23.9	64.7	10.6	0.9	100.0	
비경활인구	22.3	63.1	13.5	1.1	100.0	
<b>종교</b>						
없음	23.6	62.4	13.1	0.9	100.0	16.269(3)**
있음	21.5	61.3	15.1	2.1	100.0	
<b>정치성향</b>						
진보	22.9	60.3	15.0	1.7	100.0	86.344(6)***
중도	20.1	63.9	14.7	1.3	100.0	
보수	26.8	60.6	11.7	0.9	100.0	

## ⑦ 안전권

범죄, 폭력,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한 결과는 성별을 제외한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 지역을 보면, 농어촌에서 도시에 비해 존중된다는 응답이 많았다(농어촌 70.6%, 도시 68.3%).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70.8%), 가장 낮은 응답은 67.8%의 40-50대에서 나타났다. 학력 면에서는 고졸이하에서 긍정 응답이 더 많았다(고졸이하 69.8%, 대재이상 67.8%). 직업 특성을 살펴보면, 농림생산직에서 가장 높았고(72.1%), 비경활인구(69.9%), 사무판매서비스(67.1%), 관리전문직(66.1%)의 순서였다. 종교가 없는 경우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종교 없음 69.9%, 종교 있음 66.6%), 정치성향 중 보수가 긍정 응답을 더 많이 했다(보수 74.7%, 중도 66.7%, 진보 65.0%).

표4-36 | 인권의 존중 정도-안전권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11.4	57.4	26.9	4.4	100.0	
성별						
남자	11.9	57.2	26.5	4.4	100.0	2.246(3)
여자	10.8	57.5	27.2	4.4	100.0	
지역						
도시[동부]	11.7	56.7	27.2	4.5	100.0	15.367(3)**
농어촌[읍면부]	10.0	60.6	25.4	4.0	100.0	
연령						
20-30대	12.8	55.2	26.8	5.2	100.0	92.218(6)***
40-50대	10.7	57.1	27.7	4.6	100.0	
60대 이상	10.7	60.1	25.9	3.4	100.0	
학력						
고졸이하	10.9	58.9	26.9	3.3	100.0	57.189(3)***
대재이상	11.8	56.0	26.8	5.3	100.0	
직업						
관리전문직	10.3	55.7	27.2	6.7	100.0	87.091(9)***
사무판매서비스	11.9	55.2	27.7	5.2	100.0	
농림생산직	9.8	62.3	25.0	2.9	100.0	
비경활인구	11.8	58.1	26.6	3.6	100.0	
종교						
없음	11.7	58.2	26.6	3.5	100.0	16.354(3)**
있음	10.7	55.8	27.4	6.0	100.0	
정치성향						
진보	9.6	55.4	28.1	6.9	100.0	203.403(6)***
중도	10.2	56.5	29.5	3.8	100.0	
보수	14.5	60.2	22.0	3.3	100.0	

**⑧ 환경권**

우리나라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얼마나 존중받는가에 대해 응답자 배경별로는 연령, 학력, 직업,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 가장 긍정 응답을 가장 많이 한 집단은 60대 이상(73.5%)이었고, 40-50대에서 긍정 응답이 가장 적었다(69.6%). 고졸이하에서는 73.4%의 긍정 응답 비율이 나타났지만 대재이상에서는 이보다 3.3%p 적은 70.1%가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이 73.8%로 긍정 응답이 가장 많았고, 관리전문직이 68.8%로 가장 적었다. 정치성향에서는 보수가 77.0%로 가장 높았고, 진보에서 68.6%로 가장 낮았다.

**표4-37 | 인권의 존중 정도-환경권**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11.1	60.5	25.5	2.9	100.0	
<b>성별</b>						
남자	10.8	60.2	25.8	3.2	100.0	3.619(3)
여자	11.4	60.9	25.2	2.5	100.0	
<b>지역</b>						
도시[동부]	11.4	60.0	25.7	2.9	100.0	6.532(3)
농어촌[읍면부]	10.0	62.8	24.5	2.8	100.0	
<b>연령</b>						
20-30대	13.1	59.2	24.7	3.0	100.0	46.706(6)***
40-50대	10.2	59.4	27.4	3.0	100.0	
60대 이상	10.0	63.5	23.9	2.6	100.0	
<b>학력</b>						
고졸이하	10.8	62.7	24.1	2.5	100.0	21.311(3)***
대재이상	11.4	58.7	26.7	3.2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0.7	58.1	25.8	5.4	100.0	60.082(9)***
사무판매서비스	12.0	58.0	26.8	3.2	100.0	
농림생산직	9.4	64.4	24.0	2.2	100.0	
비경활인구	10.9	62.6	24.3	2.2	100.0	
<b>종교</b>						
없음	10.9	60.8	25.8	2.5	100.0	4.612(3)
있음	11.5	60.1	24.9	3.6	100.0	
<b>정치성향</b>						
진보	10.5	58.1	27.1	4.2	100.0	107.406(6)***
중도	9.3	60.3	27.7	2.7	100.0	
보수	14.2	62.9	21.0	2.0	100.0	

## ⑨ 문화권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는지를 응답자 특성 별로 살펴보았을 때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정치성향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의 80.4%가 긍정 응답을 한 반면, 농어촌은 이보다 5.1%p 적은 75.3%였다. 연령별로 보면, 가장 높은 긍정 응답 비율은 20-30대에서 나타났고(81.4%), 이어 40-50대(79.3%), 60대 이상(77.5%)의 순서였다. 학력에서는 대재이상이 80.0%로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판매서비스(79.9%), 비경활인구(79.2%), 관리전문직과 농림생산직(각 78.8%)의 순서였다. 정치성향에서는 보수에서 81.4%, 중도 79.1%, 진보 7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38 | 인권의 존중 정도-문화권

단위 : %

전체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14.4	65.0	18.6	1.9	100.0	
성별						
남자	15.2	64.4	18.4	1.9	100.0	2.659(3)
여자	13.6	65.6	18.8	2.0	100.0	
지역						
도시[동부]	14.7	65.7	17.9	1.8	100.0	30.516(3)***
농어촌[읍면부]	13.3	62.0	22.1	2.6	100.0	
연령						
20-30대	17.4	64.0	17.0	1.6	100.0	45.136(6)***
40-50대	13.6	65.6	18.8	2.0	100.0	
60대 이상	12.2	65.3	20.2	2.3	100.0	
학력						
고졸이하	13.2	65.6	19.0	2.2	100.0	21.599(3)***
대재이상	15.5	64.5	18.3	1.7	100.0	
직업						
관리전문직	16.0	62.8	18.3	2.9	100.0	43.485(9)***
사무판매서비스	15.6	64.3	18.3	1.7	100.0	
농림생산직	12.0	66.8	19.3	1.9	100.0	
비경활인구	13.7	65.5	18.7	2.0	100.0	
종교						
없음	14.6	65.5	18.2	1.6	100.0	3.563(3)
있음	14.2	64.1	19.3	2.5	100.0	
정치성향						
진보	13.9	63.6	20.4	2.0	100.0	40.362(6)***
중도	13.6	65.5	18.9	1.9	100.0	
보수	16.0	65.4	16.7	1.9	100.0	

## 2) 차별의 심각성과 차별상황 및 취약집단에 대한 인식

### (1) 인권침해와 차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 침해와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자에게 매우 심각하다-다소 심각하다-별로 심각하지 않다-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응답하도록 했다. 질문에서 인권 침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차별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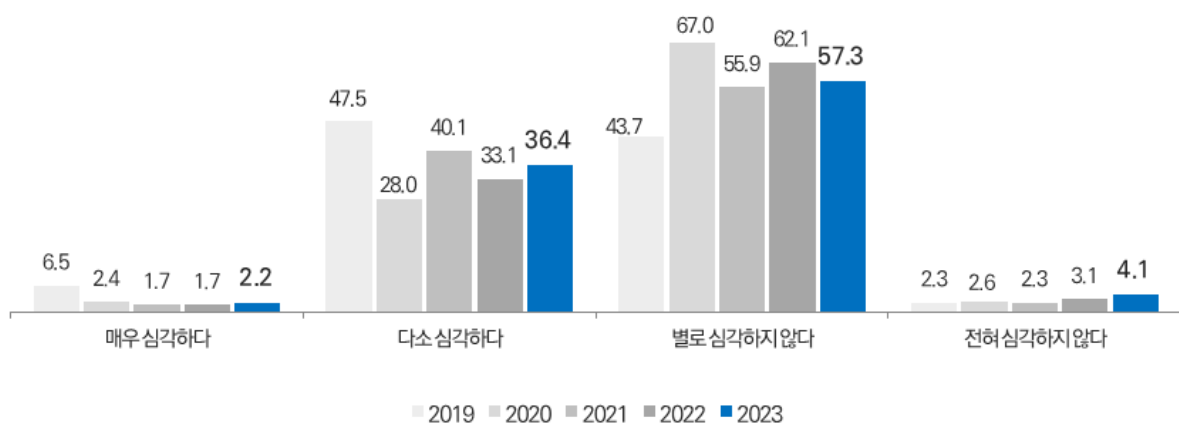
#### ①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아래 [그림 4-13]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권 침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항목별 응답의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2019년도에는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매우 심각+다소 심각)는 응답이 과반이지만(54.0%), 이후에는 절반 이하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2020년도에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2020년 30.4%, 2021년 41.8%, 2022년 34.8%), 2023년에는 작년에 비해 3.8%p 증가한 38.6%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지 않다(별로+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조사 시작 이후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4-13 |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 심각 정도에 대한 응답 비율의 추이

(단위: %)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종교 유무를 제외한 성별,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정치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38.1%)보다 남성(39.1%)이, 농어촌 거주에 비해(34.2%) 도시 거주(39.5%)가 우리나라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으며(40.8%) 이어 40-50대(39.2%), 60대 이상(35.3%)의 순서였다. 학력에 따라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대재이상(41.2%)이 고졸이하(35.5%)에 비해 5.7%p 더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관리전문직(42.2%)이 가장 높고 사무판매서비스(40.4%), 비경활인구(37.6%), 농림생산직(34.2%) 순서로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관리전문직과 가장 낮은 농림생산직 부정 응답 비율의 차이는 8.0%p로 큰 편이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33.3%) 보다는 진보(43.3%)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10.0%p로 다소 컸다.

표4-39 |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정도에 대한 평가

단위 : %

전체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2.2	36.4	57.3	4.1	100.0	
<b>성별</b>						
남자	2.3	36.8	57.2	3.7	100.0	8.084(3)*
여자	2.1	35.9	57.4	4.5	100.0	
<b>지역</b>						
도시[동부]	2.2	37.4	56.6	3.9	100.0	47.878(3)***
농어촌[읍면부]	2.3	31.9	60.5	5.2	100.0	
<b>연령</b>						
20-30대	2.7	38.1	55.6	3.6	100.0	95.967(6)***
40-50대	2.0	37.2	56.8	3.9	100.0	
60대 이상	1.9	33.4	59.8	4.9	100.0	
<b>학력</b>						
고졸이하	2.1	33.4	59.7	4.8	100.0	99.068(3)***
대재이상	2.3	38.9	55.3	3.5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2.3	40.0	55.2	2.5	100.0	77.367(9)***
사무판매서비스	2.3	38.1	55.6	4.1	100.0	
농림생산직	2.3	31.9	61.5	4.3	100.0	
비경활인구	2.0	35.6	58.0	4.4	100.0	
<b>종교</b>						
없음	2.0	36.0	57.9	4.1	100.0	3.781(3)
있음	2.5	37.0	56.3	4.1	100.0	
<b>정치성향</b>						
진보	3.5	39.8	53.7	3.0	100.0	190.285(6)***
중도	2.0	37.7	56.6	3.8	100.0	
보수	1.5	31.8	61.2	5.5	100.0	

## ②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각 연도별로 응답 항목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림 4-14]는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차별이 심각하다(매우 심각+다소 심각)는 응답 비율은 2019년에 69.1%로 과반으로 높았다가 2020년에는 33.7%로 크게 낮아졌다. 이후 등락을 보였지만 2023년에는 43.7%로 작년보다 6.1%p 증가했다. 2022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차별이 심각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고,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9년 이후 소폭으로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4-14 | 한국 사회의 차별 심각 정도에 대한 응답 추이**

(단위: %)



2023년도에 우리나라 차별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고(남성 44.3%, 여성 43.2%), 농어촌에 비해 도시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도시 44.6%, 농어촌 39.9%). 연령을 살펴보면 20-30대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46.3%),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았다(39.8%). 대재이상 학력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은 46.7%였고, 고졸이하에서는 이보다 6.4%p 낮은 40.3%였다. 직업별로 봤을 때,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집단은 관리전문직이었고(50.0%), 이어 사무판매서비스(45.8%), 농림생산직(41.9%), 비경활인구(40.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관리전문직과 비경활인구의 차이가 9.5%p로 두드러졌다. 가치관 측면에서는 종교 없음(44.2%), 진보(49.4%)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4-40 | 우리나라의 차별 정도에 대한 평가

단위 : %

전체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3.1	40.6	51.8	4.4	100.0	
성별						
남자	3.0	41.3	51.6	4.1	100.0	14.682(3)**
여자	3.2	40.0	52.0	4.7	100.0	
지역						
도시[동부]	3.1	41.5	51.0	4.4	100.0	66.812(3)***
농어촌[읍면부]	3.2	36.7	55.4	4.7	100.0	
연령						
20-30대	3.7	42.6	49.9	3.8	100.0	182.076(6)***
40-50대	3.2	41.4	51.3	4.0	100.0	
60대 이상	2.4	37.5	54.6	5.6	100.0	
학력						
고졸이하	2.9	37.5	54.5	5.2	100.0	154.858(3)***
대재이상	3.4	43.4	49.5	3.7	100.0	
직업						
관리전문직	3.9	46.1	47.3	2.7	100.0	116.850(9)***
사무판매서비스	3.6	42.2	49.8	4.4	100.0	
농림생산직	2.1	39.8	53.7	4.4	100.0	
비경활인구	2.9	37.6	54.7	4.8	100.0	
종교						
없음	2.9	41.3	51.3	4.5	100.0	18.164(3)***
있음	3.7	39.3	52.7	4.3	100.0	
정치성향						
진보	5.0	44.4	47.7	2.9	100.0	228.950(6)***
중도	2.7	40.8	52.7	3.7	100.0	
보수	2.2	37.3	53.9	6.6	100.0	

## (2)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 및 발생하기 쉬운 상황

### ①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

우리나라에서 누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3가지의 선택항목 중 순위별로 2가지를 응답하도록 했다. 선택지로 제시된 취약 집단은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 전과자, 성소수자, 경제적 빈곤층, 병력(질병)이 있는 사람, 비정규직, 기타였다.

[그림 4-15]는 항목별로 응답의 1, 2순위를 합산해서 각 연도별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응답 비율 상위 3위 내에 응답된 항목을 정리해보면 경제적 빈곤, 장애인, 노인,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 결혼이주민, 여성 등이었다. 2020년에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취약한 집단으로 장애인, 경제적 빈곤, 여성의 순서로 응답이 나타난 반면, 2021년 이후부터는 순위에 변화가 있었다. 경제적 빈곤이 가장 높았고, 이어 장애인이 두 번째였다. 세 번째로 높은 항목은 2021~22년에는 결혼이주민, 2023년에는 노인이었다.

2020~2023년 사이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으로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던 것은 병력, 한부모가족, 아동/청소년이었다.

2023년도 조사 결과에서 작년 대비 응답이 증가한 항목은 여성(3.6%p), 노인(2.0%p), 학력/학벌(1.9%p)이었고, 응답이 감소한 항목은 장애인(-2.8%p), 성소수자(-2.7%p), 결혼이주민(-2.4%p)이었다.

그림4-15 |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 응답 추이(1순위+2순위)

(단위: %)



## ②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보기로 제시된 상황은 공무원과 업무 처리,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 병원 치료·입원, 재판, 대중교통 이용, 물건 구매/서비스 이용, 가정생활, 유치원/어린이집 생활, 군대 생활, 보호시설 생활, 교도소 수감, 직장 생활, 학교생활, 인터넷 포털/SNS 이용, 기타의 15개 항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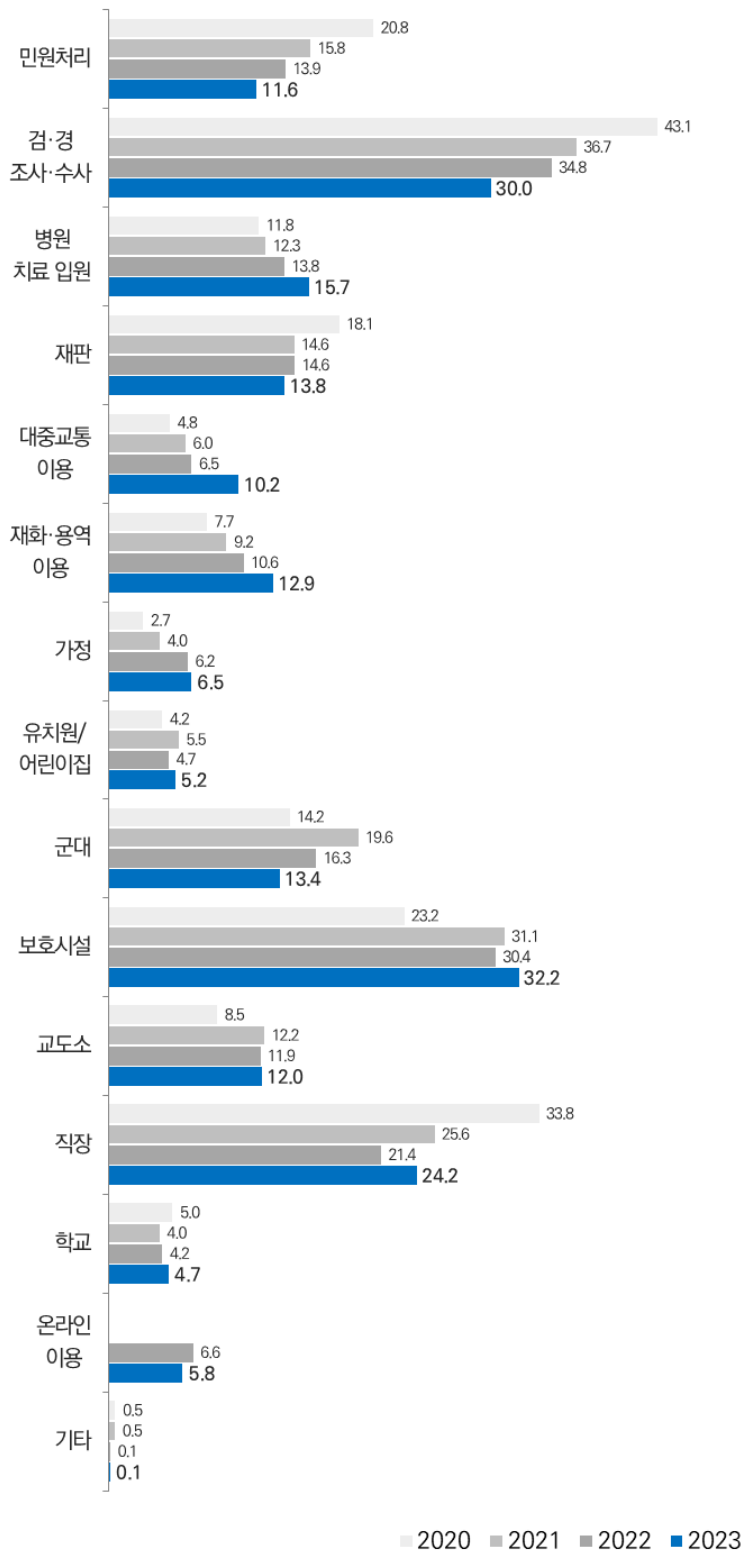
[그림 4-16]은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항목별로 합산한 비율을 연도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으로 많이 응답된 상위 3개 항목은 경찰/검찰의 조사·수사, 보호시설 생활, 직장 생활이었다. 2022년까지는 경찰/검찰의 조사·수사가 가장 높았으나, 2023년에는 보호시설 생활이 가장 높았다.

경찰/검찰 조사·수사에 대한 응답 비율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2020년 43.1%에서 2023년에는 30.0%로 13.1%p 감소했다. 반면 보호시설 생활은 2020년 23.2%에서 2023년 32.2%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9.0%p 차이). 직장생활은 2020년 33.8%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2023년에는 24.2%로 2022년 대비 2.8%p 증가하였다.

가장 적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기타를 제외한 14개 항목 중에서 가정(2020~2021년)과 학교(2022~2023년)였다. 학교에 대한 응답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가정은 2020년 2.7%에서 2023년 6.5%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4-16 |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1순위+2순위)

(단위: %)



### 3) 인권침해의 경험

#### (1) 시민, 정치적 권리의 침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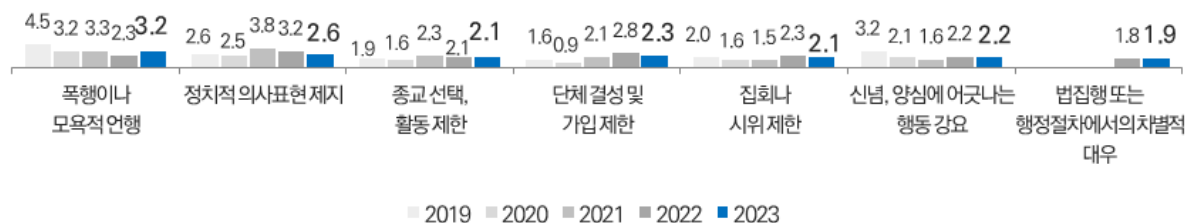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시민,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방해·비난·차별,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단체 결성이나 가입의 자유 제한, 집회나 시위의 자유 제한,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법집행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차별적 대우가 이에 해당한다. 응답 시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게 했으며, [그림 4-17]은 그 결과를 연도별, 항목별로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복수 응답을 반영했음에도 시민, 정치적 권리 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인다. 그 중 가장 많이 응답된 침해 유형은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과 정치적 의사 표현 제지였다.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의 경우 2019년에는 4.5%였고, 2022년에 2.3%로 나타나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3.2%로 전년 대비 0.9%p 증가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제지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19년 2.6% 이후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2021년에 3.8%로 증가했고, 이후 감소해 2023년에는 2.6%의 비율을 보였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작년보다 감소한 2.6%이고, 단체 결성 및 가입 제한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작년보다 약간 감소한 2.3%를 나타냈으며, 집회나 시위 제한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작년보다 감소했다(2.1%). 종교선택·활동 제한, 신념·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작년과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4-17 | 시민, 정치적 권리별 침해 경험 비율의 추이(중복응답)

(단위: %)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권리별 침해 경험 응답 비율을 응답자 배경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폭력이나 모욕적 언행이었고(남성 3.4%, 여성 3.0%), 성별에 따른 응답 비율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권리 항목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 등과 법 집행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차별적 대우였다(0.6%p차이). 도시와 농어촌을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권리 항목은 공통적으로 폭력이나 모욕적 언행이었고, 응답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 등이었다(1.5%p차이). 연령을 보면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이 폭력이나 모욕적 언행에서 나타난 반면, 40-50대에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 등이었다.

표4-41 |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중복응답)

단위 : %

전체	없음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정치적 의사표현의 제지, 방해, 비난, 처벌 등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단체 결성이나 가입의 자유 제한	집회나 시위의 자유 제한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법집행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차별적 대우
■ 전체 ■	90.8	3.2	2.6	2.1	2.3	2.1	2.2	1.9
<b>성별</b>								
남자	90.1	3.4	2.9	2.1	2.5	2.1	2.5	2.2
여자	91.5	3.0	2.3	2.1	2.1	2.1	2.0	1.6
<b>지역</b>								
도시[동부]	90.3	3.3	2.9	2.2	2.5	2.3	2.2	2.0
농어촌[읍면부]	92.9	2.7	1.4	1.6	1.5	1.1	2.6	1.5
<b>연령</b>								
20-30대	90.1	3.3	2.5	1.9	2.8	2.5	3.0	2.0
40-50대	90.2	2.6	3.1	2.3	2.2	2.0	2.1	2.1
60대 이상	92.3	3.9	2.1	2.1	1.9	1.8	1.6	1.6
<b>학력</b>								
고졸이하	92.1	3.2	2.2	2.2	2.1	1.9	1.8	1.6
대재이상	89.7	3.3	3.0	2.0	2.5	2.3	2.6	2.2
<b>직업</b>								
관리전문직	88.1	3.1	3.3	1.4	1.7	2.2	2.5	4.1
사무판매서비스	90.2	3.3	3.1	2.0	2.9	2.3	2.6	1.6
농림생산직	94.0	1.9	1.5	1.6	1.4	1.4	1.3	1.5
비경활인구	90.5	3.8	2.3	2.7	2.2	2.2	2.3	2.0
<b>종교</b>								
없음	91.2	3.1	2.5	2.2	2.4	2.1	2.3	1.6
있음	90.0	3.4	2.9	1.9	2.2	2.1	2.2	2.4
<b>정치성향</b>								
진보	88.6	3.5	3.5	1.3	2.1	2.4	3.2	3.0
중도	90.6	3.8	2.2	2.4	2.7	2.3	2.1	1.7
보수	92.8	2.1	2.4	2.3	2.0	1.6	1.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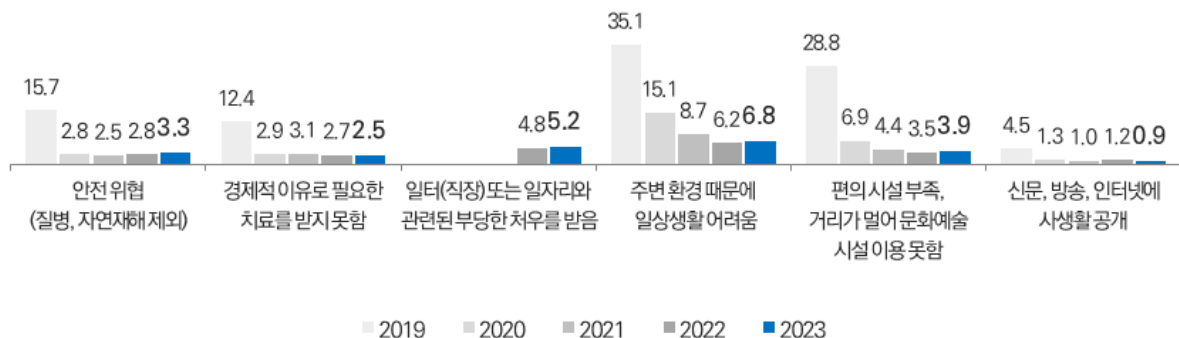
## (2)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

아래의 [그림 4-18]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별로 지난 1년 동안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연도별, 항목별로 표현한 것이다.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침해 상황으로 제시된 것은 안전의 위협,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함, 일터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소음, 악취, 빛 공해, 일조량, 대기 등), 편의 시설 부족 또는 거리가 멀어서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 못 함, 신문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 공개나 모욕적 대우를 받음의 6가지 상황이다.

조사가 시작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이었고, 2019년 35.1%에서 계속 감소해 2023년도에는 6.8%를 나타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편의시설 부족 및 문화예술 시설 이용 못함이었고, 2022년부터는 설문에 새로 추가된 일터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받음이었다. 편의시설 부족 및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 못함에 대한 응답은 2019년도에는 28.8%였다가 이후 계속 감소해 2023년에는 3.9%였다. 반면 일터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은 작년에 비해 올해 0.4%p 증가한 5.2%로 나타났다.

그림4-18 |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중복응답)

(단위: %)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 침해 유형으로써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공통적으로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이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농어촌에 비해 도시에서, 20-30대 연령에서, 고졸 이상보다는 대재이상 학력에서, 종교 있음에서, 진보에서 환경권을 침해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집단별 응답 비율 차이가 컸던 권리 침해 상황은 각기 달랐다. 성별은 안전의 위협에서 차이가 가장 컸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0.8%p 높았다. 지역 또한 안전의 위협에서 컸으며, 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1.6%p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일터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 받음과 환경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20-30대가 60대에 비해 2.2%p 높음). 학력별 응답 차이는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에서 컸는데, 고졸이하에 비해 대재이상이 더 높았다. 직업에서 차이는 편의시설 부족 또는

문화예술 시설 이용 못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6.0%p), 가장 높은 응답은 관리전문직이었고(8.5%), 가장 낮은 응답은 농림생산직(2.5%)이었다. 정치성향별로 가장 큰 응답 비율 차이를 보인 것은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이었다(진보-보수 4.9%p 차이).

표4-42 | 사회, 문화, 경제적 인권침해 경험(중복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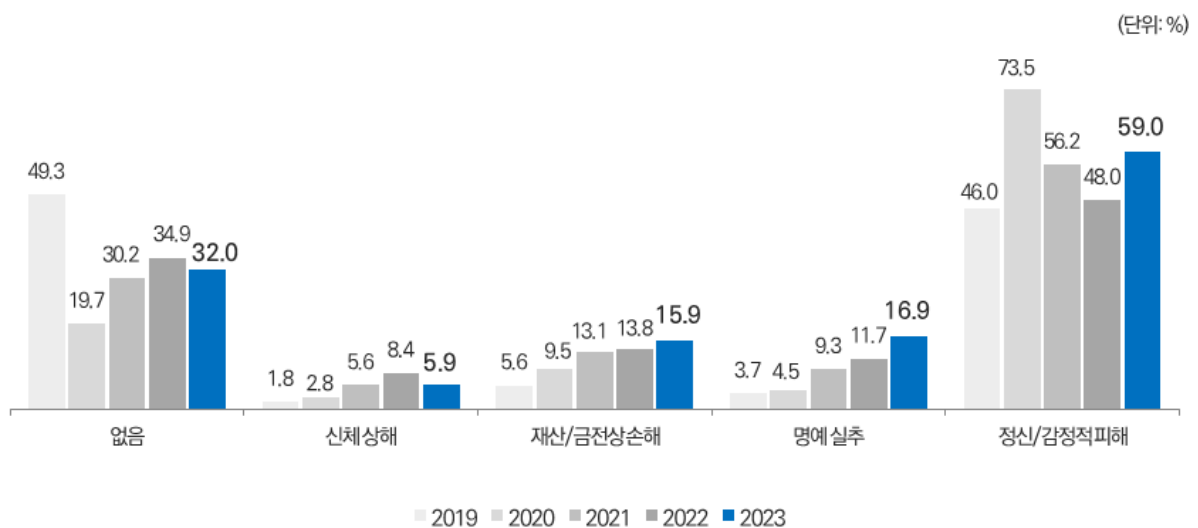
전체	없음	안전의 위협(질병·감염병 및 자연재해 제외)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함	일터(직장)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받음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소음, 악취, 빛 공해, 일조량, 대기 등)	편의 시설 부족 또는 거리가 멀어서 문화예술 시설(영화관, 공연장 등) 이용 못 함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 공개나 모욕적 대우를 받음
▣ 전체 ▣	86.1	3.3	2.5	5.2	6.8	3.9	0.9
<b>성별</b>							
남자	85.7	3.7	2.5	5.4	6.7	3.7	1.3
여자	86.6	2.9	2.4	5.0	6.9	4.0	0.5
<b>지역</b>							
도시[동부]	85.9	3.5	2.4	5.4	6.9	3.8	1.0
농어촌[읍면부]	87.0	1.9	2.6	4.4	6.3	4.3	0.5
<b>연령</b>							
20~30대	84.4	3.7	2.3	6.1	7.5	3.8	1.2
40~50대	84.8	3.5	2.3	5.4	7.4	4.7	0.9
60대 이상	89.7	2.6	2.8	3.9	5.3	2.9	0.7
<b>학력</b>							
고졸이하	89.1	2.5	2.5	4.0	5.1	2.7	0.4
대재이상	83.6	3.9	2.4	6.1	8.2	4.8	1.3
<b>직업</b>							
관리전문직	75.9	5.6	2.4	8.7	10.1	8.5	1.5
사무판매서비스	85.3	3.7	2.4	5.8	7.6	3.9	1.1
농림생산직	89.9	1.6	1.7	3.9	5.1	2.5	0.7
비경활인구	87.7	3.0	2.9	4.2	5.8	3.4	0.6
<b>종교</b>							
없음	87.4	2.8	2.6	5.1	6.1	2.7	0.7
있음	83.8	4.1	2.2	5.3	8.0	5.9	1.3
<b>정치성향</b>							
진보	81.1	5.0	2.3	6.8	9.6	5.5	1.8
중도	86.5	3.2	2.6	5.4	6.6	3.7	0.7
보수	89.7	1.9	2.4	3.6	4.7	2.8	0.5

### (3)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

[그림 4-19]는 시민, 정치적 권리 혹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 해당 인권 침해로 어떤 피해나 불이익을 당했는지 질문에 대한 항목별 응답 비율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피해가 있다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유형은 정신/감정적 피해인데, 2023년에는 59.0%였으며, 이는 2020년을 제외한 이전 연도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신체 상해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하다가 2023년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재산/금전상 손해와 명예실추의 응답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4-19 |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추이(중복응답)



2023년 조사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응답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정신적/감정적 피해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 농어촌보다 도시, 고졸이하보다 대학 재학 이상, 종교 없음 보다 종교 있음, 연령대별로는 20-30대,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 정치성향에서는 진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피해·불이익 응답 비율의 차이는 신체적 상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이 2.9%p 높았다. 지역별 응답 차이는 정신적/감정적 피해에서 가장 컸고, 농어촌에 비해 도시에서 4.8%p 높았다. 연령별 차이 또한 정신적/감정적 피해에서 가장 컸고, 연령이 낮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20-30대와 60대 이상의 차이는 12.7%p였다. 학력별 차이도 정신적/감정적 피해에서 가장 컸고, 대재이상이 고졸이하보다 9.8%p 높았다. 직업별로도 정신적/감정적 피해에서 가장 컸고, 가장 높은 관리전문직과 가장 낮은 농림생산직 차이는 17.5%p 이었다. 종교별로는 재산상/금전상 손해 영역에서 응답 비율 차이가 가장 컸는데, 종교 있음에 비해 종교 없음에서 9.0%p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정치성향 면에서의 차이는 사회적 명예실추에서 가장 컸고, 중도에서 진보에 비해 14.8%p 높게 나타났다.

표4-43 |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불이익(중복응답)

단위 : %

	없었음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적/감정적 피해 (모욕, 분노, 울분 등)	기타
▣ 전체 ▣	32.0	5.9	15.9	16.9	59.0	0.3
성별						
남자	31.3	7.3	17.1	17.1	58.4	0.3
여자	32.7	4.4	14.7	16.7	59.7	0.2
지역						
도시[동부]	31.7	6.0	15.4	17.2	59.8	0.2
농어촌[읍면부]	33.5	5.1	18.9	15.8	55.0	0.5
연령						
20-30대	24.3	7.0	17.7	14.9	65.1	0.6
40-50대	34.6	5.5	11.8	14.9	57.4	0.0
60대 이상	39.4	4.7	20.4	23.6	52.4	0.2
학력						
고졸이하	37.7	5.9	14.9	21.2	53.0	0.0
대재이상	28.5	5.8	16.6	14.3	62.8	0.4
직업						
관리전문직	21.6	6.9	12.6	14.6	71.0	0.6
사무판매서비스	33.9	4.7	14.1	17.1	57.1	0.2
농림생산직	38.1	6.5	13.4	14.0	53.5	0.0
비경활인구	30.5	7.0	21.4	18.8	59.6	0.3
종교						
없음	31.6	5.5	19.6	18.5	57.8	0.4
있음	32.5	6.3	10.6	14.7	60.8	0.1
정치성향						
진보	28.6	5.1	13.3	8.4	65.2	0.2
중도	32.2	5.3	18.1	23.2	57.7	0.3
보수	36.5	8.0	15.6	17.3	52.6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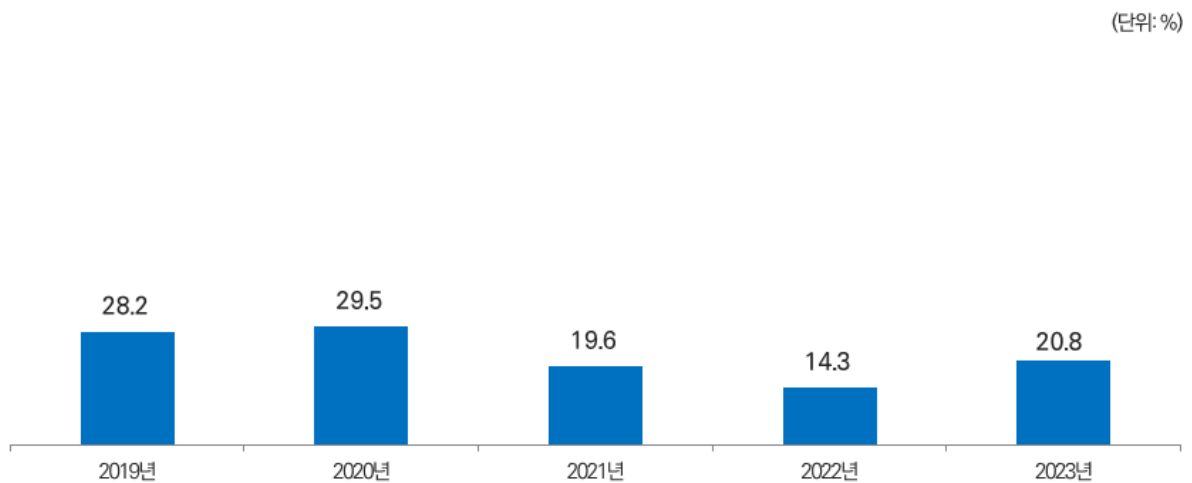
## 4) 차별의 경험

### (1) 차별 경험 비율 및 사유별 차별 경험

성별, 임신/출산, 종교, 사상/정치적 입장, 장애, 연령, 경제 지위, 고용 형태, 학력/학벌, 인종·출신·국가·민족·피부색, 신체조건, 혼인상황, 가족상황, 질병·병력,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 16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지난 1년 동안 각 항목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그림 4-20]은 어떤 사유로든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제시한 그래프이다.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20년 29.5%, 2021년 19.6%, 2022년 14.3%로 차별 경험 응답이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23년에는 20.8%를 나타내 작년 대비 증가했다.

그림4-20 | 차별 경험 비율의 추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이유든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을 응답자 배경별로 살펴보면, 성별,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20.4%)에 비해 여성(21.3%)에서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지역에서는 농어촌(17.0%)에 비해 도시(21.6%)에서 더 높았다.

연령을 보면 20-30대에서 23.2%, 40-50대에서 20.1%, 60대 이상에서 19.1%로 연령대가 낮은 집단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졸이하(18.9%)에 비해 대재이상(22.4%)에서 차별 경험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관리전문직(32.3%)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무판매서비스(21.3%), 비경활인구(19.4%), 농림생산직(17.3%)의 순서였다.

가치관에서는 종교 없음(18.4%)에 비해 종교 있음(25.2%)에서 높았고, 진보(2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44 |**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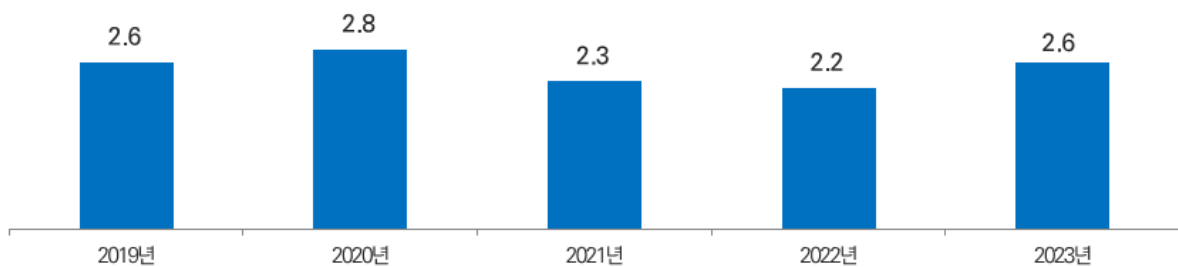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없음	있음	계	$\chi^2(df)$
▣ 전체 ▣	79.2	20.8	100.0	
<b>성별</b>				
남자	79.6	20.4	100.0	4.834(1)*
여자	78.7	21.3	100.0	
<b>지역</b>				
도시[동부]	78.4	21.6	100.0	17.160(1)***
농어촌[읍면부]	83.0	17.0	100.0	
<b>연령</b>				
20-30대	76.8	23.2	100.0	98.881(2)***
40-50대	79.9	20.1	100.0	
60대 이상	80.9	19.1	100.0	
<b>학력</b>				
고졸이하	81.1	18.9	100.0	62.690(1)***
대재이상	77.6	22.4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67.7	32.3	100.0	162.996(3)***
사무판매서비스	78.7	21.3	100.0	
농림생산직	82.7	17.3	100.0	
비경활인구	80.6	19.4	100.0	
<b>종교</b>				
없음	81.6	18.4	100.0	68.961(1)***
있음	74.8	25.2	100.0	
<b>정치성향</b>				
진보	72.4	27.6	100.0	146.147(2)***
중도	80.6	19.4	100.0	
보수	82.7	17.3	100.0	

[그림 4-21]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차별 사유의 평균 개수를 연도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020년에 2.8개, 2021년 2.3개 2022년 2.2개로 차별 사유의 평균 개수는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2023년도에는 2.6개로, 이전 연도 대비 소폭 증가했다.

그림4-21 | 차별 경험 응답자의 차별 사유 평균 개수의 연도별 차이

(단위: 개)



차별 사유별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연도별로 살펴보았다([그림 4-22]).

각 연도별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 상위 세 가지는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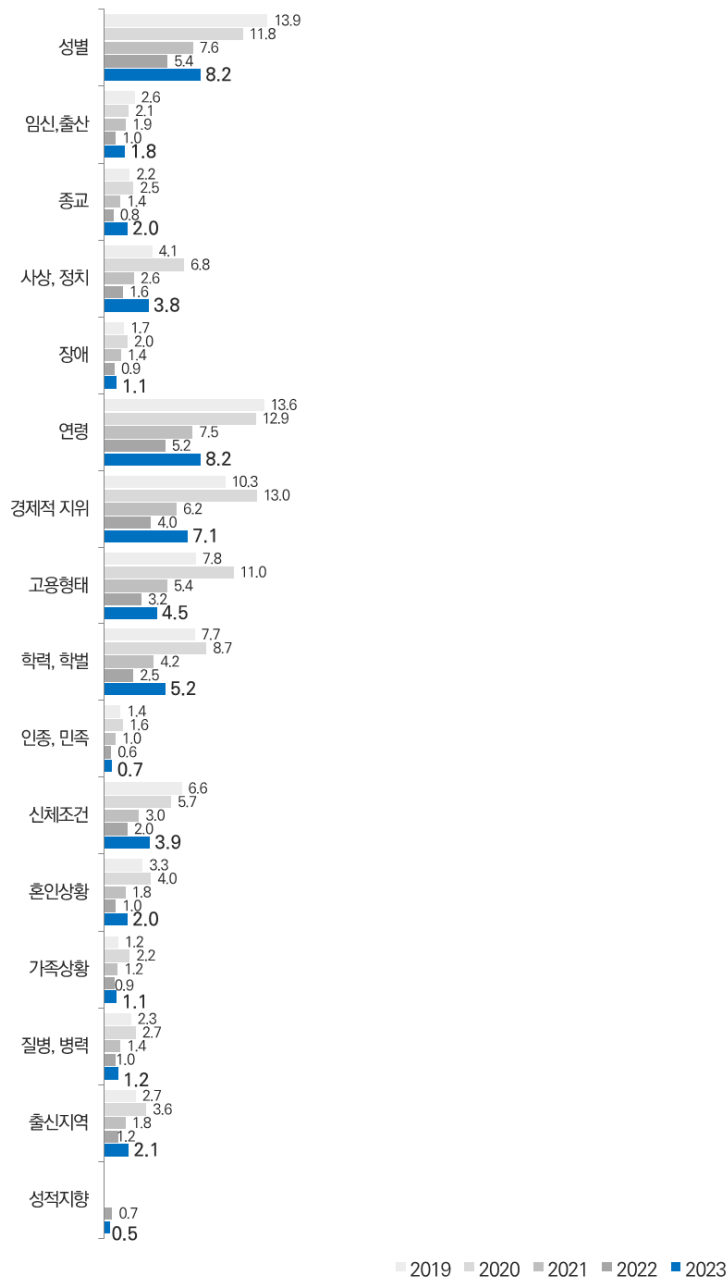
성별로 인한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2019년에 13.9%에서 2022년 5.4%까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23년에 다시 8.2%를 나타내 2.8%p 증가했다.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2019년 13.6%에서 2022년에 5.2%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3년에 8.2%로 3.0%p 증가했다.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2019년에 10.3%, 2020년에는 13.0%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해서 2022년에는 4.0%를 나타냈지만, 2023년에는 3.1%p 증가한 7.1%를 보이고 있다.

그림4-22 | 차별 사유별 차별 경험 응답 비율 추이

(단위: %)





차별 사유별로 차별 경험 응답 비율 상위 3개 항목에 대해 응답자 배경별로 살펴보았다.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5.7%)에 비해 여성(10.7%)에서 높았고, 농어촌(6.1%)에 비해 도시(8.7%)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11.8%로 가장 높았고, 40-50대 7.9%, 60대 이상 4.7%의 순서였다. 학력에서는 고졸이하(5.7%)에 비해 대재이상(10.4%)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았다. 직업에서는 관리전문직(11.9%)에서 가장 높았고, 사무판매서비스(9.2%), 비경활인구(8.5%), 농림생산직(3.6%)의 순서로 나타났다. 종교 있음(9.3%), 진보(11.8%)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겪어봤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8.6%), 도시(8.5%), 60대 이상(11.9%), 고졸이하(9.3%), 관리전문직(14.0%), 종교 있음(10.3%), 진보(9.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남성(8.1%), 도시(7.3%), 20-30대(7.3%), 대재이상(8.1%), 관리전문직(14.0%), 종교 있음(8.9%), 진보(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45 |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_‘있음’만(1)

단위 : %

전체	성별	임신/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입장	장애	연령	경제 지위	고용 형태
▣ 전체 ▣	8.2	1.8	2.0	3.8	1.1	8.2	7.1	4.5
<b>성별</b>								
남자	5.7	0.0	2.0	4.7	1.1	7.8	8.1	4.5
여자	10.7	3.5	1.9	2.9	1.2	8.6	6.2	4.5
<b>지역</b>								
도시[동부]	8.7	1.8	1.9	3.9	1.1	8.5	7.3	4.6
농어촌[읍면부]	6.1	1.6	2.4	3.5	1.4	7.2	6.2	4.1
<b>연령</b>								
20-30대	11.8	2.5	2.1	3.9	0.7	7.7	7.3	5.4
40-50대	7.9	1.8	2.0	4.0	1.2	5.9	7.2	4.6
60대 이상	4.7	1.0	1.8	3.4	1.5	11.9	6.9	3.4
<b>학력</b>								
고졸이하	5.7	1.2	1.6	2.6	1.3	9.3	6.1	4.0
대재이상	10.4	2.2	2.3	4.8	1.0	7.3	8.1	5.0
<b>직업</b>								
관리전문직	11.9	2.6	4.5	8.0	2.1	12.3	14.0	6.2
사무판매서비스	9.2	1.4	1.7	3.9	0.7	6.9	7.6	5.0
농림생산직	3.6	0.3	1.1	2.3	1.1	7.2	6.1	4.7
비경활인구	8.5	2.9	2.3	3.5	1.6	9.8	5.5	3.3
<b>종교</b>								
없음	7.6	1.7	1.3	3.2	0.8	7.1	6.2	4.0
있음	9.3	1.8	3.3	4.9	1.7	10.3	8.9	5.4
<b>정치성향</b>								
진보	11.8	2.2	2.0	5.4	1.2	9.0	9.2	6.2
중도	8.6	1.8	2.0	3.4	1.2	7.6	7.8	4.5
보수	4.8	1.2	1.9	3.0	1.1	8.6	4.6	3.1

[ 계 속 ]

표4-46 |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_‘있음’만(2)

단위 : %

전체	학력/학벌	인종, 출신, 국가/민족, 피부색	신체조건	혼인상황	가족상황	질병/병력	출신지역	성적지향
▣ 전체 ▣	5.2	0.7	3.9	2.0	1.1	1.2	2.1	0.5
<b>성별</b>								
남자	5.9	0.7	3.5	1.4	0.8	1.2	2.2	0.4
여자	4.6	0.8	4.3	2.5	1.3	1.3	2.1	0.6
<b>지역</b>								
도시[동부]	5.4	0.7	4.3	2.0	1.1	1.2	2.0	0.5
농어촌[읍면부]	4.6	0.7	2.0	1.6	1.2	1.5	3.0	0.6
<b>연령</b>								
20~30대	6.7	0.9	6.0	1.9	1.2	1.2	2.1	0.6
40~50대	4.7	0.7	4.0	2.3	1.1	1.1	2.2	0.6
60대 이상	4.3	0.5	1.4	1.7	0.9	1.5	2.2	0.3
<b>학력</b>								
고졸이하	4.9	0.6	2.2	1.6	0.8	1.2	1.8	0.4
대재이상	5.5	0.9	5.3	2.3	1.3	1.3	2.5	0.6
<b>직업</b>								
관리전문직	8.1	2.4	8.3	4.8	2.5	2.4	5.5	1.9
사무판매서비스	6.0	0.6	4.7	2.2	1.1	1.0	1.8	0.4
농림생산직	3.3	0.4	1.7	1.8	0.6	1.2	1.5	0.3
비경활인구	4.5	0.7	2.9	1.1	0.9	1.4	2.2	0.4
<b>종교</b>								
없음	4.5	0.6	3.6	1.8	0.9	1.1	1.6	0.4
있음	6.6	1.0	4.4	2.2	1.3	1.6	3.2	0.7
<b>정치성향</b>								
진보	7.4	0.9	6.2	2.7	1.4	1.3	3.5	0.7
중도	5.5	0.8	3.8	1.7	1.2	1.4	1.9	0.5
보수	3.0	0.4	2.1	1.7	0.7	1.1	1.4	0.4

### (3) 사유별 차별의 유형

차별 사유별로 받은 차별의 유형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성별로 인한 차별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난 차별 유형은 신체적/언어적 폭력(55.0%)이었고, 이어서 일자리 관련 차별(29.1%),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24.3%), 따돌림이나 배제(13.2%)였다. 연령으로 인한 차별의 경우 차별 유형은 일자리 관련 차별(39.7%), 신체적/언어적 폭력(30.7%), 따돌림이나 배제(26.2%),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23.0%)의 순서였다.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은 일자리 관련 차별(33.3%), 신체적/언어적 폭력(31.0%), 따돌림이나 배제(28.6%),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26.4%)의 순서였다.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 고용 형태로 인한 차별,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은 일자리 관련 차별의 유형으로 나타난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혼인 상황으로 인한 차별, 사상·정치로 인한 차별, 출신 지역으로 인한 차별, 질병·병력으로 인한 차별, 인종·민족으로 인한 차별은 따돌림이나 배제 유형으로 나타났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체 조건으로 인한 차별은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경우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 시 차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4-47 | 차별 사유별 차별의 유형

(단위: %)

차별 이유	차별 경험	차별 유형			
	있다	신체적/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성별	8.2	55.0	29.1	24.3	13.2
임신, 출산	1.8	15.1	59.3	23.7	15.5
종교	2.0	17.9	21.1	11.2	57.2
사상, 정치	3.8	40.8	16.1	12.3	43.8
장애	1.1	33.5	34.6	36.9	35.4
연령	8.2	30.7	39.7	23.0	26.2
경제적 지위	7.1	31.0	33.3	26.4	28.6
고용형태	4.5	18.0	61.3	10.2	24.0
학력, 학벌	5.2	25.8	54.0	11.7	29.3
인종, 민족	0.7	18.8	31.2	25.1	38.0
신체조건	3.9	64.4	15.1	14.8	25.7
혼인상황	2.0	35.4	24.9	13.9	36.9
가족상황	1.1	26.6	24.9	20.6	41.8
질병, 병력	1.2	16.2	31.6	29.2	37.3
출신지역	2.1	25.6	18.8	12.8	51.3
성적 지향	0.5	17.7	34.1	24.1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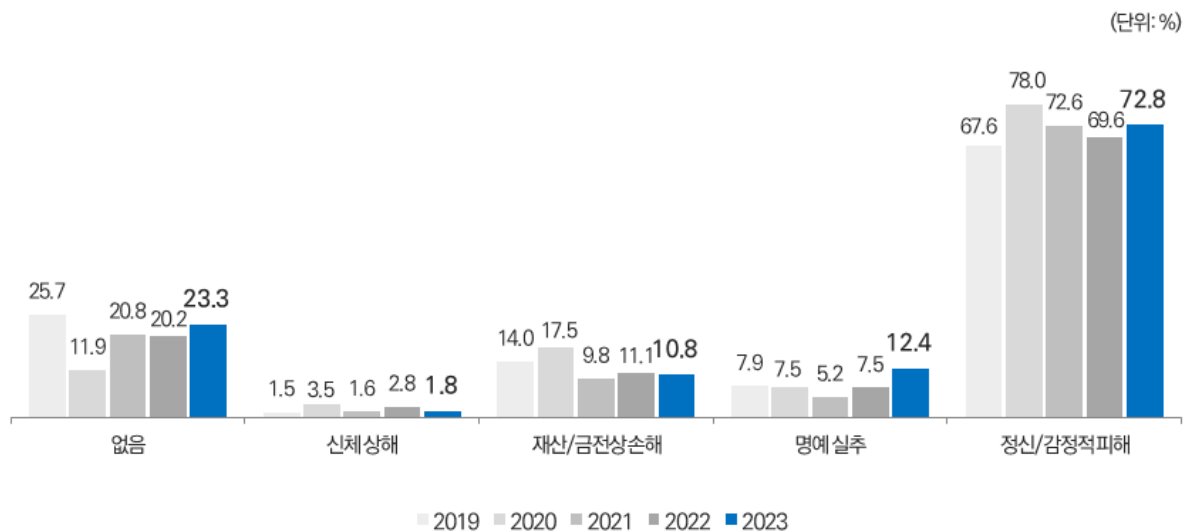
#### (4) 차별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차별을 통해 받게 된 피해나 불이익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정신적/감정적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2019년 67.6%에서 2020년에는 78.0%로 급증했고, 이후 감소해서 2022년에는 69.6%였지만 2023년에는 이보다 3.2%p 증가한 72.8%를 나타내고 있다.

재산/금전상의 손해를 받았다는 응답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0.3%p)인 10.8%이고, 명예 실추를 피해로 응답한 사람은 2021년을 제외하면 7%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에 12.4%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4.9%p).

**그림4-23 | 차별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추이(중복응답)**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차별을 통해 정신적/감정적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여성(74.1%), 농어촌(80.1%), 60대 이상(73.4%), 관리전문직(74.6%), 종교 있음(73.9%), 진보(76.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적 명예실추를 당했다는 응답은 여성(12.8%), 농어촌(14.2%), 60대 이상(15.1%), 비경활인구(16.0%), 중도(14.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재산/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응답은 남성(11.0%), 농어촌(14.4%), 40-50대(11.0%), 대재이상(11.2%), 농림생산직(12.1%), 중도(13.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4-48 | 차별로 인한 피해·불이익(중복응답)

단위 : %

차별 경험 있음	없었음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적/감정적 피해 (모욕, 분노, 울분 등)	기타
▣ 전체 ▣	23.3	1.8	10.8	12.4	72.8	0.1
성별						
남자	25.1	1.4	11.0	12.0	71.5	0.2
여자	21.5	2.2	10.6	12.8	74.1	0.0
지역						
도시[동부]	24.5	1.6	10.2	12.1	71.6	0.1
농어촌[읍면부]	15.8	3.0	14.4	14.2	80.1	0.0
연령						
20~30대	23.0	1.8	10.8	10.9	72.1	0.3
40~50대	23.0	2.2	11.0	11.9	73.2	0.0
60대 이상	24.0	1.1	10.6	15.1	73.4	0.1
학력						
고졸이하	23.9	2.2	10.2	12.3	72.9	0.0
대재이상	22.8	1.5	11.2	12.5	72.8	0.2
직업						
관리전문직	22.1	1.7	10.1	9.2	74.6	0.5
사무판매서비스	24.9	1.2	10.0	11.7	71.4	0.1
농림생산직	15.6	1.7	12.1	9.9	79.9	0.0
비경활인구	24.9	2.7	11.6	16.0	70.8	0.0
종교						
없음	24.4	1.4	12.9	12.2	72.0	0.1
있음	21.7	2.3	8.0	12.8	73.9	0.2
정치성향						
진보	20.1	1.4	8.3	9.8	76.0	0.0
중도	21.7	2.4	13.4	14.0	73.4	0.3
보수	29.8	1.3	9.8	13.3	67.7	0.1

## 5) 인권침해, 차별의 가해자와 대응

### (1)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

본인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이나 상황을 순위대로 두 항목을 선택하도록 질문하고, 1, 2순위를 합친 응답 비율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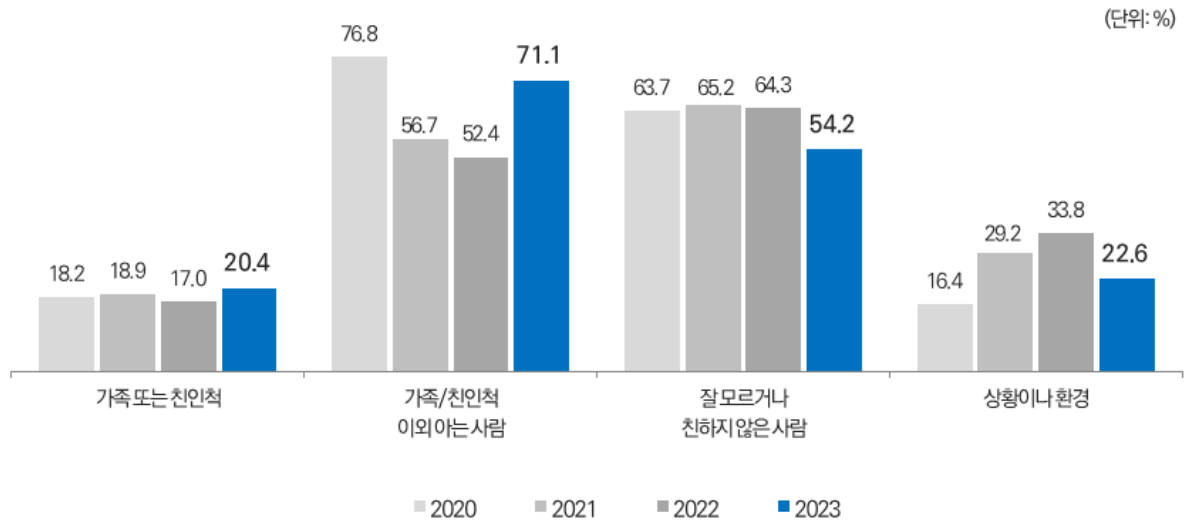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가족/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으로, 2019년에 76.8%를 나타내고 이후 감소 추세로 2022년에는 52.4%였는데, 2023년에는 다시 크게 증가하여 71.1%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2019년 63.7% 이후 계속 65% 이내에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나타내다가 2023년에는 54.2%로 작년보다 10.1%p 감소하였다.

가족 또는 친인척이라는 응답은 2022년에 17.0%에 비해 3.4%p 증가한 20.4%였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나 차별이었다는 응답은 2019년 이후 크게 증가해 2022년에는 33.8%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다시 크게 감소하여(-11.2%p) 22.6%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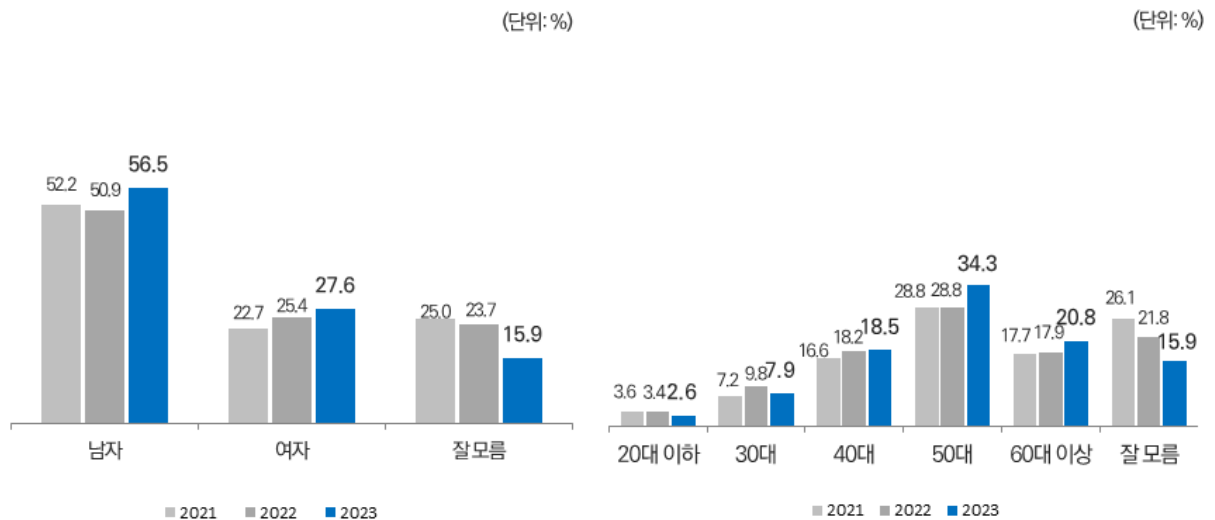
그림4-24 |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와의 관계(1순위+2순위)



가장 심각했던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살펴보면, 가해자 성별이 남성이 가장 많았고(56.5%), 여성은 27.6%, 잘 모르는 경우 15.9%였다.

가해자 연령은 50대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이상 20.8%, 40대 18.5%, 잘 모름 15.9%, 30대 7.9%, 20대 이하 2.6%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4-25 | 인권침해나 차별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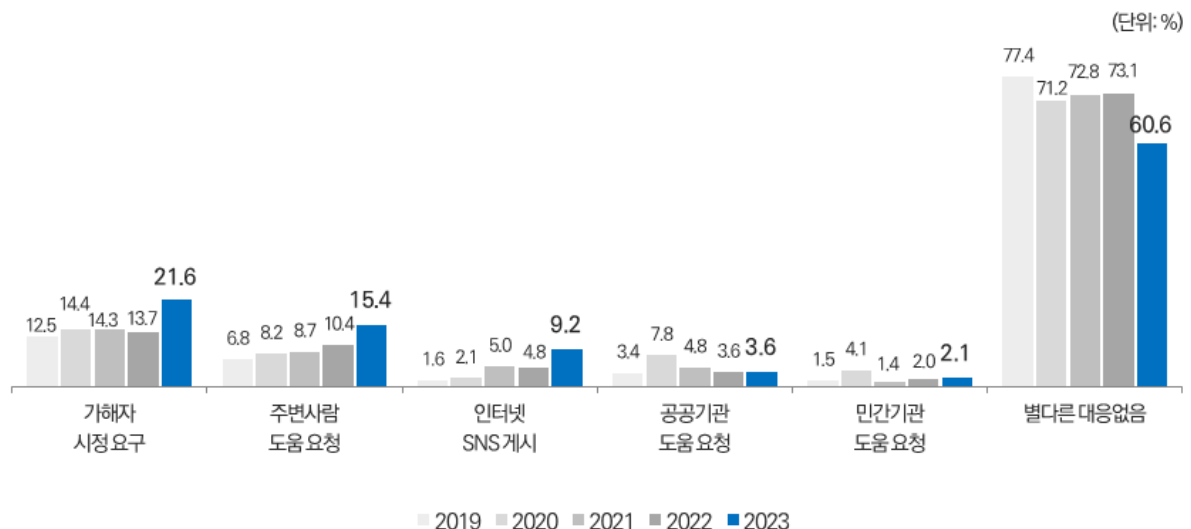


## (2)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응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2019년에는 77.4% 이후 소폭 감소해 2022년에는 73.1%였다가 2023년에는 60.6%로 크게 감소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대응을 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했다는 항목이 가장 높았는데, 2019년에는 12.5%에서 소폭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13.7%를 보이다가 2023년에는 7.9%p 증가한 21.6%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15.4%를 나타내었다. 인터넷, SNS 등에 게시했다는 응답은 2019년에는 1.6%로 매우 낮았지만, 점차 증가해 2023년에는 9.2%를 나타냈다.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작년과 동일한 3.6%로 나타났다.

그림4-26 |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응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중복응답)



인권침해나 차별을 겪었을 때,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질문했다(중복응답). 2023년도 기준 가장 높은 항목은 지방자치단체였는데, 2020년도에는 47.7%였고, 이후 크게 감소해 2022년에는 29.7%였는데, 2023년에는 그 보다 10.7%p 증가한 40.4%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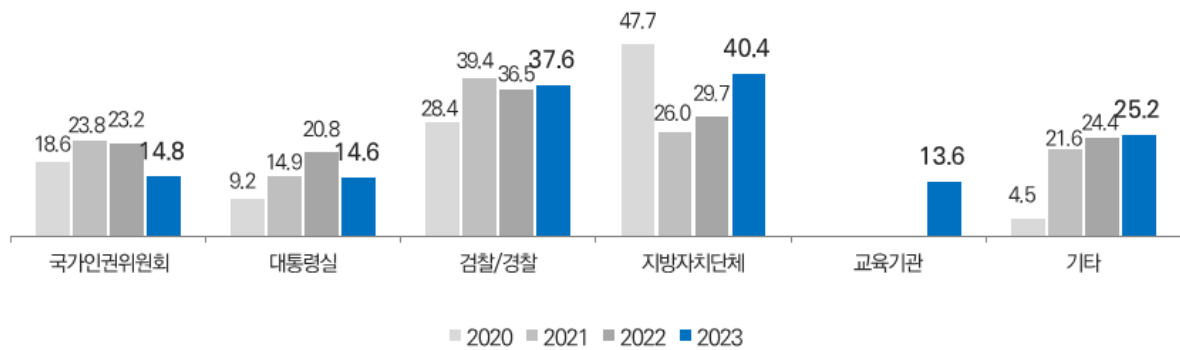
검찰/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고, 이는 2020년 대비 9.2%p, 작년 대비 1.1%p 증가해서 2023년 37.6%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2020년에는 4.5%로 낮았지만, 이후 크게 증가해 2023년에는 25.2%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2020년 18.6%였다가 이후 증가해 2022년에는 23.2%였지만, 올해는 크게 감소해 14.8%를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실(과거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2020년 9.2%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20.8%를 나타냈으나, 2023년에는 감소해 14.6%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조사에 처음 포함된 교육기관(학교 인권센터, 위클래스 포함)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3.6%로 나타났다.

그림4-27 |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중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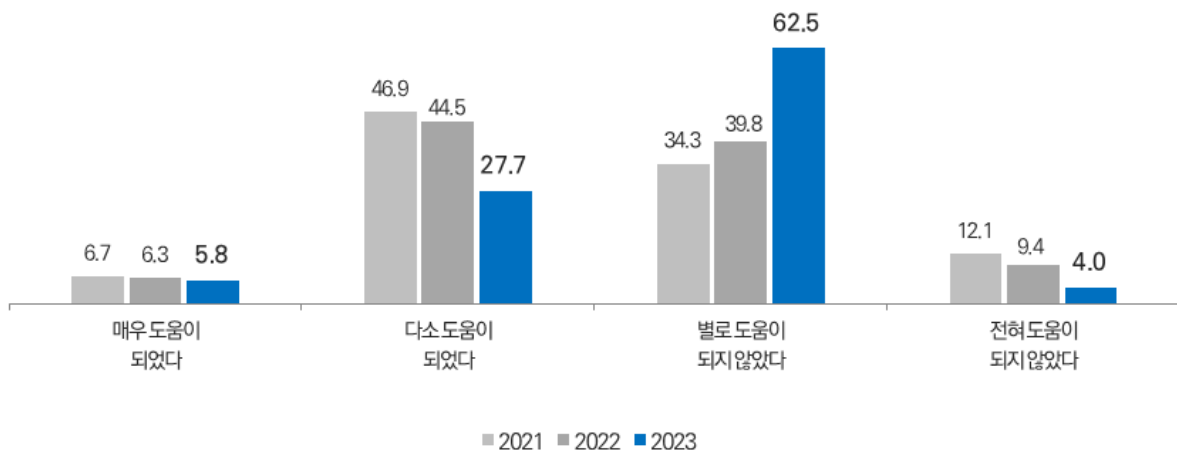


도움을 요청했던 공공기관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도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3.6%, 2022년에는 50.8%로 과반이었던 반면, 2023년에는 33.5%로 크게 감소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2021년 6.7%, 2022년 6.3%, 2023년 5.8%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그림4-28 |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의 결과 응답

(단위: %)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뒤 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경우, 도움을 요청한 민간기관은 어디였는지 조사한 결과 법률전문가,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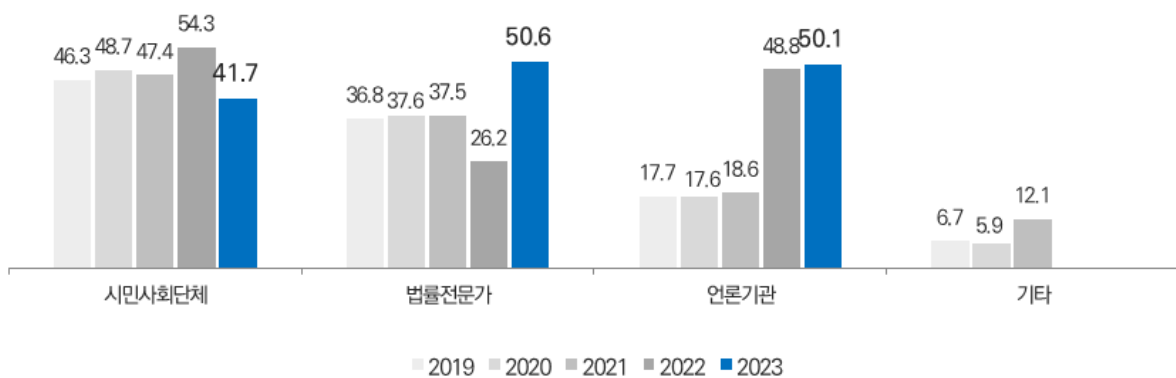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6~37%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다가 2022년에 26.2%로 감소했었는데, 2023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50.6%를 보이고 있다.



언론기관에 도움을 청했다는 응답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17~18%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2022년에 급증해 48.8%를, 2023년에는 50.1%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청했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 46.3%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22년 54.3%를 나타낸 이후 크게 감소해 2023년에는 41.7%를 보이고 있다.

그림4-29 | 민간기관에 도움 요청 연도별 추이(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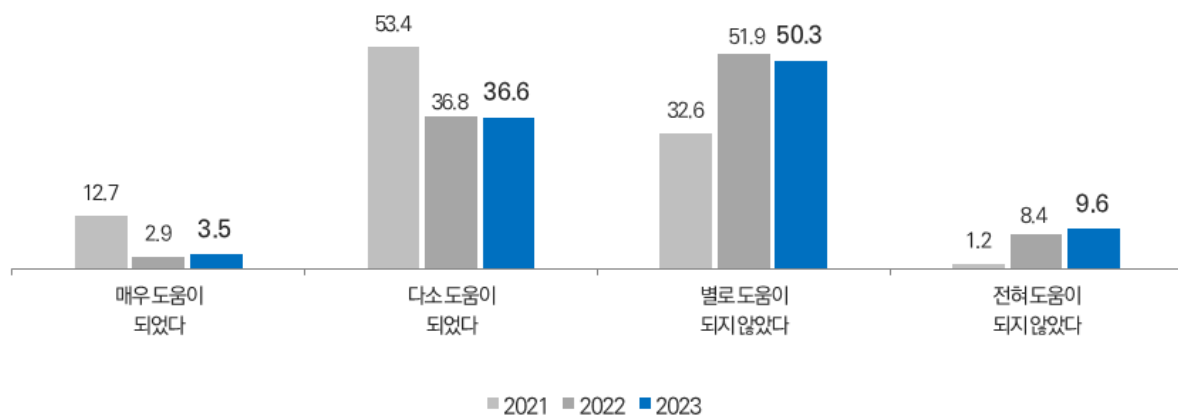
(단위: %)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결과 전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2021년에는 66.2%였지만, 2022년에 크게 감소한 39.7%, 2023년에는 40.1%를 나타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2023년 59.9%로 과반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21년 1.2%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9.6%로 크게 증가했다.

그림4-30 | 민간기관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

(단위: %)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음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응답 비율이 높은 순서로 나열해 보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어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의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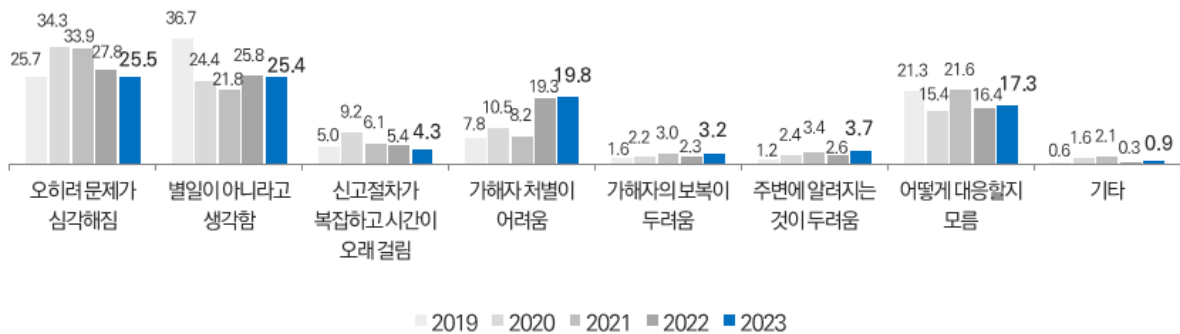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은 2019년에 25.7%였다가 2020-2021년에는 다소 증가한 33~34%를 나타내었고, 2022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서 2023년에는 25.5%로 나타났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은 2019년 36.7%에서 감소하여 2021년 21.8%였고, 이후 약간 증가해서 2023년 25.4%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19년 7.8%에서 증가해서 2022년 19.3%, 2023년에는 19.8%를 나타냈다.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라는 응답은 2023년에 17.3%였는데, 이는 2019년(21.3%)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작년(16.4%)에 비해서는 증가한 수치이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는 응답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다는 응답은 모두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4-31 |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시 아무 대응하지 않은 이유의 연도별 추이

(단위: %)



## 3

## 인권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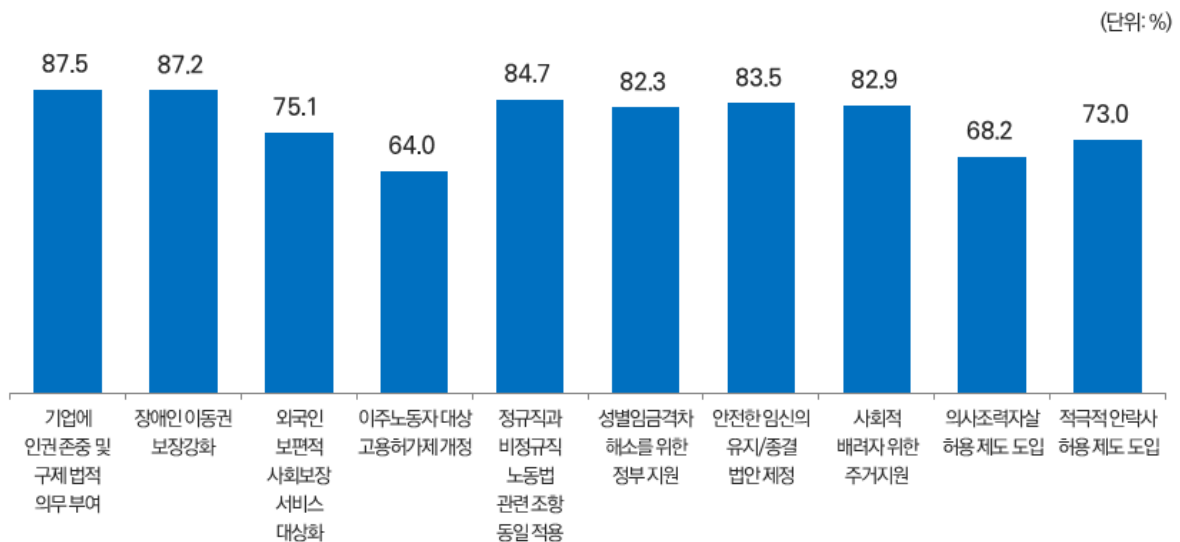


## 1) 주요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2023년에는 한국의 사회 변화에 따른 인권 관련 쟁점들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신규 10개 문항으로 나누어 질문하였고, 찬성과 반대를 양 끝으로 하는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새로운 인권 관련 쟁점은 기업에 인권 존중 및 구제 법적 의무 부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외국인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화, 이주노동자 대상 고용허가제 개정,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법 관련 조항 동일 적용,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안전한 임신의 유지·종결 법안 제정, 노숙자·장애인·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주거 지원, 의사조력자살 허용 제도 도입, 적극적 안락사 허용 제도 도입의 10개이다.

아래 [그림 4-32]는 각 인권 관련 쟁점별로 긍정 응답 비율을 모아 정리한 그래프이다. 가장 높은 긍정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기업에 인권 존중 및 구제 법적 의무 부여로, 전체의 87.5%가 긍정 응답을 했다. 이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87.2%),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법 관련 조항 동일 적용(84.7%)의 순서로 높았다. 이주노동자 대상 고용허가제 개정은 64.0%로 가장 낮았고, 의사 조력자살 허용 제도 도입(68.2%), 적극적 안락사 제도 도입(73.0%)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림4-32 | 인권 쟁점별 긍정 의견 비율



**(1) 기업에 인권 존중 및 구제 법적 의무 부여**

기업에게 인권 존중 및 구제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쟁점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을 제외한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차이는 근소했다(남성 87.3%, 여성 87.7%).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찬성 응답 비율이 4.6%p 높았다(도시 86.7%, 농어촌 91.3%).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아졌고(60대 이상 88.0%, 40-50대 87.8%, 20-30대 86.7%),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와 대재이상의 찬성 응답 비율이 동일했다(각 87.5%). 직업별로는 다른 직업 집단에 비해 관리전문직(88.9%)에서 높았고, 사무판매서비스직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85.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종교 있음(87.7%)이 종교 없음(87.4%) 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고,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진보 90.7%, 중도 89.2%, 보수 82.5%).

**표4-49 | 인권 관련 의견-기업에 인권 존중 및 구제 법적 의무 부여**

단위 : %

전체	① 찬성한다	②	③	④ 반대한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35.6	51.9	10.9	1.6	100.0	
<b>성별</b>						
남자	35.6	51.7	11.0	1.7	100.0	4.169(3)
여자	35.6	52.1	10.8	1.5	100.0	
<b>지역</b>						
도시[동부]	34.1	52.6	11.8	1.6	100.0	46.506(3)***
농어촌[읍면부]	42.8	48.6	7.0	1.7	100.0	
<b>연령</b>						
20-30대	36.6	50.0	11.6	1.7	100.0	44.945(6)***
40-50대	36.6	51.3	10.4	1.8	100.0	
60대 이상	33.3	54.7	10.8	1.2	100.0	
<b>학력</b>						
고졸이하	34.6	53.0	10.8	1.6	100.0	37.990(3)***
대재이상	36.5	50.9	11.0	1.5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45.1	43.8	8.6	2.4	100.0	75.994(9)***
사무판매서비스	34.4	51.4	12.6	1.6	100.0	
농림생산직	39.5	49.5	9.2	1.8	100.0	
비경활인구	33.0	55.8	9.9	1.2	100.0	
<b>종교</b>						
없음	36.3	51.2	10.9	1.7	100.0	24.554(3)***
있음	34.5	53.2	10.9	1.4	100.0	
<b>정치성향</b>						
진보	41.4	49.3	8.1	1.3	100.0	164.622(6)***
중도	34.8	54.4	9.5	1.3	100.0	
보수	32.1	50.4	15.3	2.3	100.0	

##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배경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찬성 응답이 많았지만(남성 86.9% 여성 87.4%)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거주 지역에서는 도시(86.3%)에 비해 농어촌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고(91.3%), 학력에서는 대재이상이 더 높았다(고졸이하 86.6%, 대재이상 87.6%). 연령별로는 40-50대가 87.7%로 가장 높았고, 20-30대에서 87.5%, 60대 이상에서 86.1%였다. 직업을 보면 농림생산직에서 가장 높았고(89.1%), 이어 관리전문직(89.0%), 비경활인구(86.8%), 사무판매팀서비스(86.3%) 순서였다. 종교 있음에 비해 종교 없음에서 긍정 비율이 약간 높았고(없음 87.2%, 있음 87.1%),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에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았고, 보수에서 가장 낮았다(진보 90.8%, 보수 82.0%).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50 | 인권 관련 의견-장애인 이동권 보장강화

단위 : %

전체	① 찬성한다	②	③	④ 반대한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38.4	48.8	11.7	1.2	100.0	
성별						
남자	38.2	48.7	11.8	1.3	100.0	1.631(3)
여자	38.5	48.9	11.5	1.1	100.0	
지역						
도시[동부]	36.4	49.9	12.6	1.2	100.0	71.558(3)***
농어촌[읍면부]	47.5	43.8	7.6	1.1	100.0	
연령						
20-30대	39.2	48.2	10.9	1.7	100.0	38.149(6)***
40-50대	39.0	48.7	11.6	0.7	100.0	
60대 이상	36.5	49.6	12.7	1.2	100.0	
학력						
고졸이하	37.6	49.0	12.0	1.3	100.0	21.141(3)***
대재이상	39.0	48.6	11.4	1.1	100.0	
직업						
관리전문직	44.0	45.0	9.9	1.1	100.0	36.173(9)***
사무판매팀서비스	37.4	48.9	12.6	1.1	100.0	
농림생산직	42.5	46.7	9.6	1.3	100.0	
비경활인구	36.2	50.7	12.0	1.2	100.0	
종교						
없음	38.9	48.3	11.7	1.1	100.0	20.136(3)***
있음	37.4	49.7	11.6	1.3	100.0	
정치성향						
진보	42.6	48.2	8.3	0.8	100.0	183.334(6)***
중도	39.0	49.6	10.2	1.2	100.0	
보수	33.8	48.2	16.5	1.5	100.0	

**(3) 외국인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화**

외국인도 세금 납부 시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기초생활보장 등의 공공부조와 아동급식 및 돌봄 지원 등 사회서비스) 대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5.1%가 동의했다. 응답자별 배경 요인별로는 성별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도시 거주에 비해 농어촌에서 긍정 응답이 많았고(도시 74.1%, 농어촌 79.5%), 고졸이하(74.2%)에 비해 대재이상(75.9%)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긍정 응답이 높았다(60대 이상 73.0%, 40-50대 75.6%, 20-30대 76.4%). 직업면에서는 사무판매팀서비스직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관리전문직, 농림생산직, 비경활인구의 순서로 나타났다(사무판매팀서비스 75.8%, 관리전문직 75.5%, 농림생산직 74.8%, 비경활인구 74.1%). 종교적으로는 종교 없음에서 더 높았고(없음 76.1%, 있음 73.2%)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에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았다(진보 79.8%, 보수 67.7%).

**표4-51 | 인권 관련 의견-외국인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화**

단위 : %

전체	① 동의한다	②	③	④ 동의하지 않는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25.7	49.4	19.5	5.5	100.0	
<b>성별</b>						
남자	25.8	49.3	19.2	5.7	100.0	6.687(3)
여자	25.7	49.4	19.7	5.2	100.0	
<b>지역</b>						
도시[동부]	25.0	49.1	20.4	5.5	100.0	13.901(3)**
농어촌[읍면부]	29.0	50.5	15.1	5.4	100.0	
<b>연령</b>						
20-30대	27.0	49.4	18.4	5.2	100.0	43.131(6)***
40-50대	26.6	49.0	18.9	5.6	100.0	
60대 이상	23.3	49.7	21.4	5.6	100.0	
<b>학력</b>						
고졸이하	24.5	49.6	20.0	5.8	100.0	23.791(3)***
대재이상	26.8	49.1	19.0	5.1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30.9	44.6	17.4	7.2	100.0	44.377(9)***
사무판매팀서비스	25.7	50.1	19.2	5.0	100.0	
농림생산직	28.5	46.3	19.4	5.8	100.0	
비경활인구	23.0	51.1	20.4	5.5	100.0	
<b>종교</b>						
없음	26.3	49.8	18.6	5.2	100.0	30.015(3)***
있음	24.7	48.5	20.9	5.8	100.0	
<b>정치성향</b>						
진보	29.6	50.1	16.1	4.1	100.0	250.282(6)***
중도	25.7	51.8	17.1	5.3	100.0	
보수	22.5	45.1	25.5	6.8	100.0	

## (4) 이주노동자 대상 고용허가제 개정

이주 노동자가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일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현재의 고용 허용 허가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응답자 배경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 항목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긍정 응답을 더 많이 했고(남성 64.3%, 여성 63.7%), 도시(63.7%)에 비해 농어촌(65.4%)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은 줄어들었다(20-30대 67.4%, 40-50대 65.0%, 60대 이상 58.9%). 직업별로 가장 많은 긍정 응답 비율이 나타난 집단은 관리전문직이었고 가장 낮은 비율은 농림생산직에서 나타났다(관리전문직 67.0% 사무판매서비스 65.7%, 비경활인구 62.7%, 농림생산직 60.7%). 종교 있음(61.0%)에 비해 종교 없음(65.6%)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고, 진보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진보 70.4%, 중도 66.1%, 보수 55.7%).

표4-52 | 인권 관련 의견-이주노동자 대상 고용허가제 개정

단위 : %

전체	① 찬성한다	②	③	④ 반대한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19.1	44.8	28.4	7.7	100.0	
성별						
남자	18.7	45.6	27.5	8.2	100.0	8.393(3)*
여자	19.6	44.0	29.3	7.1	100.0	
지역						
도시[동부]	19.0	44.6	29.0	7.4	100.0	17.587(3)**
농어촌[읍면부]	19.7	45.8	25.6	9.0	100.0	
연령						
20-30대	20.8	46.6	26.3	6.3	100.0	96.415(6)***
40-50대	19.9	45.1	27.4	7.6	100.0	
60대 이상	16.4	42.5	31.9	9.2	100.0	
학력						
고졸이하	17.8	43.5	30.5	8.3	100.0	48.539(3)***
대재이상	20.3	46.0	26.5	7.1	100.0	
직업						
관리전문직	22.8	44.2	23.7	9.3	100.0	68.522(9)***
사무판매서비스	19.9	45.8	27.3	7.0	100.0	
농림생산직	18.6	42.1	30.7	8.6	100.0	
비경활인구	17.5	45.1	29.7	7.6	100.0	
종교						
없음	19.9	45.7	27.6	6.8	100.0	60.793(3)***
있음	17.8	43.2	29.8	9.2	100.0	
정치성향						
진보	22.2	48.2	23.2	6.4	100.0	203.383(6)***
중도	19.9	46.2	26.8	7.1	100.0	
보수	15.5	40.2	34.9	9.4	100.0	

**(5)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법 관련 조항 동일 적용**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하청, 파견, 특수 고용 등 포함)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노동법 관련 조항(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성별에서는 남성(84.1%)에 비해 여성(85.2%)이, 거주 지역에서는 도시 거주(84.2%)에 비해 농어촌 거주(86.6%)에서 더 높은 긍정 응답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가장 높았고(85.1%) 이어서 20-30대 84.6%, 60대 이상 84.2%의 순이었다. 학력에서는 대재이상(84.4%)에 비해 고졸이하(85.0%)에서 긍정 응답이 많았다. 직업면을 보면 농림생산직(86.0%)에서 가장 높았고, 사무판매서비스(83.7%)에서 가장 낮았다. 가치관 측면에서 종교 없음(85.4%), 진보(87.6%)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표4-53 | 인권 관련 의견-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법 관련 조항 동일 적용**

단위 : %

전체	① 찬성한다	②	③	④ 반대한다	계	$\chi^2(df)$
▣ 전체 ▣	38.2	46.4	13.6	1.8	100.0	
<b>성별</b>						
남자	38.2	45.9	13.9	2.0	100.0	4.218(3)
여자	38.2	47.0	13.2	1.6	100.0	
<b>지역</b>						
도시[동부]	36.9	47.3	14.1	1.7	100.0	15.334(3)**
농어촌[읍면부]	44.2	42.4	11.1	2.2	100.0	
<b>연령</b>						
20-30대	39.0	45.6	13.8	1.6	100.0	57.659(6)***
40-50대	39.6	45.6	12.9	1.9	100.0	
60대 이상	35.8	48.4	14.0	1.8	100.0	
<b>학력</b>						
고졸이하	37.3	47.7	13.4	1.7	100.0	34.749(3)***
대재이상	39.1	45.4	13.7	1.8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43.8	40.9	12.9	2.4	100.0	74.644(9)***
사무판매서비스	37.8	46.0	14.6	1.6	100.0	
농림생산직	43.1	42.9	12.4	1.6	100.0	
비경활인구	34.9	50.3	12.9	1.9	100.0	
<b>종교</b>						
없음	38.6	46.7	13.0	1.7	100.0	27.452(3)***
있음	37.5	45.9	14.7	1.9	100.0	
<b>정치성향</b>						
진보	45.6	42.0	10.8	1.6	100.0	234.890(6)***
중도	38.4	48.5	11.6	1.5	100.0	
보수	32.1	47.0	18.6	2.3	100.0	



## (6)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응답자 배경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응답 비율 차이는 거주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남성(79.5%)에 비해서 여성(85.1%)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많이 했고 차이는 5.6%p였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83.7%로 가장 높았고, 다른 연령대에서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사무판매회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관리전문직에서 가장 낮았다(사무판매회사 83.2%, 관리전문직 80.4%). 종교 있음이 83.0%로 높았고 진보에서 85.9%로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4-54 | 인권 관련 의견-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단위 : %

전체	① 필요하다	②	③	④ 필요하지 않다	계	$\chi^2(df)$
▣ 전체 ▣	35.0	47.3	14.5	3.2	100.0	
성별						
남자	32.1	47.4	16.2	4.4	100.0	79.022(3)***
여자	37.9	47.2	12.8	2.1	100.0	
지역						
도시[동부]	34.3	47.9	14.7	3.1	100.0	6.901(3)
농어촌[읍면부]	38.4	44.6	13.3	3.7	100.0	
연령						
20-30대	35.8	45.5	14.2	4.5	100.0	110.745(6)***
40-50대	36.1	47.6	13.5	2.8	100.0	
60대 이상	32.7	48.8	16.0	2.4	100.0	
학력						
고졸이하	33.5	48.8	15.0	2.7	100.0	80.546(3)***
대재이상	36.3	46.0	14.1	3.7	100.0	
직업						
관리전문직	42.1	38.3	12.9	6.7	100.0	120.728(9)***
사무판매회사	35.2	48.0	14.1	2.7	100.0	
농림생산직	35.7	45.3	16.0	3.0	100.0	
비경활인구	32.6	49.4	14.7	3.3	100.0	
종교						
없음	34.6	47.3	14.6	3.5	100.0	11.112(3)*
있음	35.7	47.3	14.3	2.6	100.0	
정치성향						
진보	41.8	44.1	11.6	2.5	100.0	246.168(6)***
중도	34.2	49.7	13.2	2.9	100.0	
보수	30.5	46.4	18.8	4.3	100.0	

**(7) 안전한 임신의 유지 / 종결 법안 제정**

안전한 임신을 유지/종결(인공임신중절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 제정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전체의 83.5%였다. 응답자 배경에 따른 응답 비율 차이는 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성별을 보면 남성 82.9%, 여성 84.2%로 여성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 거주 지역에서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더 높았다(도시 83.3%, 농어촌 84.7%). 연령에서는 20-30대와 40-50대에서 85.0%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80.2%로 4.8%p 낮았다. 직업별로 보면 관리전문직에서 86.8%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정치성향에서는 진보에서 86.7%로 가장 높았고 보수에서 79.2%로 가장 낮았다.

**표4-55 | 인권 관련 의견-안전한 임신의 유지/종결 법안 제정**

단위 : %

전체	① 동의한다	②	③	④ 동의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33.3	50.3	13.6	2.8	100.0	
<b>성별</b>						
남자	31.4	51.5	14.1	2.9	100.0	26.460(3)***
여자	35.1	49.1	13.1	2.7	100.0	
<b>지역</b>						
도시[동부]	32.3	51.0	14.0	2.7	100.0	21.926(3)***
농어촌[읍면부]	37.5	47.2	11.8	3.5	100.0	
<b>연령</b>						
20-30대	36.0	49.0	12.7	2.3	100.0	146.364(6)***
40-50대	34.6	50.4	12.3	2.7	100.0	
60대 이상	28.7	51.6	16.3	3.5	100.0	
<b>학력</b>						
고졸이하	32.0	50.3	14.3	3.4	100.0	63.142(3)***
대재이상	34.3	50.3	13.0	2.3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42.4	44.4	9.8	3.4	100.0	105.123(9)***
사무판매서비스	33.3	50.0	14.3	2.4	100.0	
농림생산직	35.8	47.6	13.4	3.2	100.0	
비경활인구	29.7	53.5	13.8	3.0	100.0	
<b>종교</b>						
없음	34.0	49.9	13.6	2.5	100.0	19.028(3)***
있음	31.9	51.0	13.8	3.3	100.0	
<b>정치성향</b>						
진보	37.0	49.6	10.7	2.6	100.0	162.049(6)***
중도	33.2	51.7	12.8	2.4	100.0	
보수	30.3	48.8	17.2	3.6	100.0	

## (8) 노숙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자 위한 주거지원

노숙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주거지원(임대주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찬성 응답이 많았지만(남성 82.5% 여성 83.4%)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거주 지역에서는 도시(82.6%)에 비해 농어촌에서 긍정 응답이 높았고(84.3%), 학력에서는 고졸이하가 더 높았다(고졸이하 84.0%, 대재이상 82.0%).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84.1%로 가장 높았고, 40-50대에서 82.9%, 20-30대에서 82.0%였다. 직업을 보면 농림생산직에서 가장 높았고(84.0%), 이어 비경활인구(83.5%), 관리전문직(83.4%), 사무판매서비스(82.0%) 순서였다. 종교 없음에 비해 종교 있음에서 긍정 비율이 약간 높았고(없음 82.7%, 있음 83.3%), 진보에서 긍정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수에서 가장 낮았다(진보 85.0%, 보수 79.5%). 거주 지역, 연령, 직업, 종교, 정치성향별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56 | 인권 관련 의견-노숙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자 위한 주거지원

단위 : %

전체	① 필요하다	②	③	④ 필요하지 않다	계	$\chi^2(df)$
▣ 전체 ▣	31.8	51.1	15.1	2.0	100.0	
성별						
남자	30.4	52.1	15.4	2.1	100.0	6.377(3)
여자	33.2	50.1	14.8	1.9	100.0	
지역						
도시[동부]	31.3	51.3	15.5	1.9	100.0	15.045(3)**
농어촌[읍면부]	34.4	49.9	13.3	2.4	100.0	
연령						
20-30대	31.4	50.6	16.0	2.1	100.0	16.029(6)*
40-50대	32.2	50.7	15.3	1.8	100.0	
60대 이상	31.9	52.2	13.9	2.1	100.0	
학력						
고졸이하	33.8	50.2	13.8	2.2	100.0	6.800(3)
대재이상	30.1	51.9	16.2	1.8	100.0	
직업						
관리전문직	38.0	45.4	14.7	1.9	100.0	39.449(9)***
사무판매서비스	30.3	51.7	16.0	1.9	100.0	
농림생산직	35.2	48.8	13.8	2.2	100.0	
비경활인구	30.7	52.8	14.5	1.9	100.0	
종교						
없음	31.5	51.2	15.4	1.9	100.0	9.662(3)*
있음	32.5	50.8	14.5	2.2	100.0	
정치성향						
진보	35.4	49.6	13.7	1.4	100.0	127.643(6)***
중도	31.6	52.5	13.6	2.2	100.0	
보수	29.2	50.3	18.3	2.1	100.0	

## (9) 의사 조력 자살 허용 제도 도입

말기 환자에게 의사 조력 자살(의사조력 존엄사)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응답자의 배경 변인 별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찬성 응답이 많았지만(남성 69.0% 여성 67.4%),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거주 지역에서는 도시(68.3%)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고, 학력에서는 대재이상이 더 높았다(고졸이하 68.6%, 대재이상 67.8%).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70.0%로 가장 높았고, 40-50대에서 68.3%, 20-30대에서 66.3%였다. 직업을 보면 관리전문직에서 가장 높았고(75.5%), 이어 농림생산직(69.3%), 비경활인구(68.7%), 사무판매서비스(66.2%) 순서였다. 종교 없음에 비해 종교 있음에서 긍정 비율이 더 높았고(없음 67.3%, 있음 69.7%), 진보와 보수에서 응답 비율이 동일했고(68.0%), 중도에서 더 높았다(68.4%).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57 | 인권 관련 의견-의사조력자살 허용 제도 도입

단위 : %

전체	① 찬성한다	②	③	④ 반대한다	계	$\chi^2(df)$
▣ 전체 ▣	27.3	40.9	22.7	9.1	100.0	
성별						
남자	27.5	41.5	22.1	8.9	100.0	1.533(3)
여자	27.0	40.4	23.2	9.4	100.0	
지역						
도시[동부]	26.8	41.5	22.3	9.4	100.0	24.729(3)***
농어촌[읍면부]	29.6	38.0	24.4	8.0	100.0	
연령						
20-30대	25.3	41.0	23.2	10.5	100.0	44.111(6)***
40-50대	26.8	41.5	22.5	9.2	100.0	
60대 이상	29.9	40.2	22.3	7.6	100.0	
학력						
고졸이하	29.1	39.5	22.0	9.4	100.0	9.729(3)*
대재이상	25.7	42.1	23.2	8.9	100.0	
직업						
관리전문직	37.0	38.5	14.6	9.9	100.0	87.126(9)***
사무판매서비스	24.5	41.7	24.1	9.8	100.0	
농림생산직	31.4	37.9	21.9	8.8	100.0	
비경활인구	26.6	42.1	23.1	8.3	100.0	
종교						
없음	26.0	41.3	23.2	9.5	100.0	21.775(3)***
있음	29.5	40.2	21.8	8.5	100.0	
정치성향						
진보	27.8	40.2	23.0	9.0	100.0	14.233(6)*
중도	27.0	41.4	21.7	9.9	100.0	
보수	27.2	40.8	23.8	8.1	100.0	

## (10) 적극적 안락사 허용 제도 도입

의사가 직접 말기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배경에 따른 응답 비율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긍정 응답 비율을 비교했을 때 도시(73.0%)에 비해 농어촌(73.1%)이 조금 더 높았다.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에서 73.7%, 20-30대에서 71.7%로 2%p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서는 대재이상에서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고졸이하 72.9%, 대재이상 73.1%).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76.2%)에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았고, 사무판매서비스(72.0%)에서 가장 낮았다. 종교에서는 종교 없음이 더 높았고(있음 71.7%, 없음 73.7%), 정치성향에서는 중도가 가장 높고(73.8%), 보수가 가장 낮았다(71.6%).

표4-58 | 인권 관련 의견-적극적 안락사 허용 제도 도입

단위 : %

전체	① 찬성한다	②	③	④ 반대한다	계	$\chi^2(df)$
▣ 전체 ▣	32.0	41.0	19.7	7.3	100.0	
성별						
남자	32.0	41.3	19.4	7.2	100.0	0.580(3)
여자	32.0	40.7	19.9	7.4	100.0	
지역						
도시[동부]	31.8	41.2	19.9	7.1	100.0	11.705(3)**
농어촌[읍면부]	33.2	39.9	18.6	8.3	100.0	
연령						
20-30대	30.3	41.4	21.1	7.1	100.0	22.691(6)**
40-50대	32.1	41.5	18.9	7.6	100.0	
60대 이상	33.9	39.8	19.1	7.2	100.0	
학력						
고졸이하	33.7	39.2	19.5	7.6	100.0	11.159(3)*
대재이상	30.6	42.5	19.8	7.1	100.0	
직업						
관리전문직	40.5	35.7	15.1	8.7	100.0	54.149(9)***
사무판매서비스	30.7	41.4	21.2	6.8	100.0	
농림생산직	36.4	37.9	18.1	7.7	100.0	
비경활인구	29.6	43.4	19.5	7.6	100.0	
종교						
없음	31.6	42.2	19.5	6.8	100.0	17.334(3)**
있음	32.9	38.8	20.0	8.3	100.0	
정치성향						
진보	30.9	42.5	19.2	7.5	100.0	26.111(6)***
중도	32.0	41.9	18.8	7.4	100.0	
보수	33.0	38.5	21.4	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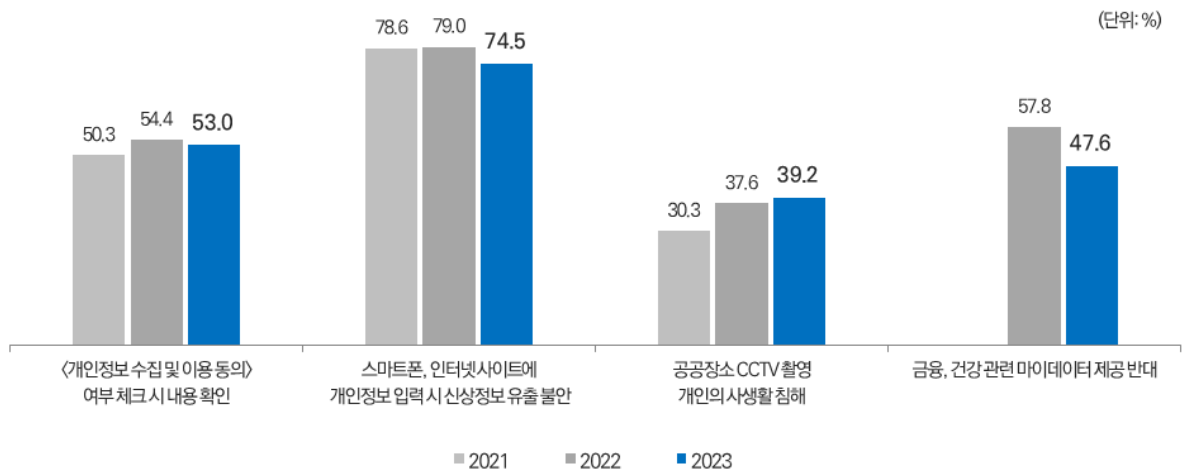
## 2)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정보 인권의 각 쟁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를 체크할 때 관련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나의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하다,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해 촬영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이다, 개인의 금융, 건강 관련 정보를 가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4개 질문에 대해 각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입력 시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2021년 78.6%, 2023년에는 74.5%로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체크 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는 응답도 2021년 50.3%에 비해 증가했다(2023년 53.0%).

반면 개인의 금융, 건강 관련 마이데이터를 가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2022년에 비해 10.2%p 감소했다. 공공장소의 CCTV촬영을 개인 사생활 침해로 여긴다는 응답은 2021년 30.3%를 나타낸 이후 2023년에는 39.2%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4-33 | 정보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비교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 확인 여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를 체크할 때, 관련된 내용을 모두 확인하는지 질문에 대해 여성(52.2%)에 비해 남성(53.7%)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 농어촌(47.7%)에 비해 도시(54.1%)에서 더 높았는데, 도시와 농어촌 응답 차이는 6.4%p로 큰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20-30대 60.8%, 40-50대 56.2%, 60대 이상 40.3%). 학력에서는 차이가 컸는데, 고졸이하(44.8%)에 비해 대재이상(60.0%)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15.2%p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판매서비스(59.6%)에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관리전문직(57.6%), 비경활인구(46.9%), 농림생산직(45.1%)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사무판매서비스와 농림생산직 사이의 긍정 응답 비율 차이는 14.5%p로 다소 컸다. 가치관 측면에서는 종교 없음, 진보에서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59 |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 확인 여부

단위 : %

전체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11.4	41.6	34.3	12.8	100.0	
성별						
남자	11.0	42.7	34.5	11.8	100.0	33.631(3)***
여자	11.8	40.4	34.1	13.7	100.0	
지역						
도시[동부]	11.2	42.9	34.7	11.2	100.0	426.769(3)***
농어촌[읍면부]	12.5	35.3	32.3	19.9	100.0	
연령						
20-30대	14.1	46.6	29.5	9.7	100.0	977.605(6)***
40-50대	12.1	44.1	34.3	9.5	100.0	
60대 이상	7.5	32.8	39.4	20.3	100.0	
학력						
고졸이하	9.2	35.6	37.2	18.0	100.0	774.374(3)***
대재이상	13.3	46.6	31.8	8.2	100.0	
직업						
관리전문직	15.1	42.5	32.0	10.4	100.0	599.403(9)***
사무판매서비스	13.0	46.5	30.9	9.6	100.0	
농림생산직	8.3	36.7	39.4	15.5	100.0	
비경활인구	9.9	36.9	36.8	16.3	100.0	
종교						
없음	11.9	42.9	34.1	11.1	100.0	44.508(3)***
있음	10.5	39.1	34.5	15.8	100.0	
정치성향						
진보	13.7	43.8	32.1	10.5	100.0	211.380(6)***
중도	11.0	43.1	33.5	12.4	100.0	
보수	10.2	37.5	37.2	15.1	100.0	

**(2) 개인정보 입력 시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여부**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한지를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로 살펴보면, 집단별로 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73.8%)에 비해 여성(75.2%)이, 농어촌(71.4%)에 비해 도시(75.2%)에서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 연령을 보면 20-30대와 40-50대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76.9%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는 68.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력에서는 고졸이하에 비해 대재이상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6.3%p 높게 나타났다(고졸이하 71.1%, 대재이상 77.4%). 직업에서는 관리전문직과 사무판매회사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관리전문직 78.2%, 사무판매회사 77.1%, 농림생산직 71.8%, 비경활인구 71.4%), 종교 없음(75.2%), 진보(76.8%)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60 |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 개인정보 입력 시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여부**

단위 : %

전체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23.5	51.0	21.2	4.3	100.0	
<b>성별</b>						
남자	22.5	51.4	22.3	3.9	100.0	19.846(3)***
여자	24.5	50.7	20.2	4.7	100.0	
<b>지역</b>						
도시[동부]	22.6	52.6	21.6	3.3	100.0	371.833(3)***
농어촌[읍면부]	27.8	43.6	19.6	8.9	100.0	
<b>연령</b>						
20-30대	24.3	52.6	20.0	3.1	100.0	456.934(6)***
40-50대	23.9	53.0	20.6	2.5	100.0	
60대 이상	22.0	46.8	23.3	7.8	100.0	
<b>학력</b>						
고졸이하	22.1	49.0	22.4	6.5	100.0	311.637(3)***
대재이상	24.7	52.7	20.2	2.4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28.3	49.9	19.0	2.8	100.0	263.654(9)***
사무판매회사	23.9	53.2	20.3	2.6	100.0	
농림생산직	22.2	49.7	21.5	6.6	100.0	
비경활인구	22.4	49.0	22.9	5.7	100.0	
<b>종교</b>						
없음	22.6	52.6	20.7	4.1	100.0	14.801(3)**
있음	25.1	48.1	22.2	4.6	100.0	
<b>정치성향</b>						
진보	24.7	52.1	20.8	2.4	100.0	203.182(6)***
중도	24.5	51.7	19.8	4.0	100.0	
보수	21.1	49.1	23.7	6.1	100.0	



## (3) 공공장소의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여부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남성(40.0%), 도시 거주자(40.9%), 20-30대(42.9%), 대재이상(41.5%), 사무판매팀서비스직(45.6%), 종교 없음(41.0%), 진보(40.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집단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61 |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공공장소의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여부

단위 : %

전체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chi^2(df)$
▣ 전체 ▣	7.7	31.5	40.3	20.6	100.0	
<b>성별</b>						
남자	8.0	32.0	40.1	19.9	100.0	8.777(3)*
여자	7.3	31.0	40.4	21.2	100.0	
<b>지역</b>						
도시[동부]	7.8	33.1	40.7	18.4	100.0	314.286(3)***
농어촌[읍면부]	7.2	24.0	38.3	30.5	100.0	
<b>연령</b>						
20-30대	9.4	33.5	40.1	17.0	100.0	342.609(6)***
40-50대	8.0	32.5	41.3	18.2	100.0	
60대 이상	5.4	28.1	39.1	27.5	100.0	
<b>학력</b>						
고졸이하	6.7	29.7	38.3	25.3	100.0	197.412(3)***
대재이상	8.5	33.0	41.9	16.5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5.9	28.5	40.4	25.2	100.0	370.348(9)***
사무판매팀서비스	9.5	36.1	38.9	15.5	100.0	
농림생산직	5.0	25.4	41.7	28.0	100.0	
비경활인구	7.0	29.1	41.3	22.6	100.0	
<b>종교</b>						
없음	7.9	33.0	40.3	18.7	100.0	38.864(3)***
있음	7.2	28.7	40.2	23.9	100.0	
<b>정치성향</b>						
진보	8.9	32.0	41.9	17.2	100.0	124.238(6)***
중도	6.4	31.7	41.3	20.7	100.0	
보수	8.6	30.8	37.4	23.2	100.0	

**(4) 개인의 건강, 금융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개인의 금융, 건강 관련 정보를 가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마이데이터 제공)에 대해 응답자 배경별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 연령, 직업,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인 정보를 가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는 응답은 농어촌(44.4%)에 비해 도시(48.3%)에서 더 높았다. 연령대가 높은 집단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고(20-30대 45.0%, 40-50대 48.1%, 60대 이상 49.7%), 직업별로는 농림생산직(49.5%)에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관리전문직(43.1%)에서 가장 낮았다. 정치성향에서는 보수(50.2%)에서 반대 비율이 가장 높고, 진보 성향(45.6%)에서 가장 낮았다.

**표4-62 |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마이데이터 제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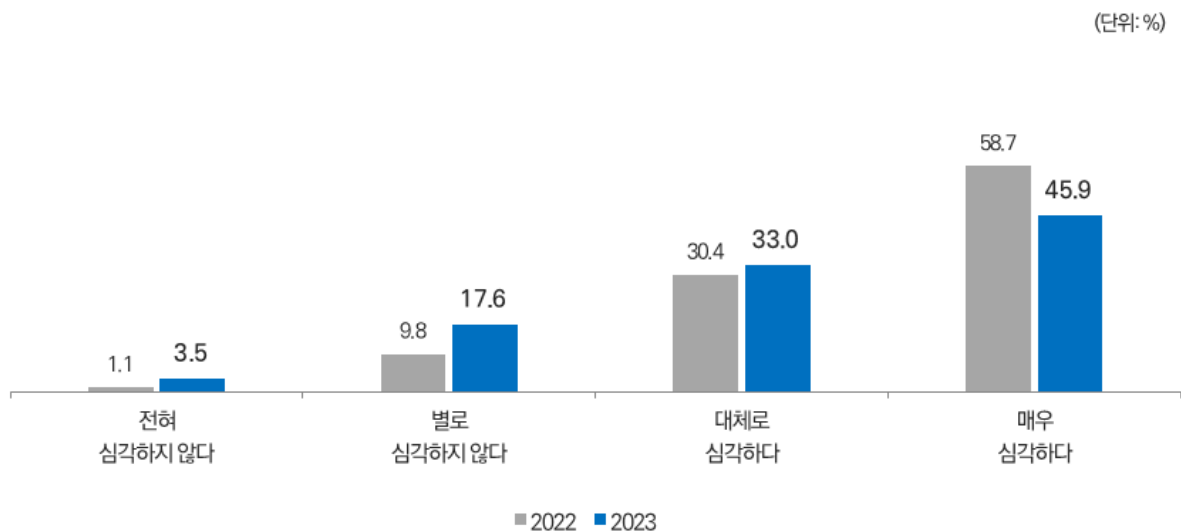
전체	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므로 찬성한다	②	③	④ 개인정보 유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	계	$\chi^2(df)$
▣ 전체 ▣	11.8	40.6	33.8	13.8	100.0	
<b>성별</b>						
남자	11.7	41.3	33.7	13.3	100.0	2.020(3)
여자	11.9	40.0	33.8	14.4	100.0	
<b>지역</b>						
도시(동부)	10.7	41.0	34.8	13.5	100.0	76.275(3)***
농어촌(읍면부)	16.6	38.9	29.0	15.4	100.0	
<b>연령</b>						
20-30대	13.6	41.4	33.1	11.9	100.0	38.568(6)***
40-50대	11.3	40.6	33.8	14.4	100.0	
60대 이상	10.5	39.8	34.4	15.3	100.0	
<b>학력</b>						
고졸이하	10.9	39.8	34.2	15.2	100.0	6.229(3)
대재이상	12.6	41.3	33.4	12.7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3.8	43.1	28.2	14.8	100.0	36.909(9)***
사무판매서비스	11.4	39.8	35.3	13.5	100.0	
농림생산직	12.8	37.7	32.6	16.8	100.0	
비경활인구	11.2	42.8	33.5	12.5	100.0	
<b>종교</b>						
없음	11.8	41.1	33.7	13.4	100.0	3.383(3)
있음	11.7	39.8	33.9	14.6	100.0	
<b>정치성향</b>						
진보	13.4	41.0	31.7	13.9	100.0	43.556(6)***
중도	11.3	41.7	34.8	12.1	100.0	
보수	11.1	38.7	33.9	16.3	100.0	

### 3) 기후 위기와 인권에 대한 인식

#### (1) 우리나라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기후 위기(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증가, 생물 다양성 축소, 해수면 상승 등)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올해 조사에서 응답자의 78.9%는 심각하다(대체로 심각+매우 심각)고 응답했다. 이는 작년(89.1%)에 비해 감소한 결과이다.

그림4-34 |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추이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응답자 배경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 거주 지역,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 따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남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지만(78.9%),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44.6%)에 비해 여성(47.1%)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도시 거주에 비해(77.9%) 농어촌 거주(83.5%)에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직업별로는 농업생산직(83.2%)에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무판매회사(76.7%)에서 가장 낮았다.

종교 없음(78.2%)에 비해 종교 있음(80.1%)에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진보(81.4%)에서 가장 높고 보수(77.4%)에서 낮았다.

**표4-63 |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단위 : %

전체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③	④ 매우 심각하다	계	$\chi^2(df)$
▣ 전체 ▣	3.5	17.6	33.0	45.9	100.0	
<b>성별</b>						
남자	3.4	17.7	34.3	44.6	100.0	8.606(3)*
여자	3.6	17.4	31.8	47.1	100.0	
<b>지역</b>						
도시[동부]	3.8	18.3	34.0	43.9	100.0	111.942(3)***
농어촌[읍면부]	2.2	14.2	28.5	55.1	100.0	
<b>연령</b>						
20-30대	4.1	17.0	33.9	45.0	100.0	12.319(6)
40-50대	3.2	18.4	32.2	46.2	100.0	
60대 이상	3.2	17.3	33.1	46.4	100.0	
<b>학력</b>						
고졸이하	3.1	17.2	33.7	46.0	100.0	2.335(3)
대재이상	3.8	17.9	32.5	45.8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3.7	15.5	28.4	52.4	100.0	40.072(9)***
사무판매서비스	4.1	19.2	33.2	43.5	100.0	
농림생산직	2.9	13.9	34.7	48.5	100.0	
비경활인구	2.9	17.8	33.1	46.2	100.0	
<b>종교</b>						
없음	3.8	18.0	33.8	44.4	100.0	28.948(3)***
있음	2.9	16.9	31.7	48.5	100.0	
<b>정치성향</b>						
진보	3.7	14.9	30.6	50.9	100.0	61.758(6)***
중도	3.5	17.9	33.6	44.9	100.0	
보수	3.3	19.4	34.2	43.1	100.0	

**(2) 기후 위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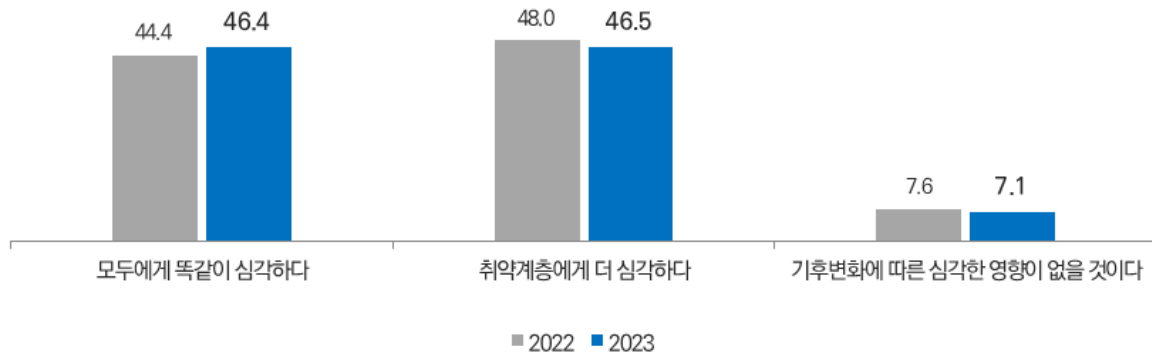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다면 개인 삶에 주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심각하다, 취약 계층에게 더 심각하다, 기후 위기에 따른 심각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중에 선택하도록 했다.

2022년과 2023년도에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이었고(2022년 48.0%, 2023년 46.5%), 이는 작년에 비해 올해 다소 감소했다.

모두에게 똑같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작년(44.4%)에 비해 올해(46.4%) 2.0%p 증가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작년(7.6%)에 비해 올해(7.1%) 0.5%p 소폭 감소했다.

그림4-35 | 기후 위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추이

(단위: %)



2023년도 응답 결과를 응답자 배경별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후 위기가 취약 계층에게 더 심각하다는 응답은 농어촌(47.9%), 60대 이상(48.8%), 고졸이하(47.5%), 관리전문직(48.4%), 진보(48.6%)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4-64 | 기후 위기가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전체	모두에게 똑같이 심각하다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46.4	46.5	7.1	100.0	
성별					
남자	47.3	45.4	7.3	100.0	4.952(2)
여자	45.6	47.6	6.8	100.0	
지역					
도시[동부]	46.8	46.2	7.0	100.0	35.964(2)***
농어촌[읍면부]	44.4	47.9	7.7	100.0	
연령					
20-30대	48.1	44.4	7.6	100.0	20.366(4)***
40-50대	46.5	46.5	7.0	100.0	
60대 이상	44.5	48.8	6.6	100.0	
학력					
고졸이하	45.5	47.5	7.0	100.0	10.617(2)**
대재이상	47.2	45.7	7.2	100.0	
직업					
관리전문직	47.6	48.4	4.0	100.0	22.259(6)**
사무판매서비스	46.0	45.5	8.5	100.0	
농림생산직	47.5	46.8	5.7	100.0	
비경활인구	46.2	47.3	6.5	100.0	
종교					
없음	46.6	46.5	6.9	100.0	1.380(2)
있음	46.1	46.6	7.3	100.0	
정치성향					
진보	45.7	48.6	5.7	100.0	25.545(4)***
중도	48.6	44.6	6.8	100.0	
보수	43.8	47.5	8.7	100.0	

**(3) 기후 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여부**

기후 위기 취약 계층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는 양 끝에 둔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거주 지역,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88.9%), 농어촌 거주(90.7%), 40-50대(88.9%), 대재이상(88.5%), 관리전문직(93.8%), 종교 있음(88.6%), 진보(9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65 | 기후 위기 취약계층 정부 지원 필요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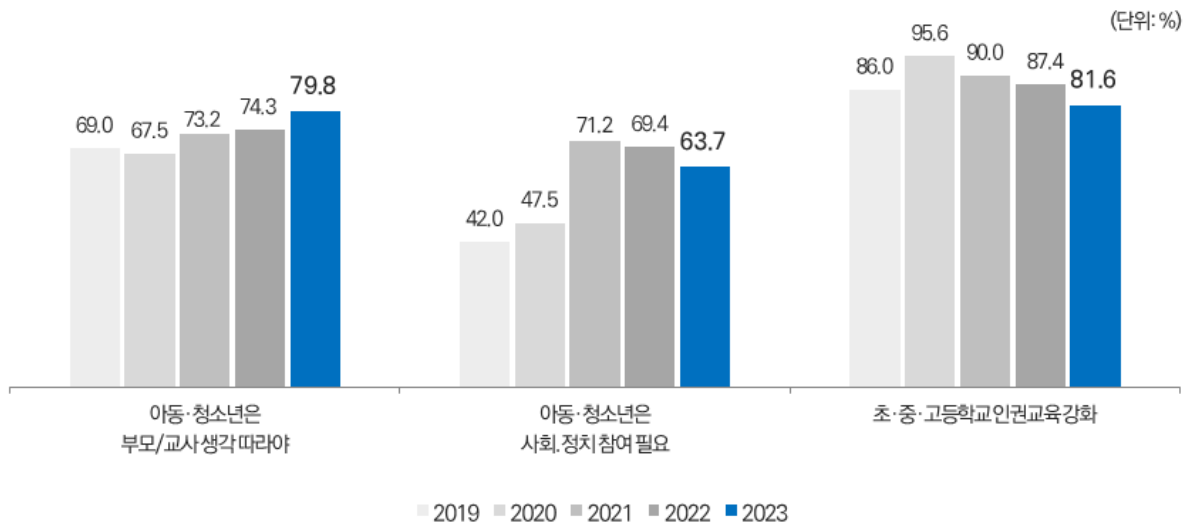
전체	① 필요하다	②	③	④ 필요하지 않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34.4	54.1	10.6	1.0	100.0	
<b>성별</b>						
남자	33.9	54.1	10.9	1.1	100.0	1.295(3)
여자	34.8	54.0	10.2	0.9	100.0	
<b>지역</b>						
도시[동부]	33.1	54.9	11.1	0.9	100.0	26.927(3)***
농어촌[읍면부]	40.2	50.5	8.0	1.3	100.0	
<b>연령</b>						
20-30대	33.7	54.4	11.0	0.9	100.0	9.768(6)
40-50대	34.8	54.2	10.1	1.0	100.0	
60대 이상	34.5	53.7	10.7	1.1	100.0	
<b>학력</b>						
고졸이하	34.6	53.9	10.4	1.2	100.0	7.865(3)*
대재이상	34.2	54.3	10.7	0.8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43.6	50.2	5.4	0.8	100.0	81.458(9)***
사무판매서비스	32.5	55.3	11.4	0.8	100.0	
농림생산직	38.1	49.9	10.6	1.4	100.0	
비경활인구	32.8	55.7	10.5	1.0	100.0	
<b>종교</b>						
없음	34.2	54.1	10.5	1.2	100.0	13.626(3)**
있음	34.6	54.0	10.7	0.7	100.0	
<b>정치성향</b>						
진보	38.8	53.0	7.3	0.9	100.0	128.360(6)***
중도	33.4	56.8	8.9	0.9	100.0	
보수	32.1	51.2	15.5	1.2	100.0	

## 4)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 (1)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 동의하는 응답은 조사를 시작한 2019년도에 86.0%였고, 이후 그 보다 높은 응답 비율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에는 81.6%로 감소했다. 이는 2019년 대비 4.4%p, 작년 대비 5.8%p 감소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면 동의하는 비율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작년에 비해 5.5%p 증가한 79.8%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사회·정치 참여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조사를 시작한 2019년에는 절반 수준도 못 미쳤으나, 2021년에 71.2%까지 증가했다가 감소세로 돌아서서 2023년에는 63.7%를 보이고 있다.

그림4-36 | 아동·청소년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 (2)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주체성

아동·청소년은 부모/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쟁점에 대해 응답자 배경별로 봤을 때 성별을 제외하고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77.7%)보다 도시(80.2%)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에서 가장 높고(84.7%), 20-30대에서 가장 낮았다(75.2%). 대재이상(76.7%)에 비해 고졸이하(83.3%)에서 더 높았고,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에서 가장 높고(82.7%), 관리전문직에서 가장 낮았다(72.9%). 종교 있음(81.0%)과 보수(83.4%)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표4-66 |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 주체성**

단위 : %

전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21.4	58.4	17.6	2.6	100.0	
<b>성별</b>						
남자	21.3	58.3	17.8	2.6	100.0	3.685(3)
여자	21.5	58.5	17.4	2.6	100.0	
<b>지역</b>						
도시[동부]	20.7	59.6	17.4	2.4	100.0	31.828(3)***
농어촌[읍면부]	24.6	53.2	18.6	3.7	100.0	
<b>연령</b>						
20~30대	19.3	55.8	21.2	3.6	100.0	158.751(6)***
40~50대	21.0	58.9	17.6	2.5	100.0	
60대 이상	24.0	60.7	13.7	1.6	100.0	
<b>학력</b>						
고졸이하	22.9	60.4	14.7	2.0	100.0	117.871(3)***
대재이상	20.0	56.7	20.1	3.1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7.6	55.3	23.3	3.7	100.0	71.098(9)***
사무판매서비스	21.3	57.1	18.7	3.0	100.0	
농림생산직	22.1	60.7	14.9	2.4	100.0	
비경활인구	22.0	59.8	16.2	2.0	100.0	
<b>종교</b>						
없음	20.1	59.0	18.5	2.3	100.0	49.966(3)***
있음	23.7	57.3	15.9	3.1	100.0	
<b>정치성향</b>						
진보	20.9	53.4	21.9	3.8	100.0	174.944(6)***
중도	20.0	60.4	17.6	2.0	100.0	
보수	23.7	59.6	14.2	2.5	100.0	



## (3)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문제에 참여

아동·청소년도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쟁점에 대해 응답자 배경별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농어촌(58.5%)에 비해 도시(64.9%)에서 동의 비율이 6.4%p 높게 나타났고, 고졸이하(60.4%)에 비해 대재이상(66.6%)에서 높았다. 연령대가 낮은 집단에서 동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20-30대 68.7%, 40-50대 64.0%, 60대 이상 58.0%), 직업에서는 관리전문직에서 가장 높고(65.4%), 농림생산직(57.2%)에서 가장 낮았다. 가치관에서는 종교 없음(64.7%), 진보(66.6%)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표4-67 |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치 문제에 참여

단위 : %

전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14.9	48.8	31.8	4.5	100.0	
성별						
남자	14.8	48.4	32.4	4.4	100.0	1.129(3)
여자	15.0	49.2	31.2	4.5	100.0	
지역						
도시[동부]	15.1	49.8	31.1	4.0	100.0	85.870(3)***
농어촌[읍면부]	14.1	44.4	35.2	6.3	100.0	
연령						
20-30대	14.8	53.9	28.2	3.1	100.0	207.856(6)***
40-50대	15.2	48.7	32.3	3.7	100.0	
60대 이상	14.6	43.4	35.2	6.8	100.0	
학력						
고졸이하	15.0	45.4	33.8	5.8	100.0	110.607(3)***
대재이상	14.8	51.7	30.2	3.3	100.0	
직업						
관리전문직	15.4	50.0	29.9	4.7	100.0	83.761(9)***
사무판매서비스	15.0	50.2	31.2	3.6	100.0	
농림생산직	13.5	43.7	37.0	5.8	100.0	
비경활인구	15.5	49.4	30.3	4.9	100.0	
종교						
없음	13.8	50.9	31.4	3.9	100.0	22.656(3)***
있음	16.9	45.0	32.6	5.4	100.0	
정치성향						
진보	17.2	49.4	30.2	3.2	100.0	146.211(6)***
중도	14.2	51.5	29.8	4.5	100.0	
보수	14.0	44.4	36.1	5.4	100.0	

**(4) 초중고 정규 수업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초중고등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 동의한다는 응답을 응답자 배경별로 보면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79.9%)에 비해 도시(82.0%)에서 동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고졸이하(80.9%)에 비해 대재이상(82.2%)에서 높았다. 연령대가 낮은 집단에서 동의 비율이 더 높았고(20-30대 82.8%, 40-50대 82.0%, 60대 이상 79.8%), 직업에서는 비경활인구에서 가장 높고(83.5%), 농림생산직(79.8%)에서 가장 낮았다. 가치관에 서는 종교 없음(82.2%), 중도(83.9%)에서 동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4-68 |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 초중고 정규수업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단위 : %

전체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계	$\chi^2(df)$
▣ 전체 ▣	25.4	56.2	16.4	2.0	100.0	
<b>성별</b>						
남자	25.2	56.1	16.8	2.0	100.0	0.587(3)
여자	25.6	56.3	16.0	2.0	100.0	
<b>지역</b>						
도시[동부]	25.2	56.8	16.3	1.7	100.0	43.677(3)***
농어촌[읍면부]	26.4	53.5	17.0	3.2	100.0	
<b>연령</b>						
20-30대	25.2	57.6	15.8	1.4	100.0	21.354(6)**
40-50대	25.7	56.3	15.9	2.1	100.0	
60대 이상	25.3	54.5	17.8	2.4	100.0	
<b>학력</b>						
고졸이하	25.8	55.1	16.9	2.2	100.0	12.197(3)**
대재이상	25.1	57.2	16.0	1.8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26.9	54.5	14.6	4.0	100.0	37.127(9)***
사무판매서비스	24.6	56.4	17.3	1.7	100.0	
농림생산직	25.9	53.9	18.0	2.2	100.0	
비경활인구	25.8	57.6	14.8	1.7	100.0	
<b>종교</b>						
없음	25.2	57.1	16.3	1.5	100.0	12.331(3)**
있음	25.9	54.7	16.7	2.8	100.0	
<b>정치성향</b>						
진보	26.4	55.6	16.4	1.6	100.0	76.435(6)***
중도	25.8	58.1	14.4	1.7	100.0	
보수	24.0	54.0	19.4	2.6	100.0	

## 5)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1) 선출직 정치인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시계열 추이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사람이 국회의 원이나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는지를 질문했다. 아래 [그림 4-37]은 불편하다는 응답(매우 불편+다소 불편) 비율을 연도별로 표현한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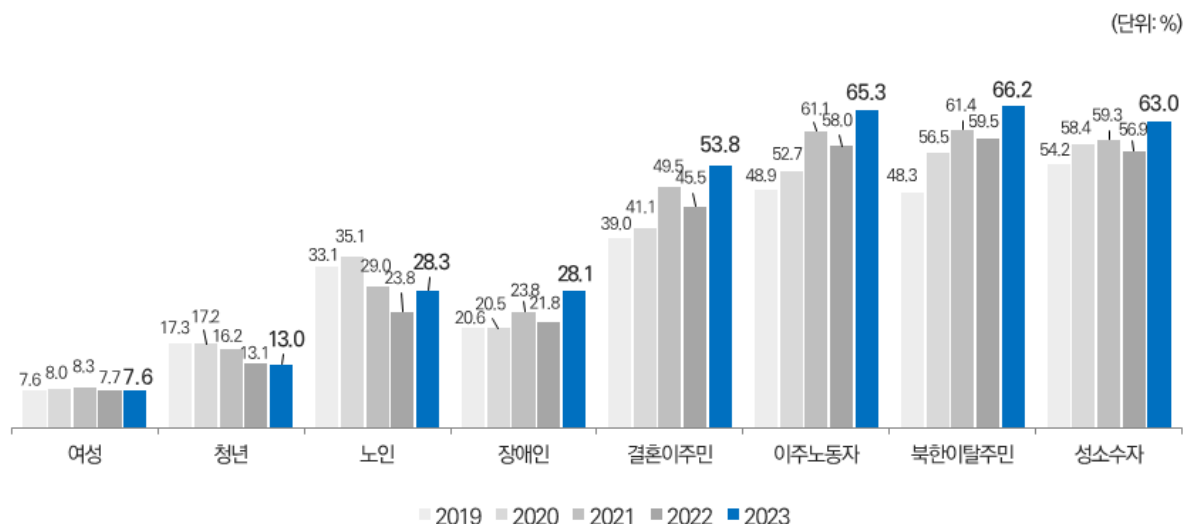
우선 각 연도별로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성소수자(2019,2020)와 북한이탈주민(2021-2023)였다. 성소수자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2019년 54.2%를 보인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에는 63.0%를 나타낸다. 북한 이탈주민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 또한 계속 증가해 2023년에는 66.2%이고, 2021년부터는 가장 많은 응답을 받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2019년 48.9%에서 2023년 65.3%로 크게 증가했고,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도 불편하다는 응답이 계속 증가해 2023년에는 과반인 53.8%로 나타났다.

청년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여성에 대한 응답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19년 20.6%였다가 2021년 21.8%, 2023년 28.1%로 증가했으며, 노인은 2020년 35.1%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3년 28.3%로 증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 중 과반의 비중을 보인 항목의 수는 2019년에는 1개(성소수자)였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2023년에는 4개(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로 증가했다.

그림4-37 | 선출직 정치인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시계열 추이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북한이탈주민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으로 당선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 따른 집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도시(65.5%)에 비해 농어촌(69.6%)에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대재이상(62.1%)에 비해 고졸이하(71.1%)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았다(60대 이상 74.8%, 40~50대 65.0%, 20~30대 59.8%). 직업을 보면 농림생산직에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72.9%로 가장 높았으며, 비경활인구에서 67.7%, 사무판매서비스에서 63.7%, 관리전문직에서 59.9%로 가장 낮았다. 가치관 측면에서는 종교 있음(67.8%), 보수(68.2%)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4-69 |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북한이탈주민**

단위 : %

전체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20.7	45.5	25.6	8.1	100.0	
성별						
남자	20.3	45.2	26.2	8.3	100.0	4.375(3)
여자	21.2	45.9	25.0	7.9	100.0	
지역						
도시[동부]	19.0	46.5	26.1	8.4	100.0	197.674(3)***
농어촌[읍면부]	28.4	41.2	23.6	6.7	100.0	
연령						
20~30대	17.8	42.1	29.4	10.7	100.0	353.602(6)***
40~50대	19.1	45.9	27.2	7.7	100.0	
60대 이상	26.0	48.8	19.5	5.7	100.0	
학력						
고졸이하	24.0	47.1	22.5	6.4	100.0	260.182(3)***
대재이상	17.8	44.2	28.4	9.6	100.0	
직업						
관리전문직	15.1	44.8	29.4	10.7	100.0	202.201(9)***
사무판매서비스	18.8	44.9	27.5	8.8	100.0	
농림생산직	24.4	48.6	21.1	6.0	100.0	
비경활인구	22.7	45.0	24.6	7.7	100.0	
종교						
없음	20.8	44.6	26.2	8.3	100.0	10.558(3)*
있음	20.5	47.3	24.5	7.7	100.0	
정치성향						
진보	19.1	46.3	25.0	9.6	100.0	57.083(6)***
중도	22.3	43.0	27.0	7.7	100.0	
보수	19.7	48.5	24.2	7.6	100.0	

## (3)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이주노동자가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도시(64.3%)에 비해 농어촌(69.6%)에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대재이상(61.1%)에 비해 고졸이하(70.1%)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았다(60대 이상 73.6%, 40~50대 64.4%, 20~30대 58.7%). 직업을 보면 농림생산직에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72.5%로 가장 높았으며, 비경활인구에서 67.4%, 사무판매서비스 61.9%의 순서였고, 관리전문직에서 59.4%로 가장 낮았다. 가치관 측면에서는 종교 있음(66.8%), 보수(68.1%)에서 이주노동자가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4-70 |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이주노동자

단위 : %

전체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계	$\chi^2(df)$
▣ 전체 ▣	18.8	46.4	26.2	8.5	100.0	
성별						
남자	18.9	45.5	27.4	8.2	100.0	7.142(3)
여자	18.8	47.3	25.0	8.8	100.0	
지역						
도시[동부]	17.1	47.2	26.9	8.8	100.0	250.996(3)***
농어촌[읍면부]	26.7	42.9	23.1	7.3	100.0	
연령						
20~30대	15.7	43.0	30.2	11.1	100.0	386.862(6)***
40~50대	17.1	47.2	27.4	8.3	100.0	
60대 이상	24.5	49.1	20.4	6.0	100.0	
학력						
고졸이하	22.3	47.8	23.2	6.8	100.0	303.779(3)***
대재이상	15.9	45.3	28.8	10.0	100.0	
직업						
관리전문직	14.1	45.3	29.8	10.8	100.0	224.692(9)***
사무판매서비스	16.6	45.3	28.7	9.4	100.0	
농림생산직	22.8	49.7	20.9	6.6	100.0	
비경활인구	20.9	46.5	24.9	7.7	100.0	
종교						
없음	18.8	45.7	26.6	8.9	100.0	15.541(3)**
있음	19.0	47.8	25.5	7.8	100.0	
정치성향						
진보	17.2	48.5	25.1	9.1	100.0	62.412(6)***
중도	19.6	43.4	28.8	8.2	100.0	
보수	19.1	49.1	23.4	8.4	100.0	

**(4)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성소수자가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 따른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75.0%로 가장 높았고, 40-50대에서 62.4%, 20-30대에서 52.7%로 연령이 높을수록 불편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도시 거주(62.2%)에 비해 농어촌(66.8%)에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4.6%p 더 높았고, 대재 이상(58.1%)에 비해 고졸이하(68.7%)에서 10.6%p 높았다. 직업을 보면 농림생산직에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69.8%), 관리전문직(56.3%)에서 가장 낮았다. 가치관에서는 종교 있음(67.4%), 보수(67.1%)에서 성소수자가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71 |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성소수자**

단위 : %

전체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계	$\chi^2(df)$
▣ 전체 ▣	22.4	40.6	26.9	10.1	100.0	
<b>성별</b>						
남자	23.0	39.6	27.6	9.8	100.0	5.685(3)
여자	21.9	41.6	26.1	10.4	100.0	
<b>지역</b>						
도시[동부]	21.2	41.0	27.5	10.3	100.0	142.693(3)***
농어촌[읍면부]	28.3	38.4	24.2	9.0	100.0	
<b>연령</b>						
20-30대	18.1	34.6	33.3	13.9	100.0	555.966(6)***
40-50대	21.6	40.8	27.9	9.6	100.0	
60대 이상	28.2	46.8	18.5	6.5	100.0	
<b>학력</b>						
고졸이하	25.2	43.5	22.6	8.6	100.0	260.114(3)***
대재이상	20.1	38.1	30.5	11.3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20.0	36.2	29.1	14.6	100.0	239.043(9)***
사무판매서비스	20.0	39.6	30.0	10.4	100.0	
농림생산직	25.0	44.8	21.5	8.8	100.0	
비경활인구	25.1	40.7	25.0	9.3	100.0	
<b>종교</b>						
없음	21.5	39.2	28.1	11.2	100.0	82.216(3)***
있음	24.3	43.1	24.7	8.0	100.0	
<b>정치성향</b>						
진보	20.9	41.3	25.2	12.7	100.0	174.006(6)***
중도	23.0	37.7	29.7	9.6	100.0	
보수	22.9	44.2	24.3	8.6	100.0	

## (5)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결혼이주민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매우+다소)는 의견은 성별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 배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농어촌 거주(57.8%), 60대 이상(62.8%), 고졸이하(58.5%), 농림생산직(60.5%), 종교 있음(56.5%), 보수(55.9%)에서 불편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72 |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결혼이주민

단위 : %

전체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계	$\chi^2(df)$
▣ 전체 ▣	13.2	40.6	34.5	11.7	100.0	
성별						
남자	13.1	40.6	34.6	11.8	100.0	2.208(3)
여자	13.3	40.7	34.4	11.6	100.0	
지역						
도시[동부]	12.1	40.8	34.9	12.2	100.0	160.069(3)***
농어촌[읍면부]	18.1	39.7	32.8	9.4	100.0	
연령						
20-30대	10.9	34.6	39.6	15.0	100.0	377.015(6)***
40-50대	12.1	41.9	34.9	11.1	100.0	
60대 이상	17.0	45.7	28.4	8.8	100.0	
학력						
고졸이하	15.6	42.9	31.5	10.1	100.0	238.610(3)***
대재이상	11.1	38.7	37.1	13.1	100.0	
직업						
관리전문직	10.6	38.0	35.9	15.5	100.0	172.742(9)***
사무판매서비스	12.0	39.1	36.4	12.5	100.0	
농림생산직	15.3	45.1	30.2	9.3	100.0	
비경활인구	14.3	40.9	33.9	10.9	100.0	
종교						
없음	13.3	39.1	35.5	12.2	100.0	23.238(3)***
있음	13.0	43.5	32.7	10.8	100.0	
정치성향						
진보	12.0	42.1	33.2	12.7	100.0	53.139(6)***
중도	14.4	37.9	37.0	10.7	100.0	
보수	12.5	43.4	31.9	12.2	100.0	

**(6)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노인이 선출직 정치인으로 당선되는 것에 대해 도시(27.2%)에 비해 농어촌(33.5%)에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대재이상(27.7%)에 비해 고졸이하(29.0%)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았다(60대 이상 31.2%, 40-50대 28.6%, 20-30대 25.4%). 직업에서는 농림생산직(31.9%), 관리전문직(31.0%), 사무판매서비스(27.5%), 비경활인구(26.8%) 순서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가치관 면에서는 종교 있음(29.8%), 진보(29.8%)에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러한 응답자 배경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73 |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노인**

단위 : %

전체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계	$\chi^2(df)$
▣ 전체 ▣	5.0	23.3	46.2	25.5	100.0	
<b>성별</b>						
남자	4.8	23.7	46.3	25.3	100.0	4.723(3)
여자	5.2	23.0	46.0	25.8	100.0	
<b>지역</b>						
도시[동부]	4.6	22.6	46.6	26.2	100.0	133.158(3)***
농어촌[읍면부]	6.9	26.6	43.9	22.6	100.0	
<b>연령</b>						
20-30대	4.9	20.5	45.7	28.8	100.0	80.402(6)***
40-50대	4.9	23.6	46.5	25.0	100.0	
60대 이상	5.2	26.0	46.2	22.6	100.0	
<b>학력</b>						
고졸이하	5.0	24.0	47.0	24.0	100.0	53.218(3)***
대재이상	5.0	22.7	45.4	26.8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5.6	25.4	43.2	25.8	100.0	45.480(9)***
사무판매서비스	5.3	22.3	46.3	26.1	100.0	
농림생산직	5.0	26.9	45.3	22.8	100.0	
비경활인구	4.5	22.4	47.0	26.1	100.0	
<b>종교</b>						
없음	5.3	22.2	46.2	26.3	100.0	25.561(3)***
있음	4.4	25.4	46.0	24.2	100.0	
<b>정치성향</b>						
진보	5.3	24.5	43.5	26.8	100.0	59.063(6)***
중도	5.5	21.9	47.8	24.8	100.0	
보수	4.1	24.4	45.9	25.5	100.0	



## (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장애인이 선출직 정치인에 당선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 배경별로 살펴보면, 성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에서 32.3%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20-30대에서 25.7%로 가장 낮았다. 농어촌(29.8%), 고졸이하(30.1%)에서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직업을 보면 불편하다는 응답은 농림생산직(31.0%), 사무판매팀서비스(28.6%), 비경활인구(26.9%), 관리전문직(23.9%)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치관 면에서는 종교 있음(29.0%), 보수(29.9%)에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4-74 |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장애인

단위 : %

전체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계	$\chi^2(df)$
▣ 전체 ▣	5.0	23.2	49.9	22.0	100.0	
성별						
남자	4.9	23.3	50.0	21.7	100.0	1.733(3)
여자	5.0	23.0	49.7	22.3	100.0	
지역						
도시[동부]	5.0	22.7	49.6	22.6	100.0	23.418(3)***
농어촌[읍면부]	4.5	25.2	50.9	19.3	100.0	
연령						
20-30대	5.2	20.5	48.5	25.8	100.0	164.682(6)***
40-50대	5.0	21.9	51.0	22.1	100.0	
60대 이상	4.6	27.7	49.9	17.8	100.0	
학력						
고졸이하	4.6	25.5	50.1	19.8	100.0	108.455(3)***
대재이상	5.2	21.2	49.7	23.9	100.0	
직업						
관리전문직	4.0	19.9	48.3	27.9	100.0	73.304(9)***
사무판매팀서비스	6.1	22.5	48.7	22.7	100.0	
농림생산직	3.5	27.4	50.6	18.4	100.0	
비경활인구	4.3	22.6	51.5	21.6	100.0	
종교						
없음	4.9	22.8	49.2	23.2	100.0	29.153(3)***
있음	5.1	23.9	51.1	19.9	100.0	
정치성향						
진보	4.1	22.6	50.3	23.0	100.0	63.803(6)***
중도	6.1	21.6	50.1	22.2	100.0	
보수	4.0	25.9	49.2	20.9	100.0	

**(8) 청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청년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 배경별로 살펴보면, 여성(12.2%)에 비해 남성(13.8%)에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거주 지역 면에서는 농어촌(15.0%)에서 더 높았고,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14.0%)에서 더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60대 이상 16.5%, 40-50대 12.5%, 20-30대 10.4%), 직업적으로는 관리전문직(17.2%)에서 가장 높았고 사무판매서비스(11.8%)에서 가장 낮았다. 가치관에서는 종교 있음(14.6%), 보수(16.0%)에서 불편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75 |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청년**

단위 : %

전체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계	$\chi^2(df)$
▣ 전체 ▣	2.4	10.6	47.6	39.4	100.0	
<b>성별</b>						
남자	2.6	11.2	48.3	37.9	100.0	8.196(3)*
여자	2.2	9.9	47.0	40.8	100.0	
<b>지역</b>						
도시[동부]	2.5	10.1	47.4	40.1	100.0	48.877(3)***
농어촌[읍면부]	2.2	12.8	49.0	35.9	100.0	
<b>연령</b>						
20-30대	2.8	7.6	45.7	44.0	100.0	135.137(6)***
40-50대	2.3	10.2	48.5	39.0	100.0	
60대 이상	2.2	14.3	48.8	34.7	100.0	
<b>학력</b>						
고졸이하	2.2	11.8	48.3	37.7	100.0	47.013(3)***
대재이상	2.6	9.5	47.1	40.8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2.7	14.5	42.3	40.5	100.0	77.625(9)***
사무판매서비스	3.0	8.9	47.0	41.2	100.0	
농림생산직	2.2	13.5	48.5	35.8	100.0	
비경활인구	1.7	10.4	49.3	38.5	100.0	
<b>종교</b>						
없음	2.3	9.8	48.2	39.6	100.0	8.616(3)*
있음	2.6	12.0	46.6	38.8	100.0	
<b>정치성향</b>						
진보	1.9	9.7	46.5	41.9	100.0	33.100(6)***
중도	2.4	9.3	49.3	39.0	100.0	
보수	2.9	13.1	46.3	37.8	100.0	

## (9) 여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응답자 배경 변인별로 여성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9.3%)이 여성(5.8%)에 비해 불편하다는 응답을 많이 했고, 비율 차이는 3.5%p이었다. 거주 지역 면에서는 불편하다는 응답 비율이 도시(7.6%)가 농어촌(7.4%)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6.8%)와 40-50대(6.9%)에서는 불편하다는 응답이 비슷했으나, 60대 이상에서는 9.2%로 약 2.4%p 높게 나타났다. 직업을 보면 농림생산직(8.4%)에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이어서 사무판매서비스(8.0%), 비경활인구(6.7%), 관리전문직(6.5%)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에서 가장 높고(10.0%), 진보(6.1%)에서 낮았다.

표4-76 |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여성

단위 : %

전체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계	$\chi^2(df)$
▣ 전체 ▣	0.7	6.9	49.6	42.8	100.0	
<b>성별</b>						
남자	0.9	8.4	51.1	39.6	100.0	76.118(3)***
여자	0.4	5.4	48.1	46.1	100.0	
<b>지역</b>						
도시[동부]	0.7	6.9	49.1	43.3	100.0	19.221(3)***
농어촌[읍면부]	0.7	6.8	51.8	40.7	100.0	
<b>연령</b>						
20-30대	0.7	6.1	46.4	46.8	100.0	89.909(6)***
40-50대	0.5	6.3	50.0	43.1	100.0	
60대 이상	0.8	8.4	52.6	38.2	100.0	
<b>학력</b>						
고졸이하	0.8	7.8	51.7	39.6	100.0	85.861(3)***
대재이상	0.5	6.1	47.8	45.6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2	5.3	45.7	47.7	100.0	52.875(9)***
사무판매서비스	0.6	7.5	48.9	43.1	100.0	
농림생산직	0.9	7.5	53.2	38.4	100.0	
비경활인구	0.6	6.1	49.6	43.7	100.0	
<b>종교</b>						
없음	0.6	6.9	50.6	41.9	100.0	5.639(3)
있음	0.8	6.9	47.8	44.6	100.0	
<b>정치성향</b>						
진보	0.5	5.6	47.7	46.2	100.0	56.798(6)***
중도	0.6	6.1	50.0	43.3	100.0	
보수	0.9	9.1	50.6	39.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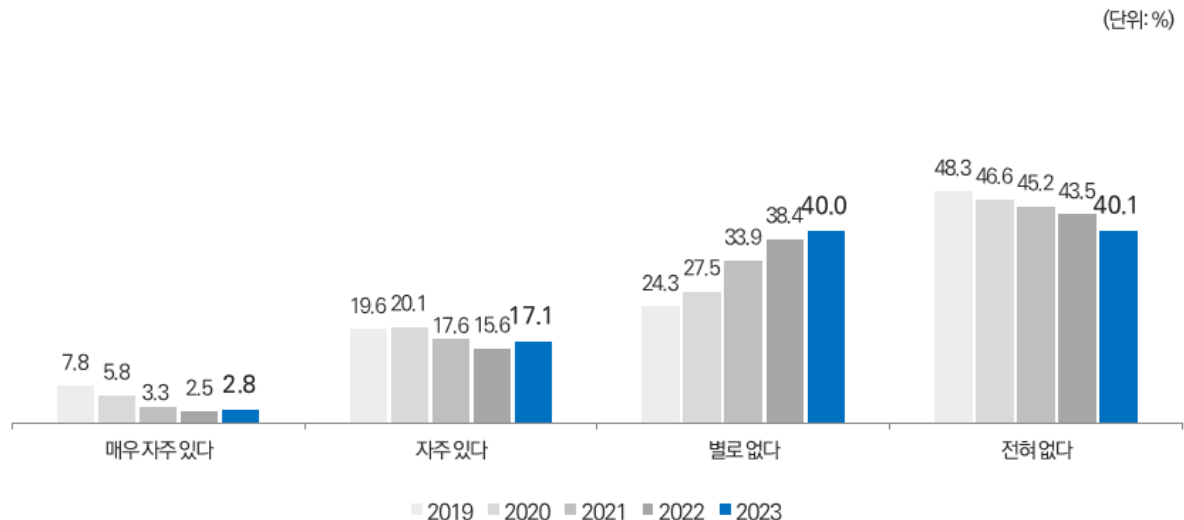
## 6) 혐오표현의 경험 및 대응

### (1)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 및 실태

#### ①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2023년 전체 응답자의 59.9%는 있다(매우 자주+자주+별로)고 응답했다. 2019년부터 혐오표현에 노출된 경험의 응답 추이를 살펴보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2019년 48.3%에서 계속 감소하여 2023년에 40.1%였고, 반면 별로 없다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 40.0%를 나타냈다. 자주 있다는 응답은 2023년 17.1%로 2022년에 비해서는 1.5%p 증가하긴 했으나 2019년에 비해 2.5%p 감소했다. 매우 자주 있다는 응답은 2019년에는 7.8%였으나, 2022년에 2.5%까지 감소했고, 2023년에는 이보다 약간 상승한 2.8%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4-38 | 혐오표현의 노출 경험 추이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매우 자주+자주+별로)는 응답을 응답자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종교를 제외한 성별, 거주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은 여성(56.9%)에 비해 남성(62.9%)이 더 많았고, 농어촌(53.2%)에 비해 도시(61.3%)에서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52.6%였지만, 20-30대에서는 66.0%로 나타나 13.4%p 더 높았다. 고졸이하(54.2%)에 비해 대재이상(64.9%)에서 혐오표현 노출 경험이 9.3%p 높았다. 직업에서는 관리전문직(66.7%)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무판매회사(63.4%), 농림생산직(56.9%), 비정규직(55.0%), 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67.2%)에서 혐오표현을 접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77 |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정도

단위 : %

전체	매우 자주 있다	자주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2.8	17.1	40.0	40.1	100.0	
성별						
남자	3.1	18.7	41.1	37.1	100.0	52.859(3)***
여자	2.5	15.4	39.0	43.1	100.0	
지역						
도시[동부]	3.0	17.8	40.5	38.6	100.0	161.017(3)***
농어촌[읍면부]	1.9	13.6	37.7	46.8	100.0	
연령						
20~30대	5.7	20.9	39.4	34.0	100.0	586.761(6)***
40~50대	2.1	16.6	41.8	39.5	100.0	
60대 이상	0.6	13.4	38.6	47.4	100.0	
학력						
고졸이하	1.1	13.8	39.3	45.9	100.0	369.859(3)***
대재이상	4.3	19.9	40.7	35.1	100.0	
직업						
관리전문직	8.1	19.8	38.8	33.3	100.0	345.945(9)***
사무판매서비스	3.0	19.1	41.3	36.5	100.0	
농림생산직	1.5	13.2	42.2	43.1	100.0	
비경활인구	2.0	15.7	37.3	45.0	100.0	
종교						
없음	2.9	17.0	39.8	40.2	100.0	1.565(3)
있음	2.6	17.1	40.5	39.8	100.0	
정치성향						
진보	4.3	18.3	44.6	32.8	100.0	139.069(6)***
중도	2.8	17.4	38.0	41.9	100.0	
보수	1.7	15.6	39.3	43.5	100.0	

## ②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해보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를 질문한 결과, 각 연도별로 혐오 표현의 접촉 경로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매체는 TV/라디오였다(2020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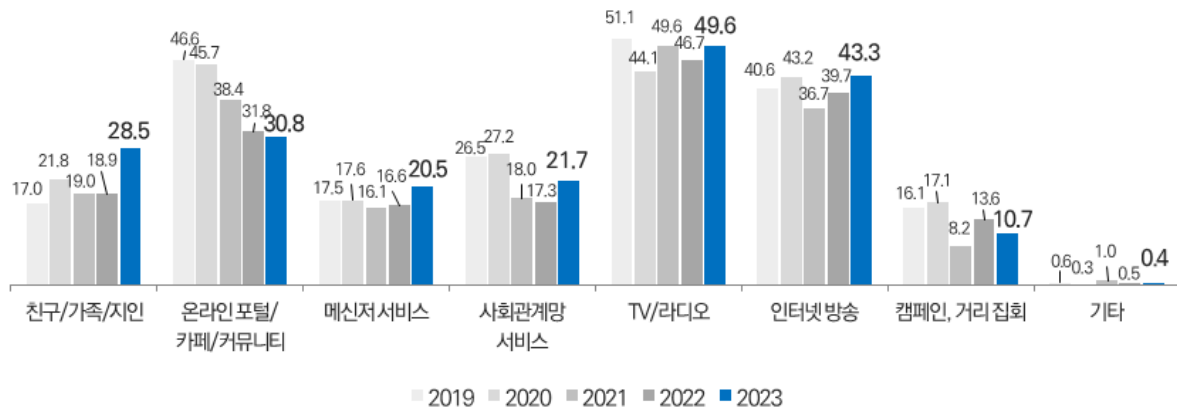
2019년 51.1%였으나, 2021년 49.6%, 2023년에는 49.6%로 과거에 비해 약간 감소한 상태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 접했다는 응답은 2023년에 43.3%였고, 이는 작년에 비해 3.6%p 증가한 것이다.

온라인포털/카페/커뮤니티를 통해 접했다는 응답은 2019년에 46.6%로 높았지만,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3년 30.8%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2023년 응답은 21.7%로 2019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2022년에 비해서는 4.4%p 증가했다.

친구/가족/지인을 통해 혐오표현을 접했다는 응답은 2023년 28.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 이후 증가한 것이다.

그림4-39 |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 추이(중복응답)

(단위: %)



혐오표현 접촉 경로에 대한 2023년 조사 결과를 응답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TV/라디오(49.6%)–인터넷방송(43.3%)–온라인포털/카페/커뮤니티(30.8%)–친구/가족/지인(28.5%)–사회관계망서비스(21.7%)–메신저서비스(20.5%)–캠페인, 거리집회(10.7%) 순으로 나타났다.

TV/라디오를 통해 혐오표현을 접했다는 응답은 여성(50.6%), 도시(49.6%), 60대 이상(62.0%), 고졸이하(56.7%), 비경향인구(54.3%), 종교 있음(50.5%), 보수(56.2%)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인터넷방송을 통해 혐오표현을 접했다는 응답은 남성(44.8%), 도시(44.6%), 20-30대(52.1%), 대재이상(49.1%), 관리전문직(51.4%), 종교 없음(43.8%), 진보(49.3%)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온라인포털/카페/커뮤니티를 통해 경험했다는 응답은 남성(31.3%), 도시(31.8%), 20-30대(43.5%), 대재이상(39.4%), 관리전문직(43.0%), 종교 없음(33.0%), 진보(35.3%)에서 더 높았다.

친구/가족/지인을 통해 접했다는 응답은 남성(29.2%), 농어촌(32.4%), 60대 이상(35.1%), 고졸이하(32.3%), 농업생산직(36.9%), 종교 없음(29.9%), 보수(32.2%)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21.8%), 도시(22.5%), 20-30대(34.8%), 대재이상(28.9%), 관리전문직(28.7%), 종교 없음(22.3%), 진보(26.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메신저 프로그램은 남성(21.2%), 도시(21.4%), 20-30대(27.2%), 대재이상(25.1%), 사무판매서비스(24.9%), 종교 없음(21.5%), 진보(23.9%)에서 높았다.

표4-78 |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중복응답)

단위 : %

혐오표현 경험 있음	친구/가족/지인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	메신저 서비스(카카오톡, 밴드, 라인,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TV/라디오	인터넷 방송(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캠페인, 거리 집회	기타
▣ 전체 ▣	28.5	30.8	20.5	21.7	49.6	43.3	10.7	0.4
성별								
남자	29.2	31.3	21.2	21.5	48.6	44.8	11.0	0.4
여자	27.7	30.3	19.8	21.8	50.6	41.7	10.4	0.4
지역								
도시(동부)	27.8	31.8	21.4	22.5	49.6	44.6	11.2	0.3
농어촌(읍면부)	32.4	25.5	15.8	17.1	49.5	36.2	7.9	0.7
연령								
20-30대	25.6	43.5	27.2	34.8	38.8	52.1	11.6	0.3
40-50대	26.7	31.3	19.3	17.9	51.2	44.7	11.3	0.4
60대 이상	35.1	12.6	13.0	9.1	62.0	29.3	8.6	0.5
학력								
고졸이하	32.3	18.9	14.1	11.7	56.7	35.2	9.6	0.5
대재이상	25.7	39.4	25.1	28.9	44.5	49.1	11.4	0.3
직업								
관리전문직	23.3	43.0	23.3	28.7	43.9	51.4	11.0	0.6
사무판매서비스	27.8	35.1	24.9	25.4	46.5	47.0	11.3	0.3
농림생산직	36.9	19.2	12.7	11.5	52.8	36.3	9.1	0.6
비경활인구	26.3	26.9	16.9	19.4	54.3	38.9	10.4	0.4
종교								
없음	29.9	33.0	21.5	22.3	49.1	43.8	10.2	0.5
있음	25.8	26.9	18.7	20.6	50.5	42.5	11.5	0.3
정치성향								
진보	29.6	35.3	23.9	26.8	43.3	49.3	12.7	0.1
중도	25.2	34.2	21.4	23.9	49.2	46.8	11.0	0.5
보수	32.2	21.5	15.8	13.3	56.2	32.3	8.3	0.5

### ③ 혐오표현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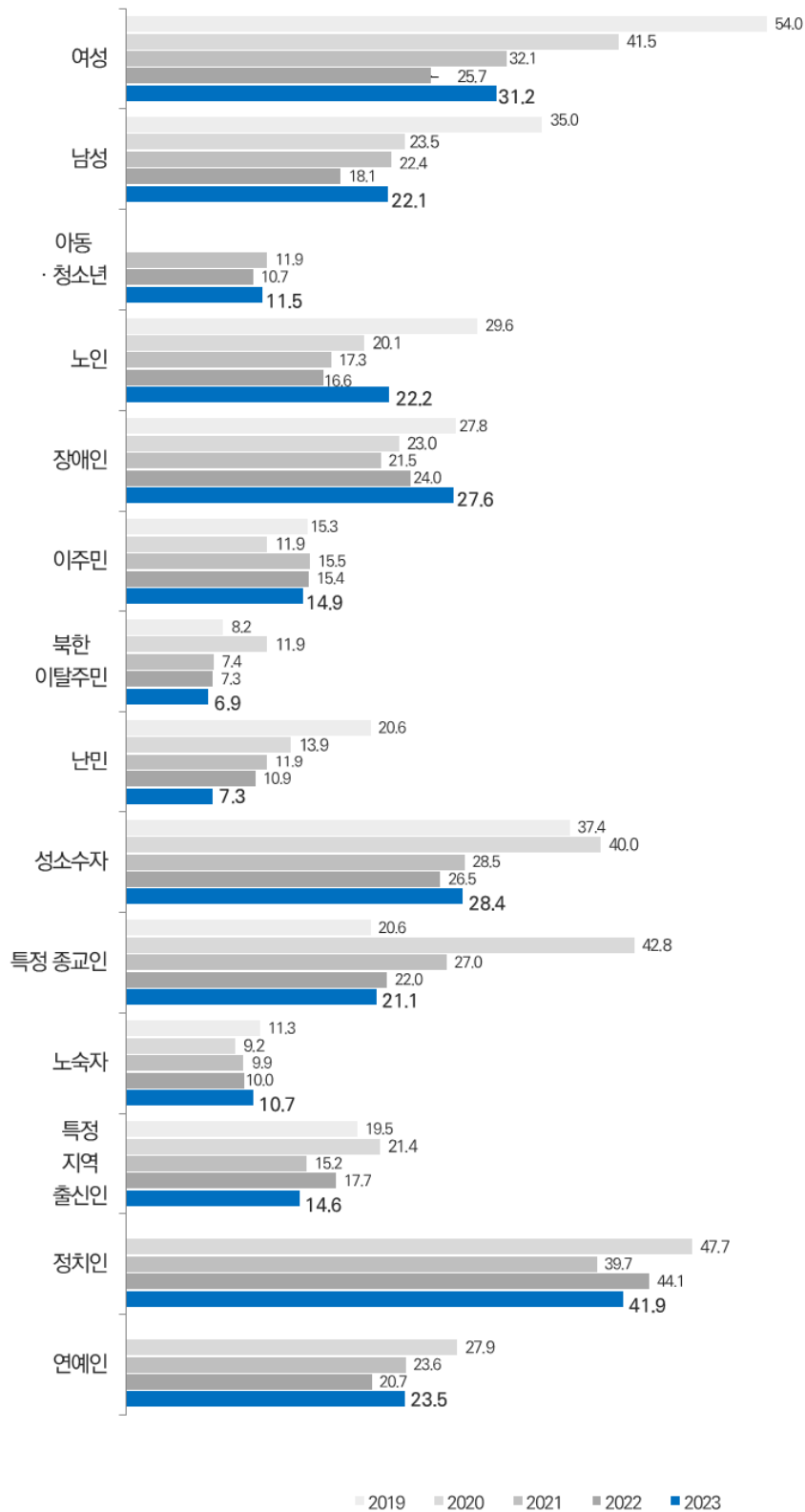
혐오표현의 접촉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접했던 혐오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지 모두 선택하도록 조사했다. [그림 4-40]은 각 연도별 응답 비율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2019년에 가장 많이 응답된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54.0%)이었지만, 2020년에 조사 항목에 정치인이 포함된 이후 계속해서 정치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들어봤다는 응답은 2020년 47.7%이었고, 2023년에는 41.9%로 약간 감소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들어봤다는 응답은 2019년에 54.0%를 기록한 이후 2022년에는 25.7%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에는 31.2%로 작년에 비해 5.5%p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도 응답 비율을 비교했을 때, 감소한 항목은 난민(-3.6%p), 특정지역출신인(-3.1%p), 정치인(-2.2%p), 특정종교인(-0.9%p), 이주민(-0.5%p), 북한이탈주민(-0.4%p)의 6개 항목이었다. 반면 노인(+5.6%p), 여성(+5.5%p), 남성(+4.0%p), 장애인(+3.6%p), 연예인(+2.8%p), 성소수자(+1.9%p), 아동·청소년(+0.8%p), 노숙자(+0.7%p)가 혐오표현의 대상이었다는 응답은 작년에 비해 8개 항목에서 증가했고 증가 폭 또한 감소 폭 보다 컸다.

그림4-40 | 혐오표현의 대상 응답 추이(중복응답)

(단위: %)





2023년도에 응답자들이 접했던 혐오표현의 대상을 응답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정치인(41.9%), 여성(31.2%), 성소수자(28.4%), 장애인(27.6%), 연예인(23.5%), 노인(22.2%), 남성(22.1%), 특정종교인(21.1%), 이주민(14.9%), 특정지역출신인(14.6%), 아동·청소년(11.5%), 노숙자(10.7%), 난민(7.3%), 북한이탈주민(6.9%)이었다.

그 중 상위 3가지 항목을 응답자 배경 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많이 접했다는 응답은 남성(43.9%), 도시(42.0%), 60대 이상(46.1%), 고졸이하(44.8%), 농림생산직(50.0%), 종교 없음(42.1%), 진보(45.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이 대상이었다는 응답은 여성(33.1%), 도시(31.9%), 20-30대(39.8%), 대재이상(36.0%), 관리전문직(38.6%), 종교 없음(31.8%), 진보(35.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소수자가 대상이었다는 응답은 남성(28.6%), 도시(28.7%), 20-30대(33.9%), 대재이상(33.1%), 관리전문직(40.6%), 종교 있음(28.7%), 진보(33.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4-79 |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중복응답)

단위 : %

	여성	남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 탈주민	난민	성소수 자	특정 종교인	노숙자	특정 지역 출신인	정치인	연예인	기타
▣ 전체 ▣	31.2	22.1	11.5	22.2	27.6	14.9	6.9	7.3	28.4	21.1	10.7	14.6	41.9	23.5	0.8
성별															
남자	29.3	24.9	10.5	22.5	27.6	16.4	7.2	6.6	28.6	22.5	10.1	16.3	43.9	23.5	0.7
여자	33.1	19.0	12.7	21.9	27.7	13.3	6.7	8.0	28.2	19.5	11.3	12.8	39.7	23.5	0.8
지역															
도시[동부]	31.9	22.3	11.5	23.2	29.1	14.6	6.8	7.2	28.7	20.4	10.9	15.1	42.0	23.7	0.8
농어촌[읍면부]	27.1	20.9	11.9	17.0	20.1	16.7	7.5	7.7	27.0	24.8	9.3	12.2	41.4	22.3	0.7
연령															
20-30대	39.8	29.4	14.5	23.3	29.3	15.7	6.6	8.2	33.9	20.6	10.5	15.8	38.7	30.1	1.2
40-50대	29.8	19.1	9.3	20.9	27.3	15.5	7.4	7.1	28.4	22.1	11.4	15.0	42.1	22.2	0.6
60대 이상	21.2	16.3	10.6	22.6	25.9	12.9	6.8	6.2	20.9	20.4	9.9	12.4	46.1	16.3	0.4
학력															
고졸이하	24.4	18.8	10.2	22.0	25.9	11.7	6.3	6.1	21.8	20.9	10.1	13.0	44.8	19.4	0.6
대재이상	36.0	24.5	12.4	22.3	28.9	17.3	7.4	8.1	33.1	21.3	11.1	15.7	39.9	26.4	0.9
직업															
관리전문직	38.6	25.0	10.4	22.9	29.5	18.8	8.3	7.7	40.6	24.5	12.5	22.0	48.2	26.8	0.7
사무판매서비스	33.9	23.0	12.6	23.6	29.9	15.4	7.1	8.0	30.6	21.7	11.0	13.8	38.5	25.7	0.7
농림생산직	24.3	21.7	7.9	18.1	22.6	12.9	5.7	4.1	21.5	24.8	8.3	14.7	50.0	20.5	0.9
비경활인구	28.4	19.9	12.1	22.1	26.4	14.2	6.9	7.9	25.4	17.1	11.0	13.9	41.0	20.7	0.8
종교															
없음	31.8	23.5	11.8	21.8	26.6	14.6	7.1	6.9	28.2	21.5	9.9	15.3	42.1	25.1	0.9
있음	29.9	19.5	10.9	22.9	29.5	15.5	6.6	8.0	28.7	20.5	12.1	13.4	41.6	20.6	0.6
정치성향															
진보	35.8	20.7	8.9	22.1	28.0	17.3	6.6	8.2	33.7	23.1	10.3	15.4	45.1	27.0	0.8
중도	33.0	22.5	12.1	21.7	28.7	14.0	7.6	6.7	29.1	20.6	10.4	14.5	39.9	25.5	0.9
보수	24.0	22.8	13.2	23.1	25.7	14.0	6.2	7.2	22.3	20.0	11.5	14.0	41.9	17.1	0.5

## ④ 혐오표현의 대상별 내용 심각도

지난 1년 동안 접했던 혐오표현 중에서 표현의 내용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지 순위대로 2개를 선택하도록 질문했다.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친 결과, 정치인(34.1%), 여성(27.9%), 장애인(19.7%), 연예인(19.6%), 성소수자(16.8%), 노인(15.3%)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 많이 언급되는 집단이 혐오표현의 수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접했다는 응답(22.1%)에 비해 혐오표현의 수위가 높다는 응답(11.1%)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 결과를 응답자 배경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의 내용이 심하다는 응답은 남성(36.6%), 농어촌(40.6%), 60대 이상(43.8%), 고졸이하(39.3%), 농림생산직(53.7%), 종교 없음(34.6%), 진보(37.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이라는 응답은 여성(32.2%), 도시(28.4%), 20-30대(33.5%), 대재이상(31.7%), 관리전문직(36.8%), 종교 있음(28.6%), 진보(32.0%)에서 높게 나타났다. 각각 정치인과 여성을 응답한 응답자 배경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배경별로 응답 비율 차이가 큰 항목(3%p 이상)을 정리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8.0%p), 정치인(5.5%p), 남성(4.8%p)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장애인(10.1%p), 정치인(7.6%p), 특정종교인(5.9%p), 연예인(4.2%p), 여성(3.8%p), 노숙자(3.4%p)에서 혐오표현 수위가 높다는 응답 비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다.

학력에서는 여성(11.1%p), 정치인(8.0%p), 노인(7.9%p), 성소수자(7.3%p), 연예인(7.1%p), 남성(5.1%p), 아동청소년(4.2%p), 특정종교인(3.9%p), 장애인(3.1%p)이었고, 집단 간 응답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항목들이 더 많았다.

연령에서 20-30대와 60대 이상의 차이를 보면, 여성(18.0%p), 정치인(15.7%p), 노인(14.3%p), 연예인(14.0%p), 성소수자(11.0%p), 남성(10.4%p), 특정종교인(6.8%p), 장애인(5.8%p), 아동청소년(4.6%p), 특정지역출신인(3.8%p)이었다.

정치성향에서 진보와 보수 차이를 보면, 여성(13.6%p), 노인(10.0%p), 연예인(8.2%p), 아동청소년(6.9%p), 노숙자(3.6%p)에서 응답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4-80 | 혐오표현의 내용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대상(1순위+2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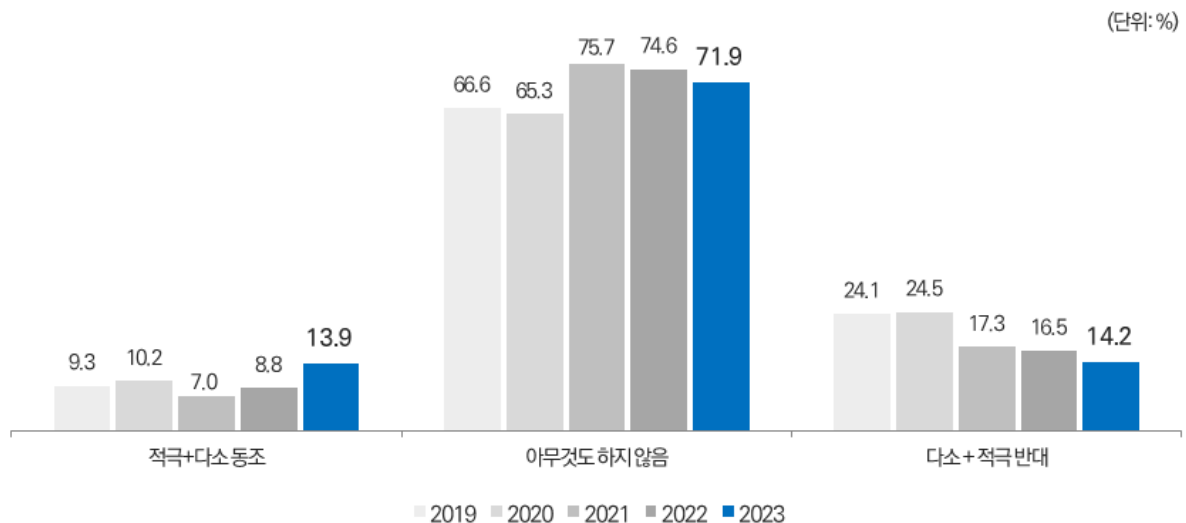
혐오표현 대상자 3개 이상 응답자	여성	남성	아동·청 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 탈주민	난민	성소수 자	특정 종교인	노숙자	특정 지역 출신인	정치인	연예인	기타
▣ 전체 ▣	27.9	11.1	7.6	15.3	19.7	7.5	1.6	2.6	16.8	12.0	4.6	9.6	34.1	19.6	0.3
성별															
남자	24.2	13.3	7.3	14.5	19.4	7.7	1.5	2.4	15.9	12.6	4.0	10.8	36.6	18.8	0.3
여자	32.2	8.5	8.0	16.2	20.0	7.2	1.7	2.8	17.8	11.3	5.3	8.1	31.1	20.5	0.3
지역															
도시[동부]	28.4	11.1	7.4	15.1	21.1	7.4	1.5	2.3	17.0	11.2	4.1	9.9	33.0	20.2	0.3
농어촌[읍면부]	24.6	10.8	9.2	16.2	11.0	7.7	2.4	4.2	15.6	17.1	7.5	7.4	40.6	16.0	0.0
연령															
20~30대	33.5	15.5	6.7	11.2	17.0	7.7	1.3	2.6	20.3	9.1	4.0	7.8	28.1	24.8	0.5
40~50대	28.2	9.2	6.6	14.3	21.0	7.1	1.3	2.5	16.9	13.2	4.7	10.5	35.5	18.5	0.1
60대 이상	15.5	5.1	11.3	25.5	22.8	7.7	2.8	2.8	9.3	15.9	5.4	11.6	43.8	10.8	0.2
학력															
고졸이하	20.6	7.7	10.4	20.5	21.7	7.5	2.6	3.2	12.0	14.6	4.5	10.3	39.3	14.9	0.2
대재이상	31.7	12.8	6.2	12.6	18.6	7.5	1.0	2.3	19.3	10.7	4.6	9.2	31.3	22.0	0.3
직업															
관리전문직	36.8	11.0	4.7	7.6	20.3	9.5	0.4	0.3	20.3	11.5	4.9	14.6	32.3	17.5	0.0
사무판매서비스	30.5	11.1	7.7	15.6	19.4	6.9	1.5	2.5	17.7	10.9	4.0	7.0	30.5	23.1	0.3
농림생산직	17.2	12.3	5.0	14.1	19.3	6.5	1.4	2.0	12.5	16.6	4.3	11.8	53.7	14.7	0.2
비경활인구	25.0	10.5	10.3	18.7	20.0	8.1	2.4	4.1	15.9	11.8	5.7	11.0	30.7	16.6	0.3
종교															
없음	27.5	12.5	8.6	15.4	16.7	7.5	1.6	2.2	16.2	11.2	4.0	10.1	34.6	20.3	0.3
있음	28.6	8.4	5.8	15.1	25.2	7.4	1.6	3.4	17.9	13.5	5.6	8.5	33.1	18.2	0.2
정치성향															
진보	32.0	11.8	2.8	9.4	21.7	8.4	1.1	2.8	18.8	12.3	3.4	9.6	37.5	21.7	0.2
중도	30.6	11.5	9.9	17.1	17.8	6.4	1.4	1.7	17.2	10.6	4.0	8.7	30.7	21.8	0.4
보수	18.4	9.5	9.7	19.4	20.2	8.1	2.4	3.9	13.7	13.9	7.0	11.0	35.4	13.5	0.2

## ⑤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지난 1년 간 혐오표현을 접해본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에게 혐오표현을 접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질문한 결과, 71.9%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응답했고, 14.2%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편이었다고 했으며, 13.9%는 동조하는 의견이나 행동을 취한 편이었다고 응답했다. 2019년 이후부터 응답 추이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응답은 2019년 66.6%였다가 2022년 74.6%로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71.9%로 2.7%p 감소했다.

동조하는 의견이나 행동을 취했다는 응답은 2020년 10.2%에서 2022년 8.8%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 13.9%p 증가한 13.9%를 나타냈다.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거나 시정을 요구했다는 응답은 2020년 24.5%에서 계속 감소해서 2023년에는 14.2%를 보이고 있다.

그림4-41 |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조했다는 의견은 40-50대(14.1%), 대재이상(14.6%), 농림생산직(16.5%), 종교 있음(15.0%), 진보(18.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했다는 응답은 20-30대와 40-50대가 비슷했고, 대재이상(17.1%), 관리전문직(29.6%), 종교 있음(15.9%), 진보(18.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74.9%), 고졸이하(77.0%), 비경활인구(77.0%), 종교 없음(73.5%), 중도(77.5%)에서 가장 높았다.

표4-81 |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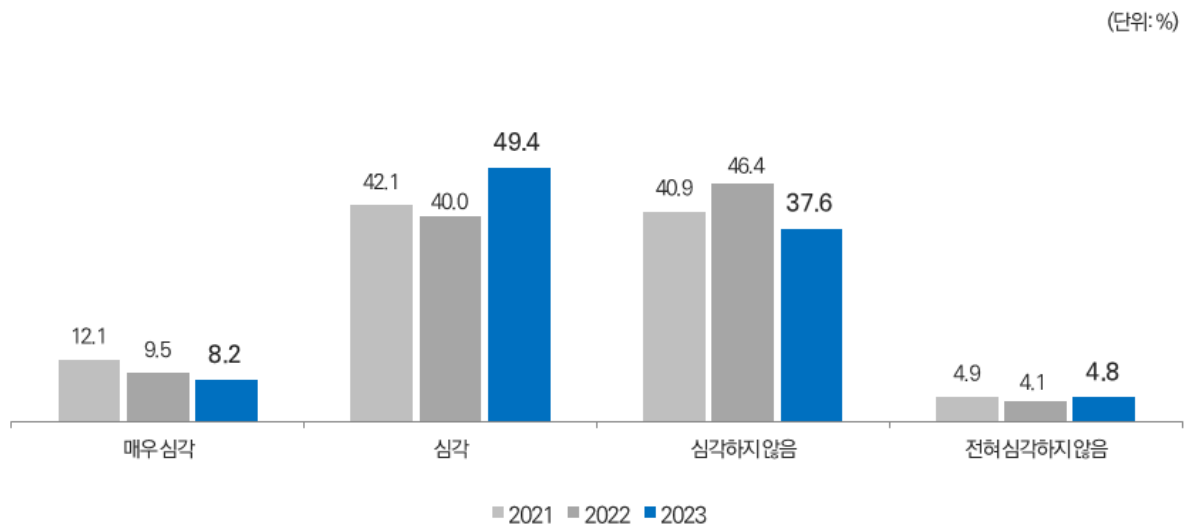
단위 : %

혐오표현 경험 있음	① 동조하는 의견이나 행동을 취했다	②	③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④	⑤ 반대하는 의견을 내거나 시정을 요구했다	계	$\chi^2(df)$
▣ 전체 ▣	1.0	12.9	71.9	12.3	1.9	100.0	
<b>성별</b>							
남자	1.1	13.8	70.9	12.4	1.7	100.0	5.960(4)
여자	0.9	11.9	73.0	12.1	2.0	100.0	
<b>지역</b>							
도시[동부]	0.9	12.6	72.3	12.2	2.0	100.0	7.717(4)
농어촌[읍면부]	1.6	14.5	70.0	12.8	1.0	100.0	
<b>연령</b>							
20-30대	1.2	12.6	71.0	13.4	1.7	100.0	57.047(8)***
40-50대	0.9	13.2	70.8	13.0	2.2	100.0	
60대 이상	0.9	12.9	74.9	9.8	1.5	100.0	
<b>학력</b>							
고졸이하	1.1	11.8	77.0	8.8	1.2	100.0	149.988(4)***
대재이상	0.9	13.7	68.3	14.8	2.3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4	10.9	58.1	24.0	5.6	100.0	212.519(12)** *
사무판매서비스	1.1	13.8	72.2	11.1	1.7	100.0	
농림생산직	0.7	15.8	69.2	12.8	1.4	100.0	
비경활인구	0.9	10.3	77.0	10.5	1.3	100.0	
<b>종교</b>							
없음	0.8	12.5	73.5	11.6	1.6	100.0	13.733(4)**
있음	1.4	13.6	69.1	13.5	2.4	100.0	
<b>정치성향</b>							
진보	1.5	16.9	63.3	15.5	2.7	100.0	113.439(8)***
중도	0.9	10.7	77.5	9.4	1.5	100.0	
보수	0.7	12.3	72.0	13.4	1.6	100.0	

## (2) 혐오표현의 심각성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다소 심각)하다는 응답은 2021년 54.2%, 2022년 49.5%였다가 2023년 57.6%로 증가했다. 심각하지 않다(전혀+별로)는 응답은 2022년 50.5%였다가 2023년 42.4%로 감소했다.

그림4-42 | 혐오표현의 심각성 응답 추이



응답자 특성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56.0%)에 비해 남성에서(59.2%) 높았고, 농어촌(54.1%)에 비해 도시(58.4%)에서 높게 나타났다.

어린 연령대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았고(20-30대 63.1%, 40-50대에서 59.9%, 60대 이상 48.8%). 학력을 보면 대재이상(62.9%)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직업에서는 관리전문직(68.9%)에서 가장 높았고, 농림생산직(51.8%)에서 가장 낮았다. 종교 있음(59.3%), 진보(67.7%)에서 우리나라의 혐오표현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4-82 | 혐오 표현의 심각성

단위 : %

전체	① 매우 심각하다	②	③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계	$\chi^2(df)$
▣ 전체 ▣	8.2	49.4	37.6	4.8	100.0	
성별						
남자	8.7	50.5	36.9	3.9	100.0	25.736(3)***
여자	7.7	48.3	38.3	5.7	100.0	
지역						
도시[동부]	8.7	49.7	37.2	4.4	100.0	136.078(3)***
농어촌[읍면부]	6.0	48.0	39.1	6.8	100.0	
연령						
20-30대	12.8	50.3	33.9	3.0	100.0	601.486(6)***
40-50대	7.3	52.6	36.1	4.0	100.0	
60대 이상	4.3	44.4	43.4	7.9	100.0	
학력						
고졸이하	5.7	45.7	41.7	7.0	100.0	424.026(3)***
대재이상	10.4	52.6	34.1	3.0	100.0	
직업						
관리전문직	18.6	50.3	27.6	3.5	100.0	448.077(9)***
사무판매서비스	7.9	53.2	35.6	3.3	100.0	
농림생산직	5.8	46.0	40.7	7.5	100.0	
비경활인구	7.6	45.7	41.0	5.7	100.0	
종교						
없음	8.2	48.5	37.9	5.4	100.0	22.362(3)***
있음	8.3	51.0	37.0	3.7	100.0	
정치성향						
진보	10.8	56.9	29.4	2.8	100.0	418.225(6)***
중도	8.3	50.5	37.2	4.0	100.0	
보수	5.9	41.7	44.8	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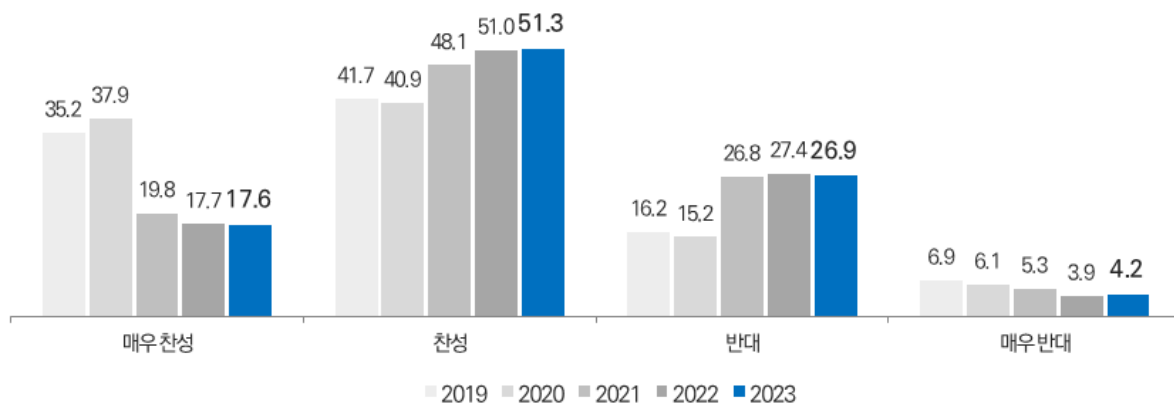
###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2019년 76.9%였다가 감소하여 2022년 68.7%였고 2023년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인 68.9%를 나타내고 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019년에는 23.1%였으나 2021년 32.1%를 보인 이후 2023년에는 31.1%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4-43 |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응답 추이**

(단위: %)



응답자 배경에 따라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살펴보면, 농어촌(71.5%), 40~50대(71.8%), 대재이상(71.0%), 관리전문직(73.4%), 진보(7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83 |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단위 : %

전체	① 찬성한다	②	③	④ 반대한다	계	$\chi^2(df)$
▣ 전체 ▣	17.6	51.3	26.9	4.2	100.0	
성별						
남자	17.3	51.4	26.8	4.5	100.0	1.370(3)
여자	17.9	51.3	26.9	3.9	100.0	
지역						
도시[동부]	17.0	51.5	27.5	4.0	100.0	66.518(3)***
농어촌[읍면부]	20.8	50.7	23.7	4.8	100.0	
연령						
20-30대	18.5	50.0	27.5	4.0	100.0	95.638(6)***
40-50대	18.5	53.3	24.7	3.5	100.0	
60대 이상	15.6	50.4	28.9	5.1	100.0	
학력						
고졸이하	16.6	49.9	28.7	4.8	100.0	72.363(3)***
대재이상	18.5	52.5	25.3	3.7	100.0	
직업						
관리전문직	26.0	47.3	21.9	4.8	100.0	123.259(9)***
사무판매서비스	17.2	52.3	26.9	3.5	100.0	
농림생산직	16.5	49.4	28.4	5.7	100.0	
비경활인구	16.8	51.9	27.2	4.1	100.0	
종교						
없음	17.0	50.9	27.8	4.2	100.0	2.773(3)
있음	18.7	52.0	25.2	4.1	100.0	
정치성향						
진보	22.4	52.1	22.2	3.3	100.0	280.804(6)***
중도	17.7	53.9	25.3	3.2	100.0	
보수	13.7	47.0	32.9	6.4	100.0	

## 4

## 인권 교육 및 개선



## 1) 인권에 대한 인지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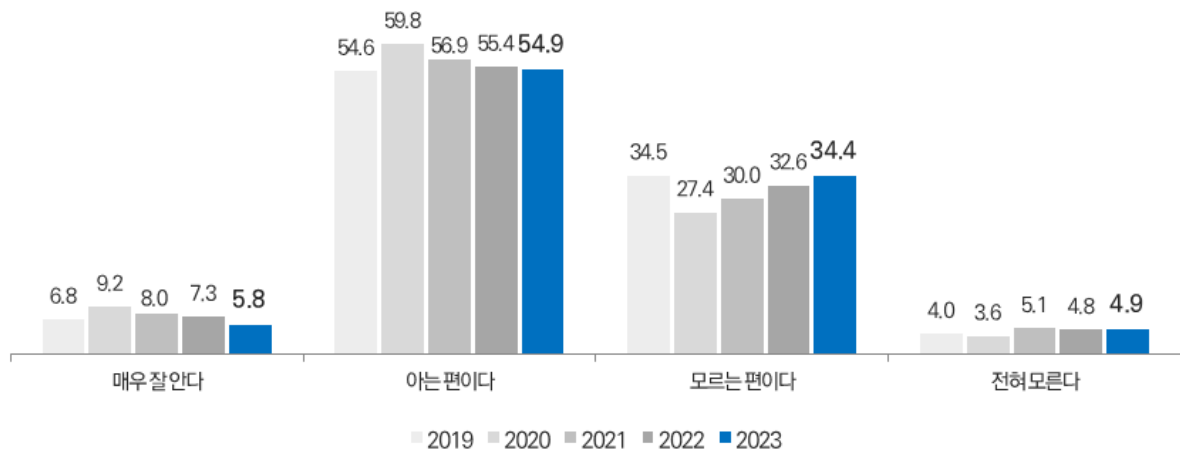
## (1) 인권 존중의 의무와 규범에 대한 인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해 2023년 응답자의 60.7%는 안다(매우 잘 안다+아는 편이다)고 응답했고, 39.3%는 모른다(모르는 편+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안다는 응답은 2020년 69.0%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2년에 62.7%를 나타낸 이후 2023년에는 2.0%p 더 감소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2020년 이후 계속 증가해왔다.

그림4-44 |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2023년 조사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57.0%)에 비해 남성(64.5%)에서 안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고, 농어촌(59.7%)에 비해서 도시(60.9%)에서 높았다.

연령을 보면 20-30대에서 안다는 응답이 66.9%, 40-50대에서 63.6%, 60대 이상에서 50.2%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차이가 큰 편이었다. 학력 면에서는 대재이상에서 안다는 응답이 68.4%였으나 고졸이하에서 51.7%로 학력에 따른 차이도 큰 편이었다.

직업을 보면 관리전문직(78.7%), 사무판매서비스(61.6%), 농림생산직(57.5%), 비경활인구(57.0%)의 순서로 긍정 응답이 높았다. 가치관 면에서는 종교 있음(61.4%)과 진보(67.0%)에서 긍정 응답이 높았다.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84 |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

전체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5.8	54.9	34.4	4.9	100.0	
<b>성별</b>						
남자	6.4	58.1	31.9	3.7	100.0	115.366(3)***
여자	5.3	51.7	36.9	6.0	100.0	
<b>지역</b>						
도시[동부]	5.4	55.5	34.6	4.4	100.0	116.415(3)***
농어촌[읍면부]	7.8	51.9	33.5	6.8	100.0	
<b>연령</b>						
20-30대	6.8	60.2	30.4	2.7	100.0	570.514(6)***
40-50대	6.4	57.2	32.9	3.5	100.0	
60대 이상	4.2	46.1	40.8	8.9	100.0	
<b>학력</b>						
고졸이하	3.7	48.0	40.3	7.9	100.0	798.977(3)***
대재이상	7.6	60.8	29.4	2.2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3.6	65.2	20.0	1.3	100.0	433.282(9)***
사무판매서비스	5.3	56.3	34.8	3.6	100.0	
농림생산직	4.4	53.0	36.7	5.8	100.0	
비경활인구	5.5	51.5	36.1	6.9	100.0	
<b>종교</b>						
없음	5.3	55.0	34.6	5.1	100.0	26.781(3)***
있음	6.9	54.6	34.2	4.4	100.0	
<b>정치성향</b>						
진보	7.2	59.8	29.7	3.3	100.0	179.987(6)***
중도	5.8	55.1	34.7	4.4	100.0	
보수	4.8	50.6	37.8	6.8	100.0	

## (2) 인권 침해와 차별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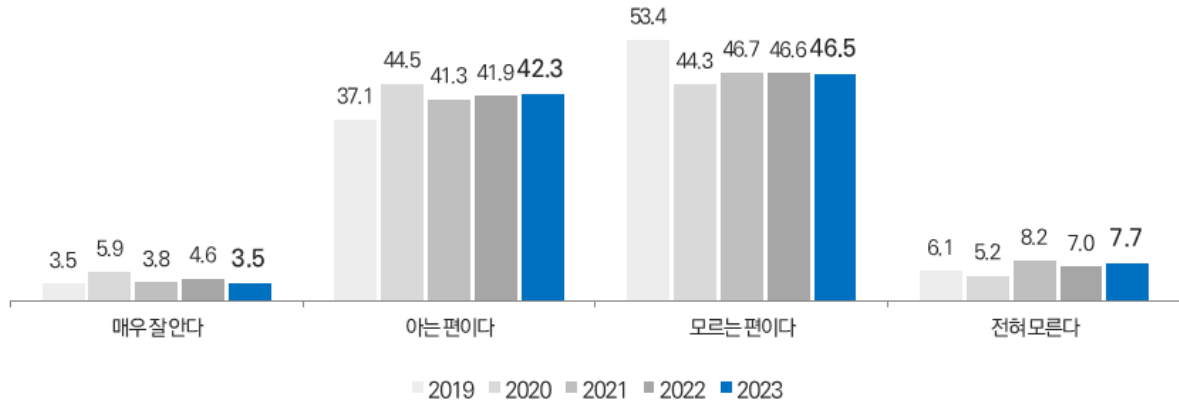
본인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각 연도별 응답 추이를 살펴보면 안다(매우 잘 안다+아는 편이다)는 응답은 모른다(모르는 편+전혀 모름)에 비해 적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안다는 응답은 2019년에는 40.6%에서 2020년 50.4%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45.1%로 감소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5.8%를 나타내고 있다.

모른다는 응답은 2020년 49.5%였으며, 이후 증가하여 2022년에는 53.6%였고, 올해는 소폭 증가한 54.2%를 나타냈다.

그림4-45 | 인권 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2023년 조사 결과를 응답자 배경별로 살펴보면, 대응 방법을 안다(매우 잘 안다+아는 편)는 응답은 남성(50.3%)이 여성(41.3%)에 비해 9.0%p 높았고, 도시(46.7%)가 농어촌(41.8%)에 비해 4.9%p 높았다.

연령을 보면 20-30대에서 안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았고, 40-50대에서 49.6%, 60대 이상에서 32.5%로 나타나 연령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고졸이하에 비해 대재이상이 20.4%p 높게 나타나 학력별 차이도 다소 컸다. 직업을 보면 관리전문직에서 안다는 비율은 67.5%로 가장 높았고, 사무판매서비스에서 49.3%, 농림생산직에서 41.4%, 비경활인구에서 38.2%로 나타나 역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종교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종교 없음 45.9%, 종교 있음 45.5%),

정치성향에서는 진보에서 53.5%, 보수에서 40.7%로 12.8%p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85 |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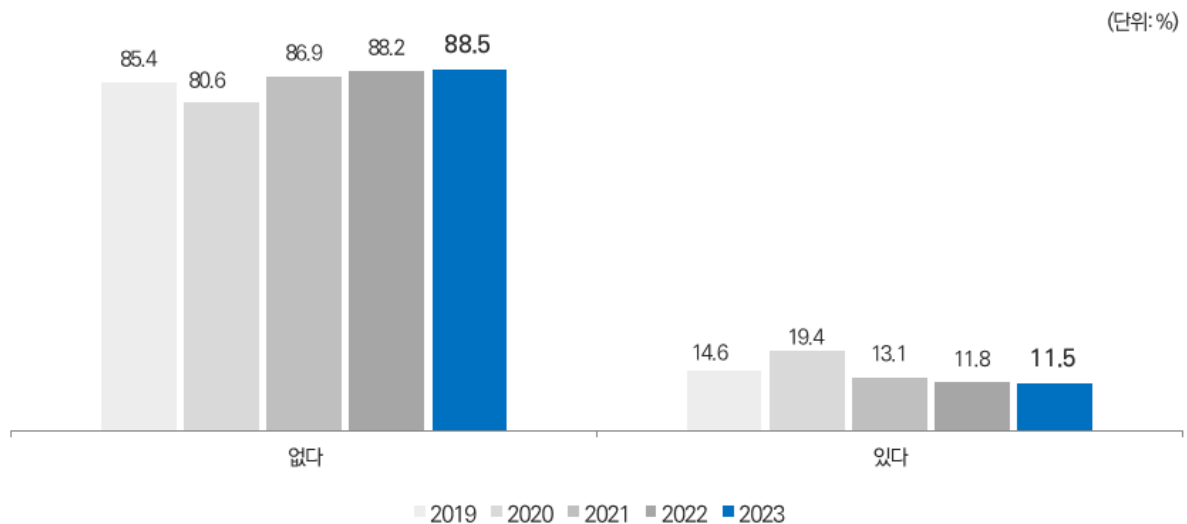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	$\chi^2(df)$
▣ 전체 ▣	3.5	42.3	46.5	7.7	100.0	
성별						
남자	4.2	46.1	43.6	6.1	100.0	177.911(3)***
여자	2.8	38.5	49.3	9.3	100.0	
지역						
도시[동부]	3.4	43.3	46.6	6.8	100.0	248.173(3)***
농어촌[읍면부]	4.1	37.7	46.1	12.2	100.0	
연령						
20-30대	4.1	49.5	42.2	4.2	100.0	993.075(6)***
40-50대	3.9	45.6	45.0	5.4	100.0	
60대 이상	2.3	30.2	53.1	14.4	100.0	
학력						
고졸이하	2.1	32.7	52.6	12.6	100.0	1,126.798(3)***
대재이상	4.7	50.6	41.2	3.5	100.0	
직업						
관리전문직	9.5	58.0	30.0	2.5	100.0	770.519(9)***
사무판매서비스	3.6	45.6	45.7	5.1	100.0	
농림생산직	2.0	39.4	48.4	10.2	100.0	
비경활인구	2.7	35.5	50.4	11.4	100.0	
종교						
없음	3.1	42.9	45.9	8.1	100.0	15.314(3)**
있음	4.2	41.3	47.5	7.0	100.0	
정치성향						
진보	4.1	49.3	41.4	5.1	100.0	290.965(6)***
중도	3.8	41.2	48.1	7.0	100.0	
보수	2.6	38.2	48.3	11.0	100.0	

### (3) 인권교육 경험

2023년 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88.5%, 있다는 응답은 11.5%로 나타났다. 인권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2019년 조사가 시작된 당시 14.6%, 2020년에 19.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4-46 | 인권 교육 경험 추이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13.2%), 도시(12.0%), 20-30대(18.1%), 대재이상(16.9%), 관리전문직(29.8%), 진보(1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별 차이(20-30대와 60대 이상)가 14.1%p 이었고, 학력 차이 11.7%p, 직업별 차이(관리전문직-비경활인구)가 23.6%p로 상대적으로 크게 두드러졌다. 이러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86 | 최근 1년간 인권 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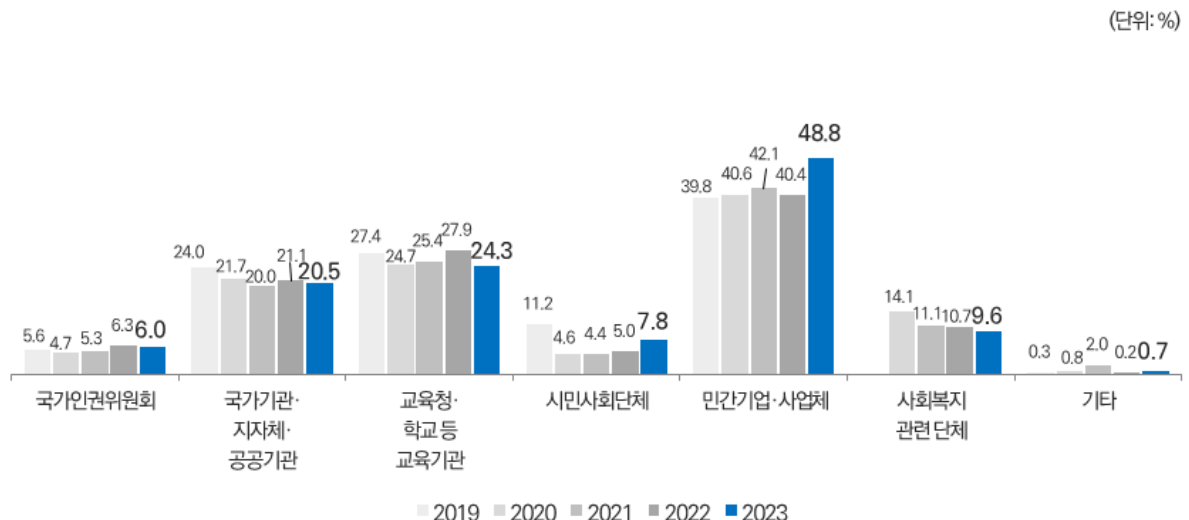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없다	있다	계	$\chi^2(df)$
▣ 전체 ▣	88.5	11.5	100.0	
성별				
남자	86.8	13.2	100.0	43.697(1)***
여자	90.2	9.8	100.0	
지역				
도시[동부]	88.0	12.0	100.0	48.202(1)***
농어촌[읍면부]	90.7	9.3	100.0	
연령				
20~30대	81.9	18.1	100.0	643.972(2)***
40~50대	88.3	11.7	100.0	
60대 이상	96.0	4.0	100.0	
학력				
고졸이하	94.8	5.2	100.0	723.556(1)***
대재이상	83.1	16.9	100.0	
직업				
관리전문직	70.2	29.8	100.0	861.729(3)***
사무판매서비스	86.0	14.0	100.0	
농림생산직	93.2	6.8	100.0	
비경활인구	93.8	6.2	100.0	
종교				
없음	88.6	11.4	100.0	2.249(1)
있음	88.3	11.7	100.0	
정치성향				
진보	84.9	15.1	100.0	144.679(2)***
중도	87.7	12.3	100.0	
보수	92.6	7.4	100.0	

#### (4)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두 선택하도록 질문해 보았다. 각 연도별로 가장 높은 항목은 민간기업·사업체로 2019년 39.8%에서 2023년 48.8%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이었으며, 2019년 27.4%에서 감소했다가 2022년 27.9%로 늘어났지만, 2023년에는 24.3%를 나타내 작년 대비 3.6%p 감소했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인권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2019년 14.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에는 9.6%를 나타냈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응답은 2019-2020년 사이에는 감소했으나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7.8%를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2019년 5.6%에서 소폭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고, 2023년에는 작년에 비해 0.3%p 감소한 6.0%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4-47 | 인권 교육을 받은 기관 추이(중복응답)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성별을 보면 남성의 경우 민간기업·사업체에서 교육 받았다는 응답(56.5%)이 과반 이상이었고, 이어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21.9%),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17.1%)의 순서였다. 반면 여성은 민간기업·사업체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38.5%,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 33.9%,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18.5%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것은 민간기업·사업체가 공통적이었지만(40-50대 58.0%, 20-30대 45.3%, 60대 이상 32.5%),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 순서에 차이를 보였다. 20-30대는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31.0%)이 두 번째로 응답이 많은 항목이었고, 40-50대에서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20.8%로 두 번째였다. 60대 이상은 민간기업·사업체(32.5%),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26.1%)에 이어 사회복지 관련단체(24.5%)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직업을 보면, 관리전문직, 사무판매회사, 농림생산직에서는 가장 높은 항목이 민간기업·사업체였던 반면(관리전문직 48.9%, 사무판매회사 57.1%, 농림생산직 61.4%), 비경활인구에서는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57.2%)이 가장 높았다.



종교 있음과 없음 모두 민간기업·사업체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공통적이지만, 종교 있음의 경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 관련단체 등에서 교육받았다는 응답이 종교 없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4-87 |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중복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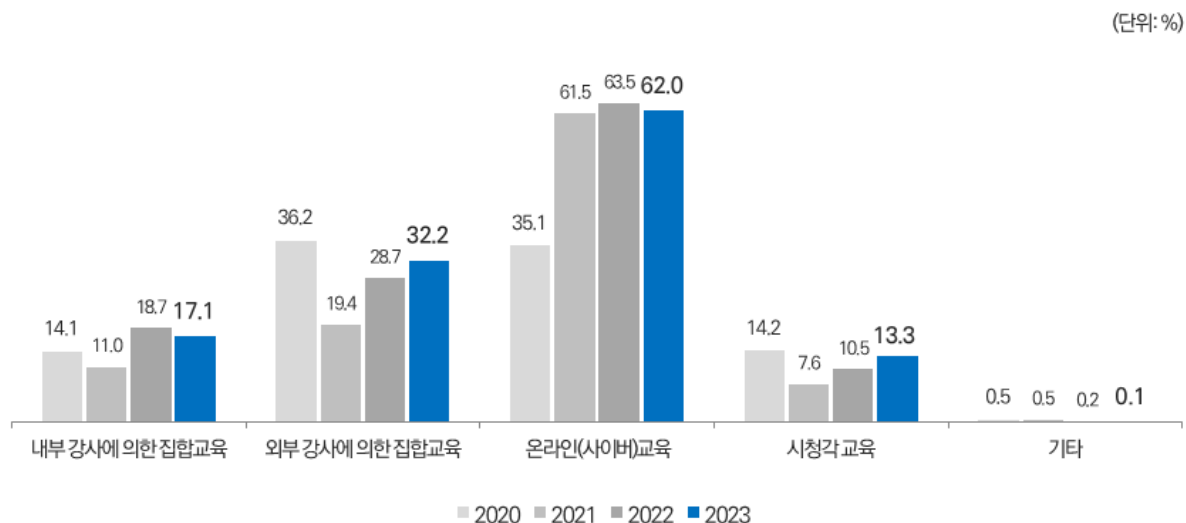
인권교육 경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관·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사업체	사회복지 관련 단체	기타
▣ 전체 ▣	6.0	20.5	24.3	7.8	48.8	9.6	0.7
성별							
남자	7.1	21.9	17.1	5.6	56.5	6.9	0.9
여자	4.6	18.5	33.9	10.6	38.5	13.2	0.3
지역							
도시(동부)	6.5	20.1	25.1	7.8	49.6	9.1	0.8
농어촌(읍면부)	3.2	22.6	19.7	7.8	44.1	12.8	0.2
연령							
20-30대	5.8	19.1	31.0	7.6	45.3	7.2	0.9
40-50대	5.1	20.8	17.4	5.6	58.0	8.8	0.2
60대 이상	10.3	26.1	16.4	16.5	32.5	24.5	1.3
학력							
고졸이하	8.2	17.4	18.2	11.2	49.7	16.5	0.9
대재이상	5.5	21.3	25.9	6.9	48.6	7.8	0.6
직업							
관리전문직	6.0	21.5	26.9	3.6	48.9	8.4	0.7
사무판매서비스	7.3	20.6	15.4	8.0	57.1	10.5	0.3
농림생산직	5.0	16.5	12.0	5.3	61.4	11.4	0.3
비경활인구	2.5	21.3	57.2	13.4	14.7	7.3	2.2
종교							
없음	6.4	18.7	23.5	5.4	51.7	7.9	0.7
있음	5.3	23.5	25.7	12.0	43.8	12.6	0.6
정치성향							
진보	4.5	17.2	26.8	7.9	49.7	9.6	0.4
중도	6.4	21.6	24.0	6.8	48.0	9.3	1.0
보수	7.6	23.2	20.8	9.8	49.4	10.3	0.4

## (6) 인권 교육 방식

인권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에 대해 내부강사/교사에 의한 집합 교육,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온라인(사이버)교육, 시청각 교육, 기타의 항목을 제시하여 조사했다. 2020년과 그 이후 기간에 인권 교육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20년도에는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이 가장 많았지만, 이후에는 온라인(사이버)교육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온라인(사이버)교육의 응답 비율은 2020년 35.1%에서 2021년 61.5%, 2022년 63.5%까지 상승했다가 2023년에는 1.5%p 감소한 62.0%를 나타냈다.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은 2020년에 36.2%였으나 2021년 19.4%로 급감했다가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에 32.2%를 나타냈다.

2023년도 인권교육의 방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온라인(사이버)교육으로 전체의 62.0%였고, 이어서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32.2%, 내부 강사/교사에 의한 집합 교육 17.1%, 시청각 교육 13.3% 순서였다.

그림4-48 | 인권교육 방식(중복응답)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 집단에서 응답 비율 1위는 온라인(사이버)교육으로 나타났지만, 변인별로 어떤 집단에서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는지는 차이가 있었다. 온라인(사이버)교육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61.0%)에 비해 남성(62.7%)이 높았지만,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에 대한 응답 비율은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여성 33.5%, 남성 31.3%). 거주 지역을 보면, 온라인 교육 응답 비율은 도시에서 더 높았지만(도시 63.0%, 농어촌 55.9%),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응답 비율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더 높았다(도시 31.6%, 농어촌 36.1%).

연령별로 보면, 온라인(사이버)교육, 시청각 교육에서는 20~30대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던 반면,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내부 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등 대면 교육에서는 60대 이상의 응답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았다. 학력에서는 대재이상에서 온라인 교육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졸이하에서는 내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의 응답 비율이 대재이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교 없음에서 온라인 교육과 내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의 응답 비율이 종교 있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치성향별로는 중도(64.4%)에서 온라인 교육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보(58.5%)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4-88 | 인권교육 방식(중복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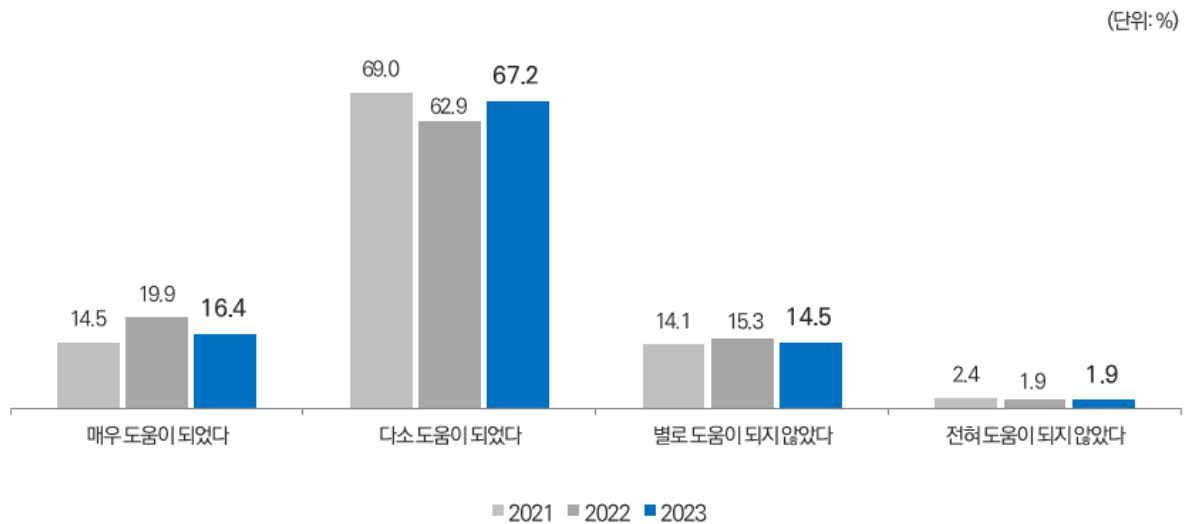
인권교육 경험 있음	내부 강사/교사에 의한 집합교육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온라인(사이버)교육	시청각 교육	기타
■ 전체 ■	17.1	32.2	62.0	13.3	0.1
<b>성별</b>					
남자	18.1	31.3	62.7	14.3	0.0
여자	15.7	33.5	61.0	12.0	0.2
<b>지역</b>					
도시[동부]	16.7	31.6	63.0	14.3	0.1
농어촌[읍면부]	19.3	36.1	55.9	7.8	0.0
<b>연령</b>					
20~30대	16.2	28.6	63.4	14.9	0.1
40~50대	17.2	34.5	63.4	11.6	0.0
60대 이상	21.2	41.4	50.1	11.5	0.2
<b>학력</b>					
고졸이하	22.4	33.2	54.0	14.2	0.1
대재이상	15.7	32.0	64.1	13.1	0.1
<b>직업</b>					
관리전문직	17.6	31.1	66.5	12.1	0.0
사무판매서비스	13.4	31.9	64.7	11.3	0.0
농림생산직	27.1	28.0	55.2	10.1	0.0
비경활인구	22.4	37.1	52.3	23.3	0.5
<b>종교</b>					
없음	19.6	28.6	62.7	12.8	0.0
있음	12.6	38.6	60.7	14.3	0.2
<b>정치성향</b>					
진보	14.9	35.8	58.5	14.8	0.2
중도	18.5	30.2	64.4	13.0	0.0
보수	17.3	31.1	62.0	11.7	0.1

## 2)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 (1) 인권교육이 도움 된 정도

인권 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매우+다소)는 응답은 83.6%로 2022년에 비해 소폭(0.8%p) 증가했고, 2021년(83.5%)과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4-49 | 인권교육이 도움 된 정도



2023년도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집단별 차이는 성별, 연령, 종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권 교육이 도움 되었다(매우+다소)는 응답은 여성(85.4%), 40-50대(87.8%), 종교 있음(84.6%)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4-89 | 인권교육이 도움 된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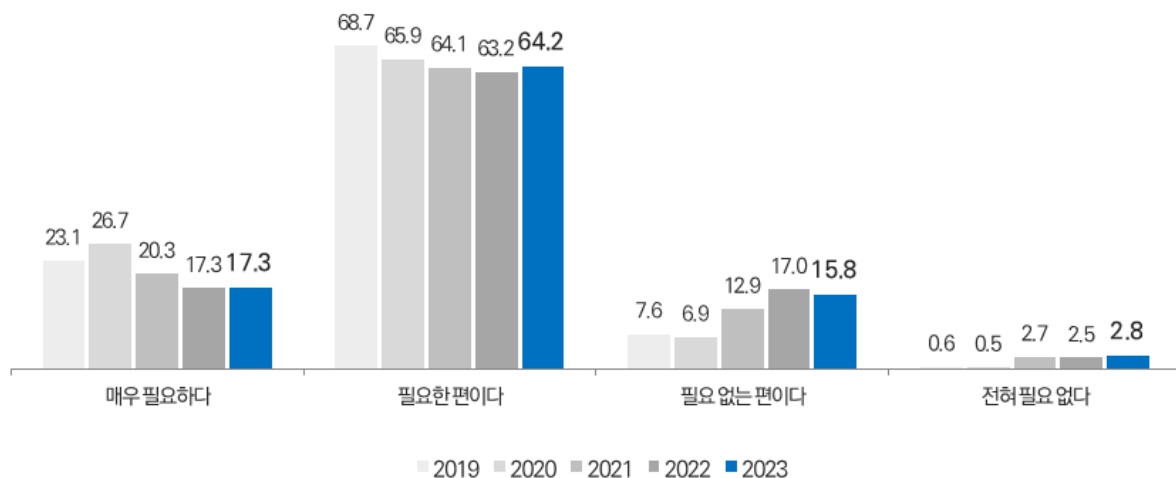
인권교육 경험 있음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계	$\chi^2(df)$
▣ 전체 ▣	16.4	67.2	14.5	1.9	100.0	
성별						
남자	14.1	68.1	15.4	2.4	100.0	8.135(3)*
여자	19.6	65.8	13.4	1.2	100.0	
지역						
도시[동부]	15.3	67.3	15.2	2.1	100.0	4.969(3)
농어촌[읍면부]	22.8	66.2	10.6	0.5	100.0	
연령						
20~30대	12.6	67.5	17.4	2.5	100.0	30.418(6)***
40~50대	18.1	69.7	11.0	1.2	100.0	
60대 이상	28.9	56.4	13.2	1.5	100.0	
학력						
고졸이하	21.3	60.3	16.7	1.8	100.0	2.181(3)
대재이상	15.1	69.0	14.0	1.9	100.0	
직업						
관리전문직	18.9	65.2	14.7	1.2	100.0	11.697(9)
사무판매서비스	14.1	71.0	13.1	1.8	100.0	
농림생산직	14.7	62.3	20.5	2.5	100.0	
비경활인구	22.2	59.9	15.4	2.4	100.0	
종교						
없음	14.8	68.2	14.6	2.4	100.0	10.870(3)*
있음	19.2	65.4	14.4	1.0	100.0	
정치성향						
진보	15.2	72.0	12.1	0.6	100.0	11.717(6)
중도	17.8	65.8	13.9	2.6	100.0	
보수	15.2	62.2	20.2	2.3	100.0	

## (2) 인권 교육의 필요성

전반적으로 인권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한 편)는 응답은 2019~2020년에는 90% 이상의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이후 감소하여 2023년에는 81.4%를 나타내고 있다. 필요 없다는 응답은 2019년 8.2%에서 2023년에는 18.6%로 증가했다.

그림4-50 | 인권 교육의 필요성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82.2%), 도시(81.9%), 연령이 낮을수록(20-30대 85.1%), 대재이상(85.5%), 관리전문직(88.9%), 종교 없음(81.9%), 진보(84.2%)에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4-90 | 인권 교육의 필요성

단위 : %

전체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 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 없다	계	$\chi^2(df)$
▣ 전체 ▣	17.3	64.2	15.8	2.8	100.0	
성별						
남자	16.4	65.8	15.2	2.5	100.0	13.285(3)**
여자	18.1	62.5	16.4	3.0	100.0	
지역						
도시[동부]	17.4	64.4	15.5	2.6	100.0	31.920(3)***
농어촌[읍면부]	16.4	62.9	17.1	3.5	100.0	
연령						
20-30대	19.0	66.1	13.2	1.7	100.0	352.997(6)***
40-50대	17.4	66.3	14.0	2.3	100.0	
60대 이상	15.2	59.4	20.8	4.6	100.0	
학력						
고졸이하	14.7	62.0	19.3	4.0	100.0	359.456(3)***
대재이상	19.4	66.1	12.8	1.7	100.0	
직업						
관리전문직	27.3	61.6	9.9	1.3	100.0	243.035(9)***
사무판매서비스	17.1	65.6	14.9	2.3	100.0	
농림생산직	15.5	64.6	17.6	2.2	100.0	
비경활인구	16.2	62.4	17.4	4.0	100.0	
종교						
없음	16.1	65.8	15.5	2.6	100.0	15.281(3)**
있음	19.3	61.2	16.4	3.1	100.0	
정치성향						
진보	20.5	63.7	13.5	2.3	100.0	114.094(6)***
중도	16.5	65.7	15.2	2.5	100.0	
보수	15.6	62.3	18.5	3.5	100.0	

### (3)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

2023년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인권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기관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 검찰/경찰/법원, 복지시설(요양원, 집단거주시설 등), 국회/지방의회, 기업 및 사업자, 언론 등 대중매체,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군대, 시민사회단체, 대학교, 종교단체 순서였다.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었으나, 응답 추이는 2019년 41.8%에서 계속 감소하여 2023년에는 29.4%로 응답되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22년 26.5%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28.1%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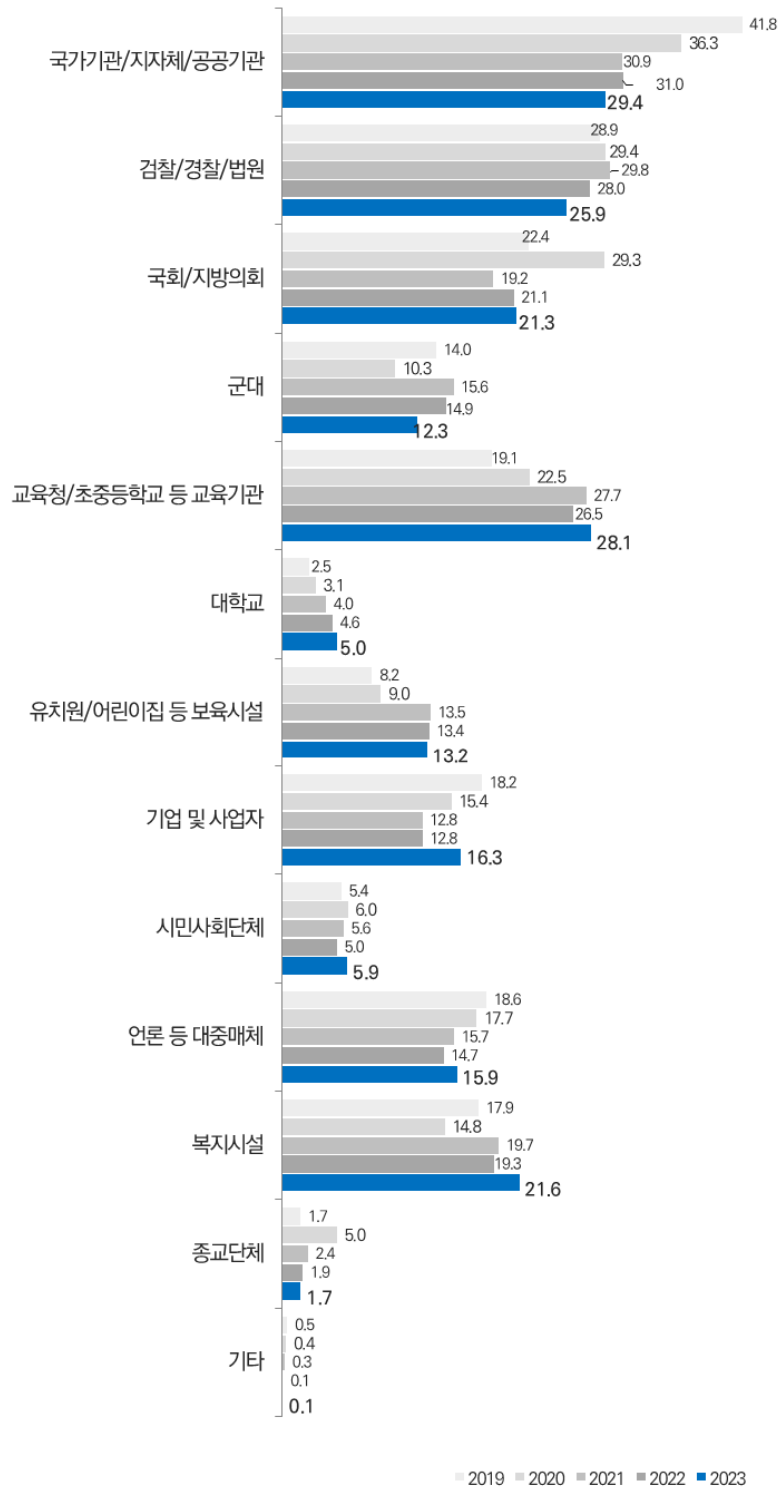
세 번째로 높은 응답은 검찰/경찰/법원이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8%~29%대를 보이다가 2023년에 25.9%로 감소했다.

예년 대비 올해 응답이 높아진 기관은 기업 및 사업자(3.5%p), 복지시설(2.3%p), 언론 등 대중매체(1.2%p),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1.6%p) 등이었다.

반면, 응답이 감소한 기관은 군대(-2.6%p), 검찰/경찰/법원(-2.1%p),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1.6%p) 등이었다.

**그림4-51 |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1순위+2순위)**

(단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검찰/경찰/법원→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순서였지만, 여성은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검찰/경찰/법원의 순으로 높았다.

도시에서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가장 큰 비중으로 꼽았지만, 농어촌에서는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가장 높았다. 20-30대에서는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 40-50대에서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60대 이상에서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대재이상에서는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과 사무판매서비스, 농림생산직에서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가장 높았고, 비경활인구에서는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와 중도에서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보수에서는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4-91 |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높여야 할 대상 (1순위+2순위)

단위 : %

전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검찰/경찰/법원	국회/지방의회	군대	교육청/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	대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기업 및 사업자	시민사회 단체	언론 등 대중매체	복지시설 (요양원, 집단거주 시설 등)	종교단체	기타
■ 전체 ■	29.4	25.9	21.3	12.3	28.1	5.0	13.2	16.3	5.9	15.9	21.6	1.7	0.1
성별													
남자	29.6	26.8	21.9	14.0	26.1	5.0	11.9	16.9	6.1	16.1	20.3	1.6	0.1
여자	29.3	25.0	20.7	10.5	30.1	5.0	14.5	15.7	5.6	15.7	22.9	1.7	0.1
지역													
도시(동부)	30.0	26.1	21.1	12.4	28.3	5.3	13.4	16.0	5.9	15.8	20.8	1.6	0.1
농어촌(읍면부)	26.6	24.9	22.3	11.7	27.2	3.6	12.6	17.7	5.8	16.1	25.2	1.9	0.0
연령													
20-30대	27.9	24.0	19.1	14.6	28.8	6.3	13.3	19.1	5.5	18.4	18.5	1.5	0.1
40-50대	29.6	26.5	22.1	11.7	28.5	4.6	13.4	16.7	6.4	15.5	19.8	1.9	0.1
60대 이상	30.9	27.1	22.7	10.4	26.9	4.0	13.0	12.7	5.4	13.5	27.2	1.8	0.1
학력													
고졸이하	31.0	26.6	22.1	11.4	26.8	3.8	13.6	14.7	5.6	14.6	23.9	2.0	0.1
대재이상	28.0	25.2	20.6	13.0	29.2	6.0	12.9	17.7	6.0	16.9	19.6	1.5	0.1
직업													
관리전문직	32.1	27.5	21.2	11.7	28.4	3.5	12.5	13.8	6.0	17.5	19.7	2.4	0.2
사무판매서비스	28.0	26.6	21.2	13.3	26.5	5.6	12.8	18.0	6.4	16.3	20.4	1.6	0.1
농림생산직	28.2	26.0	21.6	11.9	25.6	3.8	12.6	19.7	4.9	14.3	26.2	1.9	0.1
비경활인구	31.5	24.4	21.4	11.1	31.6	5.2	14.3	12.6	5.6	15.8	21.2	1.6	0.1
종교													
없음	29.3	25.2	20.7	12.9	28.1	5.3	12.6	17.0	5.8	16.3	21.6	1.7	0.1
있음	29.7	27.1	22.4	11.1	28.0	4.4	14.4	15.0	6.0	15.2	21.6	1.6	0.1
정치성향													
진보	29.0	26.4	21.8	10.5	27.7	4.6	11.4	18.6	5.9	19.0	19.4	1.6	0.2
중도	31.7	26.5	20.7	12.2	27.8	5.0	13.7	15.8	5.9	15.6	20.5	1.6	0.1
보수	26.5	24.5	21.7	13.8	28.9	5.3	14.2	15.1	5.8	13.7	24.9	1.9	0.0

#### (4) 시급한 인권 교육의 주제

인권 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연도별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2019년과 2022년에는 장애인 인권이었고, 2020-2021, 2023년에는 혐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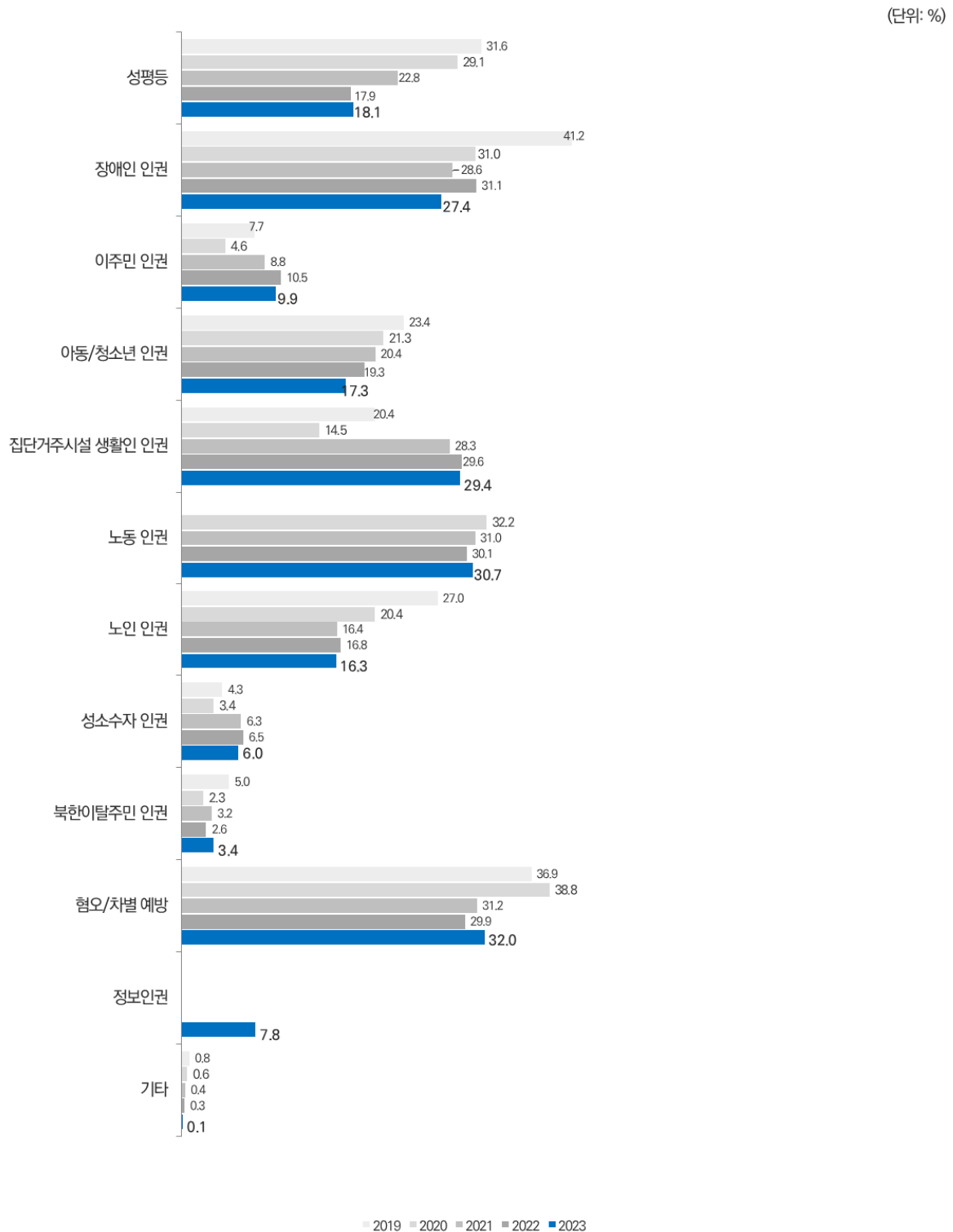
별 예방이었다.

장애인 인권교육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2019년 41.2%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3년에는 27.4%를 나타내고 있다. 혐오/차별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2020년 38.8%로 제일 높았고, 이후 감소하여 2022년에는 29.9%였으며, 2023년에는 이보다 소폭 증가한 32.0%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교육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2019년 20.4%였지만 2023년에는 29.4%로 증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주민 인권, 북한 이탈주민 인권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인 정보 인권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7.8%였다.

그림4-52 |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추이(1순위+2순위)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급한 인권 교육의 주제로 혐오/차별 예방(32.0%)→노동인권(30.7%)→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29.4%)→장애인인권(27.4%)→성평등(18.1%)→아동/청소년인권(17.3%)→노인인권(16.3%)→이주민인권(9.9%)→정보인권(7.8%)→성소수자인권(6.0%)→북한이탈주민인권(3.4%)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각 집단별로 인권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하는 주제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노동인권(33.5%)→혐오/차별예방(32.3%)이 높았고, 여성은 혐오/차별예방(31.8%)→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29.5%)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는 혐오/차별예방(32.5%), 농어촌은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5.1%)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혐오/차별 예방(35.4%), 40-50대는 노동인권(33.1%), 60대 이상은 집단 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6.1%)이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서는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3.6%), 대재이상에서는 혐오/차별 예방(34.8%)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은 혐오/차별 예방(39.8%), 사무판매팀서비스도 혐오/차별 예방(32.3%), 농림생산직은 노동인권(36.9%), 비경활인구는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1.5%)이 가장 시급한 주제라고 응답했다. 진보는 혐오/차별 예방과 노동인권(34.2%)로 가장 높았고, 중도에서는 혐오/차별 예방(32.6%), 보수는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1.2%)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4-92 |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 (1순위+2순위)

단위 : %

전체	성평등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	노동 인권	노인 인권	성소수자 인권	북한이탈 주민 인권	혐오/차별 예방	정보인권	기타
▣ 전체 ▣	18.1	27.4	9.9	17.3	29.4	30.7	16.3	6.0	3.4	32.0	7.8	0.1
성별												
남자	15.8	27.4	10.1	16.0	29.2	33.5	15.1	6.5	3.5	32.3	8.8	0.1
여자	20.3	27.3	9.6	18.6	29.5	27.9	17.6	5.5	3.2	31.8	6.8	0.1
지역												
도시[동부]	18.8	27.7	9.8	17.5	28.1	30.3	16.0	6.1	3.3	32.5	8.0	0.1
농어촌[읍면부]	14.8	25.5	9.9	16.4	35.1	32.8	17.8	5.2	3.6	30.2	6.9	0.0
연령												
20-30대	22.4	25.1	9.8	18.6	25.0	31.4	10.4	7.6	3.5	35.4	8.8	0.1
40-50대	18.3	28.5	10.1	17.2	27.8	33.1	13.1	6.2	3.3	32.4	8.2	0.2
60대 이상	12.9	28.4	9.6	16.1	36.1	27.0	26.9	3.8	3.4	28.0	6.2	0.0
학력												
고졸이하	15.5	28.3	9.6	16.6	33.6	29.3	21.7	4.8	3.2	28.8	6.5	0.0
대재이상	20.3	26.5	10.1	18.0	25.7	31.9	11.7	7.0	3.6	34.8	8.9	0.2
직업												
관리전문직	24.4	29.1	6.2	13.9	20.2	35.7	10.1	6.5	1.8	39.8	10.3	0.7
사무판매팀서비스	19.0	27.8	11.4	18.0	27.6	30.4	13.5	6.8	3.5	32.3	7.7	0.1
농림생산직	14.0	26.3	8.9	15.2	33.9	36.9	18.5	4.5	3.6	29.2	7.4	0.0
비경활인구	17.5	26.8	9.2	18.4	31.5	26.5	20.6	5.4	3.5	31.4	7.5	0.1
종교												
없음	18.4	27.5	10.4	17.6	29.3	30.8	15.1	6.3	3.3	31.6	7.9	0.1
있음	17.4	27.1	8.9	16.8	29.5	30.6	18.5	5.4	3.6	32.9	7.5	0.2
정치성향												
진보	22.0	24.2	10.4	13.7	26.5	34.2	12.2	7.6	3.6	34.2	9.6	0.2
중도	18.5	28.1	7.8	18.9	29.7	31.5	15.1	5.7	2.7	32.6	7.5	0.1
보수	14.2	28.8	12.3	18.1	31.2	26.7	21.5	4.9	4.2	29.5	6.7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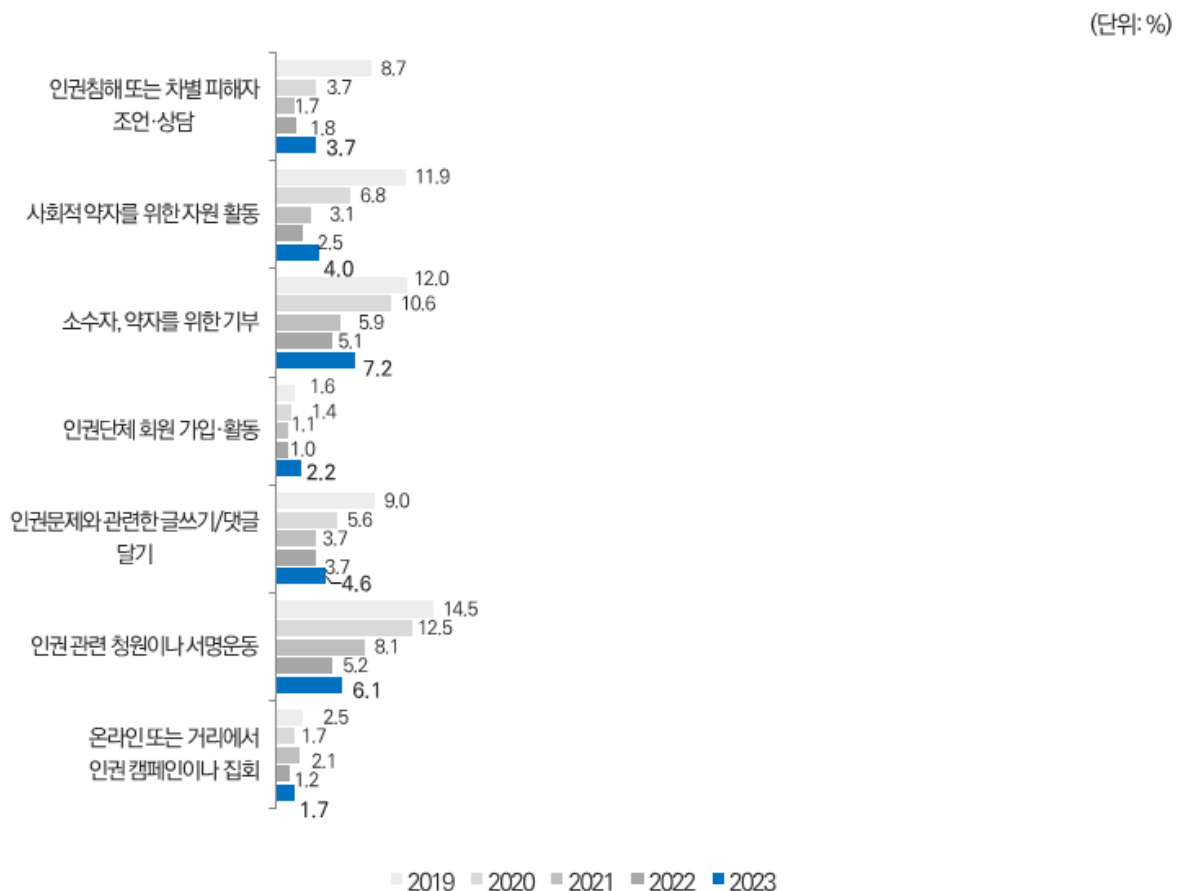
### 3) 인권침해 또는 차별 해소

#### (1) 인권침해 또는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활동에 참여했는지 묻은 결과, 각 연도별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10% 이상 비율을 보인 항목은 2019년에는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소수자/약자를 위한 기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의 3가지였지만 2020년에는 인권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소수자/약자를 위한 기부 2가지로 줄었고, 2021년부터는 10% 이상의 응답을 나타낸 항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도별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낸 활동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이었지만, 2023년에는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였다.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19년 14.5%에서 점차 줄어 2022년에는 5.2%였고, 2023년에는 0.9%p 증가한 6.1%이다. 소수자/약자를 위한 기부는 2019년에 12.0%에서 감소해 2022년에는 5.1%였고, 2023년에는 2.1%p 증가한 7.2%를 보이고 있다.

그림4-53 | 인권 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추이



**① 조언과 상담 경험**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경험이 있다는 3.7%에 불과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4.3%), 40-50대(4.6%), 대재이상(5.0%), 관리전문직(7.9%), 종교 있음(6.2%), 진보(6.1%)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 해소를 위해 피해자 조언·상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4-93 |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단위 : %

전체	있다	없다	계	$\chi^2(df)$
▣ 전체 ▣	3.7	96.3	100.0	
<b>성별</b>				
남자	3.8	96.2	100.0	0.000(1)
여자	3.6	96.4	100.0	
<b>지역</b>				
도시[동부]	4.3	95.7	100.0	32.570(1)***
농어촌[읍면부]	1.3	98.7	100.0	
<b>연령</b>				
20-30대	3.9	96.1	100.0	39.742(2)***
40-50대	4.6	95.4	100.0	
60대 이상	2.3	97.7	100.0	
<b>학력</b>				
고졸이하	2.2	97.8	100.0	93.861(1)***
대재이상	5.0	95.0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7.9	92.1	100.0	158.949(3)***
사무판매서비스	4.8	95.2	100.0	
농림생산직	1.8	98.2	100.0	
비경활인구	2.2	97.8	100.0	
<b>종교</b>				
없음	2.3	97.7	100.0	75.908(1)***
있음	6.2	93.8	100.0	
<b>정치성향</b>				
진보	6.1	93.9	100.0	57.478(2)***
중도	3.4	96.6	100.0	
보수	2.2	97.8	100.0	

## ②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경험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의 4.0%가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4.2%), 40-50대(5.3%), 대재이상(5.0%), 관리전문직(9.4%), 종교 있음(7.2%), 진보(6.3%)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4-94 |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단위 : %

전체	있다	없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4.0	96.0	100.0	
성별				
남자	3.9	96.1	100.0	0.787(1)
여자	4.2	95.8	100.0	
지역				
도시[동부]	4.2	95.8	100.0	11.166(1)**
농어촌[읍면부]	3.1	96.9	100.0	
연령				
20-30대	3.3	96.7	100.0	67.290(2)***
40-50대	5.3	94.7	100.0	
60대 이상	3.2	96.8	100.0	
학력				
고졸이하	2.9	97.1	100.0	95.865(1)***
대재이상	5.0	95.0	100.0	
직업				
관리전문직	9.4	90.6	100.0	204.791(3)***
사무판매서비스	4.7	95.3	100.0	
농림생산직	2.4	97.6	100.0	
비경활인구	2.8	97.2	100.0	
종교				
없음	2.3	97.7	100.0	125.759(1)***
있음	7.2	92.8	100.0	
정치성향				
진보	6.3	93.7	100.0	59.623(2)***
중도	3.5	96.5	100.0	
보수	3.0	97.0	100.0	

**③ 소수자/약자를 위한 기부 경험**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2%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6.2%)에 비해 여성(8.2%)에서 참여했다는 응답이 높았고, 도시(7.0%)에 비해 농어촌(8.2%)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9.1%로 높았고, 이어 20~30대에서 7.6%, 60대 이상에서 4.6%였다. 학력에서는 대재이상(9.3%)이 더 높았고, 직업에서는 관리전문직이 16.2%로 가장 높았다. 종교 없음(5.9%)보다 종교 있음(9.7%)에서 높았고, 진보(10.7%)에서 기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4-95 |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단위 : %

전체	있다	없다	계	$\chi^2(df)$
▣ 전체 ▣	7.2	92.8	100.0	
<b>성별</b>				
남자	6.2	93.8	100.0	9.713(1)**
여자	8.2	91.8	100.0	
<b>지역</b>				
도시[동부]	7.0	93.0	100.0	1.560(1)
농어촌[읍면부]	8.2	91.8	100.0	
<b>연령</b>				
20~30대	7.6	92.4	100.0	150.078(2)***
40~50대	9.1	90.9	100.0	
60대 이상	4.6	95.4	100.0	
<b>학력</b>				
고졸이하	4.9	95.1	100.0	174.734(1)***
대재이상	9.3	90.7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6.2	83.8	100.0	217.922(3)***
사무판매서비스	8.0	92.0	100.0	
농림생산직	5.9	94.1	100.0	
비경활인구	4.8	95.2	100.0	
<b>종교</b>				
없음	5.9	94.1	100.0	40.929(1)***
있음	9.7	90.3	100.0	
<b>정치성향</b>				
진보	10.7	89.3	100.0	87.218(2)***
중도	6.0	94.0	100.0	
보수	6.3	93.7	100.0	



## ④ 인권단체 회원가입/활동 경험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단체 회원가입/활동을 한 경험에 대해 전체의 2.2%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2.3%), 20-30대(2.5%), 대재이상(2.9%), 관리전문직(5.1%), 종교 있음(4.1%), 진보(4.0%)에서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4-96 |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단위 : %

전체	있다	없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2.2	97.8	100.0	
<b>성별</b>				
남자	2.1	97.9	100.0	0.328(1)
여자	2.2	97.8	100.0	
<b>지역</b>				
도시[동부]	2.3	97.7	100.0	11.180(1)**
농어촌[읍면부]	1.4	98.6	100.0	
<b>연령</b>				
20-30대	2.5	97.5	100.0	23.992(2)***
40-50대	2.3	97.7	100.0	
60대 이상	1.6	98.4	100.0	
<b>학력</b>				
고졸이하	1.3	98.7	100.0	53.723(1)***
대재이상	2.9	97.1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5.1	94.9	100.0	102.013(3)***
사무판매서비스	2.6	97.4	100.0	
농림생산직	1.0	99.0	100.0	
비경활인구	1.5	98.5	100.0	
<b>종교</b>				
없음	1.1	98.9	100.0	68.615(1)***
있음	4.1	95.9	100.0	
<b>정치성향</b>				
진보	4.0	96.0	100.0	50.710(2)***
중도	1.6	98.4	100.0	
보수	1.4	98.6	100.0	

**⑤ 인권 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경험**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중 4.6%였다. 응답자 배경 변인 중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5.0%), 20-30대(5.9%), 대재이상(6.6%), 관리전문직(10.0%), 종교 있음(6.0%), 진보(8.0%)에서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97 |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단위 : %

전체	있다	없다	계	$\chi^2(df)$
▣ 전체 ▣	4.6	95.4	100.0	
<b>성별</b>				
남자	4.9	95.1	100.0	0.032(1)
여자	4.4	95.6	100.0	
<b>지역</b>				
도시[동부]	5.0	95.0	100.0	31.078(1)***
농어촌[읍면부]	2.8	97.2	100.0	
<b>연령</b>				
20-30대	5.9	94.1	100.0	161.683(2)***
40-50대	5.6	94.4	100.0	
60대 이상	2.0	98.0	100.0	
<b>학력</b>				
고졸이하	2.4	97.6	100.0	237.561(1)***
대재이상	6.6	93.4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10.0	90.0	100.0	175.951(3)***
사무판매서비스	5.3	94.7	100.0	
농림생산직	2.7	97.3	100.0	
비경활인구	3.5	96.5	100.0	
<b>종교</b>				
없음	3.9	96.1	100.0	31.567(1)***
있음	6.0	94.0	100.0	
<b>정치성향</b>				
진보	8.0	92.0	100.0	103.617(2)***
중도	3.9	96.1	100.0	
보수	3.0	97.0	100.0	

## ⑥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참여 경험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1%였다. 응답자 배경 변인 중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6.6%), 20-30대(8.0%), 대재이상(8.5%), 관리전문직(14.1%), 종교 있음(8.9%), 진보(10.7%)에서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98 |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단위 : %

전체	있다	없다	계	$\chi^2(df)$
▣ 전체 ▣	6.1	93.9	100.0	
성별				
남자	6.1	93.9	100.0	0.279(1)
여자	6.1	93.9	100.0	
지역				
도시[동부]	6.6	93.4	100.0	29.297(1)***
농어촌[읍면부]	3.9	96.1	100.0	
연령				
20-30대	8.0	92.0	100.0	165.189(2)***
40-50대	6.7	93.3	100.0	
60대 이상	3.2	96.8	100.0	
학력				
고졸이하	3.4	96.6	100.0	238.781(1)***
대재이상	8.5	91.5	100.0	
직업				
관리전문직	14.1	85.9	100.0	235.567(3)***
사무판매서비스	6.8	93.2	100.0	
농림생산직	3.7	96.3	100.0	
비경활인구	4.6	95.4	100.0	
종교				
없음	4.6	95.4	100.0	48.870(1)***
있음	8.9	91.1	100.0	
정치성향				
진보	10.7	89.3	100.0	178.981(2)***
중도	5.1	94.9	100.0	
보수	3.8	96.2	100.0	

## ⑦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의 인권 캠페인, 집회 참여 경험

지난 1년 동안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참여 경험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1.7%로 전체 7가지 활동 중 가장 낮았다. 응답자 배경 변인별로는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0-30대(2.4%), 대재이상(2.2%), 관리전문직(3.6%), 종교 있음(2.8%), 진보(2.9%)에서 참여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4-99 |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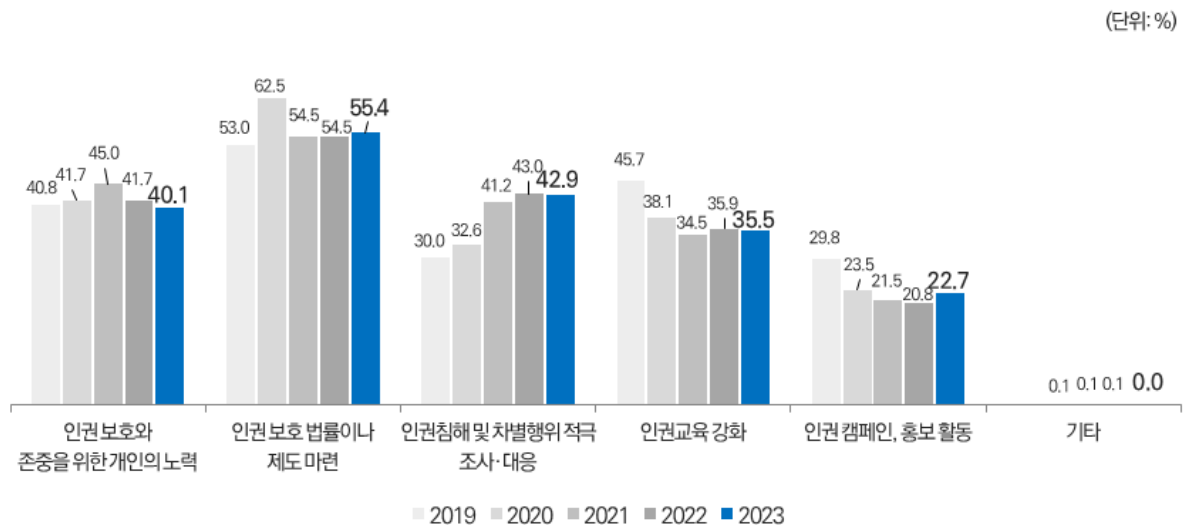
전체	있다	없다	계	X <sup>2</sup> (df)
▣ 전체 ▣	1.7	98.3	100.0	
<b>성별</b>				
남자	1.7	98.3	100.0	0.604(1)
여자	1.8	98.2	100.0	
<b>지역</b>				
도시[동부]	1.8	98.2	100.0	1.383(1)
농어촌[읍면부]	1.2	98.8	100.0	
<b>연령</b>				
20-30대	2.4	97.6	100.0	23.822(2)***
40-50대	1.6	98.4	100.0	
60대 이상	1.3	98.7	100.0	
<b>학력</b>				
고졸이하	1.2	98.8	100.0	40.235(1)***
대재이상	2.2	97.8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3.6	96.4	100.0	67.004(3)***
사무판매서비스	1.7	98.3	100.0	
농림생산직	1.1	98.9	100.0	
비경활인구	1.7	98.3	100.0	
<b>종교</b>				
없음	1.2	98.8	100.0	20.669(1)***
있음	2.8	97.2	100.0	
<b>정치성향</b>				
진보	2.9	97.1	100.0	24.978(2)***
중도	1.4	98.6	100.0	
보수	1.3	98.7	100.0	

## (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인권보호와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물은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인권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이었고, 2019년에 53.0%, 2022년에 54.5%, 2023년에는 55.4%로 과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이라는 응답은 2019년 30.0%에서 2022년 43.0%로 계속 증가했고, 2023년에는 42.9%로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9년 40.8%에서 2021년 45.0%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40.1%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인권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9년 45.7%에서 감소해 2023년에 35.5%를 나타냈다. 인권 캠페인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9년에 비해 계속 감소해 2022년 20.8%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이보다 1.9%p 증가한 22.7%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4-54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2순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2023년도의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31.2%),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24.7%),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18.1%), 인권 교육 강화(15.8%), 인권 캠페인/홍보 활동(10.1%)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도시(31.3%), 40-50대(33.3%), 대재이상(33.3%), 관리전문직(33.7%), 종교 없음(32.2%), 진보(33.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라는 응답은 농어촌(26.9%), 60대 이상(26.8%), 고졸이하(25.9%), 비경활인구(26.4%), 종교 없음(24.9%), 중도(26.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이라는 응답은 도시(18.2%), 20-30대(19.5%), 고졸이하(18.5%), 사무판매서비스(18.9%), 종교 없음(18.5%), 진보(1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100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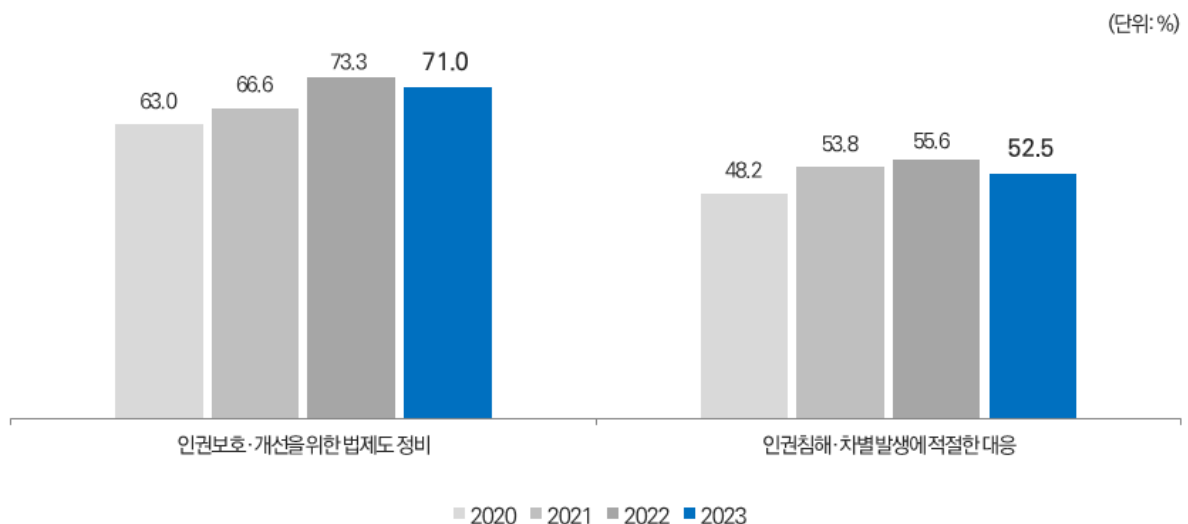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 대응	인권교육 강화	인권 캠페인, 홍보 활동	기타	계	$\chi^2(df)$
☐ 전체 ☐	24.7	31.2	18.1	15.8	10.1	0.0	100.0	
성별								
남자	24.5	31.5	18.7	15.5	9.8	0.0	100.0	1.430(5)
여자	24.9	31.0	17.5	16.2	10.4	0.0	100.0	
지역								
도시[동부]	24.2	31.3	18.2	16.0	10.3	0.0	100.0	31.759(5) ***
농어촌[읍면부]	26.9	30.8	17.8	15.3	9.1	0.0	100.0	
연령								
20-30대	23.9	31.5	19.5	15.7	9.3	0.0	100.0	87.847(10) ***
40-50대	23.6	33.3	16.9	15.7	10.4	0.1	100.0	
60대 이상	26.8	28.3	18.1	16.2	10.7	0.0	100.0	
학력								
고졸이하	25.9	28.8	18.5	16.6	10.1	0.0	100.0	72.460(5) ***
대재이상	23.6	33.3	17.7	15.2	10.1	0.0	100.0	
직업								
관리전문직	24.4	33.7	14.8	18.5	8.4	0.2	100.0	73.624(15) ***
사무판매서비스	22.8	33.0	18.9	15.3	10.0	0.0	100.0	
농림생산직	26.2	30.1	18.6	15.3	9.6	0.0	100.0	
비경활인구	26.4	28.7	17.5	16.3	11.0	0.0	100.0	
종교								
없음	24.9	32.2	18.5	14.8	9.6	0.0	100.0	33.107(5) ***
있음	24.3	29.4	17.5	17.7	11.1	0.1	100.0	
정치성향								
진보	22.2	33.2	18.5	15.7	10.3	0.0	100.0	60.671(10) ***
중도	26.1	29.9	17.8	16.3	9.8	0.0	100.0	
보수	24.5	31.5	18.2	15.4	10.4	0.0	100.0	

### (3)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평가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보호와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는 응답은 2020년 63.0%에서 계속 증가해 2022년에는 73.3%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이보다 2.3%p 감소한 71.0%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 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 역시 2020년(48.2%)에서 2022년(55.6%)까지는 계속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작년 대비 3.1%p 감소한 52.5%를 나타냈다.

그림4-55 |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평가



#### ① 인권 보호,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보호,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렇다(매우+어느 정도)는 응답은 농어촌(69.6%)에 비해 도시(71.3%)에서 높았고, 학력에서는 고졸이하(70.9%)에 비해 대재이상(71.1%)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50대 이상에서 70.0%, 20~30대에서 69.8%의 순서였다. 직업을 보면 농림생산직(72.3%)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비경활인구(71.2%), 사무판매회사(70.9%)의 순서였고, 관리전문직(67.5%)에서 가장 낮았다.

가치관 측면에서는 종교 없음(71.4%), 보수(7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4-101 |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단위 : %

전체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X²(df)
▣ 전체 ▣	3.7	67.3	26.2	2.8	100.0	
<b>성별</b>						
남자	3.9	67.3	26.1	2.7	100.0	1.511(3)
여자	3.6	67.2	26.3	2.9	100.0	
<b>지역</b>						
도시[동부]	3.7	67.6	25.9	2.8	100.0	10.561(3)*
농어촌[읍면부]	3.8	65.8	27.5	2.9	100.0	
<b>연령</b>						
20-30대	3.3	66.5	27.0	3.1	100.0	72.872(6)***
40-50대	3.8	66.2	27.3	2.7	100.0	
60대 이상	4.1	69.4	23.9	2.7	100.0	
<b>학력</b>						
고졸이하	3.8	67.1	26.3	2.7	100.0	12.606(3)**
대재이상	3.7	67.4	26.1	2.9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4.7	62.9	28.0	4.5	100.0	30.331(9)***
사무판매서비스	4.0	66.9	26.1	3.0	100.0	
농림생산직	3.6	68.7	25.7	1.9	100.0	
비경활인구	3.2	68.0	26.2	2.6	100.0	
<b>종교</b>						
없음	3.6	67.7	26.5	2.2	100.0	27.536(3)***
있음	4.0	66.4	25.7	4.0	100.0	
<b>정치성향</b>						
진보	3.5	67.2	25.1	4.2	100.0	240.214(6)***
중도	2.3	65.2	30.0	2.5	100.0	
보수	6.0	70.3	21.6	2.1	100.0	



## ② 인권 침해나 차별 발생 시의 대응 수준

우리나라 정부가 인권 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농어촌(49.4%)에 비해 도시(53.2%)에서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학력 면에서 대재이상(51.9%)에 비해 고졸이하(53.2%)에서 긍정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53.9%)에서 가장 높았고, 40-50대(51.6%)에서 낮았다. 직업을 보면 사무판매회서비스(53.8%)에서 긍정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리전문직(47.1%)에서 가장 낮았다. 가치관 측면에서 종교 있음(53.0%), 보수(61.0%)에서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4-102 |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침해·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

단위 : %

전체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chi^2(df)$
▣ 전체 ▣	5.0	47.5	41.3	6.1	100.0	
<b>성별</b>						
남자	5.3	47.3	41.3	6.2	100.0	4.476(3)
여자	4.8	47.7	41.4	6.1	100.0	
<b>지역</b>						
도시[동부]	5.5	47.7	41.0	5.9	100.0	43.207(3)***
농어촌[읍면부]	3.0	46.4	43.2	7.5	100.0	
<b>연령</b>						
20-30대	5.5	46.9	40.9	6.7	100.0	35.317(6)***
40-50대	4.9	46.6	42.4	6.0	100.0	
60대 이상	4.6	49.3	40.5	5.6	100.0	
<b>학력</b>						
고졸이하	4.7	48.5	40.7	6.1	100.0	20.254(3)***
대재이상	5.3	46.6	41.9	6.2	100.0	
<b>직업</b>						
관리전문직	2.8	44.3	43.9	9.0	100.0	32.660(9)***
사무판매회서비스	5.8	48.0	40.3	5.9	100.0	
농림생산직	5.0	47.1	41.8	6.1	100.0	
비경활인구	4.4	47.8	41.9	5.8	100.0	
<b>종교</b>						
없음	5.1	47.1	42.3	5.5	100.0	10.364(3)*
있음	4.9	48.2	39.6	7.4	100.0	
<b>정치성향</b>						
진보	4.1	45.4	41.4	9.1	100.0	345.158(6)***
중도	3.3	45.0	45.5	6.2	100.0	
보수	8.2	52.8	35.3	3.7	100.0	

### (3)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어느 집단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은 정부 등 공공기관으로, 응답 추이는 2020년 67.0%에서 감소해 2022년에 54.7%였고, 2023년에는 그보다 0.9%p 증가했다. 언론이라는 응답은 2020년 9.0%에서 증가해 2022년 16.1%였고, 올해는 0.2%p 감소한 15.9%를 보이고 있다.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이라는 응답은 2019년 3.9%로 응답 비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후 계속 증가해 2023년에는 11.1%를 나타냈다. 반면 교육기관은 2019년 이후 감소해 2023년에는 8.6%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4-56 |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정치성향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순위인 정부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봤을 때, 60대 이상(60.0%)에서 가장 높았고 20-30대(52.9%)에서 가장 낮았다.

학력에서는 대재이상(53.3%)에 비해 고졸이하(58.2%)에서 더 높았다. 직업을 보면, 농림생산직(63.1%)에서 가장 높았고, 사무판매서비스(51.0%)에서 낮았다. 종교 있음(54.6%)에 비해 종교 없음(56.1%)에서 높았고, 중도(57.8%)에서 높고 진보(53.3%)에서 낮았다.

언론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0대(16.8%), 대재이상(17.5%), 사무판매서비스(17.3%), 종교 있음(16.3%), 진보(17.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0대(12.0%), 고졸이하(11.5%), 사무판매서비스(12.5%), 종교 없음(12.3%), 보수(13.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4-103 |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단위 : %

전체	정부 등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	언론	교육기관	국제기구	기타	계	$\chi^2(df)$
▣ 전체 ▣	55.6	8.3	11.1	15.9	8.6	0.6	0.0	100.0	
성별									
남자	54.9	8.2	11.1	16.6	8.7	0.4	0.0	100.0	4.413(6)
여자	56.2	8.4	11.1	15.1	8.5	0.7	0.0	100.0	
지역									
도시[동부]	55.2	8.5	11.2	16.1	8.5	0.5	0.0	100.0	9.545(6)
농어촌[읍면부]	57.0	7.1	10.7	14.8	9.3	1.0	0.0	100.0	
연령									
20-30대	52.9	8.2	12.0	16.8	9.3	0.8	0.0	100.0	68.820(12)* **
40-50대	54.3	9.2	11.0	16.5	8.4	0.6	0.0	100.0	
60대 이상	60.0	7.2	10.3	14.0	8.2	0.3	0.0	100.0	
학력									
고졸이하	58.2	7.6	11.5	14.0	8.4	0.3	0.0	100.0	45.483(6) ***
대재이상	53.3	8.8	10.8	17.5	8.8	0.8	0.0	100.0	
직업									
관리전문직	60.6	8.3	6.2	17.2	7.3	0.2	0.1	100.0	133.619(18) ) ***
사무판매서비스	51.0	10.2	12.5	17.3	8.2	0.7	0.0	100.0	
농림생산직	63.1	7.0	8.8	11.9	9.0	0.2	0.0	100.0	
비경활인구	56.6	6.2	11.5	15.7	9.4	0.7	0.0	100.0	
종교									
없음	56.1	7.7	12.3	15.6	7.8	0.5	0.0	100.0	55.955(6) ***
있음	54.6	9.3	9.0	16.3	10.2	0.6	0.0	100.0	
정치성향									
진보	53.3	10.0	9.4	17.4	8.9	0.9	0.0	100.0	53.345(12)* **
중도	57.8	7.7	10.6	15.4	8.1	0.4	0.0	100.0	
보수	54.1	7.7	13.3	15.2	9.2	0.5	0.0	100.0	



2023년도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부록



## 주요 항목별 상대 표준오차





[문3]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조금 좋아지고 있다					비슷하다					조금 나빠지고 있다					많이 나빠지고 있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 전체 ■		457	7.7%	3.02	2.57	3.48	3733	3.7%	26.68	24.76	28.59	8918	1.7%	55.15	53.32	56.99	1742	5.3%	11.99	10.74	13.25	453	8.9%	3.16	2.61	3.71
성별	남자	218	10.0%	1.68	1.35	2.01	1759	4.3%	14.13	12.92	15.33	3880	2.2%	26.66	25.53	27.80	792	5.8%	5.80	5.15	6.46	207	10.3%	1.48	1.18	1.78
	여자	239	9.6%	1.35	1.09	1.60	1974	4.3%	12.55	11.49	13.61	5038	2.1%	28.49	27.30	29.68	950	6.7%	6.19	5.38	7.00	246	10.5%	1.67	1.33	2.02
지역	도시[동부]	347	8.8%	2.49	2.07	2.92	2988	4.1%	22.66	20.82	24.50	6761	2.0%	44.85	43.09	46.61	1318	5.6%	9.51	8.46	10.55	368	10.1%	2.68	2.15	3.21
	농어촌[읍면부]	110	16.5%	0.53	0.36	0.70	745	12.1%	4.01	3.06	4.96	2157	5.0%	10.30	9.28	11.32	424	15.9%	2.48	1.71	3.26	85	16.4%	0.48	0.32	0.63
연령	20대 이하	61	15.3%	0.68	0.47	0.88	385	8.5%	4.72	3.93	5.51	835	4.8%	9.04	8.19	9.89	184	11.6%	2.32	1.79	2.85	36	19.3%	0.39	0.24	0.53
	30대	63	16.9%	0.50	0.33	0.66	435	6.7%	3.87	3.36	4.37	1079	4.5%	8.73	7.96	9.50	220	10.3%	1.76	1.41	2.12	69	19.5%	0.64	0.39	0.88
	40대	69	15.1%	0.46	0.32	0.59	662	6.4%	5.22	4.57	5.87	1333	4.3%	9.41	8.61	10.21	324	8.5%	2.48	2.06	2.89	84	14.7%	0.62	0.44	0.79
	50대	107	13.7%	0.70	0.51	0.89	874	5.9%	5.60	4.95	6.24	1773	3.5%	9.98	9.30	10.66	414	7.6%	2.39	2.03	2.74	113	14.2%	0.69	0.50	0.89
	60대 이상	157	12.6%	0.69	0.52	0.86	1377	5.8%	7.27	6.44	8.10	3898	3.4%	17.99	16.81	19.18	600	6.9%	3.05	2.64	3.46	151	14.6%	0.82	0.59	1.06
학력	중졸 이하	80	19.4%	0.31	0.19	0.43	702	9.8%	3.33	2.69	3.96	2459	4.4%	10.23	9.35	11.11	263	9.0%	1.14	0.94	1.34	68	18.8%	0.36	0.23	0.49
	고졸 이하	146	11.0%	1.01	0.79	1.23	1357	5.1%	9.29	8.37	10.21	3280	2.8%	20.27	19.15	21.40	751	6.4%	5.13	4.48	5.78	178	12.7%	1.18	0.89	1.48
	대졸 이하	211	10.9%	1.59	1.25	1.93	1612	4.8%	13.71	12.43	14.99	3080	3.0%	23.98	22.56	25.40	693	7.7%	5.50	4.67	6.33	188	10.8%	1.48	1.17	1.80
	대학원졸 이상	20	28.2%	0.11	0.05	0.17	62	20.3%	0.35	0.21	0.49	99	14.0%	0.67	0.49	0.86	35	19.6%	0.22	0.14	0.31	19	25.8%	0.13	0.06	0.20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73	15.0%	0.49	0.35	0.63	272	9.2%	2.04	1.67	2.41	482	6.6%	3.37	2.94	3.81	141	11.6%	0.99	0.77	1.22	63	16.4%	0.49	0.33	0.65
	사무직	61	21.1%	0.60	0.35	0.85	633	6.9%	5.95	5.15	6.76	1215	4.7%	10.48	9.52	11.45	289	10.5%	2.53	2.01	3.05	69	15.7%	0.56	0.38	0.73
	서비스/판매직	90	13.4%	0.71	0.52	0.89	945	6.3%	7.11	6.23	7.98	1868	3.5%	12.57	11.71	13.43	422	8.3%	3.08	2.58	3.59	82	15.4%	0.57	0.40	0.75
	생산/기술직	20	26.1%	0.16	0.08	0.25	320	8.5%	2.30	1.91	2.68	795	4.9%	5.03	4.54	5.51	139	11.3%	0.94	0.73	1.14	38	20.4%	0.25	0.15	0.3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6	31.6%	0.08	0.03	0.13	228	24.7%	1.02	0.52	1.51	647	8.5%	2.28	1.90	2.65	92	16.2%	0.31	0.21	0.41	18	35.3%	0.09	0.03	0.15
	단순노무직	23	25.6%	0.14	0.07	0.20	168	11.2%	1.01	0.78	1.23	542	6.5%	2.89	2.52	3.26	99	14.7%	0.55	0.39	0.71	23	30.0%	0.15	0.06	0.25
	기타	2	79.8%	0.01	0.00	0.02	6	43.9%	0.05	0.01	0.09	5	74.2%	0.11	0.00	0.26	0	.	.	.	.	1	100.0%	0.01	0.00	0.04
	무직	162	11.6%	0.84	0.65	1.03	1161	5.0%	7.20	6.50	7.91	3364	3.2%	18.43	17.29	19.57	560	7.5%	3.59	3.07	4.12	159	12.5%	1.04	0.78	1.29

\*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 유의사항 : 가구통계 기준 RSE < 25% 구간에서 n ≥ 10인 경우 신뢰도 높음, n < 10인 경우 신뢰도 다소 낮음.

25% ≤ RSE < 50% 구간은 신뢰도 다소 낮음. 50% ≤ RSE 구간은 신뢰도 낮음

[문4-1]]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성별	▣ 전체 ▣	1488	7.4%	10.83	9.26	12.39	11985	1.4%	75.63	73.61	77.66	1747	6.5%	12.94	11.29	14.58	83	17.3%	0.60	0.40	0.81
	남자 여자	705	8.3%	5.68	4.75	6.61	5341	1.8%	37.43	36.12	38.75	777	7.4%	6.39	5.46	7.32	33	25.8%	0.25	0.12	0.37
		783	8.3%	5.14	4.31	5.97	6644	1.7%	38.20	36.97	39.43	970	7.0%	6.55	5.65	7.45	50	21.3%	0.36	0.21	0.50
지역	도시[동부] 농어촌[읍면부]	1116	8.6%	9.01	7.50	10.53	9292	1.7%	62.68	60.57	64.79	1316	7.5%	10.11	8.61	11.60	58	19.0%	0.40	0.25	0.54
		372	12.7%	1.81	1.36	2.26	2693	5.2%	12.95	11.63	14.28	431	15.0%	2.83	2.00	3.66	25	35.5%	0.21	0.06	0.35
연령	20대 이하	193	12.5%	2.39	1.80	2.98	1162	4.4%	12.84	11.73	13.96	142	13.2%	1.86	1.38	2.35	4	50.0%	0.04	0.00	0.08
	30대	205	11.7%	1.75	1.35	2.15	1445	4.0%	11.69	10.77	12.60	198	11.8%	1.89	1.46	2.33	18	33.7%	0.16	0.06	0.27
	40대	232	11.2%	1.81	1.42	2.21	1971	3.4%	14.05	13.12	14.97	256	10.9%	2.24	1.76	2.72	13	33.5%	0.08	0.03	0.14
	50대	367	10.6%	2.40	1.91	2.90	2530	3.1%	14.44	13.58	15.30	374	8.4%	2.46	2.06	2.87	10	38.7%	0.05	0.01	0.10
	60대 이상	491	9.9%	2.47	1.99	2.95	4877	3.1%	22.62	21.26	23.97	777	8.5%	4.48	3.74	5.22	38	26.7%	0.27	0.13	0.41
학력	중졸 이하	254	12.0%	1.06	0.81	1.31	2838	4.5%	11.78	10.76	12.81	454	8.7%	2.31	1.92	2.71	26	30.9%	0.20	0.08	0.32
	고졸 이하	510	9.5%	3.69	3.00	4.38	4456	2.5%	28.02	26.63	29.41	711	7.1%	4.97	4.27	5.66	35	22.9%	0.22	0.12	0.31
	대졸 이하	691	9.3%	5.91	4.83	7.00	4512	2.5%	34.67	32.97	36.37	561	10.0%	5.51	4.42	6.59	20	31.4%	0.18	0.07	0.29
	대학원졸 이상	33	25.1%	0.17	0.08	0.25	179	11.1%	1.16	0.91	1.42	21	26.0%	0.15	0.07	0.22	2	74.7%	0.01	0.00	0.01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3	12.4%	1.04	0.78	1.29	771	5.6%	5.48	4.88	6.08	100	13.8%	0.81	0.59	1.03	7	41.4%	0.06	0.01	0.11
	사무직	292	13.0%	2.86	2.13	3.60	1748	4.0%	14.91	13.73	16.09	222	12.9%	2.29	1.71	2.87	5	59.9%	0.05	0.00	0.12
	서비스/판매직	373	9.8%	2.83	2.29	3.38	2631	3.2%	17.90	16.79	19.00	387	9.4%	3.18	2.59	3.77	16	35.1%	0.13	0.04	0.23
	생산/기술직	86	14.7%	0.55	0.39	0.70	1091	4.7%	7.16	6.50	7.82	129	12.1%	0.93	0.71	1.15	6	44.0%	0.03	0.00	0.0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79	21.1%	0.25	0.15	0.35	834	9.9%	3.10	2.50	3.70	95	15.8%	0.40	0.28	0.53	3	64.0%	0.01	0.00	0.03
	단순노무직	70	21.0%	0.51	0.30	0.73	660	6.3%	3.47	3.04	3.89	121	12.9%	0.74	0.55	0.93	4	53.7%	0.02	0.00	0.04
	기타	1	100.0%	0.01	0.00	0.03	7	44.8%	0.06	0.01	0.11	5	78.3%	0.10	0.00	0.26	1	100.0%	0.01	0.00	0.03
	무직	434	9.2%	2.77	2.27	3.27	4243	2.7%	23.56	22.32	24.80	688	7.4%	4.49	3.84	5.15	41	24.0%	0.28	0.15	0.41



[문9-13] 인권의 존중 정도-노동권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 전체 ☐		2022	5.2%	13.75	12.34	15.17	8416	1.9%	54.10	52.11	56.09	4200	3.4%	27.66	25.80	29.51	665	10.3%	4.49	3.58	5.40
성별	남자	934	6.2%	7.05	6.19	7.91	3680	2.3%	26.53	25.32	27.75	1924	3.9%	13.82	12.75	14.89	318	11.3%	2.35	1.82	2.87
	여자	1088	5.7%	6.70	5.96	7.45	4736	2.3%	27.56	26.31	28.82	2276	4.1%	13.83	12.73	14.94	347	11.3%	2.15	1.67	2.62
지역	도시[동부]	1566	5.9%	11.46	10.14	12.78	6445	2.3%	44.70	42.72	46.67	3302	3.9%	22.71	20.96	24.45	469	11.3%	3.33	2.59	4.07
	농어촌[읍면부]	456	13.8%	2.29	1.67	2.91	1971	6.8%	9.40	8.15	10.65	898	8.6%	4.95	4.11	5.79	196	23.4%	1.16	0.63	1.69
연령	20대 이하	221	10.6%	2.66	2.10	3.21	827	5.3%	9.57	8.59	10.56	386	7.0%	4.18	3.61	4.75	67	17.1%	0.73	0.48	0.97
	30대	239	9.6%	2.05	1.67	2.44	981	4.5%	8.05	7.34	8.77	533	6.6%	4.41	3.84	4.98	113	15.4%	0.98	0.68	1.27
	40대	325	8.9%	2.42	2.00	2.85	1302	4.3%	9.65	8.84	10.47	723	5.9%	5.23	4.62	5.83	122	14.8%	0.88	0.62	1.13
	50대	458	8.1%	2.80	2.36	3.25	1708	3.8%	10.37	9.60	11.15	975	5.2%	5.48	4.92	6.04	140	13.7%	0.70	0.51	0.89
	60대 이상	779	6.9%	3.82	3.30	4.33	3598	3.6%	16.44	15.29	17.60	1583	5.7%	8.36	7.42	9.31	223	14.0%	1.21	0.88	1.54
학력	중졸 이하	405	9.0%	1.68	1.38	1.98	2223	5.0%	9.14	8.25	10.03	823	7.2%	3.95	3.40	4.51	121	15.9%	0.59	0.40	0.77
	고졸 이하	835	6.8%	5.58	4.84	6.33	3026	3.1%	19.77	18.57	20.97	1622	4.7%	10.10	9.17	11.03	229	12.4%	1.44	1.09	1.79
	대졸 이하	748	6.8%	6.28	5.44	7.12	3050	3.0%	24.40	22.96	25.84	1674	4.6%	13.15	11.96	14.33	312	12.2%	2.45	1.86	3.03
	대학원졸 이상	34	22.1%	0.21	0.12	0.30	117	12.6%	0.79	0.60	0.99	81	17.3%	0.46	0.31	0.62	3	64.1%	0.02	0.00	0.04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1	13.0%	0.81	0.60	1.02	555	6.2%	4.03	3.54	4.52	313	8.5%	2.16	1.80	2.52	52	20.8%	0.39	0.23	0.55
	사무직	306	9.5%	2.81	2.28	3.33	1211	4.7%	10.75	9.76	11.75	623	6.7%	5.49	4.77	6.21	127	14.8%	1.07	0.76	1.38
	서비스/판매직	518	7.9%	3.95	3.34	4.56	1757	4.3%	12.56	11.50	13.61	963	5.3%	6.47	5.80	7.14	169	15.7%	1.06	0.73	1.38
	생산/기술직	172	11.1%	1.14	0.89	1.39	714	5.8%	4.94	4.37	5.50	371	7.4%	2.25	1.92	2.57	55	20.7%	0.35	0.21	0.4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30	17.9%	0.43	0.28	0.58	604	10.8%	2.23	1.76	2.70	243	13.0%	0.96	0.71	1.20	34	30.9%	0.15	0.06	0.24
	단순노무직	93	15.2%	0.51	0.36	0.67	491	7.1%	2.72	2.34	3.09	236	9.4%	1.35	1.10	1.59	35	21.5%	0.17	0.10	0.24
	기타	2	76.8%	0.02	0.00	0.05	4	53.7%	0.03	0.00	0.07	6	70.0%	0.11	0.00	0.27	2	83.3%	0.01	0.00	0.03
	무직	690	7.0%	4.09	3.52	4.65	3080	3.2%	16.84	15.77	17.91	1445	5.0%	8.87	8.01	9.74	191	13.1%	1.30	0.97	1.64

[문23-1]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 전체 ▣		3275	4.7%	21.37	19.40	23.33	9041	1.8%	58.42	56.39	60.44	2560	4.5%	17.61	16.06	19.16	427	12.4%	2.60	1.97	3.24
성별																					
	남자	1450	5.3%	10.57	9.48	11.67	4037	2.3%	29.01	27.70	30.33	1160	5.1%	8.85	7.96	9.73	209	13.2%	1.32	0.98	1.66
	여자	1825	5.1%	10.79	9.71	11.88	5004	2.1%	29.40	28.17	30.63	1400	5.1%	8.77	7.88	9.65	218	14.4%	1.29	0.92	1.65
지역																					
	도시[동부]	2472	5.3%	16.99	15.21	18.77	7098	2.1%	48.95	46.89	51.01	1905	5.2%	14.31	12.85	15.76	307	14.8%	1.95	1.38	2.51
	농어촌[읍면부]	803	12.1%	4.38	3.34	5.42	1943	6.3%	9.46	8.30	10.62	655	9.8%	3.31	2.67	3.94	120	22.3%	0.66	0.37	0.94
연령																					
	20대 이하	272	9.7%	3.44	2.78	4.10	804	5.5%	9.16	8.18	10.15	350	7.5%	3.83	3.27	4.39	75	17.0%	0.70	0.47	0.93
	30대	354	8.4%	2.87	2.40	3.34	1068	4.7%	9.05	8.22	9.88	378	8.2%	3.09	2.60	3.59	66	18.5%	0.48	0.31	0.65
	40대	514	8.2%	3.78	3.18	4.39	1446	4.0%	10.56	9.73	11.39	438	7.5%	3.38	2.88	3.87	74	19.6%	0.46	0.28	0.64
	50대	687	7.4%	4.12	3.53	4.71	1960	3.6%	11.54	10.72	12.36	534	6.8%	3.22	2.79	3.65	100	17.1%	0.48	0.32	0.63
	60대 이상	1448	5.9%	7.16	6.33	7.98	3763	3.5%	18.10	16.85	19.35	860	7.1%	4.09	3.52	4.65	112	17.6%	0.49	0.32	0.66
학력																					
	중졸 이하	868	7.6%	3.89	3.31	4.46	2147	4.9%	9.32	8.42	10.23	485	8.7%	1.89	1.56	2.21	72	18.9%	0.26	0.17	0.36
	고졸 이하	1207	5.9%	8.17	7.23	9.11	3470	2.9%	21.75	20.52	22.97	899	5.8%	6.15	5.45	6.84	136	15.5%	0.82	0.57	1.07
	대졸 이하	1157	6.5%	9.08	7.93	10.23	3300	3.0%	26.54	24.99	28.10	1116	5.9%	9.16	8.10	10.23	211	15.7%	1.48	1.02	1.93
	대학원졸 이상	43	19.2%	0.22	0.14	0.31	124	13.3%	0.80	0.59	1.01	60	16.5%	0.41	0.28	0.55	8	38.0%	0.04	0.01	0.07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90	10.2%	1.30	1.04	1.56	568	6.3%	4.08	3.58	4.59	227	9.5%	1.72	1.40	2.05	46	21.1%	0.28	0.16	0.39
	사무직	445	9.6%	4.03	3.27	4.79	1295	4.5%	11.38	10.39	12.37	436	8.4%	3.99	3.33	4.65	91	21.1%	0.72	0.42	1.02
	서비스/판매직	736	7.4%	5.38	4.59	6.16	1999	3.5%	13.83	12.88	14.78	581	6.8%	4.25	3.68	4.82	91	17.3%	0.59	0.39	0.78
	생산/기술직	256	8.6%	1.59	1.32	1.85	829	5.6%	5.57	4.96	6.18	182	10.2%	1.27	1.01	1.52	45	19.9%	0.25	0.15	0.3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22	19.2%	0.94	0.59	1.29	562	9.6%	2.11	1.71	2.51	198	14.2%	0.61	0.44	0.78	29	32.2%	0.11	0.04	0.18
	단순노무직	212	10.6%	1.26	1.00	1.53	503	6.7%	2.74	2.38	3.10	129	11.8%	0.69	0.53	0.85	11	35.4%	0.04	0.01	0.07
	기타	2	71.1%	0.02	0.00	0.05	9	60.9%	0.13	0.00	0.29	2	77.8%	0.01	0.00	0.03	1	100.0%	0.01	0.00	0.03
	무직	1212	5.5%	6.85	6.11	7.59	3276	3.4%	18.58	17.35	19.80	805	6.1%	5.07	4.47	5.67	113	14.0%	0.61	0.44	0.78

[문24-1-2]]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청년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 전체 ■		329	14.8%	2.42	1.72	3.13	1609	5.5%	10.57	9.43	11.71	7280	2.4%	47.65	45.45	49.85	6085	3.1%	39.36	36.94	41.79
성별	남자	158	16.0%	1.30	0.90	1.71	752	6.2%	5.57	4.89	6.25	3295	2.8%	24.04	22.72	25.36	2651	3.6%	18.84	17.50	20.17
	여자	171	16.6%	1.12	0.75	1.48	857	6.8%	5.00	4.34	5.66	3985	2.8%	23.61	22.33	24.89	3434	3.4%	20.52	19.16	21.89
지역	도시[동부]	244	17.1%	2.02	1.34	2.71	1137	6.3%	8.29	7.27	9.31	5607	2.9%	38.92	36.72	41.12	4794	3.6%	32.96	30.65	35.28
	농어촌[읍면부]	85	24.5%	0.40	0.21	0.59	472	13.4%	2.28	1.68	2.88	1673	7.2%	8.73	7.49	9.97	1291	7.1%	6.40	5.51	7.28
연령	20대 이하	29	22.3%	0.42	0.24	0.60	106	14.5%	1.24	0.88	1.59	679	6.1%	7.79	6.86	8.72	687	5.9%	7.69	6.79	8.58
	30대	54	21.5%	0.48	0.28	0.69	145	11.1%	1.24	0.97	1.51	823	5.2%	7.10	6.37	7.83	844	5.9%	6.66	5.90	7.43
	40대	62	17.8%	0.52	0.34	0.71	236	9.3%	1.73	1.41	2.04	1104	5.1%	8.64	7.78	9.49	1070	5.1%	7.29	6.57	8.02
	50대	47	20.7%	0.33	0.20	0.47	328	9.0%	2.10	1.73	2.47	1622	3.8%	9.57	8.85	10.28	1284	5.2%	7.36	6.61	8.11
	60대 이상	137	20.2%	0.66	0.40	0.93	794	7.8%	4.26	3.61	4.91	3052	4.0%	14.55	13.39	15.70	2200	4.8%	10.36	9.38	11.34
학력	중졸 이하	76	20.5%	0.28	0.17	0.40	478	11.2%	2.30	1.80	2.81	1778	5.2%	7.63	6.85	8.42	1240	6.2%	5.14	4.51	5.76
	고졸 이하	117	18.0%	0.91	0.59	1.23	531	6.7%	3.52	3.05	3.98	2776	3.4%	17.58	16.42	18.75	2288	4.5%	14.88	13.58	16.18
	대졸 이하	131	18.0%	1.19	0.77	1.61	567	8.4%	4.56	3.81	5.31	2638	3.7%	21.89	20.31	23.47	2448	4.2%	18.63	17.09	20.16
	대학원졸 이상	5	46.0%	0.04	0.00	0.08	33	23.7%	0.19	0.10	0.27	88	14.9%	0.54	0.38	0.70	109	13.7%	0.71	0.52	0.91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2	25.0%	0.20	0.10	0.30	133	12.9%	1.07	0.80	1.34	453	6.8%	3.13	2.71	3.54	423	7.6%	2.99	2.54	3.44
	사무직	70	26.2%	0.68	0.33	1.02	186	11.7%	1.77	1.36	2.17	1000	5.5%	9.21	8.21	10.20	1011	5.7%	8.47	7.53	9.41
	서비스/판매직	76	18.7%	0.63	0.40	0.86	306	8.7%	2.15	1.78	2.52	1624	4.5%	11.55	10.53	12.57	1401	4.7%	9.70	8.81	10.60
	생산/기술직	21	28.5%	0.16	0.07	0.26	132	11.6%	0.84	0.65	1.03	645	6.5%	4.36	3.80	4.92	514	6.5%	3.31	2.89	3.7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1	38.7%	0.14	0.03	0.24	147	26.3%	0.70	0.34	1.07	504	9.5%	1.83	1.49	2.17	319	12.3%	1.10	0.83	1.37
	단순노무직	11	33.5%	0.07	0.02	0.12	117	13.7%	0.78	0.57	0.98	399	7.4%	2.15	1.84	2.46	328	9.2%	1.74	1.43	2.06
	기타	0	.	.	.	.	0	.	.	.	.	5	71.9%	0.11	0.00	0.27	9	39.1%	0.07	0.02	0.12
	무직	88	17.1%	0.55	0.36	0.73	588	7.2%	3.26	2.80	3.73	2650	3.8%	15.32	14.19	16.45	2080	4.4%	11.98	10.95	13.00

[문25]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정도

		매우 자주 있다				자주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성별	▣ 전체 ▣	385	11.6%	2.82	2.18	3.46	2199	5.6%	17.07	15.20	18.93	6018	2.9%	40.04	37.76	42.32	6701	3.1%	40.08	37.63	42.53
	남자	192	13.8%	1.55	1.13	1.98	1102	5.9%	9.33	8.25	10.40	2750	3.3%	20.43	19.11	21.76	2812	3.7%	18.44	17.09	19.78
	여자	193	12.3%	1.26	0.96	1.57	1097	6.4%	7.74	6.76	8.72	3268	3.4%	19.61	18.30	20.92	3889	3.3%	21.64	20.26	23.02
지역	도시[동부]	329	12.5%	2.49	1.88	3.09	1813	6.2%	14.65	12.86	16.44	4796	3.4%	33.32	31.13	35.51	4844	3.7%	31.74	29.45	34.03
	농어촌[읍면부]	56	31.2%	0.33	0.13	0.53	386	14.0%	2.42	1.75	3.08	1222	9.8%	6.72	5.43	8.01	1857	6.2%	8.34	7.33	9.35
연령	20대 이하	96	15.8%	1.03	0.71	1.34	301	8.4%	3.44	2.87	4.01	579	6.8%	6.86	5.95	7.78	525	7.1%	5.80	5.00	6.61
	30대	101	16.3%	0.82	0.56	1.08	385	8.8%	3.39	2.81	3.97	723	5.9%	5.98	5.29	6.67	657	6.2%	5.30	4.65	5.95
	40대	79	18.0%	0.46	0.30	0.63	399	8.2%	3.33	2.79	3.86	1068	5.0%	7.53	6.80	8.27	926	5.5%	6.86	6.13	7.59
	50대	64	20.7%	0.34	0.20	0.47	453	8.6%	2.91	2.42	3.40	1404	4.5%	8.15	7.42	8.87	1360	5.3%	7.97	7.14	8.80
	60대 이상	45	19.6%	0.17	0.11	0.24	661	9.8%	4.00	3.23	4.77	2244	4.8%	11.51	10.42	12.61	3233	4.1%	14.15	13.02	15.27
학력	중졸 이하	18	31.9%	0.07	0.03	0.12	270	11.2%	1.38	1.08	1.69	1110	7.5%	5.17	4.41	5.94	2174	4.9%	8.73	7.88	9.57
	고졸 이하	124	17.1%	0.83	0.55	1.11	871	6.8%	6.21	5.38	7.04	2448	3.8%	15.64	14.49	16.79	2269	4.3%	14.20	13.00	15.41
	대졸 이하	234	12.3%	1.85	1.41	2.30	1005	7.3%	9.12	7.82	10.43	2390	4.2%	18.71	17.17	20.25	2155	4.7%	16.58	15.05	18.11
	대학원졸 이상	9	43.6%	0.05	0.01	0.10	53	18.2%	0.35	0.22	0.47	70	18.0%	0.52	0.33	0.70	103	12.8%	0.57	0.43	0.71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72	16.5%	0.60	0.40	0.79	199	9.9%	1.46	1.18	1.74	409	8.0%	2.87	2.42	3.32	351	7.4%	2.46	2.10	2.82
	사무직	77	18.0%	0.69	0.45	0.94	394	10.3%	3.97	3.17	4.77	953	6.3%	8.15	7.15	9.15	843	6.9%	7.31	6.33	8.29
	서비스/판매직	94	16.2%	0.65	0.44	0.85	556	7.8%	4.47	3.79	5.15	1471	5.1%	10.11	9.10	11.11	1286	5.2%	8.82	7.92	9.72
	생산/기술직	27	24.1%	0.15	0.08	0.22	204	10.2%	1.41	1.13	1.69	558	7.0%	3.77	3.25	4.28	523	6.6%	3.34	2.91	3.7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9	40.2%	0.04	0.01	0.07	76	20.7%	0.34	0.20	0.48	346	19.1%	1.44	0.90	1.98	580	9.6%	1.95	1.58	2.32
	단순노무직	12	33.7%	0.07	0.02	0.11	98	14.3%	0.51	0.37	0.65	338	8.8%	2.05	1.70	2.40	407	8.2%	2.12	1.77	2.46
	기타	2	85.8%	0.01	0.00	0.04	6	73.4%	0.11	0.00	0.26	1	99.8%	0.01	0.00	0.04	5	45.5%	0.04	0.00	0.08
	무직	92	16.0%	0.61	0.42	0.80	666	7.5%	4.80	4.10	5.51	1942	4.2%	11.65	10.68	12.61	2706	3.7%	14.04	13.02	15.07

[문28]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 전체 ▣		897	6.6%	5.83	5.08	6.59	8388	2.1%	54.88	52.60	57.16	5134	3.5%	34.42	32.09	36.76	884	8.5%	4.87	4.06	5.67
성별	남자	453	7.6%	3.17	2.70	3.64	3998	2.4%	28.90	27.51	30.28	2111	4.2%	15.86	14.55	17.17	294	11.0%	1.83	1.43	2.22
	여자	444	8.3%	2.66	2.23	3.09	4390	2.6%	25.98	24.67	27.29	3023	3.6%	18.56	17.26	19.87	590	8.4%	3.04	2.54	3.54
지역	도시[동부]	642	7.6%	4.44	3.78	5.10	6557	2.5%	45.64	43.44	47.84	4021	4.0%	28.46	26.25	30.67	562	10.5%	3.66	2.90	4.41
	농어촌[읍면부]	255	13.4%	1.39	1.03	1.76	1831	5.9%	9.24	8.16	10.31	1113	11.3%	5.97	4.64	7.29	322	12.5%	1.21	0.91	1.51
연령	20대 이하	112	12.4%	1.20	0.91	1.49	951	4.7%	10.24	9.29	11.19	393	8.9%	5.21	4.30	6.11	45	20.0%	0.49	0.30	0.68
	30대	135	11.7%	1.01	0.77	1.24	1168	4.3%	9.40	8.61	10.19	513	7.1%	4.69	4.04	5.35	50	19.6%	0.39	0.24	0.55
	40대	197	10.3%	1.28	1.02	1.54	1463	4.0%	10.57	9.74	11.39	748	7.1%	5.84	5.03	6.65	64	17.2%	0.50	0.33	0.66
	50대	199	11.5%	1.11	0.86	1.36	1889	3.6%	10.92	10.16	11.68	1075	5.9%	6.50	5.75	7.26	118	15.9%	0.82	0.56	1.08
	60대 이상	254	12.1%	1.24	0.94	1.53	2917	4.1%	13.75	12.65	14.85	2405	4.7%	12.18	11.06	13.29	607	8.9%	2.67	2.20	3.13
학력	중졸 이하	96	18.5%	0.44	0.28	0.60	1441	6.3%	5.98	5.25	6.72	1528	6.0%	6.91	6.10	7.72	507	9.5%	2.03	1.65	2.41
	고졸 이하	261	9.9%	1.70	1.37	2.03	3171	3.0%	19.96	18.78	21.14	2025	4.7%	13.49	12.25	14.74	255	12.9%	1.74	1.30	2.18
	대졸 이하	486	7.8%	3.40	2.88	3.92	3634	2.9%	28.00	26.40	29.60	1545	5.9%	13.79	12.19	15.40	119	15.7%	1.07	0.74	1.41
	대학원졸 이상	54	17.4%	0.30	0.20	0.40	142	12.2%	0.94	0.71	1.16	36	24.8%	0.23	0.12	0.34	3	63.6%	0.02	0.00	0.05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3	11.7%	1.00	0.77	1.23	672	5.8%	4.81	4.26	5.36	203	12.1%	1.47	1.13	1.82	13	29.3%	0.10	0.04	0.15
	사무직	152	11.3%	1.12	0.87	1.37	1388	4.6%	11.88	10.82	12.94	664	7.5%	6.57	5.61	7.53	63	19.3%	0.55	0.34	0.75
	서비스/판매직	185	10.3%	1.24	0.99	1.48	1924	3.6%	12.97	12.06	13.87	1167	6.4%	8.77	7.67	9.88	131	15.7%	1.06	0.74	1.39
	생산/기술직	64	14.6%	0.39	0.28	0.50	792	5.4%	5.33	4.77	5.90	413	7.6%	2.65	2.25	3.05	43	23.4%	0.30	0.16	0.4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4	22.4%	0.16	0.09	0.23	477	9.7%	1.68	1.36	2.01	382	16.6%	1.57	1.06	2.08	108	16.4%	0.35	0.24	0.47
	단순노무직	42	20.7%	0.22	0.13	0.30	405	7.0%	2.09	1.80	2.38	351	9.7%	2.09	1.69	2.49	57	17.9%	0.35	0.22	0.47
	기타	7	46.9%	0.05	0.00	0.09	4	69.7%	0.09	0.00	0.21	3	59.7%	0.04	0.00	0.09	0	.	.	.	.
	무직	260	10.7%	1.67	1.32	2.02	2726	3.6%	16.02	14.89	17.16	1951	4.3%	11.25	10.30	12.21	469	9.6%	2.16	1.75	2.56

[문31]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 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 없다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 전체 ▣		2748	4.3%	17.26	15.79	18.72	9482	1.4%	64.17	62.36	65.98	2590	5.0%	15.80	14.27	17.34	483	10.6%	2.77	2.19	3.35
성별	남자	1196	4.9%	8.17	7.38	8.96	4345	2.0%	32.75	31.48	34.01	1124	5.4%	7.57	6.78	8.37	191	13.8%	1.26	0.92	1.61
	여자	1552	4.8%	9.09	8.23	9.95	5137	1.9%	31.42	30.25	32.60	1466	5.7%	8.23	7.31	9.14	292	11.4%	1.51	1.17	1.85
지역	도시[동부]	2147	4.9%	14.33	12.95	15.70	7386	1.9%	52.97	51.03	54.92	1901	5.5%	12.75	11.38	14.13	348	12.0%	2.14	1.64	2.65
	농어촌[읍면부]	601	9.0%	2.93	2.41	3.44	2096	6.4%	11.20	9.80	12.59	689	12.9%	3.05	2.28	3.82	135	23.4%	0.63	0.34	0.92
연령	20대 이하	294	8.1%	2.92	2.45	3.38	1003	4.9%	11.62	10.51	12.74	181	10.9%	2.34	1.84	2.84	23	28.5%	0.25	0.11	0.40
	30대	409	7.1%	3.27	2.81	3.72	1200	4.3%	9.95	9.12	10.78	219	10.6%	1.98	1.57	2.40	38	27.3%	0.30	0.14	0.45
	40대	502	6.9%	3.44	2.97	3.90	1638	3.7%	12.18	11.29	13.07	293	8.9%	2.24	1.85	2.63	39	25.3%	0.32	0.16	0.49
	50대	566	6.8%	3.10	2.69	3.52	2107	3.4%	12.69	11.86	13.53	535	7.4%	3.03	2.59	3.47	73	18.7%	0.53	0.34	0.73
	60대 이상	977	6.9%	4.53	3.91	5.14	3534	3.5%	17.73	16.51	18.94	1362	6.4%	6.21	5.43	6.99	310	11.5%	1.37	1.06	1.67
학력	중졸 이하	517	8.7%	1.97	1.64	2.31	1888	5.3%	8.51	7.62	9.39	938	7.6%	3.93	3.34	4.51	229	13.0%	0.95	0.71	1.20
	고졸 이하	924	6.0%	5.85	5.15	6.54	3706	2.7%	24.33	23.05	25.60	928	6.1%	5.76	5.07	6.45	154	17.2%	0.95	0.63	1.27
	대졸 이하	1222	5.5%	8.97	8.00	9.95	3755	2.6%	30.46	28.88	32.03	708	7.8%	5.98	5.06	6.89	99	18.0%	0.86	0.56	1.16
	대학원졸 이상	85	14.9%	0.46	0.32	0.59	133	12.5%	0.88	0.66	1.09	16	37.1%	0.14	0.04	0.24	1	100.0%	0.01	0.00	0.03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90	9.3%	2.01	1.65	2.38	633	5.9%	4.55	4.02	5.08	95	16.8%	0.73	0.49	0.97	13	32.6%	0.09	0.03	0.15
	사무직	442	8.5%	3.68	3.07	4.30	1459	4.2%	13.01	11.93	14.08	325	10.5%	3.05	2.42	3.68	41	21.8%	0.38	0.22	0.55
	서비스/판매직	601	5.8%	3.85	3.41	4.29	2199	3.3%	15.98	14.94	17.03	523	8.3%	3.55	2.98	4.13	84	21.4%	0.65	0.38	0.93
	생산/기술직	205	9.3%	1.31	1.07	1.55	900	5.0%	5.96	5.37	6.54	192	9.9%	1.30	1.05	1.56	15	34.2%	0.10	0.03	0.1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48	14.6%	0.52	0.37	0.67	546	13.7%	2.18	1.60	2.77	274	12.2%	0.92	0.70	1.14	43	23.6%	0.14	0.08	0.21
	단순노무직	156	12.6%	0.83	0.62	1.03	526	6.5%	2.96	2.59	3.34	152	13.5%	0.81	0.59	1.02	21	28.3%	0.14	0.06	0.22
	기타	7	44.6%	0.05	0.01	0.10	6	69.7%	0.11	0.00	0.27	1	100.0%	0.01	0.00	0.04	0	.	.	.	.
	무직	899	6.2%	5.00	4.39	5.61	3213	2.9%	19.42	18.31	20.52	1028	6.3%	5.43	4.76	6.09	266	11.5%	1.26	0.98	1.55

[문37]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1)

		정부 등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					언론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 전체 ■		8860	2.3%	55.55	53.04	58.06	1165	6.6%	8.26	7.19	9.34	1716	5.5%	11.13	9.93	12.32	2131	4.6%	15.86	14.43	17.29
성별	남자	3917	2.6%	27.30	25.92	28.69	525	7.7%	4.06	3.45	4.67	782	6.3%	5.54	4.86	6.22	992	5.9%	8.27	7.32	9.22
	여자	4943	2.7%	28.25	26.74	29.76	640	7.9%	4.20	3.55	4.86	934	6.4%	5.58	4.89	6.28	1139	5.1%	7.59	6.83	8.35
지역	도시[동부]	6753	2.7%	45.40	43.02	47.77	927	7.6%	6.99	5.94	8.04	1338	6.3%	9.23	8.09	10.36	1658	5.4%	13.22	11.83	14.60
	농어촌[읍면부]	2107	6.4%	10.15	8.88	11.43	238	13.5%	1.27	0.93	1.61	378	11.6%	1.90	1.47	2.33	473	11.2%	2.64	2.06	3.22
연령	20대 이하	831	5.6%	8.98	8.00	9.96	99	13.2%	1.28	0.95	1.61	177	11.2%	2.08	1.63	2.54	248	8.5%	2.98	2.48	3.47
	30대	1039	4.5%	8.28	7.55	9.02	140	12.7%	1.38	1.04	1.73	219	9.1%	1.83	1.50	2.15	280	8.7%	2.52	2.09	2.95
	40대	1375	4.3%	9.72	8.91	10.54	217	11.0%	1.75	1.37	2.13	261	9.1%	1.87	1.54	2.20	350	10.5%	2.96	2.35	3.57
	50대	1839	3.7%	10.67	9.89	11.45	295	9.8%	1.70	1.38	2.03	375	10.6%	2.26	1.79	2.72	481	6.8%	3.23	2.79	3.66
	60대 이상	3776	3.7%	17.89	16.58	19.21	414	8.4%	2.14	1.79	2.50	684	7.3%	3.08	2.64	3.53	772	7.0%	4.17	3.60	4.74
학력	중졸 이하	2304	5.1%	9.83	8.84	10.81	222	11.7%	1.04	0.80	1.28	399	9.8%	1.61	1.30	1.93	374	9.1%	1.71	1.41	2.01
	고졸 이하	3195	3.3%	20.28	18.97	21.58	444	7.3%	2.81	2.41	3.21	684	7.1%	4.40	3.79	5.01	829	5.9%	5.76	5.10	6.42
	대졸 이하	3220	3.4%	24.60	22.98	26.22	482	9.7%	4.28	3.46	5.09	619	7.9%	5.02	4.24	5.80	894	6.6%	8.13	7.08	9.17
	대학원졸 이상	141	12.3%	0.85	0.64	1.06	17	31.4%	0.14	0.05	0.22	14	31.1%	0.09	0.04	0.15	34	21.2%	0.26	0.15	0.37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16	6.1%	4.48	3.94	5.02	83	17.6%	0.61	0.40	0.83	74	15.6%	0.46	0.32	0.60	163	11.9%	1.27	0.97	1.57
	사무직	1190	4.9%	9.94	8.99	10.89	236	13.1%	2.36	1.75	2.96	291	9.3%	2.52	2.06	2.99	358	8.7%	3.66	3.04	4.28
	서비스/판매직	1863	4.3%	12.59	11.52	13.65	299	9.0%	2.17	1.78	2.55	405	8.7%	3.02	2.51	3.53	501	8.4%	3.98	3.32	4.64
	생산/기술직	790	5.7%	5.30	4.71	5.89	90	13.0%	0.61	0.46	0.77	137	12.5%	0.79	0.59	0.98	170	9.9%	1.12	0.91	1.3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42	12.6%	2.46	1.85	3.07	62	19.1%	0.22	0.14	0.30	91	15.7%	0.32	0.22	0.42	126	15.4%	0.44	0.30	0.57
	단순노무직	563	6.9%	3.09	2.67	3.50	61	17.6%	0.37	0.24	0.50	81	15.3%	0.41	0.29	0.53	86	14.3%	0.48	0.35	0.62
	기타	8	42.7%	0.06	0.01	0.11	0	.	.	.	.	2	74.5%	0.03	0.00	0.07	3	84.0%	0.07	0.00	0.18
	무직	3188	3.3%	17.64	16.50	18.78	334	8.7%	1.93	1.60	2.26	635	7.4%	3.58	3.06	4.10	724	6.5%	4.84	4.22	5.45

[문37]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2)

	교육기관					국제기구					기타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표본수	상대 표준오차	추정값	95% 신뢰구간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n	RSE	estimates	하한	상한
▣ 전체 ▣	1357	5.2%	8.63	7.75	9.51	70	21.4%	0.56	0.32	0.79	4	52.1%	0.02	0.00	0.04
성별															
남자	606	6.7%	4.35	3.78	4.92	32	23.4%	0.22	0.12	0.32	2	73.8%	0.01	0.00	0.03
여자	751	6.3%	4.28	3.75	4.81	38	30.8%	0.34	0.13	0.54	2	72.1%	0.01	0.00	0.02
지역															
도시[동부]	1051	6.0%	6.96	6.15	7.78	52	20.1%	0.38	0.23	0.53	3	59.6%	0.02	0.00	0.04
농어촌[읍면부]	306	12.1%	1.66	1.27	2.06	18	52.9%	0.17	0.00	0.35	1	100.1%	0.00	0.00	0.01
연령															
20대 이하	137	11.6%	1.64	1.26	2.01	8	45.2%	0.17	0.02	0.32	1	100.1%	0.00	0.00	0.01
30대	177	10.6%	1.39	1.10	1.68	10	34.2%	0.09	0.03	0.14	1	100.1%	0.01	0.00	0.02
40대	252	9.3%	1.74	1.42	2.06	16	32.5%	0.12	0.04	0.20	1	100.0%	0.01	0.00	0.02
50대	273	8.0%	1.40	1.18	1.62	17	28.1%	0.10	0.04	0.15	1	100.0%	0.00	0.00	0.01
60대 이상	518	8.1%	2.46	2.07	2.85	19	37.6%	0.08	0.02	0.14	0	.	.	.	.
학력															
중졸 이하	264	10.6%	1.13	0.90	1.37	8	44.8%	0.04	0.00	0.07	1	100.0%	0.01	0.00	0.02
고졸 이하	534	7.1%	3.43	2.96	3.91	25	37.0%	0.20	0.06	0.35	1	100.1%	0.00	0.00	0.01
대졸 이하	530	7.2%	3.92	3.37	4.47	37	21.0%	0.32	0.19	0.45	2	71.4%	0.01	0.00	0.02
대학원졸 이상	29	23.4%	0.15	0.08	0.21	0	.	.	.	.	0	.	.	.	.
직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1	13.8%	0.54	0.39	0.69	3	64.1%	0.02	0.00	0.04	1	100.0%	0.01	0.00	0.02
사무직	180	10.9%	1.54	1.21	1.87	12	33.3%	0.10	0.03	0.16	0	.	.	.	.
서비스/판매직	313	8.9%	2.08	1.72	2.44	24	26.7%	0.20	0.10	0.31	2	70.9%	0.01	0.00	0.02
생산/기술직	122	12.3%	0.84	0.64	1.04	3	61.7%	0.01	0.00	0.03	0	.	.	.	.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8	18.3%	0.33	0.21	0.44	2	80.8%	0.01	0.00	0.02	0	.	.	.	.
단순노무직	62	18.4%	0.38	0.24	0.52	2	73.0%	0.01	0.00	0.02	0	.	.	.	.
기타	1	99.8%	0.02	0.00	0.06	0	.	.	.	.	0	.	.	.	.
무직	500	7.7%	2.91	2.47	3.35	24	36.4%	0.21	0.06	0.35	1	100.1%	0.01	0.00	0.02



2023년도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 부록 | 통계결과표





## 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단위: %)

	거의 매일 접한다	비교적 자주 접한다	가끔 접한다	거의 접하지 않는다
전 체	2.9	25.8	51.5	19.8
성 별				
남자	3.3	28.6	52.4	15.7
여자	2.4	23.0	50.7	23.9
지 역				
도 시[동 부]	2.7	25.9	52.9	18.5
농어촌[읍면부]	3.4	25.7	45.3	25.7
연 령				
20대 이하	3.2	29.3	53.5	14.1
30대	4.2	30.9	51.4	13.5
40대	4.0	29.3	52.2	14.5
50대	2.8	27.5	54.0	15.6
60대 이상	1.3	18.0	48.4	32.3
학 력				
중졸 이하	0.9	10.6	43.3	45.3
고졸 이하	2.2	23.5	56.1	18.2
대졸 이하	3.9	32.0	51.1	12.9
대학원졸 이상	6.3	47.0	35.8	10.9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0	39.7	41.6	10.8
사무직	3.3	32.4	50.9	13.4
서비스/판매직	2.7	24.9	56.1	16.3
생산/기술직	2.7	26.8	58.1	12.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7	15.8	45.2	36.3
단순노무직	1.3	17.2	50.7	30.8
기타	5.5	71.0	12.0	11.5
무직	1.7	21.0	50.0	27.3

## 2.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매우 잘 알고 있다	다소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전 체	10.2	51.4	29.7	8.7
<b>  성 별  </b>				
남자	12.1	56.0	26.4	5.5
여자	8.4	46.8	32.9	11.8
<b>  지 역  </b>				
도 시[동 부]	10.2	52.0	30.0	7.8
농어촌[읍면부]	10.5	48.8	28.1	12.6
<b>  연 령  </b>				
20대 이하	12.1	56.6	26.7	4.7
30대	13.3	60.6	21.5	4.5
40대	12.6	56.6	25.7	5.1
50대	10.3	53.4	29.7	6.6
60대 이상	6.1	39.3	38.0	16.7
<b>  학 력  </b>				
중졸 이하	2.8	27.9	43.0	26.3
고졸 이하	8.5	52.2	32.4	6.9
대졸 이하	13.3	58.6	23.6	4.4
대학원졸 이상	33.6	51.4	11.6	3.3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9.7	53.4	13.4	3.5
사무직	10.5	58.7	25.3	5.6
서비스/판매직	9.1	53.8	31.2	5.8
생산/기술직	7.8	63.1	25.0	4.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5	38.9	40.0	15.5
단순노무직	6.8	41.4	34.3	17.5
기타	25.3	62.4	12.3	0.0
무직	8.0	44.1	34.6	13.2

### 3.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단위: %)

	많이 좋아지고 있다	조금 좋아지고 있다	비슷하다	조금 나빠지고 있다	많이 나빠지고 있다
<b>전 체</b>	<b>3.0</b>	<b>26.7</b>	<b>55.2</b>	<b>12.0</b>	<b>3.2</b>
<b>  성 별  </b>					
남자	3.4	28.4	53.6	11.7	3.0
여자	2.7	25.0	56.7	12.3	3.3
<b>  지 역  </b>					
도 시[동 부]	3.0	27.6	54.6	11.6	3.3
농어촌[읍면부]	3.0	22.5	57.9	14.0	2.7
<b>  연 령  </b>					
20대 이하	4.0	27.5	52.7	13.5	2.3
30대	3.2	25.0	56.3	11.4	4.1
40대	2.5	28.7	51.8	13.6	3.4
50대	3.6	28.9	51.6	12.3	3.6
60대 이상	2.3	24.4	60.3	10.2	2.8
<b>  학 령  </b>					
중졸 이하	2.0	21.7	66.6	7.4	2.3
고졸 이하	2.7	25.2	55.0	13.9	3.2
대졸 이하	3.4	29.6	51.8	11.9	3.2
대학원졸 이상	7.4	23.7	45.3	14.9	8.7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6	27.6	45.7	13.5	6.6
사무직	3.0	29.6	52.1	12.6	2.8
서비스/판매직	2.9	29.6	52.3	12.8	2.4
생산/기술직	1.9	26.5	58.0	10.8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1	27.0	60.4	8.2	2.3
단순노무직	2.9	21.2	61.0	11.7	3.3
기타	5.3	27.9	59.9	0.0	6.9
무직	2.7	23.2	59.2	11.6	3.3

## 4-1)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본인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0.8	75.6	12.9	0.6
<b>  성 별  </b>				
남자	11.4	75.2	12.8	0.5
여자	10.2	76.0	13.0	0.7
<b>  지 역  </b>				
도 시[동 부]	11.0	76.3	12.3	0.5
농어촌[읍면부]	10.2	72.8	15.9	1.2
<b>  연 령  </b>				
20대 이하	13.9	74.9	10.9	0.2
30대	11.3	75.4	12.2	1.0
40대	10.0	77.3	12.3	0.4
50대	12.4	74.6	12.7	0.3
60대 이상	8.3	75.8	15.0	0.9
<b>  학 력  </b>				
중졸 이하	6.9	76.7	15.1	1.3
고졸 이하	10.0	76.0	13.5	0.6
대졸 이하	12.8	74.9	11.9	0.4
대학원졸 이상	11.2	78.4	10.0	0.4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0	74.2	11.0	0.8
사무직	14.2	74.1	11.4	0.3
서비스/판매직	11.8	74.4	13.2	0.6
생산/기술직	6.3	82.6	10.7	0.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6	82.4	10.7	0.3
단순노무직	10.8	73.1	15.6	0.4
기타	5.5	32.6	56.5	5.5
무직	8.9	75.8	14.4	0.9

#### 4-2)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사회적 약자/소수자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6.6	43.7	43.6	6.1
<b>  성 별  </b>				
남자	7.2	44.1	42.8	5.9
여자	6.0	43.3	44.4	6.3
<b>  지 역  </b>				
도 시[동 부]	7.1	43.2	43.8	5.9
농어촌[읍면부]	4.0	45.9	42.8	7.2
<b>  연 령  </b>				
20대 이하	9.2	46.5	38.7	5.6
30대	7.3	41.3	43.7	7.6
40대	4.3	42.1	47.3	6.3
50대	7.6	42.4	44.5	5.5
60대 이상	5.4	45.2	43.4	6.0
<b>  학 력  </b>				
중졸 이하	3.6	50.0	41.2	5.2
고졸 이하	7.1	43.2	44.1	5.6
대졸 이하	7.0	42.2	43.9	6.8
대학원졸 이상	8.9	40.5	45.5	5.2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9	41.1	43.6	9.4
사무직	8.1	42.9	41.9	7.1
서비스/판매직	8.5	40.8	44.6	6.1
생산/기술직	4.4	45.3	44.9	5.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0	51.4	41.6	3.9
단순노무직	3.7	47.2	42.8	6.3
기타	5.5	30.1	64.4	0.0
무직	5.8	45.3	43.8	5.2

## 4-3)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우리 사회 전반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6.4	64.6	25.9	3.1
<b>  성 별  </b>				
남자	6.8	64.3	25.9	3.0
여자	6.0	64.9	25.9	3.1
<b>  지 역  </b>				
도 시[동 부]	6.7	64.7	25.8	2.8
농어촌[읍면부]	5.1	64.3	26.5	4.2
<b>  연 령  </b>				
20대 이하	8.4	66.1	22.6	2.9
30대	6.5	63.1	26.6	3.8
40대	6.2	63.8	27.0	3.0
50대	6.5	63.9	26.8	2.8
60대 이상	5.3	65.5	26.2	3.0
<b>  학 력  </b>				
중졸 이하	4.3	70.5	22.7	2.5
고졸 이하	6.9	62.5	27.1	3.5
대졸 이하	6.8	64.2	26.0	2.9
대학원졸 이상	3.9	65.5	27.9	2.6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2	64.8	27.4	2.6
사무직	7.8	64.0	24.8	3.4
서비스/판매직	7.2	62.3	27.2	3.4
생산/기술직	4.6	70.2	23.5	1.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6	74.9	19.3	2.2
단순노무직	7.7	62.6	26.4	3.3
기타	0.0	26.4	66.7	6.9
무직	5.9	64.4	26.5	3.2



### 5-1)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여성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b>전 체</b>	<b>9.9</b>	<b>71.4</b>	<b>17.3</b>	<b>1.4</b>
<b>  성 별  </b>				
남자	12.2	73.3	13.5	1.0
여자	7.5	69.5	21.1	1.9
<b>  지 역  </b>				
도 시[동 부]	10.0	71.4	17.2	1.4
농어촌[읍면부]	9.4	71.1	17.8	1.7
<b>  연 령  </b>				
20대 이하	12.5	70.3	15.8	1.4
30대	11.0	66.8	20.1	2.1
40대	7.7	72.7	18.3	1.3
50대	10.0	71.2	17.6	1.2
60대 이상	8.9	73.7	16.0	1.4
<b>  학 령  </b>				
중졸 이하	8.1	75.8	14.9	1.1
고졸 이하	9.9	71.4	17.5	1.2
대졸 이하	10.3	69.9	18.1	1.7
대학원졸 이상	12.6	70.7	14.6	2.1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1	68.4	14.8	2.7
사무직	10.4	68.1	19.7	1.9
서비스/판매직	10.6	70.8	17.0	1.6
생산/기술직	8.3	78.9	12.4	0.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0.2	78.6	10.5	0.8
단순노무직	10.0	74.0	13.8	2.3
기타	26.6	9.7	63.8	0.0
무직	8.2	71.6	19.2	1.0

## 5-2)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아동·청소년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b>전 체</b>	<b>13.9</b>	<b>64.3</b>	<b>18.9</b>	<b>2.8</b>
<b>  성 별  </b>				
남자	15.1	64.2	18.3	2.4
여자	12.8	64.5	19.5	3.2
<b>  지 역  </b>				
도 시[동 부]	14.1	64.0	19.1	2.8
농어촌[읍면부]	13.3	65.9	18.1	2.7
<b>  연 령  </b>				
20대 이하	15.0	61.5	20.8	2.7
30대	14.8	59.0	21.9	4.2
40대	12.7	65.5	18.8	3.0
50대	14.7	64.3	18.7	2.3
60대 이상	13.1	68.0	16.5	2.4
<b>  학 력  </b>				
중졸 이하	11.9	73.7	12.8	1.6
고졸 이하	14.2	64.5	19.0	2.3
대졸 이하	14.3	61.2	20.9	3.6
대학원졸 이상	15.2	64.0	18.4	2.4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2	62.8	16.9	2.1
사무직	14.8	59.3	21.3	4.5
서비스/판매직	14.8	62.3	19.2	3.6
생산/기술직	13.1	69.4	16.5	1.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2.7	75.8	10.6	0.8
단순노무직	13.9	70.9	13.3	1.9
기타	17.4	17.5	65.1	0.0
무직	12.0	66.0	19.9	2.2

### 5-3)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노인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b>전 체</b>	<b>9.8</b>	<b>57.8</b>	<b>28.8</b>	<b>3.6</b>
<b>  성 별  </b>				
남자	10.2	59.0	27.5	3.3
여자	9.3	56.7	30.1	3.9
<b>  지 역  </b>				
도 시[동 부]	10.1	57.0	29.3	3.6
농어촌[읍면부]	8.1	61.6	26.7	3.7
<b>  연 령  </b>				
20대 이하	11.4	61.2	24.1	3.3
30대	10.2	54.6	29.7	5.5
40대	8.2	58.0	30.9	3.0
50대	10.4	57.8	28.8	3.1
60대 이상	9.2	57.6	29.8	3.4
<b>  학 력  </b>				
중졸 이하	8.2	62.9	26.4	2.6
고졸 이하	10.1	57.3	29.2	3.4
대졸 이하	10.1	56.5	29.2	4.1
대학원졸 이상	8.2	60.2	30.6	1.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0	57.8	28.5	2.7
사무직	10.9	55.0	29.2	4.9
서비스/판매직	10.7	56.0	29.3	3.9
생산/기술직	7.1	63.7	27.6	1.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8	67.3	22.5	1.4
단순노무직	8.5	59.0	29.5	3.0
기타	0.0	27.9	66.6	5.5
무직	9.1	58.3	29.1	3.5

## 5-4)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장애인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7.2	43.1	43.1	6.5
<b>  성 별  </b>				
남자	7.9	44.3	41.6	6.2
여자	6.6	42.0	44.7	6.8
<b>  지 역  </b>				
도 시[동 부]	7.7	42.7	43.1	6.6
농어촌[읍면부]	5.3	45.3	43.3	6.1
<b>  연 령  </b>				
20대 이하	8.9	44.6	41.5	5.1
30대	7.1	40.4	42.9	9.6
40대	5.1	41.9	47.0	6.0
50대	8.0	44.8	41.4	5.8
60대 이상	7.2	43.4	43.0	6.4
<b>  학 력  </b>				
중졸 이하	5.4	46.2	43.0	5.4
고졸 이하	8.6	43.0	41.6	6.8
대졸 이하	6.7	42.1	44.5	6.6
대학원졸 이상	8.6	45.2	40.5	5.7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7.8	42.3	42.1	7.8
사무직	7.4	42.1	43.2	7.3
서비스/판매직	8.2	43.0	41.9	6.9
생산/기술직	6.3	44.8	44.7	4.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6	47.3	43.7	3.3
단순노무직	5.5	44.3	44.0	6.2
기타	3.1	31.6	64.0	1.3
무직	7.0	43.0	43.5	6.4

### 5-5)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b>전 체</b>	<b>4.0</b>	<b>32.6</b>	<b>54.3</b>	<b>9.1</b>
<b>  성 별  </b>				
남자	4.5	32.6	54.1	8.8
여자	3.6	32.7	54.4	9.4
<b>  지 역  </b>				
도 시[동 부]	4.1	31.6	55.2	9.1
농어촌[읍면부]	3.7	37.2	50.0	9.1
<b>  연 령  </b>				
20대 이하	5.4	35.7	50.5	8.5
30대	5.2	30.0	53.6	11.1
40대	3.8	28.3	57.6	10.3
50대	3.9	33.7	55.3	7.1
60대 이상	2.9	34.2	54.0	8.9
<b>  학 력  </b>				
중졸 이하	2.2	35.6	54.6	7.5
고졸 이하	3.7	34.7	52.5	9.1
대졸 이하	4.9	30.0	55.5	9.5
대학원졸 이상	5.2	30.7	54.7	9.4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4	31.8	52.1	11.8
사무직	5.6	30.1	54.4	9.8
서비스/판매직	4.8	33.1	52.8	9.3
생산/기술직	3.1	33.0	56.6	7.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1	39.6	51.4	6.9
단순노무직	3.4	34.9	52.0	9.7
기타	1.3	18.3	75.0	5.5
무직	3.0	32.8	55.7	8.5

6-1)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단위: %)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7.6	57.9	4.2	0.2
<b>  성 별  </b>				
남자	37.5	58.3	4.0	0.2
여자	37.8	57.5	4.4	0.3
<b>  지 역  </b>				
도 시[동 부]	36.6	58.9	4.4	0.2
농어촌[읍면부]	42.6	53.4	3.7	0.3
<b>  연 령  </b>				
20대 이하	37.3	57.3	5.1	0.3
30대	41.0	53.4	5.3	0.2
40대	37.8	57.9	3.9	0.3
50대	37.3	58.4	4.1	0.1
60대 이상	36.2	60.2	3.4	0.2
<b>  학 령  </b>				
중졸 이하	35.6	61.3	2.7	0.3
고졸 이하	37.7	58.2	3.8	0.2
대졸 이하	37.6	57.0	5.2	0.2
대학원졸 이상	58.5	41.1	0.4	0.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0.2	46.8	3.0	0.0
사무직	35.1	59.8	4.7	0.5
서비스/판매직	36.7	57.9	5.2	0.2
생산/기술직	34.4	61.3	4.2	0.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0.5	56.9	2.5	0.2
단순노무직	36.4	60.4	2.6	0.6
기타	39.0	61.0	0.0	0.0
무직	37.8	58.0	4.0	0.2

## 6-2)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단위: %)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17.0	62.0	18.4	2.6
<b>  성 별  </b>				
남자	17.6	61.4	18.5	2.6
여자	16.5	62.6	18.3	2.6
<b>  지 역  </b>				
도 시[동 부]	17.2	61.7	18.5	2.6
농어촌[읍면부]	16.2	63.2	17.9	2.7
<b>  연 령  </b>				
20대 이하	15.5	63.4	17.1	3.9
30대	18.1	60.7	17.7	3.5
40대	17.1	61.2	19.8	2.0
50대	18.1	60.8	19.0	2.1
60대 이상	16.5	63.2	18.2	2.1
<b>  학 력  </b>				
중졸 이하	14.8	65.6	17.1	2.6
고졸 이하	16.7	62.0	18.6	2.7
대졸 이하	17.8	60.8	18.9	2.6
대학원졸 이상	22.1	63.4	12.7	1.8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8	59.9	18.9	2.3
사무직	19.1	60.3	17.6	3.0
서비스/판매직	18.0	61.2	17.8	3.0
생산/기술직	12.7	65.2	20.0	2.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4.6	64.4	18.9	2.0
단순노무직	15.4	66.3	16.3	2.0
기타	10.8	89.2	0.0	0.0
무직	16.2	62.2	19.1	2.5

6-3)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단위: %)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 체	12.8	58.8	25.4	3.0
<b>  성 별  </b>				
남자	12.9	58.4	25.8	2.9
여자	12.6	59.1	25.1	3.1
<b>  지 역  </b>				
도 시[동 부]	12.6	59.2	25.4	2.8
농어촌[읍면부]	13.3	56.7	25.6	4.4
<b>  연 령  </b>				
20대 이하	12.7	61.1	24.3	1.9
30대	13.1	60.4	23.9	2.6
40대	12.8	58.0	26.5	2.8
50대	13.7	59.5	24.4	2.4
60대 이상	12.0	56.6	27.0	4.5
<b>  학 령  </b>				
중졸 이하	10.0	55.5	28.9	5.6
고졸 이하	13.1	58.5	25.3	3.1
대졸 이하	13.4	60.0	24.6	2.1
대학원졸 이상	13.0	62.3	20.2	4.5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6	62.1	22.4	1.9
사무직	14.6	60.1	23.8	1.5
서비스/판매직	14.2	58.4	24.6	2.9
생산/기술직	9.4	60.5	25.9	4.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1.7	54.7	28.9	4.7
단순노무직	11.5	56.0	27.0	5.6
기타	16.4	73.2	7.3	3.1
무직	11.5	57.8	27.2	3.6



7-1)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단위: %)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 체	2.7	16.4	45.1	35.8
<b>  성 별  </b>				
남자	2.8	17.1	44.1	36.0
여자	2.6	15.6	46.1	35.7
<b>  지 역  </b>				
도 시[동 부]	2.8	17.3	45.8	34.0
농어촌[읍면부]	2.2	12.0	41.6	44.2
<b>  연 령  </b>				
20대 이하	2.7	16.3	45.1	35.9
30대	2.0	16.0	42.7	39.3
40대	3.0	16.0	44.4	36.6
50대	3.3	17.3	44.8	34.5
60대 이상	2.4	16.2	46.8	34.5
<b>  학 력  </b>				
중졸 이하	2.4	16.3	47.9	33.4
고졸 이하	3.1	16.3	46.0	34.5
대졸 이하	2.5	16.6	43.8	37.1
대학원졸 이상	3.2	12.8	31.0	53.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3	13.4	34.5	49.8
사무직	2.9	18.7	45.1	33.3
서비스/판매직	3.6	17.7	44.1	34.5
생산/기술직	1.7	13.0	48.8	36.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6	13.8	43.7	38.9
단순노무직	2.4	14.0	46.6	37.0
기타	0.0	0.0	75.3	24.7
무직	2.2	16.3	47.0	34.5

7-2)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단위: %)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 체	19.2	52.3	23.0	5.6
<b>  성 별  </b>				
남자	19.8	52.2	22.6	5.3
여자	18.5	52.5	23.3	5.8
<b>  지 역  </b>				
도 시[동 부]	18.9	52.6	22.6	5.8
농어촌[읍면부]	20.2	51.0	24.5	4.3
<b>  연 령  </b>				
20대 이하	18.6	52.2	22.8	6.4
30대	20.4	51.8	21.2	6.6
40대	19.7	55.2	21.0	4.0
50대	20.2	51.4	22.0	6.5
60대 이상	17.9	51.5	25.8	4.9
<b>  학 령  </b>				
중졸 이하	16.3	51.8	28.7	3.1
고졸 이하	19.4	53.8	21.0	5.8
대졸 이하	19.7	51.7	22.4	6.2
대학원졸 이상	22.9	42.5	30.5	4.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5.3	45.3	25.1	4.3
사무직	19.9	51.9	21.2	7.0
서비스/판매직	19.8	54.3	19.8	6.0
생산/기술직	16.6	54.3	23.6	5.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2.2	48.0	26.9	3.0
단순노무직	17.3	49.4	25.6	7.6
기타	20.8	73.6	0.0	5.5
무직	17.3	53.1	25.0	4.6

7-3)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단위: %)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 체	23.7	53.3	19.9	3.1
<b>  성 별  </b>				
남자	24.8	52.4	19.7	3.1
여자	22.5	54.2	20.2	3.1
<b>  지 역  </b>				
도 시[동 부]	23.8	53.5	19.7	3.0
농어촌[읍면부]	22.8	52.6	20.9	3.6
<b>  연 령  </b>				
20대 이하	23.5	51.4	20.7	4.4
30대	26.0	52.5	18.4	3.1
40대	24.6	54.5	18.3	2.6
50대	24.5	51.1	21.4	3.0
60대 이상	21.4	55.5	20.3	2.7
<b>  학 력  </b>				
중졸 이하	19.2	57.0	21.5	2.4
고졸 이하	24.2	53.6	19.2	3.0
대졸 이하	24.5	51.9	20.1	3.5
대학원졸 이상	30.0	51.3	17.3	1.3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0.4	50.2	16.4	3.0
사무직	24.3	51.0	21.2	3.5
서비스/판매직	25.3	53.9	17.5	3.4
생산/기술직	19.6	56.7	20.5	3.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8.2	49.5	20.4	1.8
단순노무직	22.3	52.0	21.3	4.3
기타	32.7	61.8	0.0	5.5
무직	21.1	54.8	21.6	2.5

7-4)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단위: %)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 체	12.4	53.7	28.3	5.6
<b>  성 별  </b>				
남자	12.9	53.8	27.3	5.9
여자	11.8	53.7	29.3	5.2
<b>  지 역  </b>				
도 시[동 부]	12.4	54.3	28.2	5.1
농어촌[읍면부]	12.3	51.3	28.8	7.6
<b>  연 령  </b>				
20대 이하	11.2	52.7	28.8	7.3
30대	12.6	50.0	30.3	7.1
40대	13.3	55.8	26.1	4.8
50대	13.7	52.8	28.4	5.1
60대 이상	11.4	55.7	28.3	4.6
<b>  학 령  </b>				
중졸 이하	10.7	55.9	30.1	3.3
고졸 이하	12.8	52.5	28.3	6.4
대졸 이하	12.7	53.9	27.7	5.7
대학원졸 이상	8.8	57.1	28.8	5.3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4	57.3	25.4	3.9
사무직	14.2	51.0	28.7	6.1
서비스/판매직	13.5	51.5	27.7	7.4
생산/기술직	9.7	56.8	28.1	5.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9.0	53.5	32.1	5.4
단순노무직	11.0	48.0	34.2	6.8
기타	12.1	76.9	5.5	5.5
무직	11.4	56.4	28.1	4.1

### 7-5)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단위: %)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b>전 체</b>	<b>22.8</b>	<b>56.5</b>	<b>18.4</b>	<b>2.3</b>
<b>  성 별  </b>				
남자	23.7	55.8	18.1	2.5
여자	21.9	57.1	18.7	2.2
<b>  지 역  </b>				
도 시[동 부]	23.0	56.3	18.5	2.2
농어촌[읍면부]	21.9	57.0	17.9	3.2
<b>  연 령  </b>				
20대 이하	25.4	54.0	17.9	2.7
30대	23.2	57.5	16.4	3.0
40대	25.3	57.1	16.5	1.1
50대	22.1	55.4	19.1	3.3
60대 이상	20.0	57.6	20.4	1.9
<b>  학 력  </b>				
중졸 이하	18.2	58.2	22.4	1.2
고졸 이하	22.9	57.2	17.3	2.6
대졸 이하	24.0	55.4	18.1	2.6
대학원졸 이상	30.1	54.4	15.0	0.5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9.6	55.3	13.4	1.7
사무직	23.9	54.4	18.4	3.3
서비스/판매직	24.3	55.8	17.2	2.7
생산/기술직	18.4	58.0	21.3	2.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0.5	58.4	19.5	1.5
단순노무직	21.4	57.9	15.1	5.5
기타	14.1	80.4	0.0	5.5
무직	21.0	57.6	20.2	1.2

## 8-a. 인권의 사회적 효용(1순위)

(단위: %)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전 체	27.2	33.2	26.8	12.9
성 별				
남자	27.9	33.4	25.7	13.0
여자	26.5	32.9	27.9	12.7
지 역				
도 시[동 부]	26.9	33.3	26.8	13.0
농어촌[읍면부]	28.3	32.7	26.8	12.2
연 령				
20대 이하	29.9	32.8	26.8	10.5
30대	25.7	33.5	28.2	12.5
40대	28.1	32.4	26.9	12.6
50대	25.6	36.6	26.3	11.5
60대 이상	26.8	31.4	26.4	15.5
학 력				
중졸 이하	26.5	27.9	28.2	17.4
고졸 이하	26.9	34.4	26.6	12.1
대졸 이하	27.5	34.0	26.2	12.2
대학원졸 이상	29.6	29.3	35.6	5.5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8.4	30.0	28.1	13.4
사무직	25.4	35.8	28.4	10.4
서비스/판매직	27.7	34.6	25.8	11.9
생산/기술직	30.5	30.5	24.5	14.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3.5	30.0	25.1	21.3
단순노무직	29.1	27.7	26.4	16.9
기타	11.8	53.5	11.9	22.8
무직	26.9	33.0	27.2	12.9

## 8-b. 인권의 사회적 효용(1순위+2순위)

(단위: %)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b>전 체</b>	<b>41.1</b>	<b>56.7</b>	<b>63.1</b>	<b>36.4</b>
<b>  성 별  </b>				
남자	41.7	57.3	62.1	36.0
여자	40.4	56.2	64.2	36.7
<b>  지 역  </b>				
도 시[동 부]	41.2	56.8	62.1	36.9
농어촌[읍면부]	40.3	56.3	68.0	34.0
<b>  연 령  </b>				
20대 이하	44.8	56.2	60.0	35.7
30대	40.5	56.9	65.0	34.9
40대	41.6	55.7	64.1	36.1
50대	39.6	59.1	63.4	35.8
60대 이상	39.9	56.0	63.3	38.1
<b>  학 력  </b>				
중졸 이하	38.6	54.3	63.7	40.9
고졸 이하	40.7	57.0	63.5	35.7
대졸 이하	42.1	57.2	62.5	35.7
대학원졸 이상	44.9	58.9	67.1	28.2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3.0	56.6	58.1	41.0
사무직	40.0	57.6	65.8	34.0
서비스/판매직	40.7	57.6	63.4	35.0
생산/기술직	45.9	52.4	60.3	38.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6.2	52.5	68.9	40.9
단순노무직	41.7	49.5	65.0	41.5
기타	29.2	78.9	52.0	40.0
무직	40.8	58.1	62.3	35.9

## II

## 인권 침해와 차별

## 9-1) 인권의 존중 정도-신체의 자유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7.2	70.6	10.7	1.4
<b>  성 별  </b>				
남자	17.9	70.4	10.5	1.2
여자	16.5	70.9	10.9	1.7
<b>  지 역  </b>				
도 시[동 부]	17.1	71.1	10.5	1.3
농어촌[읍면부]	17.5	68.6	11.6	2.3
<b>  연 령  </b>				
20대 이하	20.4	70.8	8.4	0.4
30대	19.1	68.0	10.9	1.9
40대	16.1	70.7	11.9	1.4
50대	17.2	71.2	10.1	1.5
60대 이상	15.1	71.5	11.6	1.8
<b>  학 력  </b>				
중졸 이하	14.5	74.8	9.4	1.4
고졸 이하	16.9	70.4	11.2	1.4
대졸 이하	18.1	69.5	10.9	1.5
대학원졸 이상	25.1	67.7	7.1	0.1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0.1	70.8	7.8	1.3
사무직	17.3	70.1	11.0	1.6
서비스/판매직	17.5	68.8	12.1	1.6
생산/기술직	15.7	75.8	7.9	0.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6.4	74.8	8.3	0.5
단순노무직	16.0	72.8	10.5	0.8
기타	18.7	17.5	63.8	0.0
무직	16.9	70.4	11.0	1.6



## 9-2) 인권의 존중 정도-사상·양심의 자유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9.5	63.3	15.5	1.6
<b>  성 별  </b>				
남자	20.4	62.8	15.5	1.4
여자	18.7	63.9	15.6	1.8
<b>  지 역  </b>				
도 시[동 부]	19.8	64.0	14.9	1.3
농어촌[읍면부]	18.4	60.4	18.5	2.8
<b>  연 령  </b>				
20대 이하	19.9	64.9	14.5	0.7
30대	23.4	59.4	15.7	1.6
40대	19.2	62.8	15.9	2.0
50대	18.0	64.9	15.5	1.6
60대 이상	18.5	63.8	15.9	1.8
<b>  학 력  </b>				
중졸 이하	17.0	69.3	11.7	2.1
고졸 이하	19.0	63.8	15.9	1.3
대졸 이하	20.7	61.1	16.6	1.7
대학원졸 이상	24.2	62.3	12.5	1.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0.6	63.0	15.2	1.1
사무직	21.4	60.8	16.0	1.8
서비스/판매직	18.8	63.0	16.6	1.7
생산/기술직	17.6	68.7	12.6	1.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9	67.2	13.1	1.9
단순노무직	17.7	67.4	13.0	1.9
기타	25.3	9.7	63.8	1.3
무직	19.6	63.0	15.8	1.6

## 9-3) 인권의 존중 정도-종교의 자유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38.4	52.3	8.3	1.0
<b>  성 별  </b>				
남자	39.7	50.9	8.3	1.0
여자	37.0	53.7	8.3	1.0
<b>  지 역  </b>				
도 시[동 부]	38.5	52.7	7.9	0.9
농어촌[읍면부]	37.9	50.4	10.3	1.4
<b>  연 령  </b>				
20대 이하	41.8	50.5	6.5	1.2
30대	39.0	49.4	9.9	1.6
40대	37.6	52.9	8.0	1.5
50대	37.7	53.1	8.5	0.7
60대 이상	36.9	54.0	8.6	0.5
<b>  학 력  </b>				
중졸 이하	37.8	55.1	6.4	0.6
고졸 이하	39.2	51.9	8.2	0.7
대졸 이하	37.5	51.8	9.2	1.4
대학원졸 이상	49.0	48.5	2.2	0.3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7.5	56.8	5.2	0.5
사무직	37.6	51.3	9.5	1.6
서비스/판매직	39.1	50.0	9.7	1.1
생산/기술직	35.6	56.2	7.1	1.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6.8	48.8	4.1	0.3
단순노무직	35.3	57.2	6.5	1.0
기타	31.8	9.7	58.5	0.0
무직	38.8	52.5	8.0	0.7

#### 9-4) 인권의 존중 정도-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9.1	62.4	16.9	1.6
<b>  성 별  </b>				
남자	20.1	61.4	17.0	1.5
여자	18.2	63.4	16.8	1.6
<b>  지 역  </b>				
도 시[동 부]	19.4	63.0	16.2	1.4
농어촌[읍면부]	17.9	59.6	20.3	2.3
<b>  연 령  </b>				
20대 이하	23.2	61.5	13.7	1.6
30대	21.1	58.6	18.7	1.7
40대	18.6	60.3	19.4	1.7
50대	17.8	63.7	17.0	1.6
60대 이상	16.9	65.5	16.2	1.4
<b>  학 력  </b>				
중졸 이하	15.4	70.3	13.5	0.8
고졸 이하	20.3	61.7	16.0	2.0
대졸 이하	19.1	60.6	18.8	1.5
대학원졸 이상	25.9	58.2	13.4	2.6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1.2	59.5	17.4	2.0
사무직	18.9	61.7	17.8	1.6
서비스/판매직	20.4	59.8	18.0	1.8
생산/기술직	16.8	67.1	14.6	1.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6	67.0	13.9	1.5
단순노무직	16.0	67.4	14.2	2.4
기타	12.0	22.8	59.8	5.5
무직	19.1	63.3	16.4	1.2

## 9-5) 인권의 존중 정도-집회·결사의 자유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7.3	58.9	21.5	2.3
<b>  성 별  </b>				
남자	18.2	57.7	22.0	2.1
여자	16.3	60.1	21.1	2.4
<b>  지 역  </b>				
도 시[동 부]	17.8	59.5	20.8	1.9
농어촌[읍면부]	14.9	56.0	25.0	4.1
<b>  연 령  </b>				
20대 이하	20.4	60.5	17.3	1.8
30대	18.3	58.5	20.7	2.4
40대	17.0	57.7	22.5	2.7
50대	14.9	60.0	22.7	2.3
60대 이상	16.5	58.2	23.0	2.2
<b>  학 령  </b>				
중졸 이하	14.3	61.4	22.6	1.7
고졸 이하	18.4	58.5	20.7	2.3
대졸 이하	17.2	58.4	21.9	2.5
대학원졸 이상	22.4	57.7	18.3	1.6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7.2	59.9	20.9	2.0
사무직	17.9	58.4	21.7	1.9
서비스/판매직	18.8	58.0	20.4	2.8
생산/기술직	14.6	62.7	20.1	2.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9	58.9	23.2	2.1
단순노무직	16.2	62.4	19.3	2.1
기타	14.7	11.6	66.9	6.7
무직	16.7	58.4	22.7	2.2

## 9-6) 인권의 존중 정도-신속·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1.2	54.9	30.2	3.7
<b>  성 별  </b>				
남자	11.7	54.6	30.0	3.7
여자	10.7	55.2	30.4	3.7
<b>  지 역  </b>				
도 시[동 부]	11.6	55.2	29.7	3.5
농어촌[읍면부]	9.2	53.4	32.6	4.8
<b>  연 령  </b>				
20대 이하	14.1	56.9	26.1	2.8
30대	11.3	53.8	30.6	4.3
40대	9.8	53.7	32.6	3.9
50대	11.5	54.7	29.6	4.2
60대 이상	10.1	55.1	31.3	3.5
<b>  학 력  </b>				
중졸 이하	10.0	55.5	30.6	3.9
고졸 이하	11.2	55.7	29.6	3.6
대졸 이하	11.6	54.2	30.4	3.8
대학원졸 이상	11.0	50.0	36.5	2.5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3	52.9	30.1	5.7
사무직	11.2	56.2	30.1	2.4
서비스/판매직	12.3	54.1	29.2	4.4
생산/기술직	8.2	58.5	30.1	3.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9.2	54.7	33.0	3.2
단순노무직	10.7	54.9	30.8	3.6
기타	0.0	22.2	65.8	12.0
무직	11.5	54.3	30.5	3.7

## 9-7) 인권의 존중 정도-공공 행정·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0.9	56.3	29.1	3.6
<b>  성 별  </b>				
남자	11.1	55.3	29.8	3.7
여자	10.7	57.3	28.5	3.5
<b>  지 역  </b>				
도 시[동 부]	11.2	56.7	28.9	3.2
농어촌[읍면부]	9.4	54.7	30.5	5.3
<b>  연 령  </b>				
20대 이하	12.7	59.7	23.6	4.0
30대	12.1	53.8	29.9	4.2
40대	10.4	54.0	32.5	3.0
50대	10.1	56.7	30.3	2.9
60대 이상	10.1	56.8	29.1	3.9
<b>  학 력  </b>				
중졸 이하	9.7	58.0	28.1	4.3
고졸 이하	11.7	55.9	28.7	3.7
대졸 이하	10.7	56.3	29.7	3.4
대학원졸 이상	12.3	50.2	35.5	2.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4	54.8	31.3	4.4
사무직	11.4	56.5	29.3	2.8
서비스/판매직	11.5	56.3	28.3	3.8
생산/기술직	9.9	56.1	30.4	3.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9.0	53.6	31.9	5.5
단순노무직	10.7	56.7	28.5	4.1
기타	2.0	25.6	61.6	10.7
무직	11.1	57.1	28.4	3.5

### 9-8) 인권의 존중 정도-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2.2	61.5	23.0	3.3
성 별				
남자	12.4	60.7	23.3	3.6
여자	12.1	62.3	22.6	3.0
지 역				
도 시[동 부]	12.7	61.2	22.9	3.2
농어촌[읍면부]	10.1	62.9	23.3	3.7
연 령				
20대 이하	15.3	59.8	21.2	3.7
30대	14.1	53.6	27.8	4.5
40대	10.2	62.3	23.8	3.7
50대	11.4	63.1	22.6	2.8
60대 이상	11.2	65.0	21.2	2.6
학 력				
중졸 이하	10.2	68.6	19.4	1.8
고졸 이하	12.9	61.3	22.7	3.1
대졸 이하	12.2	59.3	24.4	4.0
대학원졸 이상	14.7	59.8	21.8	3.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6	59.8	25.9	3.7
사무직	12.6	57.3	25.8	4.4
서비스/판매직	14.2	58.5	23.8	3.6
생산/기술직	10.0	69.1	18.2	2.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0.4	67.3	20.3	2.0
단순노무직	12.2	64.5	20.4	2.8
기타	14.7	7.5	72.3	5.5
무직	11.7	64.0	21.6	2.8

## 9-9) 인권의 존중 정도-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0.2	61.7	25.8	2.4
<b>  성 별  </b>				
남자	10.8	61.5	25.4	2.4
여자	9.5	61.8	26.2	2.5
<b>  지 역  </b>				
도 시[동 부]	10.6	61.7	25.3	2.4
농어촌[읍면부]	8.0	61.6	27.9	2.5
<b>  연 령  </b>				
20대 이하	11.5	62.3	23.2	3.0
30대	11.4	56.9	29.1	2.6
40대	9.1	61.1	27.1	2.6
50대	9.7	64.0	24.1	2.2
60대 이상	9.7	62.6	25.8	2.0
<b>  학 력  </b>				
중졸 이하	8.4	65.1	24.7	1.7
고졸 이하	11.0	61.5	25.1	2.5
대졸 이하	10.0	60.7	26.7	2.6
대학원졸 이상	11.1	60.4	25.2	3.3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7	59.9	26.4	5.0
사무직	10.6	61.4	25.8	2.2
서비스/판매직	12.0	59.4	26.3	2.3
생산/기술직	7.4	69.4	21.7	1.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7.7	66.8	23.8	1.7
단순노무직	11.2	57.9	27.6	3.3
기타	0.0	24.4	70.2	5.5
무직	9.7	62.0	26.1	2.3



## 9-10) 인권의 존중 정도-주거권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b>전 체</b>	<b>14.5</b>	<b>73.1</b>	<b>11.6</b>	<b>0.8</b>
<b>  성 별  </b>				
남자	15.5	72.3	11.5	0.7
여자	13.6	73.8	11.7	0.9
<b>  지 역  </b>				
도 시[동 부]	14.0	73.5	11.7	0.9
농어촌[읍면부]	16.7	71.2	11.5	0.6
<b>  연 령  </b>				
20대 이하	16.5	71.8	10.5	1.2
30대	14.5	70.2	14.5	0.8
40대	12.2	74.6	12.4	0.8
50대	14.9	74.0	10.3	0.8
60대 이상	14.5	73.7	11.1	0.6
<b>  학 력  </b>				
중졸 이하	14.4	75.0	9.9	0.6
고졸 이하	15.1	72.6	11.3	1.0
대졸 이하	13.9	73.0	12.3	0.7
대학원졸 이상	18.8	66.7	13.8	0.7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3	71.3	13.8	1.6
사무직	14.3	73.8	11.4	0.4
서비스/판매직	15.9	71.0	12.3	0.8
생산/기술직	12.4	78.0	9.1	0.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9.4	74.4	6.1	0.1
단순노무직	15.2	73.6	10.3	0.9
기타	11.0	20.5	61.8	6.7
무직	13.7	73.2	12.0	1.0

## 9-11) 인권의 존중 정도-사회보장권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4.5	56.6	24.9	4.1
<b>  성 별  </b>				
남자	14.7	56.7	24.6	3.9
여자	14.2	56.4	25.1	4.3
<b>  지 역  </b>				
도 시[동 부]	15.0	56.7	24.5	3.8
농어촌[읍면부]	12.1	56.2	26.6	5.2
<b>  연 령  </b>				
20대 이하	13.3	62.9	20.5	3.3
30대	16.1	50.3	29.2	4.4
40대	14.1	56.2	25.0	4.7
50대	15.0	56.3	25.8	2.9
60대 이상	14.2	56.6	24.4	4.8
<b>  학 력  </b>				
중졸 이하	13.2	59.9	22.8	4.1
고졸 이하	15.4	55.4	24.2	5.0
대졸 이하	14.1	56.6	25.9	3.4
대학원졸 이상	15.6	52.0	29.8	2.5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2	55.1	27.7	5.9
사무직	15.5	56.3	24.9	3.3
서비스/판매직	15.3	55.8	24.8	4.1
생산/기술직	14.7	58.2	23.3	3.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4.5	54.0	29.4	2.1
단순노무직	12.6	56.0	25.9	5.4
기타	3.1	22.8	72.8	1.3

## 9-12) 인권의 존중 정도-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21.6	59.3	17.2	1.9
<b>  성 별  </b>				
남자	22.2	58.6	17.4	1.8
여자	20.9	60.0	17.0	2.1
<b>  지 역  </b>				
도 시[동 부]	22.2	59.1	16.7	2.0
농어촌[읍면부]	18.5	60.2	19.4	1.9
<b>  연 령  </b>				
20대 이하	24.2	61.0	13.7	1.2
30대	21.1	55.4	20.0	3.5
40대	20.6	57.9	19.1	2.5
50대	21.8	60.4	16.6	1.3
60대 이상	20.8	60.5	17.1	1.7
<b>  학 력  </b>				
중졸 이하	18.9	64.1	15.7	1.3
고졸 이하	22.3	58.5	17.1	2.2
대졸 이하	21.9	58.3	17.9	2.0
대학원졸 이상	21.4	61.0	15.7	1.9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4	62.0	18.6	3.0
사무직	23.4	57.4	17.1	2.0
서비스/판매직	22.9	57.8	17.0	2.3
생산/기술직	19.4	62.2	17.4	1.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3.4	62.0	13.8	0.8
단순노무직	17.6	62.7	16.7	2.9
기타	11.0	23.8	59.8	5.5
무직	21.6	59.5	17.3	1.6

## 9-13) 인권의 존중 정도-노동권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3.8	54.1	27.7	4.5
<b>  성 별  </b>				
남자	14.2	53.3	27.8	4.7
여자	13.3	54.9	27.5	4.3
<b>  지 역  </b>				
도 시[동 부]	13.9	54.4	27.6	4.1
농어촌[읍면부]	12.9	52.8	27.8	6.5
<b>  연 령  </b>				
20대 이하	15.5	55.9	24.4	4.2
30대	13.3	52.0	28.4	6.3
40대	13.3	53.1	28.7	4.8
50대	14.5	53.6	28.3	3.6
60대 이상	12.8	55.1	28.0	4.0
<b>  학 력  </b>				
중졸 이하	10.9	59.5	25.7	3.8
고졸 이하	15.1	53.6	27.4	3.9
대졸 이하	13.6	52.7	28.4	5.3
대학원졸 이상	14.2	53.4	31.2	1.2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0	54.6	29.2	5.2
사무직	13.9	53.5	27.3	5.3
서비스/판매직	16.4	52.2	26.9	4.4
생산/기술직	13.1	56.9	25.9	4.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1.4	59.2	25.4	4.0
단순노무직	10.8	57.3	28.4	3.5
기타	11.0	18.5	63.8	6.7
무직	13.1	54.1	28.5	4.2

## 9-14) 인권의 존중 정도-건강권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9.3	63.4	15.2	2.0
<b>  성 별  </b>				
남자	19.8	62.8	15.4	2.0
여자	18.9	64.0	15.1	2.0
<b>  지 역  </b>				
도 시[동 부]	19.4	63.6	15.1	1.9
농어촌[읍면부]	19.0	62.4	15.9	2.7
<b>  연 령  </b>				
20대 이하	20.3	67.2	11.2	1.4
30대	21.1	60.0	16.1	2.9
40대	17.8	62.6	17.1	2.5
50대	18.7	64.9	15.1	1.4
60대 이상	19.2	62.6	16.1	2.2
<b>  학 력  </b>				
중졸 이하	18.7	65.9	13.8	1.6
고졸 이하	20.0	62.9	14.9	2.3
대졸 이하	18.8	63.1	16.1	1.9
대학원졸 이상	24.4	60.1	11.9	3.7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1	66.0	13.8	2.2
사무직	19.7	61.7	16.1	2.5
서비스/판매직	19.7	62.6	15.9	1.8
생산/기술직	17.8	66.3	14.7	1.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1.9	65.7	11.3	1.1
단순노무직	16.4	64.7	16.7	2.2
기타	13.0	16.4	70.6	0.0
무직	19.6	63.5	14.6	2.2

## 9-15) 인권의 존중 정도-교육권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22.9	62.0	13.8	1.3
<b>  성 별  </b>				
남자	23.5	61.0	14.2	1.2
여자	22.2	62.9	13.5	1.3
<b>  지 역  </b>				
도 시[동 부]	22.6	62.7	13.4	1.4
농어촌[읍면부]	24.2	58.7	16.1	0.9
<b>  연 령  </b>				
20대 이하	25.5	61.2	12.2	1.1
30대	23.1	60.3	15.2	1.4
40대	21.5	62.4	14.6	1.4
50대	23.1	61.3	14.2	1.4
60대 이상	21.9	63.5	13.4	1.2
<b>  학 력  </b>				
중졸 이하	22.8	64.8	11.8	0.7
고졸 이하	23.9	61.9	12.9	1.4
대졸 이하	21.9	61.2	15.5	1.4
대학원졸 이상	29.8	59.8	7.4	3.1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4.5	62.5	10.7	2.4
사무직	21.2	60.0	17.4	1.4
서비스/판매직	23.8	60.2	14.6	1.4
생산/기술직	22.5	66.4	10.9	0.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1.5	58.9	9.0	0.6
단순노무직	20.3	66.3	11.2	2.3
기타	19.8	21.7	58.5	0.0
무직	22.3	63.3	13.3	1.1

## 9-16) 인권의 존중 정도-안전권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1.4	57.4	26.9	4.4
<b>  성 별  </b>				
남자	11.9	57.2	26.5	4.4
여자	10.8	57.5	27.2	4.4
<b>  지 역  </b>				
도 시[동 부]	11.7	56.7	27.2	4.5
농어촌[읍면부]	10.0	60.6	25.4	4.0
<b>  연 령  </b>				
20대 이하	13.8	56.5	25.0	4.7
30대	11.7	53.7	28.9	5.7
40대	10.0	56.3	28.3	5.4
50대	11.3	57.9	27.1	3.8
60대 이상	10.7	60.1	25.9	3.4
<b>  학 력  </b>				
중졸 이하	9.8	64.9	22.8	2.6
고졸 이하	12.4	55.8	27.8	3.9
대졸 이하	11.0	56.3	27.3	5.4
대학원졸 이상	12.1	51.3	31.5	5.1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3	55.7	27.2	6.7
사무직	11.1	54.6	28.0	6.3
서비스/판매직	12.5	55.7	27.5	4.3
생산/기술직	9.2	62.2	26.8	1.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1.5	66.0	19.8	2.7
단순노무직	9.8	59.4	26.0	4.9
기타	13.0	13.6	67.9	5.5
무직	11.8	58.3	26.3	3.5

## 9-17) 인권의 존중 정도-환경권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1.1	60.5	25.5	2.9
<b>  성 별  </b>				
남자	10.8	60.2	25.8	3.2
여자	11.4	60.9	25.2	2.5
<b>  지 역  </b>				
도 시[동 부]	11.4	60.0	25.7	2.9
농어촌[읍면부]	10.0	62.8	24.5	2.8
<b>  연 령  </b>				
20대 이하	14.3	59.9	22.6	3.2
30대	11.8	58.3	27.1	2.8
40대	10.1	56.6	29.9	3.4
50대	10.3	62.0	25.1	2.6
60대 이상	10.0	63.5	23.9	2.6
<b>  학 력  </b>				
중졸 이하	9.1	66.4	22.0	2.5
고졸 이하	12.3	60.8	24.3	2.6
대졸 이하	10.8	58.6	27.4	3.2
대학원졸 이상	11.0	53.5	31.6	3.9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7	58.1	25.8	5.4
사무직	11.3	57.6	27.6	3.5
서비스/판매직	12.6	58.3	26.2	3.0
생산/기술직	9.7	63.3	25.7	1.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9.4	70.6	18.7	1.3
단순노무직	8.8	61.6	25.1	4.6
기타	11.0	18.2	70.8	0.0
무직	10.9	62.8	24.1	2.2



## 9-18) 인권의 존중 정도-문화권

(단위: %)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전 체	14.4	65.0	18.6	1.9
<b>  성 별  </b>				
남자	15.2	64.4	18.4	1.9
여자	13.6	65.6	18.8	2.0
<b>  지 역  </b>				
도 시[동 부]	14.7	65.7	17.9	1.8
농어촌[읍면부]	13.3	62.0	22.1	2.6
<b>  연 령  </b>				
20대 이하	19.1	63.9	15.8	1.2
30대	15.5	64.2	18.3	2.0
40대	14.5	65.1	18.0	2.4
50대	12.8	66.2	19.5	1.5
60대 이상	12.2	65.3	20.2	2.3
<b>  학 력  </b>				
중졸 이하	11.1	64.4	21.4	3.0
고졸 이하	15.4	65.6	17.3	1.7
대졸 이하	14.6	64.9	18.6	1.8
대학원졸 이상	20.1	58.9	20.4	0.5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0	62.8	18.3	2.9
사무직	15.1	65.6	17.1	2.1
서비스/판매직	16.0	63.2	19.3	1.4
생산/기술직	12.6	68.8	16.7	1.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3.0	59.8	25.7	1.4
단순노무직	10.0	68.8	18.8	2.4
기타	9.9	31.6	58.5	0.0
무직	13.8	65.7	18.5	2.0

## 10-a.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1순위)

(단위: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민	학력/ 학벌	전과자	성소 수자	경제적 빈곤	병력	비정 규직	기타
전 체	8.2	5.7	10.8	16.5	5.4	8.4	8.6	7.3	3.6	17.6	2.4	5.2	0.3
성 별													
남자	6.7	5.7	10.2	16.6	5.3	8.2	9.4	7.5	4.0	17.8	2.3	5.9	0.4
여자	9.7	5.7	11.4	16.4	5.6	8.6	7.8	7.2	3.3	17.3	2.5	4.6	0.2
지 역													
도 시[동 부]	8.3	5.9	11.3	16.5	5.6	7.7	8.3	6.8	3.7	17.9	2.3	5.4	0.3
농어촌[읍면부]	7.9	5.1	8.8	16.2	4.8	11.3	9.8	9.8	3.4	15.9	2.5	4.4	0.2
연 령													
20대 이하	9.7	6.5	8.3	17.2	5.9	8.2	9.2	7.3	4.1	15.8	1.8	5.6	0.4
30대	8.2	6.8	9.5	17.5	5.3	8.1	8.5	5.2	4.5	16.5	2.7	6.4	0.6
40대	8.3	6.0	8.4	17.6	5.7	7.9	8.9	7.4	3.8	19.0	1.8	4.9	0.3
50대	9.2	5.6	8.7	16.7	5.5	9.2	8.8	7.1	3.9	16.9	2.2	5.9	0.1
60대 이상	6.6	4.6	15.8	14.7	5.0	8.3	8.0	8.5	2.6	18.7	2.9	4.2	0.2
학 력													
중졸 이하	5.2	3.2	16.1	15.2	4.5	9.3	7.2	9.8	2.3	20.8	3.7	2.4	0.1
고졸 이하	7.9	5.9	11.2	16.5	5.4	8.1	8.5	7.5	3.9	17.5	2.2	5.2	0.2
대졸 이하	9.3	6.4	8.9	16.9	5.8	8.2	9.1	6.4	3.8	16.5	2.1	6.2	0.4
대학원졸 이상	10.5	4.9	7.1	16.4	5.1	10.9	7.6	5.8	4.4	17.7	1.5	6.5	1.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4	3.4	6.8	17.2	4.0	6.7	11.0	5.0	5.7	20.2	1.7	8.2	0.6
사무직	10.6	7.8	9.4	17.9	6.4	7.2	8.4	6.1	3.1	15.6	2.1	5.0	0.5
서비스/판매직	9.1	6.1	10.0	16.6	6.5	8.6	8.6	6.7	3.2	16.3	1.9	6.1	0.2
생산/기술직	5.8	4.3	9.3	15.2	4.8	7.8	8.2	9.3	5.1	21.7	2.2	6.1	0.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5	2.7	13.8	16.4	3.6	13.4	7.0	11.8	4.3	16.5	3.5	3.2	0.2
단순노무직	10.4	3.3	14.9	13.5	4.8	9.0	9.2	7.2	1.7	17.5	3.3	5.0	0.3
기타	37.0	22.8	11.9	3.3	0.0	0.0	4.1	0.0	11.0	10.0	0.0	0.0	0.0
무직	6.4	5.7	12.7	16.2	4.8	8.9	8.3	8.1	3.5	18.2	2.8	4.1	0.2

### 10-b.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1순위+2순위)

(단위: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민	학력/ 학벌	전과자	성소 수자	경제적 빈곤	병력	비정 규직	기타
<b>전 체</b>	<b>10.6</b>	<b>9.5</b>	<b>18.6</b>	<b>30.9</b>	<b>11.3</b>	<b>17.9</b>	<b>18.5</b>	<b>13.8</b>	<b>10.1</b>	<b>37.8</b>	<b>7.9</b>	<b>12.0</b>	<b>0.4</b>
<b>  성 별  </b>													
남자	8.4	9.1	17.5	30.8	10.8	17.9	19.8	14.1	10.8	38.3	8.1	13.2	0.6
여자	12.7	9.9	19.6	31.1	11.8	17.9	17.1	13.5	9.5	37.3	7.7	10.7	0.2
<b>  지 역  </b>													
도 시[동 부]	10.7	10.0	19.2	31.3	11.4	17.2	18.3	13.1	10.2	37.9	7.7	12.1	0.5
농어촌[읍면부]	10.2	7.4	15.8	29.4	10.8	21.1	19.3	17.2	9.6	37.4	8.9	11.6	0.2
<b>  연 령  </b>													
20대 이하	12.9	11.8	15.3	29.7	12.6	17.8	18.3	13.1	12.5	35.3	6.4	13.4	0.5
30대	10.9	11.5	17.2	33.0	12.4	16.8	18.0	10.5	11.1	35.4	7.2	14.1	1.1
40대	10.7	10.5	15.3	32.3	10.5	17.6	18.5	14.7	10.4	38.5	7.2	12.6	0.4
50대	11.4	8.7	16.5	30.4	11.8	18.7	19.0	13.6	11.2	37.2	7.8	13.1	0.1
60대 이상	8.5	7.1	24.4	30.1	10.2	18.2	18.5	15.5	7.4	40.4	9.5	8.9	0.2
<b>  학 력  </b>													
중졸 이하	7.1	5.0	24.4	30.9	9.3	18.5	18.6	17.5	6.6	43.0	11.4	6.4	0.2
고졸 이하	10.8	9.7	19.0	29.9	11.4	17.7	18.4	14.0	10.6	38.6	7.4	11.6	0.3
대졸 이하	11.5	10.9	16.4	31.7	12.0	17.7	18.5	12.5	10.8	35.6	7.2	13.9	0.5
대학원졸 이상	13.6	8.8	13.3	32.3	9.9	22.4	17.7	9.3	11.4	33.3	4.8	19.3	1.9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4	6.8	13.6	32.7	8.0	15.2	22.0	10.5	13.2	41.1	6.1	17.6	0.9
사무직	12.6	12.0	18.4	34.1	14.1	16.4	17.0	13.0	9.6	33.2	6.1	12.3	0.5
서비스/판매직	11.4	10.6	17.7	30.7	12.1	17.6	18.1	12.7	10.2	37.7	8.0	12.2	0.3
생산/기술직	7.3	7.9	15.7	27.1	10.3	18.2	19.2	16.3	11.7	41.2	8.3	15.6	0.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1	4.2	18.5	33.1	8.1	25.5	16.7	22.1	11.6	38.1	11.0	6.0	0.4
단순노무직	14.2	6.4	24.3	29.0	8.7	17.8	18.7	12.6	6.8	40.3	8.2	11.9	0.3
기타	48.8	42.7	34.7	11.1	0.0	0.0	8.2	8.6	11.0	12.0	5.5	17.5	0.0
무직	9.4	9.1	20.3	29.9	10.8	18.9	18.9	14.5	9.5	38.9	8.9	9.9	0.3

## 11-a.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1순위)

(단위: %)

	민원 처리	경·검 조사 수사	병원 치료 입원	재판	대중 교통 이용	재화 용역 이용	가정	유치원 어린이 집	군대	보호 시설	교도소	직장	학교	온라인 이용	기타
전 체	7.4	19.5	9.1	6.4	5.1	5.9	3.2	2.1	5.8	15.8	4.0	11.7	1.4	2.5	0.1
성 별															
남자	7.4	20.4	8.8	6.2	4.7	5.8	3.2	2.0	7.3	15.0	4.0	11.4	1.3	2.4	0.0
여자	7.5	18.7	9.4	6.7	5.4	6.0	3.3	2.1	4.3	16.5	4.1	12.0	1.4	2.6	0.1
지 역															
도 시[동 부]	7.8	19.6	9.2	6.3	5.2	5.9	3.1	2.1	5.7	15.0	4.0	11.8	1.4	2.7	0.1
농어촌[읍면부]	5.6	19.1	8.4	7.0	4.3	6.2	3.9	2.2	6.3	19.4	4.1	11.1	1.0	1.4	0.0
연 령															
20대 이하	7.0	18.0	8.4	5.7	4.9	6.3	3.3	2.3	8.1	12.7	3.0	14.5	1.9	3.9	0.1
30대	7.5	20.1	8.2	6.8	5.1	5.9	2.9	2.8	6.8	12.9	3.1	12.9	1.8	3.0	0.1
40대	6.3	20.4	8.0	6.8	4.3	6.8	3.2	2.2	6.2	15.1	3.5	13.2	1.6	2.3	0.0
50대	8.3	22.2	7.7	7.1	4.7	4.9	4.1	2.2	4.8	15.3	4.0	10.9	1.2	2.8	0.0
60대 이상	7.8	17.9	11.6	6.0	5.8	5.9	2.9	1.5	4.4	19.8	5.4	9.0	0.7	1.3	0.1
학 력															
중졸 이하	7.3	17.0	12.2	5.6	4.7	6.4	2.7	1.4	4.1	21.8	6.4	8.7	0.8	0.8	0.1
고졸 이하	7.9	19.7	8.8	6.0	5.5	5.7	3.3	2.1	6.0	16.2	3.8	10.8	1.5	2.5	0.1
대졸 이하	7.1	19.9	8.4	6.9	4.9	6.1	3.4	2.3	6.2	13.5	3.4	13.2	1.4	3.0	0.0
대학원졸 이상	5.2	29.3	3.7	9.4	1.6	2.2	2.2	1.4	8.0	12.7	3.9	16.3	2.0	2.0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3	24.9	5.2	7.0	4.3	3.7	2.2	2.3	7.3	11.7	3.7	15.0	1.2	3.2	0.1
사무직	6.9	21.3	8.5	7.9	6.2	5.9	3.7	2.5	5.3	12.6	2.8	12.2	1.1	3.1	0.0
서비스/판매직	7.2	19.5	9.1	6.3	4.4	6.4	3.4	2.3	5.2	15.5	3.1	13.1	1.7	2.8	0.1
생산/기술직	7.6	18.6	8.8	4.8	3.8	6.6	2.3	1.6	7.2	18.0	4.0	13.2	1.4	2.1	0.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9	17.5	7.8	5.8	4.2	8.3	4.1	1.1	6.2	23.8	7.7	7.1	0.5	1.0	0.0
단순노무직	8.2	17.5	10.5	4.4	8.3	5.7	3.7	1.7	4.7	16.9	5.1	11.2	1.2	0.9	0.1
기타	11.8	5.5	3.1	0.0	11.0	27.7	11.8	0.0	2.0	8.2	0.0	12.1	6.9	0.0	0.0
무직	7.9	18.1	10.5	6.3	5.0	5.6	3.2	1.9	5.9	17.3	5.0	9.7	1.4	2.3	0.1

### 11-b. 인권침해·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1순위+2순위)

(단위: %)

	민원 처리	경·검 조사 수사	병원 치료 입원	재판	대중 교통 이용	재화 용역 이용	가정	유치원 어린이 집	군대	보호 시설	교도소	직장	학교	온라인 이용	기타
전 체	11.6	30.0	15.7	13.8	10.2	12.9	6.5	5.2	13.4	32.2	12.0	24.2	4.7	5.8	0.1
성 별															
남자	11.5	30.8	15.5	13.7	10.0	12.6	6.0	4.8	16.6	31.2	11.8	23.5	4.2	6.1	0.0
여자	11.6	29.2	15.9	13.8	10.3	13.3	7.0	5.6	10.3	33.1	12.3	25.0	5.1	5.5	0.1
지 역															
도 시[동 부]	12.2	30.1	15.9	13.5	10.7	12.7	6.1	5.2	13.2	31.1	11.8	24.6	5.0	6.3	0.1
농어촌[읍면부]	8.6	29.8	14.9	15.1	7.6	14.1	8.4	5.4	14.5	37.0	13.0	22.7	3.3	3.6	0.0
연 령															
20대 이하	10.6	27.4	14.5	12.2	10.1	14.6	6.2	5.2	16.8	27.6	9.8	27.8	7.2	8.1	0.1
30대	11.9	30.2	14.7	14.6	10.5	13.3	6.6	5.9	14.4	26.7	9.8	27.5	6.0	6.6	0.1
40대	10.7	31.1	13.9	14.3	9.6	12.9	6.0	6.0	13.9	30.2	10.2	27.7	5.3	6.7	0.0
50대	12.4	32.5	14.9	14.3	8.9	10.7	7.3	5.0	12.7	32.4	12.7	24.0	4.3	6.2	0.0
60대 이상	12.0	29.2	18.6	13.6	11.2	13.2	6.4	4.5	11.2	38.7	15.2	18.5	2.4	3.3	0.1
학 력															
중졸 이하	11.9	28.6	20.3	12.8	9.8	13.4	6.5	3.8	9.8	42.0	16.9	18.0	2.3	2.3	0.2
고졸 이하	11.8	30.1	15.6	13.3	10.5	11.9	6.5	5.1	14.2	33.1	12.0	23.3	4.9	6.0	0.1
대졸 이하	11.3	29.9	14.5	14.2	10.3	13.7	6.6	5.9	14.0	28.4	10.6	26.8	5.3	6.8	0.1
대학원졸 이상	12.1	45.2	8.2	20.6	2.7	8.7	4.1	1.6	14.2	27.9	8.5	33.2	4.1	7.2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2.2	36.8	9.2	16.1	7.7	9.5	4.5	4.2	18.9	25.6	9.9	30.0	5.5	7.2	0.3
사무직	11.3	30.6	15.1	14.7	13.2	13.7	7.2	6.4	12.0	27.0	9.5	25.9	4.8	7.1	0.0
서비스/판매직	11.2	29.3	16.1	14.3	9.3	13.5	6.6	5.5	12.2	31.9	10.1	26.1	5.9	6.0	0.1
생산/기술직	11.2	29.6	15.4	11.9	8.5	12.6	5.6	3.4	14.8	34.7	13.8	27.0	4.1	6.1	0.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5	29.2	13.8	14.9	8.3	13.6	6.7	3.3	15.6	44.0	19.7	16.2	1.8	3.2	0.0
단순노무직	11.7	28.9	17.9	10.8	13.2	15.0	7.1	3.4	12.0	34.8	13.0	23.7	2.9	3.7	0.1
기타	17.1	6.7	3.1	0.0	11.0	47.5	11.8	11.8	39.1	16.0	3.1	12.1	12.4	8.2	0.0
무직	12.3	29.1	17.4	13.1	9.7	12.3	6.6	5.4	13.4	34.8	14.2	20.7	4.2	5.1	0.1

## 12.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정도에 대한 평가

(단위: %)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전 체	2.2	36.4	57.3	4.1
<b>  성 별  </b>				
남자	2.3	36.8	57.2	3.7
여자	2.1	35.9	57.4	4.5
<b>  지 역  </b>				
도 시[동 부]	2.2	37.4	56.6	3.9
농어촌[읍면부]	2.3	31.9	60.5	5.2
<b>  연 령  </b>				
20대 이하	2.3	36.8	57.3	3.6
30대	3.1	39.6	53.8	3.5
40대	2.1	39.2	55.0	3.8
50대	1.9	35.4	58.6	4.1
60대 이상	1.9	33.4	59.8	4.9
<b>  학 력  </b>				
중졸 이하	1.5	28.6	64.3	5.6
고졸 이하	2.3	36.5	57.1	4.1
대졸 이하	2.3	38.7	55.2	3.7
대학원졸 이상	1.2	41.8	55.6	1.4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3	40.0	55.2	2.5
사무직	2.0	37.3	57.1	3.6
서비스/판매직	2.5	38.7	54.3	4.5
생산/기술직	2.7	33.5	60.0	3.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9	26.1	67.3	4.7
단순노무직	2.1	33.6	59.5	4.8
기타	6.7	76.8	16.5	0.0
무직	1.9	35.4	58.2	4.4

### 13.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정치적 의사표현 제지	종교 선택 활동 제한	단체 결성 및 가입 제한	집회나 시위 제한	신념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법 집행 또는 행정절차에 서의 차별	경험 없음
전 체	3.2	2.6	2.1	2.3	2.1	2.2	1.9	90.8
성 별								
남자	3.4	2.9	2.1	2.5	2.1	2.5	2.2	90.1
여자	3.0	2.3	2.1	2.1	2.1	2.0	1.6	91.5
지 역								
도 시·동 부	3.3	2.9	2.2	2.5	2.3	2.2	2.0	90.3
농어촌(읍면부)	2.7	1.4	1.6	1.5	1.1	2.6	1.5	92.9
연 령								
20대 이하	3.3	2.5	1.5	1.5	1.8	2.7	2.1	91.3
30대	3.3	2.6	2.4	4.3	3.3	3.3	1.8	88.7
40대	2.5	3.5	2.1	2.4	2.4	2.6	2.5	89.2
50대	2.6	2.6	2.5	2.0	1.8	1.6	1.7	91.2
60대 이상	3.9	2.1	2.1	1.9	1.8	1.6	1.6	92.3
학 력								
중졸 이하	2.5	1.1	1.0	0.9	1.0	1.2	1.3	94.6
고졸 이하	3.5	2.7	2.6	2.5	2.4	2.5	2.0	90.4
대졸 이하	3.2	3.0	2.1	2.6	2.3	2.4	2.0	89.9
대학원졸 이상	3.8	3.1	0.3	2.5	1.6	1.4	3.0	87.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1	3.3	1.4	1.7	2.2	2.5	4.1	88.1
사무직	3.0	3.3	2.1	3.5	2.2	2.5	1.9	89.5
서비스/판매직	3.7	3.0	1.9	2.3	2.4	2.6	1.3	90.8
생산/기술직	1.8	2.0	1.8	1.9	1.8	1.8	1.6	93.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	0.6	1.0	0.8	0.8	0.4	0.3	97.3
단순노무직	2.4	1.4	1.6	0.9	1.3	1.1	2.4	92.9
기타	37.1	11.8	34.7	24.1	1.3	21.1	19.8	38.8
무직	3.6	2.3	2.5	2.0	2.2	2.2	1.9	90.8

## 14. 인권침해 경험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안전 위협 (질병, 자연재해 제외)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함	일터, 일자리 관련 부당한 처우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 어려움	편의 시설 부족, 거리가 멀어 문화예술시설 이용 못함	신문, 방송, 인터넷에 원치 않는 사생활 공개	경험 없음
전 체	3.3	2.5	5.2	6.8	3.9	0.9	86.1
성 별							
남자	3.7	2.5	5.4	6.7	3.7	1.3	85.7
여자	2.9	2.4	5.0	6.9	4.0	0.5	86.6
지 역							
도 시[동 부]	3.5	2.4	5.4	6.9	3.8	1.0	85.9
농어촌[읍면부]	1.9	2.6	4.4	6.3	4.3	0.5	87.0
연 령							
20대 이하	3.9	1.7	4.7	7.4	4.3	1.2	85.0
30대	3.4	3.1	7.6	7.5	3.2	1.2	83.8
40대	4.5	2.8	5.9	8.1	5.7	1.0	82.3
50대	2.5	1.9	4.9	6.7	3.7	0.8	87.2
60대 이상	2.6	2.8	3.9	5.3	2.9	0.7	89.7
학 력							
중졸 이하	1.8	2.0	2.3	2.9	2.4	0.3	92.4
고졸 이하	3.3	2.6	4.5	6.7	3.4	0.9	86.8
대졸 이하	3.7	2.6	6.5	7.9	4.5	1.2	83.9
대학원졸 이상	2.5	0.0	10.0	13.1	11.0	0.9	75.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6	2.4	8.7	10.1	8.5	1.5	75.9
사무직	3.9	2.2	6.7	8.8	4.5	1.2	84.2
서비스/판매직	3.5	2.6	5.1	6.6	3.5	1.1	86.1
생산/기술직	1.6	2.1	4.6	4.4	2.6	0.6	89.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2	1.0	1.3	3.4	1.9	0.0	93.7
단순노무직	2.0	1.7	4.6	7.6	2.9	1.3	87.1
기타	19.8	54.5	35.9	17.3	0.0	0.0	38.8
무직	2.9	2.6	4.0	5.8	3.4	0.6	88.0



### 15.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불이익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피해·불이익 없었다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적/감정적 피해	기타
전 체	32.0	5.9	15.9	16.9	59.0	0.3
<b>  성 별  </b>						
남자	31.3	7.3	17.1	17.1	58.4	0.3
여자	32.7	4.4	14.7	16.7	59.7	0.2
<b>  지 역  </b>						
도 시[동 부]	31.7	6.0	15.4	17.2	59.8	0.2
농어촌[읍면부]	33.5	5.1	18.9	15.8	55.0	0.5
<b>  연 령  </b>						
20대 이하	24.1	7.1	15.6	10.9	66.2	0.4
30대	24.5	6.8	19.8	18.9	64.0	0.8
40대	32.0	4.7	12.3	16.7	60.3	0.1
50대	37.7	6.5	11.3	12.7	53.8	0.0
60대 이상	39.4	4.7	20.4	23.6	52.4	0.2
<b>  학 력  </b>						
중졸 이하	41.7	5.9	16.1	14.9	48.9	0.0
고졸 이하	33.5	7.2	15.5	19.1	57.8	0.0
대졸 이하	29.3	5.1	16.1	16.1	61.9	0.5
대학원졸 이상	31.2	3.4	17.1	11.4	55.4	0.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1.6	6.9	12.6	14.6	71.0	0.6
사무직	30.7	5.4	13.1	17.5	59.3	0.3
서비스/판매직	36.9	4.1	15.0	16.8	55.1	0.2
생산/기술직	34.0	8.3	16.2	16.9	56.0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6.8	4.9	13.0	10.2	47.1	0.0
단순노무직	40.7	4.5	9.2	11.3	52.2	0.0
기타	0.0	32.4	89.0	89.0	67.6	0.0
무직	31.3	6.4	19.8	17.1	59.4	0.3

## 16. 우리나라의 차별 정도에 대한 평가

(단위: %)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전 체	3.1	40.6	51.8	4.4
<b>  성 별  </b>				
남자	3.0	41.3	51.6	4.1
여자	3.2	40.0	52.0	4.7
<b>  지 역  </b>				
도 시[동 부]	3.1	41.5	51.0	4.4
농어촌[읍면부]	3.2	36.7	55.4	4.7
<b>  연 령  </b>				
20대 이하	3.0	40.0	53.6	3.4
30대	4.5	45.5	45.8	4.2
40대	3.5	45.0	47.5	4.0
50대	3.0	38.1	54.8	4.1
60대 이상	2.4	37.5	54.6	5.6
<b>  학 력  </b>				
중졸 이하	2.1	33.7	58.5	5.8
고졸 이하	3.1	39.7	52.6	4.5
대졸 이하	3.5	43.4	49.0	4.0
대학원졸 이상	2.3	48.7	49.0	0.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9	46.1	47.3	2.7
사무직	3.2	43.2	49.1	4.6
서비스/판매직	4.0	41.4	50.3	4.3
생산/기술직	2.1	42.5	52.0	3.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	34.1	59.6	4.8
단순노무직	2.4	39.4	52.2	6.0
기타	8.7	71.7	19.6	0.0
무직	2.9	37.4	54.9	4.8

### 17-1.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1)

(단위: %)

	성별		임신/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입장		장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8.2	91.8	1.8	98.2	2.0	98.0	3.8	96.2	1.1	98.9
성 별										
남자	5.7	94.3	0.0	100.0	2.0	98.0	4.7	95.3	1.1	98.9
여자	10.7	89.3	3.5	96.5	1.9	98.1	2.9	97.1	1.2	98.8
지 역										
도 시[동 부]	8.7	91.3	1.8	98.2	1.9	98.1	3.9	96.1	1.1	98.9
농어촌[읍면부]	6.1	93.9	1.6	98.4	2.4	97.6	3.5	96.5	1.4	98.6
연 령										
20대 이하	11.4	88.6	0.8	99.2	1.0	99.0	2.2	97.8	0.1	99.9
30대	12.3	87.7	4.3	95.7	3.3	96.7	5.8	94.2	1.4	98.6
40대	8.5	91.5	2.6	97.4	2.5	97.5	5.2	94.8	1.2	98.8
50대	7.4	92.6	1.0	99.0	1.6	98.4	2.9	97.1	1.2	98.8
60대 이상	4.7	95.3	1.0	99.0	1.8	98.2	3.4	96.6	1.5	98.5
학 력										
중졸 이하	3.7	96.3	0.4	99.6	1.3	98.7	1.9	98.1	1.6	98.4
고졸 이하	7.7	92.3	1.4	98.6	1.9	98.1	3.2	96.8	1.1	98.9
대졸 이하	10.0	90.0	2.4	97.6	2.2	97.8	4.8	95.2	0.9	99.1
대학원졸 이상	12.6	87.4	4.2	95.8	4.0	96.0	6.4	93.6	4.5	95.5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1.9	88.1	2.6	97.4	4.5	95.5	8.0	92.0	2.1	97.9
사무직	10.2	89.8	1.2	98.8	1.5	98.5	4.6	95.4	0.8	99.2
서비스/판매직	8.4	91.6	1.5	98.5	1.9	98.1	3.3	96.7	0.6	99.4
생산/기술직	3.1	96.9	0.1	99.9	1.0	99.0	2.8	97.2	0.7	99.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6	98.4	0.0	100.0	1.0	99.0	1.4	98.6	0.5	99.5
단순노무직	6.3	93.7	1.0	99.0	1.2	98.8	2.0	98.0	2.2	97.8
기타	61.9	38.1	0.0	100.0	42.7	57.3	54.5	45.5	0.0	100.0
무직	8.2	91.8	2.9	97.1	2.0	98.0	3.2	96.8	1.6	98.4

1) 없다는 비해당 포함

(다음에 계속)

## 17-1.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2)

(단위: %)

	연령		경제 지위		고용 형태		학력/학벌		인종, 출신 국가/민족, 피부색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8.2	91.8	7.1	92.9	4.5	95.5	5.2	94.8	0.7	99.3
성 별										
남자	7.8	92.2	8.1	91.9	4.5	95.5	5.9	94.1	0.7	99.3
여자	8.6	91.4	6.2	93.8	4.5	95.5	4.6	95.4	0.8	99.2
지 역										
도 시[동 부]	8.5	91.5	7.3	92.7	4.6	95.4	5.4	94.6	0.7	99.3
농어촌[읍면부]	7.2	92.8	6.2	93.8	4.1	95.9	4.6	95.4	0.7	99.3
연 령										
20대 이하	8.2	91.8	5.6	94.4	4.9	95.1	6.2	93.8	0.4	99.6
30대	7.0	93.0	9.2	90.8	6.0	94.0	7.2	92.8	1.5	98.5
40대	6.1	93.9	8.9	91.1	5.4	94.6	5.3	94.7	1.1	98.9
50대	5.6	94.4	5.6	94.4	3.9	96.1	4.1	95.9	0.3	99.7
60대 이상	11.9	88.1	6.9	93.1	3.4	96.6	4.3	95.7	0.5	99.5
학 력										
중졸 이하	10.4	89.6	4.3	95.7	2.3	97.7	3.6	96.4	0.1	99.9
고졸 이하	8.5	91.5	6.7	93.3	4.5	95.5	5.3	94.7	0.8	99.2
대졸 이하	7.2	92.8	8.3	91.7	5.1	94.9	5.6	94.4	0.8	99.2
대학원졸 이상	11.8	88.2	11.1	88.9	6.6	93.4	5.9	94.1	3.9	96.1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2.3	87.7	14.0	86.0	6.2	93.8	8.1	91.9	2.4	97.6
사무직	6.2	93.8	7.2	92.8	3.7	96.3	4.5	95.5	0.4	99.6
서비스/판매직	7.4	92.6	7.9	92.1	6.1	93.9	7.2	92.8	0.7	99.3
생산/기술직	4.0	96.0	5.8	94.2	5.1	94.9	3.3	96.7	0.4	99.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0	96.0	1.5	98.5	0.5	99.5	1.2	98.8	0.3	99.7
단순노무직	15.6	84.4	10.1	89.9	7.3	92.7	5.0	95.0	0.4	99.6
기타	22.8	77.2	34.7	65.3	1.3	98.7	12.3	87.7	0.0	100.0
무직	9.7	90.3	5.3	94.7	3.3	96.7	4.5	95.5	0.7	99.3

1) 없다는 비해당 포함

(다음에 계속)

### 17-1.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3)

(단위: %)

	신체조건		혼인상황		가족상황		질병/병력		출신지역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3.9	96.1	2.0	98.0	1.1	98.9	1.2	98.8	2.1	97.9	0.5	99.5
성 별												
남자	3.5	96.5	1.4	98.6	0.8	99.2	1.2	98.8	2.2	97.8	0.4	99.6
여자	4.3	95.7	2.5	97.5	1.3	98.7	1.3	98.7	2.1	97.9	0.6	99.4
지 역												
도 시[동 부]	4.3	95.7	2.0	98.0	1.1	98.9	1.2	98.8	2.0	98.0	0.5	99.5
농어촌[읍면부]	2.0	98.0	1.6	98.4	1.2	98.8	1.5	98.5	3.0	97.0	0.6	99.4
연 령												
20대 이하	5.2	94.8	1.0	99.0	0.5	99.5	0.5	99.5	2.1	97.9	0.3	99.7
30대	6.8	93.2	2.9	97.1	2.0	98.0	1.9	98.1	2.0	98.0	0.9	99.1
40대	5.0	95.0	3.0	97.0	1.6	98.4	1.3	98.7	2.5	97.5	0.8	99.2
50대	3.2	96.8	1.6	98.4	0.7	99.3	0.9	99.1	1.9	98.1	0.4	99.6
60대 이상	1.4	98.6	1.7	98.3	0.9	99.1	1.5	98.5	2.2	97.8	0.3	99.7
학 력												
중졸 이하	0.8	99.2	1.3	98.7	0.6	99.4	1.5	98.5	0.9	99.1	0.1	99.9
고졸 이하	3.1	96.9	1.7	98.3	1.0	99.0	1.1	98.9	2.6	97.4	0.5	99.5
대졸 이하	5.4	94.6	2.4	97.6	1.2	98.8	1.2	98.8	2.1	97.9	0.6	99.4
대학원졸 이상	7.4	92.6	4.3	95.7	4.3	95.7	3.4	96.6	5.6	94.4	2.8	97.2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3	91.7	4.8	95.2	2.5	97.5	2.4	97.6	5.5	94.5	1.9	98.1
사무직	5.8	94.2	1.7	98.3	0.9	99.1	1.0	99.0	1.4	98.6	0.3	99.7
서비스/판매직	3.9	96.1	2.6	97.4	1.4	98.6	1.0	99.0	2.1	97.9	0.5	99.5
생산/기술직	1.6	98.4	1.6	98.4	0.4	99.6	0.7	99.3	1.1	98.9	0.3	99.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3	99.7	1.5	98.5	0.2	99.8	0.9	99.1	1.0	99.0	0.2	99.8
단순노무직	3.0	97.0	2.2	97.8	1.3	98.7	2.1	97.9	2.6	97.4	0.4	99.6
기타	7.9	92.1	0.0	100.0	0.0	100.0	1.3	98.7	6.9	93.1	0.0	100.0
무직	2.8	97.2	1.1	98.9	0.9	99.1	1.4	98.6	2.1	97.9	0.4	99.6

1) 없다는 비해당 포함

## 17-1-1) 차별 경험의 유형 (해당사항 모두 선택) (1)

(단위: %)

	성별				임신/출산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55.0	29.1	24.3	13.2	15.1	59.3	23.7	15.5
성 별								
남자	52.6	25.2	27.1	10.2	0.0	0.0	0.0	0.0
여자	56.4	31.2	22.9	14.8	15.1	59.3	23.7	15.5
지 역								
도 시[동 부]	57.3	29.1	22.5	13.1	15.6	59.6	21.7	17.6
농어촌[읍면부]	40.1	29.3	36.8	13.4	12.9	58.0	33.7	5.1
연 령								
20대 이하	54.7	26.3	30.0	17.0	0.0	35.5	20.8	47.1
30대	48.1	36.1	26.5	8.1	19.0	58.3	29.3	7.9
40대	55.7	33.0	19.8	13.1	16.1	71.3	12.5	11.9
50대	64.5	21.5	19.3	8.4	17.2	67.1	29.9	7.6
60대 이상	54.7	27.3	23.8	19.8	9.9	47.7	26.6	30.3
학 령								
중졸 이하	46.8	16.5	31.4	28.0	8.4	33.9	0.0	78.0
고졸 이하	58.1	23.7	26.2	11.4	24.2	58.6	20.3	15.9
대졸 이하	54.7	33.4	22.3	12.7	12.1	59.6	27.8	12.1
대학원졸 이상	41.9	44.7	26.1	4.9	3.3	83.7	0.0	16.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0.0	44.4	28.4	11.6	11.6	80.2	4.0	7.6
사무직	60.8	27.9	21.3	11.5	2.5	46.7	54.5	5.5
서비스/판매직	56.4	30.0	22.7	14.9	31.7	73.3	14.4	13.6
생산/기술직	64.4	30.0	10.1	8.4	0.0	0.0	100.0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6.3	37.6	8.0	15.9	0.0	0.0	0.0	0.0
단순노무직	58.8	17.9	30.6	7.6	16.3	71.1	18.1	38.3
기타	19.1	22.3	58.6	0.0	0.0	0.0	0.0	0.0
무직	51.4	25.5	26.4	15.4	12.6	52.5	23.0	19.7

(다음에 계속)

### 17-1-1) 차별 경험의 유형 (해당사항 모두 선택) (2)

(단위: %)

	종교				사상 정치적 입장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17.9	21.1	11.2	57.2	40.8	16.1	12.3	43.8
<b>  성 별  </b>								
남자	19.4	23.3	8.9	53.9	44.5	15.3	11.7	43.4
여자	16.5	18.9	13.5	60.7	34.8	17.4	13.1	44.4
<b>  지 역  </b>								
도 시[동 부]	20.9	16.3	11.1	58.2	44.6	16.5	10.0	43.3
농어촌[읍면부]	7.4	38.4	11.5	53.6	21.2	13.9	23.9	46.0
<b>  연 령  </b>								
20대 이하	0.0	0.0	10.2	89.8	58.8	11.2	3.7	48.6
30대	23.8	25.4	14.0	44.6	37.1	11.6	20.3	38.8
40대	27.1	18.0	11.9	47.1	31.8	21.0	10.1	49.8
50대	15.0	27.6	5.2	53.8	49.7	14.0	13.1	48.7
60대 이상	12.2	22.8	11.6	69.1	40.8	18.4	9.8	38.0
<b>  학 력  </b>								
중졸 이하	9.0	17.1	7.3	87.1	28.5	12.5	18.8	42.8
고졸 이하	11.1	16.0	14.6	65.7	38.3	19.0	8.6	49.7
대졸 이하	23.6	26.1	10.1	45.4	43.7	14.9	13.9	40.1
대학원졸 이상	35.4	11.1	0.0	53.5	41.4	19.4	0.0	60.1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0.5	15.0	9.6	46.7	49.8	12.2	6.7	47.5
사무직	18.1	31.1	1.5	53.6	44.6	13.6	6.3	51.6
서비스/판매직	22.6	4.5	18.5	55.7	42.6	18.1	12.7	41.1
생산/기술직	2.1	60.7	15.5	30.9	58.2	4.7	18.4	24.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9	0.0	30.7	60.4	36.6	21.5	4.0	37.9
단순노무직	17.4	13.5	21.3	69.1	46.2	0.0	26.1	38.2
기타	27.7	27.7	0.0	72.3	21.7	58.1	20.2	0.0
무직	9.8	26.9	10.0	66.1	27.5	19.0	17.7	46.3

(다음에 계속)

## 17-1-1) 차별 경험의 유형 (해당사항 모두 선택) (3)

(단위: %)

	장애				연령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33.5	34.6	36.9	35.4	30.7	39.7	23.0	26.2
성 별								
남자	32.7	35.9	36.2	35.7	31.9	42.8	22.8	24.3
여자	34.3	33.4	37.5	35.2	29.6	37.0	23.3	27.9
지 역								
도 시[동 부]	35.6	35.3	32.2	38.5	32.3	40.8	21.0	24.8
농어촌[읍면부]	26.2	31.8	53.5	24.4	21.7	33.6	34.3	34.2
연 령								
20대 이하	65.9	20.8	54.9	65.9	49.9	28.8	18.5	17.2
30대	40.4	34.9	41.7	34.0	32.9	57.3	12.9	13.5
40대	22.2	47.6	28.7	32.2	34.6	38.9	17.0	31.1
50대	45.8	29.3	24.0	40.8	33.8	37.7	17.7	28.7
60대 이상	27.6	31.6	44.5	33.5	20.1	39.5	31.5	31.5
학 력								
중졸 이하	38.5	28.2	55.0	31.9	19.5	28.7	39.6	36.5
고졸 이하	28.7	38.2	29.8	31.7	21.5	46.0	23.3	25.0
대졸 이하	37.1	32.7	38.0	42.3	45.0	38.8	15.0	22.5
대학원졸 이상	22.8	46.8	8.5	28.1	23.3	43.0	20.6	24.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0.3	40.3	21.2	22.1	28.2	51.3	14.2	22.6
사무직	34.9	50.4	43.5	43.3	56.2	30.5	19.2	24.0
서비스/판매직	43.8	21.5	14.8	36.0	30.7	40.3	21.7	23.2
생산/기술직	41.3	55.1	11.4	27.1	31.1	47.2	6.0	31.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5.5	31.6	16.9	42.9	32.1	31.4	27.7	11.1
단순노무직	60.9	56.1	6.3	76.0	18.7	45.6	20.5	30.8
기타	0.0	0.0	0.0	0.0	0.0	100.0	0.0	0.0
무직	24.7	24.5	56.1	29.0	24.0	37.0	30.7	29.5

(다음에 계속)



### 17-1-1) 차별 경험의 유형 (해당사항 모두 선택) (4)

(단위: %)

	경제 지위				고용 형태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31.0	33.3	26.4	28.6	18.0	61.3	10.2	24.0
<b>  성 별  </b>								
남자	33.5	35.7	26.3	26.8	20.4	56.9	12.4	24.1
여자	27.7	30.1	26.5	30.8	15.6	65.6	7.9	23.9
<b>  지 역  </b>								
도 시[동 부]	32.2	33.0	25.9	27.3	19.2	60.8	11.1	22.6
농어촌[읍면부]	24.5	34.4	29.2	35.4	12.0	63.6	5.6	31.1
<b>  연 령  </b>								
20대 이하	46.2	31.8	22.8	21.6	21.0	72.7	1.8	18.6
30대	26.9	43.5	27.0	21.5	23.3	57.1	12.6	20.1
40대	36.7	24.5	24.8	28.6	17.4	63.8	8.4	21.3
50대	30.5	31.0	24.0	29.9	21.8	57.3	8.8	23.8
60대 이상	22.4	35.0	30.1	36.0	8.1	56.2	17.7	35.1
<b>  학 령  </b>								
중졸 이하	15.8	34.3	32.6	36.2	12.0	53.2	17.3	23.2
고졸 이하	25.3	31.0	27.6	36.4	18.3	54.6	12.5	27.2
대졸 이하	36.5	35.1	24.0	22.4	18.5	66.9	7.9	22.3
대학원졸 이상	50.2	18.9	39.3	24.5	21.7	70.2	0.0	14.8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7.9	34.9	21.3	34.9	17.9	54.6	8.0	36.3
사무직	42.6	36.6	19.4	19.7	17.3	71.5	2.2	25.9
서비스/판매직	31.8	30.8	28.7	28.2	17.0	64.5	8.6	23.6
생산/기술직	27.7	42.2	23.2	27.4	24.7	67.0	9.5	10.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5.2	19.8	18.5	52.3	21.0	33.5	0.0	45.5
단순노무직	18.1	28.4	37.5	30.6	10.2	72.5	11.5	23.4
기타	0.0	34.2	100.0	0.0	100.0	100.0	0.0	0.0
무직	27.9	31.2	28.3	32.8	19.5	46.5	19.2	23.5

(다음에 계속)

## 17-1-1) 차별 경험의 유형 (해당사항 모두 선택) (5)

(단위: %)

	학력/학벌				인종, 출신 국가/민족, 피부색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5.8	54.0	11.7	29.3	18.8	31.2	25.1	38.0
성 별								
남자	26.0	57.9	9.0	27.0	20.5	46.1	5.2	39.4
여자	25.5	49.0	15.1	32.2	17.4	17.7	43.1	36.8
지 역								
도 시[동 부]	27.3	54.0	8.2	28.6	19.1	30.4	21.6	40.8
농어촌[읍면부]	17.5	54.0	30.9	33.2	17.7	35.1	41.8	25.0
연 령								
20대 이하	34.1	50.4	4.0	24.6	22.9	15.1	62.6	33.7
30대	31.5	47.8	15.1	27.3	34.0	20.5	15.9	36.7
40대	32.3	51.9	15.3	22.7	17.0	38.3	28.9	41.1
50대	20.9	62.4	10.2	25.1	0.0	48.4	30.3	21.3
60대 이상	12.0	58.8	13.4	42.4	4.1	39.0	13.6	45.6
학 력								
중졸 이하	12.9	49.5	15.7	48.7	19.8	26.8	73.2	0.0
고졸 이하	19.6	56.6	11.4	31.8	12.9	33.4	27.9	30.8
대졸 이하	32.6	53.5	11.3	23.2	19.2	32.0	23.9	44.8
대학원졸 이상	43.4	38.9	6.9	31.0	46.6	16.4	3.1	45.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1.8	59.0	5.2	32.3	26.6	27.5	12.4	61.2
사무직	38.4	45.7	6.3	40.1	19.7	32.7	0.0	63.7
서비스/판매직	34.1	55.0	8.5	23.0	22.3	28.7	34.1	28.0
생산/기술직	22.3	60.5	15.6	25.1	0.0	65.3	0.0	34.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8.2	24.5	45.1	42.3	31.1	0.0	31.1	68.9
단순노무직	12.8	60.5	7.1	33.3	38.6	28.1	33.3	0.0
기타	10.4	10.4	89.6	10.4	0.0	0.0	0.0	0.0
무직	12.2	55.1	19.7	28.9	10.1	32.5	39.4	21.2

(다음에 계속)

### 17-1-1) 차별 경험의 유형 (해당사항 모두 선택) (6)

(단위: %)

	신체조건				혼인상황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64.4	15.1	14.8	25.7	35.4	24.9	13.9	36.9
성 별								
남자	70.9	11.6	14.3	26.8	34.4	23.6	12.6	44.9
여자	59.0	18.0	15.2	24.8	35.9	25.6	14.6	32.5
지 역								
도 시[동 부]	67.4	14.9	13.9	24.7	37.4	26.9	11.8	36.6
농어촌[읍면부]	33.2	17.3	24.3	35.9	24.1	13.4	26.3	38.9
연 령								
20대 이하	71.1	19.6	21.2	25.1	44.9	48.0	2.6	26.0
30대	60.3	20.0	8.1	26.4	19.1	31.3	22.3	35.5
40대	63.2	8.9	15.8	26.4	47.6	19.7	12.7	35.6
50대	74.9	11.5	16.1	15.7	45.5	22.0	12.7	28.2
60대 이상	47.4	12.1	14.1	37.8	27.7	18.8	12.3	48.4
학 력								
중졸 이하	55.4	7.9	15.2	45.3	37.4	14.4	3.5	44.7
고졸 이하	61.0	13.9	13.4	22.8	30.2	22.8	20.5	32.8
대졸 이하	65.6	16.3	15.5	26.7	38.9	26.9	12.8	37.8
대학원졸 이상	82.9	8.5	13.8	9.1	18.9	42.7	0.0	38.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4.0	16.7	19.2	26.6	30.6	43.0	7.4	33.6
사무직	81.2	10.1	11.4	21.8	40.9	19.9	9.9	33.7
서비스/판매직	65.4	16.2	16.2	22.7	38.9	24.6	22.8	31.7
생산/기술직	61.3	11.6	16.7	27.3	53.6	15.8	0.0	50.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0.5	0.0	0.0	79.5	70.8	0.0	0.0	32.2
단순노무직	37.6	20.7	11.6	43.2	30.4	11.3	13.5	44.8
기타	100.0	0.0	0.0	0.0	0.0	0.0	0.0	0.0
무직	52.9	19.6	15.3	30.0	16.1	23.9	16.5	46.2

(다음에 계속)

## 17-1-1) 차별 경험의 유형 (해당사항 모두 선택) (7)

(단위: %)

	가족상황				질병/병력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6.6	24.9	20.6	41.8	16.2	31.6	29.2	37.3
성 별								
남자	22.6	34.2	14.5	43.3	24.9	38.5	20.8	31.8
여자	29.1	19.1	24.5	40.9	8.0	25.1	37.2	42.6
지 역								
도 시[동 부]	28.7	24.6	20.0	43.5	17.4	36.0	22.0	40.2
농어촌[읍면부]	17.7	26.2	23.2	34.9	12.1	16.0	54.7	27.1
연 령								
20대 이하	46.0	47.4	27.6	47.5	13.4	20.2	17.6	62.7
30대	23.0	13.4	26.5	42.2	19.7	41.2	28.0	34.3
40대	27.6	27.5	20.2	38.7	21.9	41.4	27.0	16.6
50대	23.4	34.3	22.5	31.0	19.9	20.9	26.6	39.8
60대 이상	24.9	23.2	10.9	48.7	10.0	26.7	34.8	44.1
학 력								
중졸 이하	6.2	44.3	3.7	45.8	6.6	14.6	41.5	50.2
고졸 이하	29.7	23.4	23.4	38.9	17.9	34.6	21.3	35.3
대졸 이하	27.0	24.1	22.7	42.9	20.4	34.4	29.7	35.9
대학원졸 이상	32.8	14.8	8.9	43.5	0.0	52.8	34.7	12.5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6.0	22.6	14.1	56.2	7.1	44.8	27.5	32.7
사무직	29.6	23.1	13.5	38.9	36.4	38.9	4.3	45.9
서비스/판매직	33.4	17.2	26.1	40.7	18.0	33.0	37.4	18.5
생산/기술직	48.9	51.1	46.8	0.0	18.8	65.1	7.4	34.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0.0	0.0	100.0	8.2	0.0	77.5	22.5
단순노무직	8.8	12.5	10.8	67.9	13.1	31.2	49.0	59.9
기타	0.0	0.0	0.0	0.0	100.0	0.0	0.0	0.0
무직	18.8	36.6	22.3	33.7	9.7	19.8	32.4	41.9

(다음에 계속)

### 17-1-1) 차별 경험의 유형 (해당사항 모두 선택) (8)

(단위: %)

	출신지역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신체적/ 언어적 폭력	일자리 관련 차별	물건을 사거나 시설 이용 시 차별	따돌림이나 배제
전 체	25.6	18.8	12.8	51.3	17.7	34.1	24.1	29.3
성 별								
남자	26.4	22.2	9.4	51.3	28.4	35.1	8.4	28.0
여자	24.8	15.3	16.2	51.4	9.9	33.3	35.4	30.1
지 역								
도 시[동 부]	26.3	22.5	12.8	46.8	20.3	37.1	16.1	31.5
농어촌[읍면부]	23.3	7.3	13.0	65.1	7.7	22.7	54.0	20.7
연 령								
20대 이하	43.3	7.3	16.0	33.5	19.2	43.1	32.7	30.8
30대	31.6	24.3	15.5	49.8	31.0	28.6	18.0	22.4
40대	25.5	25.0	14.9	47.8	9.6	17.4	41.4	31.6
50대	27.1	25.2	9.4	47.0	5.9	54.5	8.7	36.7
60대 이상	12.0	14.7	10.2	67.1	21.0	46.6	12.9	27.9
학 력								
중졸 이하	34.2	3.9	9.9	56.2	64.0	52.6	0.0	0.0
고졸 이하	23.3	18.3	10.5	55.0	19.2	39.2	15.8	30.8
대졸 이하	28.0	21.3	13.5	48.5	16.6	30.8	33.4	24.3
대학원졸 이상	9.8	19.9	36.0	34.3	0.0	22.8	13.8	63.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7.6	23.9	9.6	64.5	15.2	31.7	18.9	43.6
사무직	31.3	24.6	10.9	51.5	4.5	19.9	44.9	30.8
서비스/판매직	27.6	20.0	15.0	46.5	21.1	19.6	38.0	30.0
생산/기술직	42.8	16.1	6.1	36.9	68.3	31.7	0.0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3.3	5.4	0.0	77.4	0.0	0.0	0.0	100.0
단순노무직	10.1	6.0	9.3	80.6	24.9	0.0	40.3	34.8
기타	100.0	0.0	0.0	0.0	0.0	0.0	0.0	0.0
무직	31.1	16.2	16.5	43.2	14.7	62.1	11.4	13.5

## 18. 차별로 인한 피해·불이익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피해·불이익 없었다	신체적 상해	재산/금전상 손해	사회적 명예 실추	정신적/감정적 피해	기타
전 체	23.3	1.8	10.8	12.4	72.8	0.1
<b>  성 별  </b>						
남자	25.1	1.4	11.0	12.0	71.5	0.2
여자	21.5	2.2	10.6	12.8	74.1	0.0
<b>  지 역  </b>						
도 시[동 부]	24.5	1.6	10.2	12.1	71.6	0.1
농어촌[읍면부]	15.8	3.0	14.4	14.2	80.1	0.0
<b>  연 령  </b>						
20대 이하	24.3	2.8	10.4	8.8	70.0	0.3
30대	21.7	0.8	11.1	13.0	74.1	0.3
40대	19.7	2.4	12.8	13.3	75.9	0.0
50대	26.7	2.0	8.9	10.3	70.1	0.0
60대 이상	24.0	1.1	10.6	15.1	73.4	0.1
<b>  학 력  </b>						
중졸 이하	22.1	2.5	4.1	8.7	76.4	0.0
고졸 이하	24.2	2.4	11.3	13.8	71.6	0.0
대졸 이하	23.3	1.1	12.0	12.2	72.6	0.2
대학원졸 이상	10.9	2.6	10.3	14.3	80.3	0.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2.1	1.7	10.1	9.2	74.6	0.5
사무직	24.0	1.3	7.7	12.4	71.8	0.2
서비스/판매직	25.7	1.1	11.9	11.2	71.1	0.0
생산/기술직	17.6	1.6	18.1	9.4	75.4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1	0.7	3.2	12.3	80.3	0.0
단순노무직	13.0	2.1	7.6	9.9	84.8	0.0
기타	8.8	0.0	58.4	69.9	91.2	0.0
무직	25.2	2.8	10.5	14.7	70.4	0.0

### 19-1-a.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 (1순위) (1)

(단위: %)

	가족 또는 친인척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손)자녀	형제 자매/배 우자의 형제자 매	가족 이외 친인척	기타	직장 상사, 상급자	이웃 동호회, 동창회 등	학교 선후배, 친구, 동료	학원 강사, 교사, 교수	기타
전 체	4.3	3.0	0.6	3.1	3.8	0.1	24.3	13.5	7.7	0.3	0.1
성 별											
남자	2.9	2.6	0.6	2.7	2.7	0.0	26.4	12.6	9.7	0.4	0.0
여자	5.7	3.4	0.6	3.5	4.8	0.2	22.3	14.3	5.8	0.2	0.1
지 역											
도 시[동 부]	4.4	3.3	0.6	3.3	3.6	0.1	25.1	13.5	7.9	0.3	0.1
농어촌[읍면부]	3.8	1.5	0.5	2.2	4.5	0.0	19.5	13.2	6.9	0.0	0.0
연 령											
20대 이하	0.3	3.3	0.5	1.2	3.4	0.0	30.2	6.6	17.7	1.1	0.0
30대	2.4	3.0	0.8	1.6	4.4	0.4	35.9	10.1	8.0	0.4	0.0
40대	5.0	4.3	0.2	3.4	3.4	0.1	27.7	12.2	6.5	0.0	0.0
50대	7.5	3.6	0.5	3.4	3.3	0.0	24.6	13.2	3.9	0.0	0.3
60대 이상	5.7	1.5	0.9	4.9	4.1	0.1	10.1	21.1	4.7	0.1	0.0
학 력											
중졸 이하	5.0	0.5	0.6	4.3	5.0	0.2	6.3	23.0	4.6	0.0	0.0
고졸 이하	5.4	3.3	0.7	4.1	4.1	0.1	18.5	14.3	7.8	0.7	0.0
대졸 이하	3.6	3.2	0.6	2.1	3.4	0.1	32.5	10.9	8.6	0.1	0.0
대학원졸 이상	0.0	7.3	0.5	4.6	1.0	0.0	30.3	4.8	4.1	0.0	1.6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9	2.5	0.7	3.8	2.0	0.3	32.3	11.7	4.7	0.0	0.3
사무직	5.3	2.5	0.7	1.3	3.1	0.0	38.6	11.3	7.8	0.2	0.0
서비스/판매직	3.7	3.8	0.8	2.9	4.4	0.1	24.6	12.8	7.6	0.3	0.0
생산/기술직	1.8	5.3	0.3	3.5	0.8	0.0	33.1	10.4	6.7	0.0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0	1.0	0.0	5.5	4.1	0.0	2.7	12.6	14.8	0.0	0.0
단순노무직	5.3	0.4	0.0	3.4	4.2	0.5	13.7	16.6	2.6	0.0	0.0
기타	0.0	0.0	0.0	0.0	7.0	0.0	35.9	15.2	39.4	0.0	0.0
무직	4.7	2.9	0.6	4.1	4.9	0.2	11.5	16.5	9.2	0.7	0.1

(다음에 계속)

## 19-1-a.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 (1순위) (2)

(단위: %)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상황이나 환경		
	공권력 가진 사람	집/방, 상가 소유주	고객	서비스 업 사업자 및 종사자	거래처 사람	면접관, 채용관	길에서 만난 행인	온라인 상으로 만난 사람	기타	자연 환경	주변 생활 환경	기타
전 체	3.8	0.9	4.5	7.5	2.0	3.0	3.6	2.0	0.4	5.3	5.9	0.3
성 별												
남자	4.6	1.1	4.3	6.8	2.6	2.6	2.7	2.3	0.5	5.9	5.7	0.3
여자	3.0	0.8	4.6	8.1	1.5	3.4	4.6	1.8	0.2	4.7	6.1	0.2
지 역												
도 시[동 부]	3.8	0.7	4.3	7.0	1.9	3.1	3.8	2.0	0.3	5.2	5.3	0.2
농어촌[읍면부]	3.7	1.9	5.8	10.1	2.5	2.6	2.8	2.1	0.6	6.2	9.1	0.5
연 령												
20대 이하	0.8	0.4	4.6	4.8	2.1	2.7	4.8	4.1	0.7	4.2	6.3	0.2
30대	2.6	1.5	4.6	5.8	1.1	2.6	2.4	1.8	0.2	6.3	4.0	0.0
40대	5.3	0.6	4.6	3.7	2.5	2.4	1.6	2.0	0.4	6.1	7.5	0.2
50대	3.7	0.9	6.7	3.9	3.7	2.4	3.2	2.3	0.1	6.2	5.7	0.8
60대 이상	5.5	1.0	2.8	15.4	1.1	4.2	5.5	0.7	0.4	4.2	5.8	0.2
학 령												
중졸 이하	6.1	1.2	2.5	16.4	0.9	3.4	7.5	0.0	0.5	5.3	6.6	0.2
고졸 이하	3.1	0.9	4.9	8.7	2.3	3.2	4.3	2.1	0.1	5.8	5.4	0.2
대졸 이하	3.5	0.8	4.7	4.7	2.1	2.8	2.2	2.4	0.6	4.8	6.0	0.3
대학원졸 이상	11.0	1.7	3.5	0.4	2.3	2.1	5.3	3.6	0.4	9.4	6.2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6	0.8	4.3	2.5	2.5	1.8	2.5	2.1	2.1	5.9	4.4	0.2
사무직	2.2	0.4	3.7	4.4	1.3	1.5	2.7	1.8	0.2	5.2	5.3	0.4
서비스/판매직	2.0	0.8	8.6	5.3	3.7	2.7	3.2	1.3	0.0	6.1	5.1	0.2
생산/기술직	1.8	0.9	7.0	7.5	2.9	2.2	1.4	2.6	0.0	4.5	6.6	0.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9	0.0	0.3	19.8	1.1	2.6	4.0	2.0	0.4	12.1	9.1	0.0
단순노무직	2.8	1.5	1.9	19.5	4.8	5.5	4.7	0.3	0.7	4.8	6.5	0.3
기타	0.0	0.0	2.5	0.0	0.0	0.0	0.0	0.0	0.0	0.0	0.0	0.0
무직	5.6	1.3	1.7	10.5	0.2	4.6	5.5	3.1	0.2	4.5	7.1	0.2



### 19-1-b.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 (1순위+2순위) (1)

(단위: %)

	가족 또는 친인척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손)자녀	형제 자매/배 우자의 형제자 매	가족 이외 친인척	기타	직장 상사, 상급자	이웃 동호회, 동창회 등	학교 선후배, 친구, 동료	학원 강사, 교사, 교수	기타
전 체	5.2	3.8	0.8	4.3	6.2	0.1	30.8	23.4	15.4	1.4	0.1
<b>  성 별  </b>											
남자	3.6	2.9	0.7	3.8	4.3	0.0	35.0	23.9	17.7	1.3	0.0
여자	6.8	4.7	0.9	4.8	8.1	0.2	26.7	23.0	13.1	1.4	0.1
<b>  지 역  </b>											
도 시[동 부]	5.2	4.1	0.9	4.5	6.2	0.1	32.0	24.2	15.4	1.2	0.1
농어촌[읍면부]	4.9	2.1	0.5	3.1	6.3	0.0	23.8	19.1	15.7	2.2	0.0
<b>  연 령  </b>											
20대 이하	0.3	4.7	0.5	2.0	5.0	0.0	35.9	11.3	27.9	5.2	0.0
30대	3.1	3.7	0.8	2.6	6.4	0.4	45.1	22.8	16.5	1.1	0.0
40대	6.2	5.6	0.5	4.4	6.7	0.1	35.4	22.1	15.4	0.2	0.0
50대	8.7	4.2	0.8	5.0	5.7	0.0	30.8	25.6	9.9	0.4	0.3
60대 이상	6.6	1.7	1.4	6.3	6.8	0.1	14.6	31.2	10.4	0.6	0.0
<b>  학 령  </b>											
중졸 이하	5.9	0.5	0.6	6.8	8.2	0.2	9.1	28.2	8.1	0.2	0.0
고졸 이하	6.2	4.0	1.0	5.6	6.1	0.1	24.1	22.0	16.3	2.3	0.0
대졸 이하	4.4	4.1	0.7	2.7	6.0	0.1	40.5	23.7	16.9	1.0	0.0
대학원졸 이상	0.0	11.9	0.5	5.0	1.0	0.0	37.6	17.1	6.0	0.0	1.6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1	4.5	0.9	5.3	4.1	0.3	39.7	22.5	9.6	0.2	0.3
사무직	6.1	3.3	0.8	2.2	4.6	0.0	48.4	26.0	16.9	0.7	0.0
서비스/판매직	4.5	4.1	1.0	3.5	6.1	0.1	31.1	24.1	16.3	2.2	0.0
생산/기술직	2.2	5.3	0.3	5.3	4.7	0.0	37.9	15.0	18.0	0.4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0	1.0	0.0	5.5	7.9	0.0	6.0	14.4	19.0	0.0	0.0
단순노무직	6.2	1.2	0.0	4.1	5.6	0.5	21.2	30.3	5.2	0.9	0.0
기타	0.0	0.0	0.0	0.0	7.0	0.0	82.9	15.2	66.5	0.0	0.0
무직	5.7	4.0	1.0	6.1	8.8	0.2	14.9	22.9	15.9	2.0	0.1

(다음에 계속)

## 19-1-b.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 (1순위+2순위) (2)

(단위: %)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상황이나 환경		
	공권력 가진 사람	집/방, 상가 소유주	고객	서비스 업 사업자 및 종사자	거래처 사람	면접관, 채용관	길에서 만난 행인	온라인 상으로 만난 사람	기타	자연 환경	주변 생활 환경	기타
전 체	6.5	2.0	8.8	15.5	5.3	5.5	6.4	3.8	0.4	9.0	13.3	0.3
성 별												
남자	7.8	2.0	8.1	12.6	7.0	4.7	4.8	3.9	0.5	9.7	13.9	0.3
여자	5.2	2.0	9.5	18.4	3.6	6.3	7.9	3.6	0.3	8.3	12.7	0.2
지 역												
도 시[동 부]	6.1	1.7	8.5	14.9	5.2	5.8	6.5	3.8	0.4	8.7	12.4	0.2
농어촌[읍면부]	8.8	3.7	10.1	19.4	5.8	4.0	5.9	3.8	0.6	10.8	19.1	0.5
연 령												
20대 이하	2.4	0.7	10.7	12.1	5.8	7.1	6.7	9.2	0.7	7.8	14.2	0.2
30대	4.2	2.2	10.2	10.4	4.7	5.6	3.8	4.2	0.2	10.7	12.6	0.0
40대	8.1	1.8	8.4	10.7	7.4	4.8	4.6	3.2	0.4	10.0	15.2	0.2
50대	8.2	1.9	10.1	12.7	7.0	4.0	6.3	2.7	0.2	10.3	13.5	0.8
60대 이상	8.4	3.0	6.0	26.7	2.6	6.0	9.2	1.2	0.4	7.1	11.8	0.2
학 력												
중졸 이하	8.4	3.3	6.3	28.6	1.4	3.8	11.3	1.0	0.5	9.0	10.8	0.2
고졸 이하	6.0	2.0	8.6	17.0	4.9	6.5	7.2	3.7	0.1	9.3	15.0	0.2
대졸 이하	6.1	1.7	9.6	12.0	6.3	5.1	4.5	4.5	0.6	8.5	12.5	0.3
대학원졸 이상	15.8	4.4	6.3	0.8	9.0	8.3	9.1	3.6	1.6	15.3	19.0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3	1.9	11.3	10.0	6.7	5.3	6.3	4.2	2.3	10.6	9.7	0.2
사무직	4.7	0.9	6.1	11.3	5.8	2.5	4.1	4.0	0.2	9.2	13.7	0.4
서비스/판매직	4.6	1.6	17.2	13.5	7.0	5.0	5.8	2.4	0.0	8.9	13.2	0.2
생산/기술직	4.0	2.0	8.3	9.7	9.5	3.4	3.7	3.1	0.0	9.7	13.6	0.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3	0.0	1.4	32.1	3.4	2.6	8.2	3.2	0.4	20.1	20.1	0.0
단순노무직	4.7	3.4	4.2	29.6	6.7	8.4	7.6	0.6	0.7	7.9	16.5	0.3
기타	7.0	0.0	2.5	0.0	0.0	0.0	0.0	0.0	0.0	0.0	8.8	0.0
무직	7.7	3.1	4.0	20.5	1.6	8.6	9.1	5.6	0.2	7.8	13.5	0.2

### 19-1-1-1)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성별

(단위: %)

	남자	여자	잘 모름
전 체	56.5	27.6	15.9
<b>  성 별  </b>			
남자	67.4	16.5	16.2
여자	45.9	38.4	15.7
<b>  지 역  </b>			
도 시[동 부]	56.9	27.7	15.4
농어촌[읍면부]	54.4	26.9	18.7
<b>  연 령  </b>			
20대 이하	60.7	19.8	19.5
30대	54.7	27.1	18.2
40대	56.9	29.1	14.0
50대	56.0	28.3	15.7
60대 이상	55.0	31.4	13.5
<b>  학 력  </b>			
중졸 이하	51.5	37.8	10.7
고졸 이하	56.5	26.9	16.6
대졸 이하	57.5	25.9	16.6
대학원졸 이상	61.6	22.5	15.9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3.3	20.3	16.3
사무직	60.8	21.8	17.4
서비스/판매직	52.9	32.1	15.1
생산/기술직	65.2	17.2	17.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2.1	31.7	16.1
단순노무직	59.6	29.5	10.8
기타	80.0	11.2	8.8
무직	51.0	32.9	16.1

## 19-1-1-2)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연령대

(단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잘 모름
전 체	2.6	7.9	18.5	34.3	20.8	15.9
<b>  성 별  </b>						
남자	2.4	8.8	19.0	34.2	20.8	14.9
여자	2.7	7.1	18.1	34.4	20.8	16.8
<b>  지 역  </b>						
도 시[동 부]	2.7	7.9	18.7	35.7	19.8	15.2
농어촌[읍면부]	2.0	8.0	17.6	25.4	27.1	19.9
<b>  연 령  </b>						
20대 이하	9.7	16.3	20.8	28.4	7.8	17.0
30대	1.5	12.6	24.0	35.0	9.4	17.4
40대	1.0	4.6	24.4	37.7	20.2	12.2
50대	0.4	4.2	13.9	42.8	23.4	15.3
60대 이상	1.2	4.2	12.3	29.6	35.6	17.1
<b>  학 력  </b>						
중졸 이하	1.1	5.9	13.7	25.3	35.4	18.6
고졸 이하	4.0	7.3	15.8	34.5	22.0	16.4
대졸 이하	1.8	8.8	21.9	36.5	16.4	14.7
대학원졸 이상	2.9	9.0	12.3	26.7	28.4	20.7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0	7.8	17.4	35.2	21.4	15.2
사무직	2.3	7.6	23.3	40.8	13.3	12.8
서비스/판매직	0.8	8.4	20.2	37.4	21.3	12.0
생산/기술직	0.6	5.5	18.2	40.0	18.7	17.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6.1	13.0	17.4	42.1	21.4
단순노무직	2.1	2.6	15.8	37.9	22.6	19.0
기타	0.0	12.6	35.9	44.5	0.0	7.0
무직	5.0	9.5	14.6	25.0	25.2	20.8

## 19-2.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	인터넷/SNS에 알림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민간단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아무런 행동하지 않음
<b>전 체</b>	<b>21.6</b>	<b>15.4</b>	<b>9.2</b>	<b>3.6</b>	<b>2.1</b>	<b>60.6</b>
<b>  성 별  </b>						
남자	22.6	13.2	8.7	3.1	1.9	60.9
여자	20.6	17.5	9.7	4.0	2.3	60.3
<b>  지 역  </b>						
도 시·동 부	22.6	14.7	8.5	3.3	1.9	61.1
농어촌(읍면부)	15.5	19.1	13.3	5.5	3.3	57.9
<b>  연 령  </b>						
20대 이하	17.9	11.1	13.4	5.1	3.2	61.6
30대	17.8	14.2	8.3	2.4	1.5	65.7
40대	25.5	16.9	9.9	2.7	3.1	55.4
50대	21.1	16.3	9.4	4.7	2.6	60.9
60대 이상	23.8	17.1	6.6	3.4	0.8	60.2
<b>  학 력  </b>						
중졸 이하	17.1	12.6	4.0	0.9	0.8	70.2
고졸 이하	21.8	15.7	9.6	4.5	2.5	59.8
대졸 이하	22.3	15.8	10.1	3.6	2.1	58.7
대학원졸 이상	23.6	14.7	9.4	2.3	4.5	67.2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5.9	13.9	9.4	5.2	1.6	54.9
사무직	25.1	17.3	13.3	3.8	1.6	56.7
서비스/판매직	19.7	14.6	7.7	2.3	2.6	64.3
생산/기술직	19.0	11.1	5.9	4.2	3.1	64.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1.5	11.1	3.4	2.5	0.0	57.4
단순노무직	30.4	14.3	1.2	0.9	0.0	60.6
기타	10.1	0.0	0.0	0.0	0.0	89.9
무직	17.4	17.1	10.4	4.5	2.6	61.2

## 19-2-1.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공공기관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실	검찰/경찰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기타 공공기관
전 체	14.8	14.6	37.6	40.4	13.6	25.2
성 별						
남자	13.3	14.3	40.0	35.6	4.7	30.4
여자	16.0	14.8	35.8	44.0	20.5	21.2
지 역						
도 시[동 부]	13.8	13.7	37.6	38.5	15.3	26.4
농어촌[읍면부]	18.3	17.6	37.9	46.7	7.5	21.1
연 령						
20대 이하	16.1	21.9	19.2	29.4	4.2	54.7
30대	15.2	0.0	47.1	63.3	15.3	17.5
40대	12.2	9.7	46.2	24.6	22.4	20.9
50대	11.2	34.0	39.3	47.9	16.2	11.7
60대 이상	18.3	0.0	43.9	42.2	14.0	15.9
학 력						
중졸 이하	56.9	0.0	11.4	18.1	36.7	13.6
고졸 이하	13.5	4.5	34.1	42.1	20.4	27.1
대졸 이하	13.8	25.1	42.7	41.2	5.9	23.5
대학원졸 이상	0.0	0.0	31.5	0.0	15.5	53.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3	3.9	23.6	20.7	8.5	37.8
사무직	14.7	50.3	39.3	61.1	4.9	14.4
서비스/판매직	20.1	5.5	49.6	60.8	13.0	19.4
생산/기술직	13.0	14.6	77.0	41.3	9.4	4.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0.0	0.0	55.1	0.0	44.9
단순노무직	33.6	0.0	42.0	24.4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무직	15.1	2.3	29.5	26.9	23.6	34.0

## 19-2-2.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공공기관의 도움 정도

(단위: %)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 체	5.8	27.7	62.5	4.0
<b>  성 별  </b>				
남자	10.3	23.2	60.3	6.2
여자	2.3	31.2	64.3	2.2
<b>  지 역  </b>				
도 시[동 부]	6.8	29.9	61.3	2.0
농어촌[읍면부]	2.1	20.3	66.9	10.7
<b>  연 령  </b>				
20대 이하	0.0	22.8	72.6	4.6
30대	11.7	15.1	73.2	0.0
40대	22.8	36.8	37.4	3.0
50대	2.0	34.4	63.6	0.0
60대 이상	1.5	27.0	62.0	9.4
<b>  학 력  </b>				
중졸 이하	0.0	24.9	68.0	7.0
고졸 이하	3.1	16.6	72.2	8.1
대졸 이하	8.7	36.7	54.6	0.0
대학원졸 이상	0.0	84.5	15.5	0.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0.0	32.2	64.3	3.5
사무직	2.9	32.8	64.3	0.0
서비스/판매직	5.0	32.8	48.8	13.5
생산/기술직	39.0	8.4	52.5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0.0	55.1	44.9
단순노무직	33.6	0.0	66.4	0.0
기타	0.0	0.0	0.0	0.0
무직	1.8	26.9	69.3	1.9

## 19-3-1.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	언론기관	기타
전 체	41.7	50.6	50.1	0.0
<b>  성 별  </b>				
남자	34.9	42.3	53.3	0.0
여자	47.0	57.0	47.6	0.0
<b>  지 역  </b>				
도 시·동 부	42.9	40.8	58.0	0.0
농어촌(읍면부)	37.6	83.5	23.5	0.0
<b>  연 령  </b>				
20대 이하	26.0	31.9	78.8	0.0
30대	21.1	63.9	50.8	0.0
40대	53.2	45.9	53.9	0.0
50대	44.0	82.6	21.9	0.0
60대 이상	69.0	24.6	26.4	0.0
<b>  학 력  </b>				
중졸 이하	59.6	20.1	45.3	0.0
고졸 이하	51.8	26.1	71.1	0.0
대졸 이하	34.8	70.4	36.4	0.0
대학원졸 이상	0.0	100.0	0.0	0.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6	71.2	24.2	0.0
사무직	19.3	75.9	35.4	0.0
서비스/판매직	43.5	49.6	49.9	0.0
생산/기술직	90.0	55.7	37.9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0.0	0.0	0.0
단순노무직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무직	43.5	32.8	67.3	0.0



### 19-3-2.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도움 요청한 민간기관·전문가의 도움 정도

(단위: %)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 체	3.5	36.6	50.3	9.6
<b>  성 별  </b>				
남자	0.0	34.4	59.0	6.6
여자	6.2	38.3	43.5	12.0
<b>  지 역  </b>				
도 시[동 부]	2.4	33.7	51.5	12.4
농어촌[읍면부]	7.2	46.2	46.6	0.0
<b>  연 령  </b>				
20대 이하	0.0	24.6	68.1	7.3
30대	0.0	52.9	47.1	0.0
40대	5.6	26.7	45.0	22.8
50대	3.8	56.1	40.1	0.0
60대 이상	10.1	32.6	47.3	10.1
<b>  학 력  </b>				
중졸 이하	0.0	45.1	31.2	23.7
고졸 이하	4.3	17.2	58.5	20.1
대졸 이하	3.4	47.3	49.3	0.0
대학원졸 이상	0.0	100.0	0.0	0.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0.0	89.4	10.6	0.0
사무직	0.0	41.5	58.5	0.0
서비스/판매직	8.2	37.8	25.7	28.4
생산/기술직	0.0	31.8	68.2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0	0.0	0.0	0.0
단순노무직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무직	2.9	21.7	72.6	2.8

## 19-4.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아무런 행동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림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음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움	어떻게 대응할지 모름	기타
전 체	25.5	25.4	4.3	19.8	3.2	3.7	17.3	0.9
성 별								
남자	27.8	26.4	3.8	18.6	2.6	3.7	15.8	1.3
여자	23.1	24.4	4.7	20.9	3.8	3.7	18.9	0.5
지 역								
도 시(동 부)	25.5	25.2	4.4	19.0	3.0	3.9	17.9	1.1
농어촌(읍면부)	24.9	26.6	3.5	24.7	4.5	2.3	13.5	0.0
연 령								
20대 이하	22.5	26.7	5.7	21.2	4.3	3.3	14.0	2.4
30대	28.3	20.2	4.1	27.4	3.6	3.5	12.0	0.8
40대	29.1	24.2	4.1	20.6	2.7	2.7	16.0	0.6
50대	26.3	23.4	3.4	19.4	2.5	3.8	20.4	0.8
60대 이상	22.2	30.6	4.1	12.9	2.8	4.8	22.2	0.3
학 력								
중졸 이하	19.9	25.4	1.8	16.1	4.6	6.9	24.6	0.7
고졸 이하	24.7	27.4	5.2	17.1	3.2	3.1	18.8	0.6
대졸 이하	27.7	24.2	4.1	22.5	2.5	3.4	14.3	1.3
대학원졸 이상	22.7	21.0	7.4	25.9	7.6	0.0	15.4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7.5	18.0	4.8	24.4	4.4	3.1	17.0	0.7
사무직	28.7	25.5	3.5	22.0	2.0	4.1	11.8	2.4
서비스/판매직	25.8	26.5	3.6	19.0	2.5	3.8	18.5	0.4
생산/기술직	31.3	26.7	8.2	17.0	4.2	2.0	10.2	0.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1.6	36.4	3.7	14.8	1.7	3.9	18.0	0.0
단순노무직	26.7	22.6	5.0	9.2	2.8	3.4	28.4	2.0
기타	71.5	0.0	0.0	11.6	16.9	0.0	0.0	0.0
무직	19.5	27.1	4.2	20.7	3.7	4.1	20.3	0.4

### Ⅲ

## 인권 관련 의견

### 20-1) 인권 쟁점-기업에게 인권 보호 법적 의무 부여

(단위: %)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35.6	51.9	10.9	1.6
<b>  성 별  </b>				
남자	35.6	51.7	11.0	1.7
여자	35.6	52.1	10.8	1.5
<b>  지 역  </b>				
도 시[동 부]	34.1	52.6	11.8	1.6
농어촌[읍면부]	42.8	48.6	7.0	1.7
<b>  연 령  </b>				
20대 이하	36.4	49.8	12.1	1.8
30대	36.9	50.3	11.1	1.6
40대	37.9	50.6	9.6	1.9
50대	35.3	51.9	11.1	1.8
60대 이상	33.3	54.7	10.8	1.2
<b>  학 력  </b>				
중졸 이하	35.2	53.3	10.4	1.1
고졸 이하	34.4	52.8	10.9	1.9
대졸 이하	36.2	51.1	11.1	1.5
대학원졸 이상	50.8	38.1	9.8	1.2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5.1	43.8	8.6	2.4
사무직	31.7	54.7	12.1	1.6
서비스/판매직	36.6	48.6	13.1	1.6
생산/기술직	37.7	50.0	10.4	1.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6.2	44.5	8.1	1.1
단순노무직	37.4	52.4	7.9	2.3
기타	31.5	68.5	0.0	0.0
무직	33.0	55.7	10.0	1.3

## 20-2) 인권 쟁점-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단위: %)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38.4	48.8	11.7	1.2
<b>  성 별  </b>				
남자	38.2	48.7	11.8	1.3
여자	38.5	48.9	11.5	1.1
<b>  지 역  </b>				
도 시[동 부]	36.4	49.9	12.6	1.2
농어촌[읍면부]	47.5	43.8	7.6	1.1
<b>  연 령  </b>				
20대 이하	38.4	49.0	10.6	1.9
30대	40.1	47.3	11.1	1.4
40대	42.6	46.3	10.4	0.7
50대	35.7	50.9	12.7	0.7
60대 이상	36.5	49.6	12.7	1.2
<b>  학 력  </b>				
중졸 이하	39.1	48.6	10.8	1.5
고졸 이하	37.8	49.1	11.8	1.3
대졸 이하	38.3	48.8	12.0	1.0
대학원졸 이상	46.6	43.9	7.8	1.7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4.0	45.0	9.9	1.1
사무직	35.6	50.5	13.1	0.8
서비스/판매직	38.8	47.7	12.2	1.3
생산/기술직	41.2	47.6	10.1	1.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9.1	41.9	7.6	1.4
단순노무직	39.6	48.6	10.2	1.5
기타	40.4	5.1	54.5	0.0
무직	36.1	50.9	11.7	1.2

### 20-3) 인권 쟁점-외국인 사회보장 서비스제공

(단위: %)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전 체	25.7	49.4	19.5	5.5
<b>  성 별  </b>				
남자	25.8	49.3	19.2	5.7
여자	25.7	49.4	19.7	5.2
<b>  지 역  </b>				
도 시[동 부]	25.0	49.1	20.4	5.5
농어촌[읍면부]	29.0	50.5	15.1	5.4
<b>  연 령  </b>				
20대 이하	26.5	49.1	20.1	4.3
30대	27.5	49.8	16.6	6.2
40대	27.8	48.8	18.2	5.1
50대	25.4	49.2	19.4	5.9
60대 이상	23.3	49.7	21.4	5.6
<b>  학 력  </b>				
중졸 이하	23.4	50.2	20.5	5.9
고졸 이하	25.9	48.9	19.8	5.4
대졸 이하	26.3	49.5	18.9	5.3
대학원졸 이상	26.7	48.6	16.4	8.4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0.9	44.6	17.4	7.2
사무직	24.1	52.3	19.1	4.4
서비스/판매직	27.1	48.2	19.2	5.5
생산/기술직	28.3	47.0	19.1	5.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8.6	43.9	21.1	6.4
단순노무직	28.7	47.0	18.5	5.8
기타	32.7	67.3	0.0	0.0
무직	23.0	51.0	20.5	5.5

## 20-4) 인권 쟁점-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정

(단위: %)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9.1	44.8	28.4	7.7
<b>  성 별  </b>				
남자	18.7	45.6	27.5	8.2
여자	19.6	44.0	29.3	7.1
<b>  지 역  </b>				
도 시[동 부]	19.0	44.6	29.0	7.4
농어촌[읍면부]	19.7	45.8	25.6	9.0
<b>  연 령  </b>				
20대 이하	20.8	48.1	25.7	5.4
30대	20.7	45.0	26.9	7.4
40대	21.3	45.2	26.5	6.9
50대	18.6	45.1	28.1	8.2
60대 이상	16.4	42.5	31.9	9.2
<b>  학 력  </b>				
중졸 이하	17.1	41.0	32.4	9.6
고졸 이하	18.6	45.3	28.8	7.3
대졸 이하	20.2	45.7	26.9	7.2
대학원졸 이상	20.3	47.9	22.3	9.4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2.8	44.2	23.7	9.3
사무직	20.6	47.4	26.6	5.4
서비스/판매직	19.3	44.4	27.8	8.5
생산/기술직	18.9	45.2	27.5	8.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5.7	36.1	36.1	12.1
단순노무직	20.3	41.2	32.4	6.1
기타	25.1	70.9	4.0	0.0
무직	17.5	45.0	29.9	7.7

## 20-5) 인권 쟁점-비정규직에 정규직 동일 노동법 적용

(단위: %)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38.2	46.4	13.6	1.8
<b>  성 별  </b>				
남자	38.2	45.9	13.9	2.0
여자	38.2	47.0	13.2	1.6
<b>  지 역  </b>				
도 시[동 부]	36.9	47.3	14.1	1.7
농어촌[읍면부]	44.2	42.4	11.1	2.2
<b>  연 령  </b>				
20대 이하	38.9	45.5	14.1	1.5
30대	39.1	45.8	13.6	1.6
40대	40.4	44.9	12.9	1.8
50대	38.8	46.1	13.0	2.1
60대 이상	35.8	48.4	14.0	1.8
<b>  학 력  </b>				
중졸 이하	35.4	48.9	13.9	1.8
고졸 이하	38.9	46.3	12.9	1.9
대졸 이하	38.4	46.0	13.9	1.6
대학원졸 이상	44.1	37.3	15.3	3.3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3.8	40.9	12.9	2.4
사무직	37.1	47.9	13.6	1.5
서비스/판매직	38.4	44.4	15.5	1.8
생산/기술직	43.1	42.9	12.8	1.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5.6	40.7	11.4	2.3
단순노무직	41.1	44.7	12.5	1.7
기타	32.8	61.8	0.0	5.5
무직	34.9	50.3	13.0	1.9

## 20-6) 인권 쟁점-성별 임금격차 해소 지원

(단위: %)

	매우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5.0	47.3	14.5	3.2
<b>  성 별  </b>				
남자	32.1	47.4	16.2	4.4
여자	37.9	47.2	12.8	2.1
<b>  지 역  </b>				
도 시[동 부]	34.3	47.9	14.7	3.1
농어촌[읍면부]	38.4	44.6	13.3	3.7
<b>  연 령  </b>				
20대 이하	36.5	44.2	14.8	4.5
30대	35.1	46.8	13.6	4.5
40대	37.0	47.0	13.1	3.0
50대	35.2	48.2	13.9	2.6
60대 이상	32.7	48.8	16.0	2.4
<b>  학 력  </b>				
중졸 이하	29.6	49.9	17.5	3.1
고졸 이하	35.6	47.4	14.1	2.9
대졸 이하	36.2	46.5	13.9	3.4
대학원졸 이상	39.0	42.0	13.1	6.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2.1	38.3	12.9	6.7
사무직	34.5	48.8	14.0	2.7
서비스/판매직	35.8	47.4	14.1	2.7
생산/기술직	35.4	45.4	15.6	3.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4.4	43.9	18.5	3.2
단순노무직	37.5	46.1	14.6	1.7
기타	33.5	54.5	3.1	8.8
무직	32.6	49.4	14.7	3.3



## 20-7) 인권 쟁점-임신 유지/중결 관련 상세 법안 제정

(단위: %)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전 체	33.3	50.3	13.6	2.8
<b>  성 별  </b>				
남자	31.4	51.5	14.1	2.9
여자	35.1	49.1	13.1	2.7
<b>  지 역  </b>				
도 시[동 부]	32.3	51.0	14.0	2.7
농어촌[읍면부]	37.5	47.2	11.8	3.5
<b>  연 령  </b>				
20대 이하	34.9	49.7	13.0	2.4
30대	37.1	48.3	12.5	2.1
40대	35.7	50.3	11.3	2.7
50대	33.5	50.5	13.3	2.7
60대 이상	28.7	51.6	16.3	3.5
<b>  학 력  </b>				
중졸 이하	28.3	51.7	16.0	3.9
고졸 이하	34.4	49.4	13.3	2.9
대졸 이하	33.7	50.7	13.3	2.3
대학원졸 이상	42.2	45.3	7.2	5.3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2.4	44.4	9.8	3.4
사무직	31.1	52.8	14.2	1.9
서비스/판매직	35.0	47.7	14.4	2.8
생산/기술직	35.5	50.8	11.6	2.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9.6	41.4	15.3	3.6
단순노무직	33.4	46.6	15.0	5.0
기타	38.2	61.8	0.0	0.0
무직	29.7	53.5	13.8	3.0

## 20-8) 인권 쟁점-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단위: %)

	매우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1.8	51.1	15.1	2.0
<b>  성 별  </b>				
남자	30.4	52.1	15.4	2.1
여자	33.2	50.1	14.8	1.9
<b>  지 역  </b>				
도 시[동 부]	31.3	51.3	15.5	1.9
농어촌[읍면부]	34.4	49.9	13.3	2.4
<b>  연 령  </b>				
20대 이하	31.8	49.4	16.3	2.5
30대	31.0	51.9	15.5	1.6
40대	32.6	49.6	15.9	1.9
50대	31.8	51.7	14.8	1.8
60대 이상	31.9	52.2	13.9	2.1
<b>  학 력  </b>				
중졸 이하	32.6	52.1	12.7	2.7
고졸 이하	34.6	48.5	15.0	1.8
대졸 이하	29.3	52.7	16.2	1.9
대학원졸 이상	34.3	55.0	8.4	2.4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8.0	45.4	14.7	1.9
사무직	27.3	54.2	16.9	1.6
서비스/판매직	32.8	49.6	15.3	2.2
생산/기술직	32.4	51.4	14.5	1.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4.0	48.1	14.2	3.6
단순노무직	41.0	44.7	12.3	1.9
기타	29.5	70.5	0.0	0.0
무직	30.7	52.7	14.6	1.9

## 20-9) 인권 쟁점-의사조력자살 허용

(단위: %)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27.3	40.9	22.7	9.1
<b>  성 별  </b>				
남자	27.5	41.5	22.1	8.9
여자	27.0	40.4	23.2	9.4
<b>  지 역  </b>				
도 시[동 부]	26.8	41.5	22.3	9.4
농어촌[읍면부]	29.6	38.0	24.4	8.0
<b>  연 령  </b>				
20대 이하	24.8	40.4	23.9	10.9
30대	25.9	41.6	22.4	10.0
40대	25.3	40.3	23.9	10.5
50대	28.3	42.5	21.2	8.0
60대 이상	29.9	40.2	22.3	7.6
<b>  학 력  </b>				
중졸 이하	29.2	38.9	23.7	8.2
고졸 이하	28.6	39.6	21.8	10.0
대졸 이하	25.3	42.6	23.2	8.9
대학원졸 이상	35.5	41.3	15.7	7.5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7.0	38.5	14.6	9.9
사무직	22.7	44.9	22.8	9.6
서비스/판매직	25.9	39.0	25.1	9.9
생산/기술직	27.0	39.4	24.6	9.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7.4	33.7	21.0	7.8
단순노무직	34.6	38.5	17.8	9.2
기타	24.4	25.1	42.7	7.9
무직	26.6	42.2	23.0	8.3

## 20-10) 인권 쟁점-적극적 안락사 허용

(단위: %)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32.0	41.0	19.7	7.3
<b>  성 별  </b>				
남자	32.0	41.3	19.4	7.2
여자	32.0	40.7	19.9	7.4
<b>  지 역  </b>				
도 시[동 부]	31.8	41.2	19.9	7.1
농어촌[읍면부]	33.2	39.9	18.6	8.3
<b>  연 령  </b>				
20대 이하	30.4	39.7	22.8	7.0
30대	30.1	43.4	19.3	7.3
40대	30.4	41.8	19.5	8.3
50대	33.6	41.3	18.2	6.8
60대 이상	33.9	39.8	19.1	7.2
<b>  학 력  </b>				
중졸 이하	33.3	38.3	20.2	8.1
고졸 이하	33.1	40.4	19.1	7.4
대졸 이하	30.4	42.5	20.1	7.0
대학원졸 이상	40.8	36.6	14.1	8.6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0.5	35.7	15.1	8.7
사무직	29.0	43.8	20.2	7.0
서비스/판매직	32.1	39.3	22.0	6.6
생산/기술직	33.7	40.9	19.1	6.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1.7	32.6	17.4	8.3
단순노무직	36.9	36.7	16.7	9.7
기타	32.2	67.8	0.0	0.0
무직	29.6	43.3	19.6	7.6

## 21)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단위: %)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다소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전 체	3.5	17.6	33.0	45.9
<b>  성 별  </b>				
남자	3.4	17.7	34.3	44.6
여자	3.6	17.4	31.8	47.1
<b>  지 역  </b>				
도 시[동 부]	3.8	18.3	34.0	43.9
농어촌[읍면부]	2.2	14.2	28.5	55.1
<b>  연 령  </b>				
20대 이하	3.8	17.8	35.1	43.4
30대	4.5	16.1	32.7	46.7
40대	3.0	18.3	31.6	47.1
50대	3.3	18.5	32.8	45.4
60대 이상	3.2	17.3	33.1	46.4
<b>  학 력  </b>				
중졸 이하	2.3	18.9	32.5	46.3
고졸 이하	3.7	16.2	33.9	46.2
대졸 이하	3.8	18.5	32.6	45.0
대학원졸 이상	2.2	9.0	29.6	59.2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7	15.5	28.4	52.4
사무직	4.5	20.5	32.0	43.0
서비스/판매직	3.8	18.2	34.1	43.9
생산/기술직	2.6	14.4	38.4	44.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5	13.5	30.0	54.0
단순노무직	3.9	13.2	31.7	51.2
기타	0.0	19.8	36.6	43.5
무직	2.9	17.8	33.0	46.2

## 21-1) 기후위기가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모두에게 똑같이 심각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	영향이 없을 것
전 체	46.4	46.5	7.1
<b>  성 별  </b>			
남자	47.3	45.4	7.3
여자	45.6	47.6	6.8
<b>  지 역  </b>			
도 시[동 부]	46.8	46.2	7.0
농어촌[읍면부]	44.4	47.9	7.7
<b>  연 령  </b>			
20대 이하	47.0	44.0	9.0
30대	49.2	44.8	6.0
40대	45.6	47.8	6.6
50대	47.3	45.2	7.4
60대 이상	44.5	48.8	6.6
<b>  학 력  </b>			
중졸 이하	44.4	48.8	6.7
고졸 이하	46.4	46.6	7.0
대졸 이하	46.9	45.7	7.4
대학원졸 이상	53.9	44.2	1.9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7.6	48.4	4.0
사무직	48.2	43.6	8.2
서비스/판매직	44.1	47.1	8.8
생산/기술직	47.3	48.3	4.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9.5	42.2	8.4
단순노무직	46.3	47.7	6.0
기타	90.1	9.9	0.0
무직	45.9	47.5	6.6

## 21-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단위: %)

	매우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지 않다
전 체	34.4	54.1	10.6	1.0
<b>  성 별  </b>				
남자	33.9	54.1	10.9	1.1
여자	34.8	54.0	10.2	0.9
<b>  지 역  </b>				
도 시[동 부]	33.1	54.9	11.1	0.9
농어촌[읍면부]	40.2	50.5	8.0	1.3
<b>  연 령  </b>				
20대 이하	33.2	53.9	11.8	1.0
30대	34.3	54.9	10.0	0.8
40대	35.7	53.9	9.6	0.8
50대	33.9	54.5	10.5	1.2
60대 이상	34.5	53.7	10.7	1.1
<b>  학 력  </b>				
중졸 이하	36.0	52.2	10.5	1.3
고졸 이하	34.7	54.1	10.0	1.2
대졸 이하	33.3	54.7	11.2	0.8
대학원졸 이상	40.4	54.4	4.8	0.5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3.6	50.2	5.4	0.8
사무직	29.4	58.7	11.0	0.9
서비스/판매직	35.0	52.4	11.8	0.8
생산/기술직	35.4	51.1	12.1	1.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3.0	47.7	8.3	1.0
단순노무직	39.0	49.5	9.7	1.8
기타	26.7	53.4	19.8	0.0
무직	32.8	55.7	10.4	1.0

## 22-1)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를 체크할 때, 관련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b>전 체</b>	<b>11.4</b>	<b>41.6</b>	<b>34.3</b>	<b>12.8</b>
<b>  성 별  </b>				
남자	11.0	42.7	34.5	11.8
여자	11.8	40.4	34.1	13.7
<b>  지 역  </b>				
도 시[동 부]	11.2	42.9	34.7	11.2
농어촌[읍면부]	12.5	35.3	32.3	19.9
<b>  연 령  </b>				
20대 이하	15.3	46.4	28.7	9.6
30대	12.9	46.9	30.4	9.7
40대	11.7	46.1	33.5	8.7
50대	12.6	42.2	35.0	10.2
60대 이상	7.5	32.8	39.4	20.3
<b>  학 력  </b>				
중졸 이하	4.5	25.7	41.7	28.1
고졸 이하	11.9	41.4	34.4	12.3
대졸 이하	13.1	46.8	31.9	8.2
대학원졸 이상	16.6	47.9	29.7	5.9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1	42.5	32.0	10.4
사무직	12.7	49.0	29.5	8.7
서비스/판매직	13.3	44.5	32.0	10.3
생산/기술직	9.8	43.4	38.8	8.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6	24.6	42.7	30.2
단순노무직	10.3	34.1	38.0	17.6
기타	37.1	32.2	25.1	5.5
무직	9.8	37.0	36.9	16.4



## 22-2)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나의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하다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b>전 체</b>	<b>23.5</b>	<b>51.0</b>	<b>21.2</b>	<b>4.3</b>
<b>  성 별  </b>				
남자	22.5	51.4	22.3	3.9
여자	24.5	50.7	20.2	4.7
<b>  지 역  </b>				
도 시[동 부]	22.6	52.6	21.6	3.3
농어촌[읍면부]	27.8	43.6	19.6	8.9
<b>  연 령  </b>				
20대 이하	23.5	53.3	20.9	2.3
30대	25.2	51.7	19.0	4.1
40대	24.0	53.0	21.0	2.0
50대	23.8	53.0	20.3	2.9
60대 이상	22.0	46.8	23.3	7.8
<b>  학 력  </b>				
중졸 이하	18.4	43.0	25.5	13.1
고졸 이하	24.1	52.1	20.9	2.9
대졸 이하	24.3	52.9	20.3	2.4
대학원졸 이상	33.6	48.1	14.5	3.8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8.3	49.9	19.0	2.8
사무직	22.7	55.4	19.3	2.6
서비스/판매직	25.0	51.3	21.1	2.6
생산/기술직	21.6	53.6	21.3	3.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4.5	35.9	25.8	13.8
단순노무직	21.5	53.4	18.6	6.5
기타	51.1	47.7	1.3	0.0
무직	22.3	49.0	23.0	5.8

**22-3)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다**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b>전 체</b>	<b>7.7</b>	<b>31.5</b>	<b>40.3</b>	<b>20.6</b>
<b>  성 별  </b>				
남자	8.0	32.0	40.1	19.9
여자	7.3	31.0	40.4	21.2
<b>  지 역  </b>				
도 시[동 부]	7.8	33.1	40.7	18.4
농어촌[읍면부]	7.2	24.0	38.3	30.5
<b>  연 령  </b>				
20대 이하	10.7	32.8	40.9	15.7
30대	8.0	34.4	39.2	18.5
40대	7.1	31.8	42.7	18.4
50대	8.8	33.1	40.1	18.0
60대 이상	5.4	28.1	39.1	27.5
<b>  학 령  </b>				
중졸 이하	3.6	22.6	38.4	35.4
고졸 이하	8.7	32.7	39.0	19.7
대졸 이하	8.3	33.7	41.5	16.5
대학원졸 이상	4.2	26.9	52.5	16.3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9	28.5	40.4	25.2
사무직	10.5	38.3	39.1	12.1
서비스/판매직	8.7	34.3	38.7	18.3
생산/기술직	5.6	29.3	45.1	2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1	16.4	38.1	43.4
단순노무직	6.0	25.4	38.3	30.2
기타	37.1	24.8	7.2	30.9
무직	6.8	29.1	41.5	22.6

## 22-1.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마이데이터 제공

(단위: %)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1.8	40.6	33.8	13.8
<b>  성 별  </b>				
남자	11.7	41.3	33.7	13.3
여자	11.9	40.0	33.8	14.4
<b>  지 역  </b>				
도 시[동 부]	10.7	41.0	34.8	13.5
농어촌[읍면부]	16.6	38.9	29.0	15.4
<b>  연 령  </b>				
20대 이하	13.8	43.1	32.3	10.9
30대	13.3	39.6	34.0	13.0
40대	11.7	41.5	33.4	13.4
50대	10.8	39.7	34.1	15.3
60대 이상	10.5	39.8	34.4	15.3
<b>  학 력  </b>				
중졸 이하	11.9	40.7	32.7	14.6
고졸 이하	10.9	40.4	33.9	14.8
대졸 이하	12.2	40.9	34.3	12.6
대학원졸 이상	17.6	35.6	25.1	21.6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8	43.1	28.2	14.8
사무직	11.0	40.0	35.1	13.8
서비스/판매직	11.7	39.7	35.4	13.2
생산/기술직	13.8	41.3	31.2	13.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4.7	33.4	31.0	21.0
단순노무직	9.6	34.5	36.5	19.4
기타	12.2	30.1	57.6	0.0
무직	11.2	42.8	33.4	12.5

**23-1)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아직 어려서 판단 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교사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단위: %)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b>전 체</b>	<b>21.4</b>	<b>58.4</b>	<b>17.6</b>	<b>2.6</b>
<b>  성 별  </b>				
남자	21.3	58.3	17.8	2.6
여자	21.5	58.5	17.4	2.6
<b>  지 역  </b>				
도 시[동 부]	20.7	59.6	17.4	2.4
농어촌[읍면부]	24.6	53.2	18.6	3.7
<b>  연 령  </b>				
20대 이하	20.1	53.5	22.4	4.1
30대	18.5	58.4	20.0	3.1
40대	20.8	58.1	18.6	2.5
50대	21.3	59.6	16.6	2.5
60대 이상	24.0	60.7	13.7	1.6
<b>  학 령  </b>				
중졸 이하	25.3	60.7	12.3	1.7
고졸 이하	22.2	59.0	16.7	2.2
대졸 이하	19.6	57.4	19.8	3.2
대학원졸 이상	15.2	54.1	27.9	2.9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7.6	55.3	23.3	3.7
사무직	20.0	56.6	19.8	3.6
서비스/판매직	22.4	57.5	17.7	2.4
생산/기술직	18.3	64.2	14.6	2.9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4.9	56.0	16.1	2.9
단순노무직	26.7	57.8	14.6	0.9
기타	12.4	74.9	7.3	5.5
무직	22.0	59.7	16.3	2.0

**23-2)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아동·청소년도 사회·정치문제에 관심 갖고 의견제시 등의 참여할 필요하다**

(단위: %)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b>전 체</b>	<b>14.9</b>	<b>48.8</b>	<b>31.8</b>	<b>4.5</b>
<b>  성 별  </b>				
남자	14.8	48.4	32.4	4.4
여자	15.0	49.2	31.2	4.5
<b>  지 역  </b>				
도 시[동 부]	15.1	49.8	31.1	4.0
농어촌[읍면부]	14.1	44.4	35.2	6.3
<b>  연 령  </b>				
20대 이하	13.1	54.9	28.7	3.4
30대	16.7	52.8	27.7	2.9
40대	15.5	50.4	30.7	3.5
50대	15.0	47.2	33.8	4.0
60대 이상	14.6	43.4	35.2	6.8
<b>  학 력  </b>				
중졸 이하	13.2	40.0	37.4	9.3
고졸 이하	15.3	49.2	31.5	3.9
대졸 이하	15.0	51.2	30.4	3.3
대학원졸 이상	17.3	54.5	24.9	3.3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4	50.0	29.9	4.7
사무직	14.7	52.8	29.5	3.1
서비스/판매직	15.2	48.1	32.7	4.0
생산/기술직	15.1	46.4	35.7	2.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9.0	36.8	41.8	12.3
단순노무직	14.1	44.1	35.4	6.4
기타	19.5	72.6	7.9	0.0
무직	15.4	49.3	30.4	4.9

23-3) 아동·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  
-초·중·고교 정규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위: %)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 체	25.4	56.2	16.4	2.0
<b>  성 별  </b>				
남자	25.2	56.1	16.8	2.0
여자	25.6	56.3	16.0	2.0
<b>  지 역  </b>				
도 시[동 부]	25.2	56.8	16.3	1.7
농어촌[읍면부]	26.4	53.5	17.0	3.2
<b>  연 령  </b>				
20대 이하	25.0	57.5	16.1	1.4
30대	25.4	57.8	15.4	1.4
40대	26.4	56.1	15.1	2.4
50대	25.0	56.6	16.6	1.8
60대 이상	25.3	54.5	17.8	2.4
<b>  학 력  </b>				
중졸 이하	26.3	53.2	17.6	2.9
고졸 이하	25.6	56.4	16.3	1.7
대졸 이하	24.7	57.1	16.3	1.9
대학원졸 이상	33.0	54.6	10.7	1.7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6.9	54.5	14.6	4.0
사무직	23.1	58.7	17.0	1.3
서비스/판매직	26.0	54.4	17.5	2.1
생산/기술직	23.7	58.7	16.6	1.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8.9	44.9	22.0	4.2
단순노무직	27.6	52.4	17.5	2.5
기타	23.6	76.4	0.0	0.0
무직	25.9	57.5	14.9	1.7

24-1-1)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여성

(단위: %)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전 체	0.7	6.9	49.6	42.8
<b>  성 별  </b>				
남자	0.9	8.4	51.1	39.6
여자	0.4	5.4	48.1	46.1
<b>  지 역  </b>				
도 시[동 부]	0.7	6.9	49.1	43.3
농어촌[읍면부]	0.7	6.8	51.8	40.7
<b>  연 령  </b>				
20대 이하	0.7	5.5	46.8	46.9
30대	0.7	6.7	45.9	46.7
40대	0.4	6.2	47.1	46.3
50대	0.7	6.5	52.8	40.1
60대 이상	0.8	8.4	52.6	38.2
<b>  학 력  </b>				
중졸 이하	0.8	7.8	53.5	37.9
고졸 이하	0.9	7.5	50.2	41.5
대졸 이하	0.5	6.2	48.4	44.9
대학원졸 이상	1.2	4.2	32.0	62.5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2	5.3	45.7	47.7
사무직	0.4	7.2	48.4	44.0
서비스/판매직	0.7	7.7	49.3	42.3
생산/기술직	0.9	6.7	51.9	40.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0	10.0	57.1	31.9
단순노무직	0.8	6.9	52.3	40.0
기타	5.5	11.8	57.4	25.3
무직	0.6	6.1	49.5	43.8

## 24-1-2)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청년

(단위: %)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전 체	2.4	10.6	47.6	39.4
<b>  성 별  </b>				
남자	2.6	11.2	48.3	37.9
여자	2.2	9.9	47.0	40.8
<b>  지 역  </b>				
도 시[동 부]	2.5	10.1	47.4	40.1
농어촌[읍면부]	2.2	12.8	49.0	35.9
<b>  연 령  </b>				
20대 이하	2.4	7.2	45.5	44.9
30대	3.1	8.0	45.8	43.0
40대	2.9	9.5	47.5	40.1
50대	1.7	10.9	49.4	38.0
60대 이상	2.2	14.3	48.8	34.7
<b>  학 력  </b>				
중졸 이하	1.9	15.0	49.7	33.5
고졸 이하	2.5	9.5	47.7	40.3
대졸 이하	2.6	9.9	47.3	40.3
대학원졸 이상	2.8	12.5	36.6	48.1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7	14.5	42.3	40.5
사무직	3.4	8.8	45.8	42.1
서비스/판매직	2.6	9.0	48.0	40.4
생산/기술직	1.9	9.7	50.3	38.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6	18.7	48.5	29.2
단순노무직	1.5	16.4	45.4	36.8
기타	0.0	0.0	62.4	37.6
무직	1.8	10.5	49.2	38.5



### 24-1-3)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노인

(단위: %)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전 체	5.0	23.3	46.2	25.5
<b>  성 별  </b>				
남자	4.8	23.7	46.3	25.3
여자	5.2	23.0	46.0	25.8
<b>  지 역  </b>				
도 시[동 부]	4.6	22.6	46.6	26.2
농어촌[읍면부]	6.9	26.6	43.9	22.6
<b>  연 령  </b>				
20대 이하	4.9	19.4	47.4	28.3
30대	5.0	21.7	43.8	29.4
40대	4.5	23.0	46.6	25.9
50대	5.4	24.3	46.3	24.1
60대 이상	5.2	26.0	46.2	22.6
<b>  학 력  </b>				
중졸 이하	5.7	26.2	46.2	22.0
고졸 이하	4.6	22.6	47.4	25.4
대졸 이하	5.1	23.0	45.4	26.5
대학원졸 이상	3.3	24.0	38.9	33.9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6	25.4	43.2	25.8
사무직	5.4	22.6	44.8	27.2
서비스/판매직	5.2	22.0	47.6	25.2
생산/기술직	3.0	25.3	47.4	24.3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8.7	33.6	41.7	16.0
단순노무직	5.7	24.4	44.5	25.4
기타	11.8	55.6	8.2	24.4
무직	4.4	22.2	47.2	26.2

## 24-1-4)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장애인

(단위: %)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전 체	5.0	23.2	49.9	22.0
<b>  성 별  </b>				
남자	4.9	23.3	50.0	21.7
여자	5.0	23.0	49.7	22.3
<b>  지 역  </b>				
도 시[동 부]	5.0	22.7	49.6	22.6
농어촌[읍면부]	4.5	25.2	50.9	19.3
<b>  연 령  </b>				
20대 이하	5.1	19.8	47.9	27.2
30대	5.3	21.2	49.2	24.2
40대	4.8	21.3	50.6	23.4
50대	5.3	22.5	51.3	20.9
60대 이상	4.6	27.7	49.9	17.8
<b>  학 력  </b>				
중졸 이하	4.2	28.8	50.3	16.7
고졸 이하	4.8	23.2	50.1	21.9
대졸 이하	5.3	21.5	49.8	23.4
대학원졸 이상	4.0	16.3	43.5	36.3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0	19.9	48.3	27.9
사무직	6.8	22.8	47.2	23.2
서비스/판매직	5.6	22.2	49.9	22.4
생산/기술직	3.1	24.3	54.1	18.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6	33.8	47.1	13.5
단순노무직	2.8	28.2	47.1	22.0
기타	31.7	30.7	13.3	24.4
무직	4.2	22.5	51.7	21.6

#### 24-1-5)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결혼이주민

(단위: %)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전 체	13.2	40.6	34.5	11.7
<b>  성 별  </b>				
남자	13.1	40.6	34.6	11.8
여자	13.3	40.7	34.4	11.6
<b>  지 역  </b>				
도 시[동 부]	12.1	40.8	34.9	12.2
농어촌[읍면부]	18.1	39.7	32.8	9.4
<b>  연 령  </b>				
20대 이하	9.7	32.0	41.9	16.4
30대	12.2	37.3	37.1	13.4
40대	12.1	41.5	34.6	11.8
50대	12.2	42.2	35.2	10.4
60대 이상	17.0	45.7	28.4	8.8
<b>  학 력  </b>				
중졸 이하	20.1	45.1	27.0	7.8
고졸 이하	12.9	40.4	35.0	11.6
대졸 이하	11.2	39.5	36.5	12.8
대학원졸 이상	9.1	35.1	37.4	18.5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6	38.0	35.9	15.5
사무직	12.3	39.2	35.8	12.7
서비스/판매직	11.7	39.1	36.8	12.4
생산/기술직	11.7	45.7	33.2	9.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7.2	45.6	21.3	5.9
단순노무직	12.6	43.7	31.9	11.9
기타	53.6	34.2	4.0	8.1
무직	14.1	41.0	34.1	10.9

## 24-1-6)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이주노동자

(단위: %)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전 체	18.8	46.4	26.2	8.5
<b>  성 별  </b>				
남자	18.9	45.5	27.4	8.2
여자	18.8	47.3	25.0	8.8
<b>  지 역  </b>				
도 시[동 부]	17.1	47.2	26.9	8.8
농어촌[읍면부]	26.7	42.9	23.1	7.3
<b>  연 령  </b>				
20대 이하	14.9	41.3	31.6	12.2
30대	16.5	45.0	28.7	9.9
40대	16.0	46.5	28.4	9.1
50대	18.1	48.0	26.4	7.5
60대 이상	24.5	49.1	20.4	6.0
<b>  학 력  </b>				
중졸 이하	28.6	47.8	17.8	5.8
고졸 이하	18.8	46.7	26.6	7.9
대졸 이하	15.7	45.9	28.6	9.7
대학원졸 이상	14.3	40.3	29.3	16.1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1	45.3	29.8	10.8
사무직	16.2	45.6	28.9	9.3
서비스/판매직	17.0	45.0	28.4	9.6
생산/기술직	17.7	52.1	23.6	6.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9.0	42.1	15.0	3.9
단순노무직	19.2	51.5	20.6	8.7
기타	39.1	48.1	6.0	6.9
무직	20.8	46.4	25.0	7.8

### 24-1-7)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북한이탈주민

(단위: %)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b>전 체</b>	<b>20.7</b>	<b>45.5</b>	<b>25.6</b>	<b>8.1</b>
<b>  성 별  </b>				
남자	20.3	45.2	26.2	8.3
여자	21.2	45.9	25.0	7.9
<b>  지 역  </b>				
도 시[동 부]	19.0	46.5	26.1	8.4
농어촌[읍면부]	28.4	41.2	23.6	6.7
<b>  연 령  </b>				
20대 이하	16.0	41.5	31.4	11.2
30대	19.8	42.7	27.2	10.3
40대	18.3	44.9	28.1	8.6
50대	19.7	46.9	26.5	6.9
60대 이상	26.0	48.8	19.5	5.7
<b>  학 력  </b>				
중졸 이하	29.0	47.8	17.8	5.4
고졸 이하	20.7	46.2	25.6	7.5
대졸 이하	18.2	44.4	28.2	9.3
대학원졸 이상	13.7	41.8	29.3	15.1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5.1	44.8	29.4	10.7
사무직	18.4	46.0	27.5	8.0
서비스/판매직	19.2	43.9	27.4	9.5
생산/기술직	19.1	50.3	23.8	6.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8.8	42.6	14.3	4.3
단순노무직	22.5	50.1	21.4	6.1
기타	77.6	18.4	4.0	0.0
무직	22.4	45.2	24.8	7.7

## 24-1-8)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성소수자

(단위: %)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전 체	22.4	40.6	26.9	10.1
<b>  성 별  </b>				
남자	23.0	39.6	27.6	9.8
여자	21.9	41.6	26.1	10.4
<b>  지 역  </b>				
도 시[동 부]	21.2	41.0	27.5	10.3
농어촌[읍면부]	28.3	38.4	24.2	9.0
<b>  연 령  </b>				
20대 이하	16.0	32.6	36.2	15.2
30대	20.4	36.8	30.2	12.6
40대	21.2	40.1	28.4	10.3
50대	22.0	41.5	27.5	9.0
60대 이상	28.2	46.8	18.5	6.5
<b>  학 력  </b>				
중졸 이하	31.6	46.3	15.6	6.5
고졸 이하	21.5	40.2	27.8	10.5
대졸 이하	20.3	39.2	29.9	10.6
대학원졸 이상	18.7	34.9	26.3	20.1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0.0	36.2	29.1	14.6
사무직	20.4	39.5	29.5	10.7
서비스/판매직	19.7	39.7	30.4	10.2
생산/기술직	20.1	46.5	24.2	9.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37.6	42.9	13.6	5.9
단순노무직	23.9	43.1	22.7	10.3
기타	77.6	15.1	6.0	1.3
무직	24.8	40.8	25.1	9.3

## 25.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정도

(단위: %)

	매우 자주 있다	자주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전 체	2.8	17.1	40.0	40.1
<b>  성 별  </b>				
남자	3.1	18.7	41.1	37.1
여자	2.5	15.4	39.0	43.1
<b>  지 역  </b>				
도 시[동 부]	3.0	17.8	40.5	38.6
농어촌[읍면부]	1.9	13.6	37.7	46.8
<b>  연 령  </b>				
20대 이하	6.0	20.1	40.1	33.9
30대	5.3	21.9	38.6	34.2
40대	2.5	18.3	41.4	37.7
50대	1.7	15.0	42.1	41.2
60대 이상	0.6	13.4	38.6	47.4
<b>  학 력  </b>				
중졸 이하	0.5	9.0	33.7	56.8
고졸 이하	2.3	16.8	42.4	38.5
대졸 이하	4.0	19.7	40.4	35.8
대학원졸 이상	3.7	23.3	34.7	38.2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8.1	19.8	38.8	33.3
사무직	3.4	19.7	40.5	36.3
서비스/판매직	2.7	18.6	42.0	36.7
생산/기술직	1.8	16.2	43.5	38.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0	9.1	38.2	51.7
단순노무직	1.4	10.7	43.2	44.6
기타	8.1	60.5	7.9	23.5
무직	2.0	15.4	37.5	45.1

## 25-1.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친구/가족/ 지인	온라인 포털/카페	메신저 서비스	SNS	TV/라디오	인터넷 방송	캠페인, 거리집회	기타
전 체	28.5	30.8	20.5	21.7	49.6	43.3	10.7	0.4
성 별								
남자	29.2	31.3	21.2	21.5	48.6	44.8	11.0	0.4
여자	27.7	30.3	19.8	21.8	50.6	41.7	10.4	0.4
지 역								
도 시[동 부]	27.8	31.8	21.4	22.5	49.6	44.6	11.2	0.3
농어촌[읍면부]	32.4	25.5	15.8	17.1	49.5	36.2	7.9	0.7
연 령								
20대 이하	27.6	44.1	28.5	37.4	34.7	53.8	11.0	0.4
30대	23.3	43.0	25.8	31.8	43.3	50.1	12.2	0.2
40대	25.6	35.9	22.9	20.5	46.8	47.2	11.4	0.1
50대	27.7	26.8	15.8	15.3	55.5	42.2	11.1	0.7
60대 이상	35.1	12.6	13.0	9.1	62.0	29.3	8.6	0.5
학 령								
중졸 이하	37.9	6.4	7.4	5.4	65.8	20.5	7.8	0.4
고졸 이하	29.7	27.1	18.4	18.5	48.7	43.3	10.3	0.6
대졸 이하	25.8	38.5	24.9	27.4	47.1	48.1	11.4	0.2
대학원졸 이상	17.3	50.0	23.5	34.2	33.5	52.4	19.0	1.8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3.3	43.0	23.3	28.7	43.9	51.4	11.0	0.6
사무직	26.2	40.8	28.6	28.4	46.6	49.9	11.1	0.1
서비스/판매직	29.2	30.3	21.8	22.9	46.3	44.6	11.6	0.5
생산/기술직	34.9	25.2	16.8	14.4	47.8	40.4	10.1	0.4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5.9	9.4	7.6	5.7	57.2	25.9	3.7	0.6
단순노무직	34.7	13.9	8.0	9.7	60.0	35.4	10.8	1.0
기타	10.3	69.0	71.2	84.5	78.2	52.0	1.7	0.0
무직	26.4	26.6	16.5	18.8	54.1	38.8	10.5	0.4



## 25-2.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여성	남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난민	성소수자	특정 종교인	노숙자	특정 지역 출신인	정치인	연예인	기타
<b>전 체</b>	31.2	22.1	11.5	22.2	27.6	14.9	6.9	7.3	28.4	21.1	10.7	14.6	41.9	23.5	0.8
<b>  성 별  </b>															
남자	29.3	24.9	10.5	22.5	27.6	16.4	7.2	6.6	28.6	22.5	10.1	16.3	43.9	23.5	0.7
여자	33.1	19.0	12.7	21.9	27.7	13.3	6.7	8.0	28.2	19.5	11.3	12.8	39.7	23.5	0.8
<b>  지 역  </b>															
도 시[동 부]	31.9	22.3	11.5	23.2	29.1	14.6	6.8	7.2	28.7	20.4	10.9	15.1	42.0	23.7	0.8
농어촌[읍면부]	27.1	20.9	11.9	17.0	20.1	16.7	7.5	7.7	27.0	24.8	9.3	12.2	41.4	22.3	0.7
<b>  연 령  </b>															
20대 이하	40.5	29.3	14.3	21.1	28.6	16.8	6.6	7.1	33.9	19.3	9.3	16.2	36.5	31.2	1.2
30대	39.0	29.6	14.7	25.8	30.0	14.6	6.5	9.4	33.9	22.0	11.8	15.3	41.2	29.0	1.2
40대	34.6	20.5	9.5	19.6	27.0	15.9	7.9	8.5	31.6	23.8	10.9	14.4	41.4	24.7	0.7
50대	25.1	17.7	9.2	22.2	27.6	15.2	6.8	5.7	25.2	20.4	11.9	15.6	42.7	19.7	0.5
60대 이상	21.2	16.3	10.6	22.6	25.9	12.9	6.8	6.2	20.9	20.4	9.9	12.4	46.1	16.3	0.4
<b>  학 력  </b>															
중졸 이하	19.4	18.6	7.9	23.9	23.7	10.5	6.7	5.7	16.3	20.3	9.6	11.2	47.8	15.3	0.6
고졸 이하	29.3	21.2	11.7	20.9	27.1	13.6	5.9	6.3	25.7	20.4	9.9	14.9	41.9	22.4	0.6
대졸 이하	34.5	23.4	12.3	22.8	28.8	16.8	7.7	8.3	32.9	21.7	11.4	14.7	40.2	25.8	0.9
대학원졸 이상	53.2	25.4	8.0	22.4	33.4	20.9	11.1	9.1	39.4	26.2	15.9	30.8	55.0	36.2	0.6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8.6	25.0	10.4	22.9	29.5	18.8	8.3	7.7	40.6	24.5	12.5	22.0	48.2	26.8	0.7
사무직	36.7	23.2	12.7	25.7	33.5	17.2	8.3	8.5	32.7	22.8	13.2	15.9	39.1	28.6	0.6
서비스/판매직	31.6	22.9	12.6	21.8	26.8	13.9	6.1	7.5	28.8	20.7	9.1	12.0	38.1	23.2	0.7
생산/기술직	24.4	24.1	9.4	14.9	22.0	14.0	6.0	4.6	24.0	22.9	7.9	14.4	50.0	22.1	1.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5.0	21.8	5.7	19.9	17.6	11.2	6.3	3.1	18.7	36.2	8.7	15.8	57.1	19.2	0.1
단순노무직	23.6	17.0	6.3	23.3	27.4	11.9	4.8	4.0	18.1	20.9	8.8	14.6	45.1	18.2	1.5
기타	84.5	63.8	72.9	72.9	72.9	1.7	32.6	17.1	49.6	0.0	27.6	12.0	14.5	4.2	0.0
무직	27.9	19.5	11.6	21.7	26.0	14.3	6.7	7.8	25.2	17.3	10.9	13.9	41.2	20.8	0.8

## 25-3-a. 혐오표현의 내용이 심한 대상 (1순위)

(단위: %)

	여성	남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난민	성소수자	특정 종교인	노숙자	특정 지역 출신인	정치인	연예인	기타
전 체	18.6	4.9	4.9	5.0	8.6	3.8	1.0	1.0	9.7	5.4	1.9	4.5	23.0	7.4	0.2
<b>  성 별  </b>															
남자	14.9	6.6	4.7	4.8	8.5	4.8	0.8	0.8	9.8	5.0	1.4	5.0	25.6	7.0	0.3
여자	23.1	2.8	5.2	5.4	8.7	2.6	1.2	1.2	9.5	5.8	2.5	4.0	19.9	8.0	0.2
<b>  지 역  </b>															
도 시[동 부]	19.4	4.7	4.9	5.1	9.1	3.7	1.0	1.0	9.9	4.8	1.7	4.5	22.3	7.8	0.3
농어촌[읍면부]	13.9	5.7	5.0	4.6	5.4	4.5	1.1	1.0	8.6	9.3	3.4	4.5	27.4	5.5	0.0
<b>  연 령  </b>															
20대 이하	26.1	7.6	3.2	4.8	7.0	4.8	0.6	1.0	9.8	4.0	1.1	3.0	16.6	9.8	0.6
30대	20.5	5.1	5.2	1.6	8.6	2.9	0.9	1.0	15.1	4.3	1.9	2.7	21.2	9.0	0.1
40대	19.6	5.4	3.1	2.6	7.8	3.5	0.7	1.3	10.3	6.0	1.2	4.4	25.4	8.7	0.0
50대	15.0	3.0	5.6	4.5	11.0	2.8	1.3	1.1	7.4	5.1	2.4	8.0	25.9	6.7	0.0
60대 이상	10.8	2.7	7.8	11.5	9.0	4.7	1.7	0.7	5.3	7.6	3.1	5.3	26.9	2.7	0.2
<b>  학 력  </b>															
중졸 이하	9.8	4.5	3.1	14.6	9.1	1.5	3.9	2.2	7.1	9.4	2.3	6.3	24.2	2.1	0.0
고졸 이하	18.8	3.7	5.8	5.5	9.6	4.7	0.7	1.1	7.7	5.9	2.0	4.2	24.2	5.7	0.4
대졸 이하	19.8	5.6	4.8	3.5	7.6	3.5	0.8	0.7	11.3	4.7	1.7	4.4	22.2	9.3	0.1
대학원졸 이상	20.3	5.8	0.0	3.0	14.2	3.9	0.4	1.7	10.1	0.7	5.8	7.1	18.9	8.0	0.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5.1	3.6	2.0	2.5	7.4	4.4	0.3	0.3	12.0	4.0	2.6	6.3	22.2	7.3	0.0
사무직	21.7	7.3	3.9	3.8	9.2	4.4	1.0	1.0	11.7	3.5	1.3	3.0	19.0	9.2	0.0
서비스/판매직	19.4	3.4	7.0	4.9	7.7	3.2	0.9	0.9	8.6	7.0	1.1	3.9	22.8	8.7	0.5
생산/기술직	8.7	6.5	2.9	1.9	7.0	4.2	0.5	0.5	8.1	7.3	2.4	5.0	37.6	7.3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1	7.6	2.3	9.0	3.8	1.6	0.5	0.0	3.8	16.4	0.8	8.6	39.2	0.4	0.0
단순노무직	13.2	4.9	2.1	13.4	15.4	3.2	1.1	0.0	4.5	4.0	1.2	6.1	25.4	4.9	0.7
기타	23.9	0.0	73.9	0.0	0.0	0.0	0.0	0.0	2.2	0.0	0.0	0.0	0.0	0.0	0.0
무직	17.1	3.6	5.3	7.0	9.4	3.7	1.7	1.8	9.7	5.0	3.1	5.2	21.2	5.9	0.3

### 25-3-b. 혐오표현의 내용이 심한 대상 (1+2순위)

(단위: %)

	여성	남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난민	성소수자	특정 종교인	노숙자	특정 지역 출신인	정치인	연예인	기타
<b>전 체</b>	27.9	11.1	7.6	15.3	19.7	7.5	1.6	2.6	16.8	12.0	4.6	9.6	34.1	19.6	0.3
<b>  성 별  </b>															
남자	24.2	13.3	7.3	14.5	19.4	7.7	1.5	2.4	15.9	12.6	4.0	10.8	36.6	18.8	0.3
여자	32.2	8.5	8.0	16.2	20.0	7.2	1.7	2.8	17.8	11.3	5.3	8.1	31.1	20.5	0.3
<b>  지 역  </b>															
도 시[동 부]	28.4	11.1	7.4	15.1	21.1	7.4	1.5	2.3	17.0	11.2	4.1	9.9	33.0	20.2	0.3
농어촌[읍면부]	24.6	10.8	9.2	16.2	11.0	7.7	2.4	4.2	15.6	17.1	7.5	7.4	40.6	16.0	0.0
<b>  연 령  </b>															
20대 이하	38.7	16.5	5.9	11.6	16.7	8.3	0.7	2.5	19.6	6.9	3.3	8.8	25.3	24.9	0.6
30대	28.1	14.5	7.6	10.7	17.4	7.0	1.8	2.6	21.0	11.5	4.8	6.7	31.2	24.7	0.3
40대	31.3	12.4	5.2	12.1	18.2	8.1	0.9	2.6	19.2	13.0	4.0	7.5	35.2	20.4	0.0
50대	24.5	5.4	8.3	17.1	24.4	5.9	1.8	2.4	14.1	13.5	5.7	14.2	35.9	16.0	0.2
60대 이상	15.5	5.1	11.3	25.5	22.8	7.7	2.8	2.8	9.3	15.9	5.4	11.6	43.8	10.8	0.2
<b>  학 력  </b>															
중졸 이하	17.0	7.1	6.0	28.1	22.4	5.9	4.5	3.4	12.1	16.6	5.1	10.7	44.9	8.2	0.0
고졸 이하	26.1	10.0	10.1	15.6	21.4	8.1	1.6	2.9	13.9	12.8	4.2	11.6	33.6	17.5	0.4
대졸 이하	30.4	12.2	6.6	13.6	17.8	7.3	1.2	2.3	19.2	11.1	4.6	7.8	33.0	22.2	0.2
대학원졸 이상	31.1	14.8	0.6	7.0	28.8	7.6	0.4	1.7	17.6	6.9	8.4	17.1	28.3	25.9	0.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6.8	11.0	4.7	7.6	20.3	9.5	0.4	0.3	20.3	11.5	4.9	14.6	32.3	17.5	0.0
사무직	32.0	12.6	6.0	15.8	20.6	7.6	1.2	3.3	18.9	8.8	4.9	5.8	28.4	24.1	0.0
서비스/판매직	28.8	9.4	9.6	15.4	18.2	6.2	1.9	1.7	16.5	13.1	3.0	8.3	32.7	21.9	0.7
생산/기술직	18.0	14.9	5.0	7.8	15.5	7.9	0.5	3.2	15.9	16.7	4.8	10.2	53.0	15.5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9.6	8.4	3.3	18.9	8.8	3.3	4.4	0.5	5.4	27.2	2.1	16.2	72.9	9.5	0.0
단순노무직	21.1	9.6	6.2	24.3	35.1	5.8	1.1	0.4	10.6	8.4	4.7	12.1	41.2	17.0	0.7
기타	23.9	23.9	73.9	73.9	0.0	0.0	0.0	0.0	2.2	0.0	0.0	2.2	0.0	0.0	0.0
무직	25.0	10.2	9.2	17.7	20.3	8.3	2.4	4.2	16.1	12.0	5.8	11.2	31.2	16.9	0.3

## 25-4.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단위: %)

	적극 동조하는 의견과 행동을 취했다	다소 동조하는 의견과 행동을 취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다소 반대하는 의견, 시정을 요구했다	적극 반대하는 의견, 시정을 요구했다
전 체	1.0	12.9	71.9	12.3	1.9
<b>  성 별  </b>					
남자	1.1	13.8	70.9	12.4	1.7
여자	0.9	11.9	73.0	12.1	2.0
<b>  지 역  </b>					
도 시[동 부]	0.9	12.6	72.3	12.2	2.0
농어촌[읍면부]	1.6	14.5	70.0	12.8	1.0
<b>  연 령  </b>					
20대 이하	1.9	13.0	68.4	14.8	1.9
30대	0.5	12.2	74.0	11.8	1.5
40대	1.2	14.8	68.1	13.3	2.6
50대	0.6	11.6	73.4	12.6	1.9
60대 이상	0.9	12.9	74.9	9.8	1.5
<b>  학 력  </b>					
중졸 이하	0.9	11.2	77.5	9.6	0.7
고졸 이하	1.1	12.8	74.9	9.6	1.6
대졸 이하	1.0	13.7	68.9	14.2	2.2
대학원졸 이상	0.2	3.5	55.5	33.7	7.1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	10.9	58.1	24.0	5.6
사무직	0.9	12.4	72.8	12.7	1.2
서비스/판매직	1.3	15.0	71.7	9.8	2.2
생산/기술직	0.5	15.0	70.7	12.2	1.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3	22.4	59.2	16.5	1.5
단순노무직	1.3	13.1	73.1	11.6	0.8
기타	9.0	10.3	39.3	41.4	0.0
무직	0.8	10.3	77.3	10.2	1.3

## 26. 혐오 표현의 심각성 정도

(단위: %)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전 체	8.2	49.4	37.6	4.8
<b>  성 별  </b>				
남자	8.7	50.5	36.9	3.9
여자	7.7	48.3	38.3	5.7
<b>  지 역  </b>				
도 시[동 부]	8.7	49.7	37.2	4.4
농어촌[읍면부]	6.0	48.0	39.1	6.8
<b>  연 령  </b>				
20대 이하	13.1	47.9	35.6	3.4
30대	12.5	52.9	32.1	2.5
40대	8.5	52.7	35.3	3.5
50대	6.3	52.4	36.9	4.5
60대 이상	4.3	44.4	43.4	7.9
<b>  학 력  </b>				
중졸 이하	3.9	36.1	47.6	12.3
고졸 이하	8.3	49.8	38.0	4.0
대졸 이하	9.2	53.5	34.2	3.1
대학원졸 이상	20.0	50.0	27.4	2.5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6	50.3	27.6	3.5
사무직	8.1	56.3	32.3	3.3
서비스/판매직	7.7	50.5	38.4	3.4
생산/기술직	5.9	50.0	40.4	3.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6	33.9	46.5	14.0
단순노무직	5.6	48.5	36.8	9.1
기타	13.6	65.8	20.7	0.0
무직	7.6	45.6	41.1	5.8

## 27.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단위: %)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전 체	17.6	51.3	26.9	4.2
<b>  성 별  </b>				
남자	17.3	51.4	26.8	4.5
여자	17.9	51.3	26.9	3.9
<b>  지 역  </b>				
도 시[동 부]	17.0	51.5	27.5	4.0
농어촌[읍면부]	20.8	50.7	23.7	4.8
<b>  연 령  </b>				
20대 이하	17.8	48.4	29.3	4.5
30대	19.4	51.6	25.5	3.5
40대	17.6	54.8	24.0	3.5
50대	19.3	51.8	25.3	3.6
60대 이상	15.6	50.4	28.9	5.1
<b>  학 력  </b>				
중졸 이하	15.5	46.5	30.8	7.2
고졸 이하	17.4	51.7	27.3	3.7
대졸 이하	17.9	53.1	25.4	3.6
대학원졸 이상	37.3	37.6	20.6	4.5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6.0	47.3	21.9	4.8
사무직	18.1	54.1	24.4	3.5
서비스/판매직	16.5	50.9	29.1	3.5
생산/기술직	14.8	51.1	30.0	4.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2	46.9	28.0	7.9
단순노무직	19.2	48.4	25.7	6.8
기타	6.7	71.1	15.4	6.9
무직	16.9	51.7	27.2	4.1

## 28.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전 체	5.8	54.9	34.4	4.9
<b>  성 별  </b>				
남자	6.4	58.1	31.9	3.7
여자	5.3	51.7	36.9	6.0
<b>  지 역  </b>				
도 시[동 부]	5.4	55.5	34.6	4.4
농어촌[읍면부]	7.8	51.9	33.5	6.8
<b>  연 령  </b>				
20대 이하	7.0	59.8	30.4	2.8
30대	6.5	60.7	30.3	2.5
40대	7.0	58.1	32.1	2.7
50대	5.7	56.4	33.6	4.2
60대 이상	4.2	46.1	40.8	8.9
<b>  학 력  </b>				
중졸 이하	2.9	39.0	45.0	13.2
고졸 이하	4.6	54.1	36.6	4.7
대졸 이하	7.4	60.5	29.8	2.3
대학원졸 이상	20.0	63.1	15.5	1.4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3.6	65.2	20.0	1.3
사무직	5.6	59.1	32.7	2.7
서비스/판매직	5.1	53.9	36.5	4.4
생산/기술직	4.5	61.5	30.6	3.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3	44.7	41.6	9.4
단순노무직	4.5	44.1	44.1	7.3
기타	26.7	49.0	24.3	0.0
무직	5.4	51.5	36.2	6.9

## 29.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전 체	3.5	42.3	46.5	7.7
<b>  성 별  </b>				
남자	4.2	46.1	43.6	6.1
여자	2.8	38.5	49.3	9.3
<b>  지 역  </b>				
도 시[동 부]	3.4	43.3	46.6	6.8
농어촌[읍면부]	4.1	37.7	46.1	12.2
<b>  연 령  </b>				
20대 이하	3.9	48.8	43.5	3.8
30대	4.2	50.3	40.7	4.8
40대	4.5	44.8	46.3	4.4
50대	3.4	46.4	43.7	6.4
60대 이상	2.3	30.2	53.1	14.4
<b>  학 력  </b>				
중졸 이하	1.5	20.0	56.5	22.1
고졸 이하	2.6	39.9	50.2	7.3
대졸 이하	4.5	51.3	40.7	3.5
대학원졸 이상	14.5	51.0	31.3	3.3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5	58.0	30.0	2.5
사무직	3.8	50.0	42.8	3.4
서비스/판매직	3.5	42.0	48.1	6.4
생산/기술직	2.4	49.8	42.2	5.6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9	25.9	54.2	18.0
단순노무직	1.4	31.0	55.2	12.4
기타	10.6	61.0	28.4	0.0
무직	2.6	35.3	50.6	11.5



### 30.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 받은 경험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11.5	88.5
성 별		
남자	13.2	86.8
여자	9.8	90.2
지 역		
도 시[동 부]	12.0	88.0
농어촌[읍면부]	9.3	90.7
연 령		
20대 이하	19.0	81.0
30대	17.1	82.9
40대	13.2	86.8
50대	10.3	89.7
60대 이상	4.0	96.0
학 력		
중졸 이하	1.9	98.1
고졸 이하	9.0	91.0
대졸 이하	15.9	84.1
대학원졸 이상	35.3	64.7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9.8	70.2
사무직	19.9	80.1
서비스/판매직	9.1	90.9
생산/기술직	9.3	90.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7	98.3
단순노무직	6.2	93.8
기타	26.7	73.3
무직	6.1	93.9

## 30-1. 인권교육을 주관한 기관 (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국가인권 위원회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교육기관	시민사회 단체	민간기업/ 사업체	사회복지 단체	기타
전 체	6.0	20.5	24.3	7.8	48.8	9.6	0.7
성 별							
남자	7.1	21.9	17.1	5.6	56.5	6.9	0.9
여자	4.6	18.5	33.9	10.6	38.5	13.2	0.3
지 역							
도 시·동 부	6.5	20.1	25.1	7.8	49.6	9.1	0.8
농어촌(읍면부)	3.2	22.6	19.7	7.8	44.1	12.8	0.2
연 령							
20대 이하	5.7	15.2	43.4	7.2	37.3	6.0	1.7
30대	6.0	23.8	15.7	8.1	55.1	8.6	0.0
40대	6.6	19.3	21.2	5.4	57.9	7.6	0.3
50대	3.4	22.5	12.9	6.0	58.1	10.4	0.0
60대 이상	10.3	26.1	16.4	16.5	32.5	24.5	1.3
학 력							
중졸 이하	6.6	17.6	16.7	18.9	17.2	31.3	3.1
고졸 이하	6.1	14.5	38.1	9.3	40.1	10.5	0.9
대졸 이하	6.2	23.6	16.8	7.0	54.8	8.3	0.6
대학원졸 이상	2.4	15.3	45.7	2.8	38.2	10.1	0.0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0	21.5	26.9	3.6	48.9	8.4	0.7
사무직	6.1	24.4	12.0	6.9	61.8	7.5	0.0
서비스/판매직	9.7	13.5	21.7	9.8	48.3	15.8	0.8
생산/기술직	6.2	10.6	14.0	5.4	68.1	10.2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3.0	66.1	0.0	2.9	14.5	3.4	5.3
단순노무직	0.0	22.2	9.1	5.5	53.1	16.4	0.0
기타	0.0	52.3	40.3	0.0	20.7	7.4	0.0
무직	2.5	20.5	57.7	13.7	14.5	7.3	2.2

### 30-2. 인권교육 방식(해당사항 모두 선택)

(단위: %)

	내부강사/교사의 집합교육	외부강사의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시청각 교육	기타
전 체	17.1	32.2	62.0	13.3	0.1
<b>  성 별  </b>					
남자	18.1	31.3	62.7	14.3	0.0
여자	15.7	33.5	61.0	12.0	0.2
<b>  지 역  </b>					
도 시[동 부]	16.7	31.6	63.0	14.3	0.1
농어촌[읍면부]	19.3	36.1	55.9	7.8	0.0
<b>  연 령  </b>					
20대 이하	17.1	30.5	58.4	17.3	0.0
30대	15.1	26.4	69.4	12.1	0.3
40대	15.7	33.5	65.3	10.0	0.0
50대	19.0	35.8	61.0	13.6	0.0
60대 이상	21.2	41.4	50.1	11.5	0.2
<b>  학 력  </b>					
중졸 이하	37.5	31.5	25.3	20.7	0.8
고졸 이하	23.9	30.0	56.5	17.3	0.0
대졸 이하	13.2	33.8	64.9	11.6	0.1
대학원졸 이상	16.2	23.9	76.3	7.6	0.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7.6	31.1	66.5	12.1	0.0
사무직	11.2	32.6	67.9	10.9	0.0
서비스/판매직	17.4	30.7	58.6	11.9	0.0
생산/기술직	23.7	24.1	56.9	11.4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4.2	28.4	45.1	5.9	0.0
단순노무직	30.6	38.5	52.7	7.3	0.0
기타	22.5	72.8	60.4	15.1	0.0
무직	22.3	36.2	52.1	23.5	0.5

## 30-3. 인권교육이 도움 된 정도

(단위: %)

	매우 도움이 되었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 체	16.4	67.2	14.5	1.9
<b>  성 별  </b>				
남자	14.1	68.1	15.4	2.4
여자	19.6	65.8	13.4	1.2
<b>  지 역  </b>				
도 시[동 부]	15.3	67.3	15.2	2.1
농어촌[읍면부]	22.8	66.2	10.6	0.5
<b>  연 령  </b>				
20대 이하	12.1	67.1	18.5	2.3
30대	13.2	67.9	16.1	2.7
40대	17.9	69.2	11.3	1.6
50대	18.4	70.3	10.7	0.6
60대 이상	28.9	56.4	13.2	1.5
<b>  학 력  </b>				
중졸 이하	34.7	54.3	11.0	0.0
고졸 이하	17.7	62.6	18.0	1.8
대졸 이하	15.1	69.9	13.1	2.0
대학원졸 이상	17.1	65.8	15.6	1.5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8.9	65.2	14.7	1.2
사무직	12.0	73.7	12.6	1.7
서비스/판매직	17.8	66.1	14.0	2.0
생산/기술직	14.8	61.4	21.8	2.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3.0	82.2	4.8	0.0
단순노무직	14.5	60.7	20.5	4.3
기타	35.8	36.3	27.9	0.0
무직	21.9	60.5	15.1	2.5

### 31.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필요성

(단위: %)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 없는 편이다	전혀 필요 없다
전 체	17.3	64.2	15.8	2.8
<b>  성 별  </b>				
남자	16.4	65.8	15.2	2.5
여자	18.1	62.5	16.4	3.0
<b>  지 역  </b>				
도 시[동 부]	17.4	64.4	15.5	2.6
농어촌[읍면부]	16.4	62.9	17.1	3.5
<b>  연 령  </b>				
20대 이하	17.0	67.8	13.6	1.5
30대	21.1	64.2	12.8	1.9
40대	18.9	67.0	12.3	1.8
50대	16.0	65.6	15.7	2.7
60대 이상	15.2	59.4	20.8	4.6
<b>  학 력  </b>				
중졸 이하	12.9	55.4	25.6	6.2
고졸 이하	15.9	65.9	15.6	2.6
대졸 이하	19.4	65.8	12.9	1.9
대학원졸 이상	30.9	59.1	9.4	0.6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7.3	61.6	9.9	1.3
사무직	18.3	64.7	15.2	1.9
서비스/판매직	16.0	66.5	14.8	2.7
생산/기술직	15.1	68.7	15.0	1.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3.8	57.9	24.4	3.8
단순노무직	17.5	62.5	17.0	3.0
기타	28.8	64.3	6.9	0.0
무직	16.1	62.4	17.4	4.1

## 32-a.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높여야 할 대상 (1순위)

(단위: %)

	국가 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검찰/ 경찰/ 법원	국회/ 지방 의회	군대	교육청/ 교육 기관	대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기업/ 사업자	시민 사회 단체	언론 대중 매체	복지 기관	종교 단체	기타
전 체	21.2	13.6	11.4	6.7	14.9	1.8	4.6	7.2	1.9	6.0	10.1	0.6	0.1
성 별													
남자	21.3	14.3	11.6	8.3	14.1	1.6	4.0	7.3	1.9	5.9	9.0	0.5	0.1
여자	21.2	12.9	11.1	5.0	15.8	1.9	5.3	7.0	1.8	6.2	11.2	0.6	0.0
지 역													
도 시[동 부]	21.5	13.8	11.4	6.8	14.9	1.8	4.6	6.9	1.8	6.2	9.7	0.6	0.1
농어촌[읍면부]	20.0	12.7	11.5	6.0	14.9	1.6	5.0	8.3	2.2	5.4	12.1	0.4	0.0
연 령													
20대 이하	17.9	12.7	9.6	8.7	15.9	3.0	5.7	8.3	1.5	7.9	8.3	0.4	0.0
30대	21.5	13.0	11.5	8.2	13.8	2.1	4.5	8.3	2.0	7.1	7.7	0.3	0.1
40대	20.6	13.4	11.4	6.5	16.4	1.5	5.0	8.3	2.0	5.3	8.7	0.6	0.2
50대	21.9	15.1	12.0	6.0	14.5	1.2	4.3	6.6	1.8	6.4	9.2	1.0	0.0
60대 이상	23.0	13.7	11.9	5.2	14.3	1.4	4.1	5.5	1.9	4.6	13.9	0.4	0.0
학 력													
중졸 이하	23.9	12.7	11.1	5.3	15.0	1.3	4.4	5.8	1.7	3.4	14.9	0.4	0.1
고졸 이하	21.7	13.7	10.9	6.0	14.3	2.0	5.3	7.0	2.1	6.5	9.9	0.8	0.1
대졸 이하	20.2	13.6	11.8	7.7	15.4	1.7	4.2	7.9	1.8	6.5	8.8	0.5	0.1
대학원졸 이상	14.2	23.5	12.0	5.4	19.2	1.6	4.6	3.0	1.0	7.3	7.8	0.0	0.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3.6	13.9	10.3	6.4	14.3	1.5	5.4	5.4	2.1	6.6	9.5	0.7	0.2
사무직	21.0	14.9	12.0	7.4	14.9	1.2	4.0	7.6	2.1	6.6	8.0	0.3	0.0
서비스/판매직	19.3	14.4	11.5	7.3	13.0	2.2	4.7	7.8	2.1	6.6	10.1	0.8	0.1
생산/기술직	20.8	13.6	8.2	7.3	14.2	0.9	3.7	14.3	1.1	5.1	10.0	0.7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8.2	12.6	16.0	5.8	11.1	0.5	2.9	5.3	1.6	6.7	18.8	0.5	0.1
단순노무직	21.5	13.4	10.2	5.0	16.9	1.6	4.6	9.8	1.6	3.9	10.6	0.7	0.1
기타	4.1	20.7	0.0	67.9	0.0	0.0	2.0	5.3	0.0	0.0	0.0	0.0	0.0
무직	22.9	12.2	11.7	5.5	17.1	2.2	5.3	4.7	1.7	5.6	10.6	0.4	0.0

### 32-b.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높여야 할 대상 (1순위+2순위)

(단위: %)

	국가 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검찰/ 경찰/ 법원	국회/ 지방 의회	군대	교육청/ 교육 기관	대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기업/ 사업자	시민 사회 단체	언론 대중 매체	복지 기관	종교 단체	기타
전 체	29.4	25.9	21.3	12.3	28.1	5.0	13.2	16.3	5.9	15.9	21.6	1.7	0.1
성 별													
남자	29.6	26.8	21.9	14.0	26.1	5.0	11.9	16.9	6.1	16.1	20.3	1.6	0.1
여자	29.3	25.0	20.7	10.5	30.1	5.0	14.5	15.7	5.6	15.7	22.9	1.7	0.1
지 역													
도 시[동 부]	30.0	26.1	21.1	12.4	28.3	5.3	13.4	16.0	5.9	15.8	20.8	1.6	0.1
농어촌[읍면부]	26.6	24.9	22.3	11.7	27.2	3.6	12.6	17.7	5.8	16.1	25.2	1.9	0.0
연 령													
20대 이하	26.4	23.6	17.9	14.7	29.9	7.3	14.0	17.7	5.2	19.8	19.4	1.4	0.0
30대	29.6	24.4	20.4	14.5	27.6	5.2	12.4	20.6	5.9	17.0	17.5	1.5	0.1
40대	28.9	24.9	21.4	11.7	29.1	5.0	14.6	18.5	6.2	15.8	19.6	1.6	0.3
50대	30.3	28.0	22.8	11.7	27.9	4.3	12.3	15.1	6.6	15.2	20.0	2.1	0.0
60대 이상	30.9	27.1	22.7	10.4	26.9	4.0	13.0	12.7	5.4	13.5	27.2	1.8	0.1
학 력													
중졸 이하	31.7	26.7	21.7	10.0	27.6	3.0	13.5	13.1	4.6	11.7	29.2	1.5	0.1
고졸 이하	29.9	26.0	21.2	11.9	27.3	5.3	14.0	15.0	6.1	17.0	21.4	2.0	0.1
대졸 이하	28.5	25.3	21.1	13.3	28.5	5.4	12.6	18.5	6.1	16.3	19.5	1.5	0.1
대학원졸 이상	22.9	32.7	24.0	12.2	38.1	4.8	13.2	12.8	4.4	16.7	15.0	2.3	0.3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2.1	27.5	21.2	11.7	28.4	3.5	12.5	13.8	6.0	17.5	19.7	2.4	0.2
사무직	28.8	27.0	21.0	13.5	27.7	4.8	12.4	19.2	6.7	16.0	18.3	1.3	0.1
서비스/판매직	27.4	26.3	21.3	13.2	25.6	6.2	13.2	17.0	6.2	16.5	22.1	1.7	0.1
생산/기술직	29.4	24.2	19.2	12.4	26.6	4.0	11.9	23.7	5.3	14.8	23.5	2.1	0.1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5.4	26.9	28.0	12.4	20.9	2.6	10.2	13.6	4.6	13.4	36.0	1.8	0.2
단순노무직	28.0	28.6	20.8	10.6	27.4	4.5	15.8	17.1	4.4	14.1	23.4	1.6	0.2
기타	16.5	20.7	6.0	73.3	42.7	0.0	2.0	6.6	0.0	24.4	7.9	0.0	0.0
무직	31.5	24.4	21.5	10.7	31.6	5.3	14.4	12.6	5.6	15.7	21.3	1.6	0.1

## 33-a.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 (1순위)

(단위: %)

	성평등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아동/ 청소년 인권	집단지 주시설 생활인 인권	노동 인권	노인 인권	성소수 자 인권	북한 이탈 주민 인권	혐오/ 차별 예방	정보 인권	기타
전 체	12.4	16.8	5.5	8.4	15.6	13.9	6.4	2.0	1.2	15.4	2.5	0.1
성 별												
남자	11.1	16.7	5.7	7.8	15.2	15.8	5.9	2.0	1.2	15.8	2.8	0.1
여자	13.7	16.9	5.3	8.9	16.0	12.0	6.8	2.0	1.2	15.1	2.1	0.1
지 역												
도 시[동 부]	12.7	17.2	5.6	8.4	14.6	13.7	6.1	2.0	1.2	15.9	2.6	0.1
농어촌[읍면부]	11.0	15.1	5.1	8.2	20.3	14.8	7.7	1.8	1.0	13.1	1.9	0.0
연 령												
20대 이하	14.6	13.7	6.0	9.4	13.9	14.4	3.7	3.1	1.6	17.3	2.3	0.1
30대	15.0	17.1	5.7	10.8	12.9	12.4	3.0	1.7	0.8	16.8	3.7	0.1
40대	13.9	18.4	4.9	8.8	12.6	15.9	3.7	2.7	1.1	15.5	2.3	0.2
50대	11.9	17.9	5.8	7.4	16.2	14.8	4.8	1.6	0.9	15.9	2.7	0.1
60대 이상	9.2	16.7	5.2	6.8	19.4	12.5	12.3	1.3	1.3	13.3	1.9	0.0
학 력												
중졸 이하	8.4	16.9	3.4	6.7	22.3	11.7	15.4	1.0	1.1	11.5	1.3	0.1
고졸 이하	12.5	16.4	6.2	8.0	15.6	14.9	5.5	2.1	1.2	15.4	2.0	0.0
대졸 이하	13.6	17.1	5.6	9.3	13.4	13.8	4.1	2.2	1.1	16.5	3.2	0.1
대학원졸 이상	13.8	15.0	4.9	4.8	13.9	11.8	5.7	3.1	2.3	21.8	2.5	0.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9	17.0	3.0	7.3	11.5	16.0	4.5	2.9	0.7	17.1	2.6	0.6
사무직	13.9	19.6	6.0	9.7	13.5	12.4	4.1	1.7	1.0	15.0	3.0	0.0
서비스/판매직	12.5	16.5	7.2	7.9	15.6	14.2	4.7	2.0	1.4	15.5	2.5	0.1
생산/기술직	11.0	13.8	3.4	7.5	18.1	21.0	3.9	1.6	1.3	15.5	3.0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5.7	16.2	4.1	5.4	22.2	12.4	16.3	1.4	1.1	12.5	2.6	0.1
단순노무직	11.9	21.2	3.6	6.4	15.7	16.0	11.1	0.8	0.9	11.3	1.0	0.0
기타	10.7	13.0	0.0	16.0	0.0	25.5	31.7	0.0	0.0	3.1	0.0	0.0
무직	11.6	15.4	5.4	9.0	16.5	11.8	8.3	2.2	1.2	16.3	2.1	0.0



### 33-b.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 (1순위+2순위)

(단위: %)

	성평등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아동/ 청소년 인권	집단지 주시설 생활인 인권	노동 인권	노인 인권	성소수 자 인권	북한 이탈 주민 인권	혐오/ 차별 예방	정보 인권	기타
전 체	18.1	27.4	9.9	17.3	29.4	30.7	16.3	6.0	3.4	32.0	7.8	0.1
<b>  성 별  </b>												
남자	15.8	27.4	10.1	16.0	29.2	33.5	15.1	6.5	3.5	32.3	8.8	0.1
여자	20.3	27.3	9.6	18.6	29.5	27.9	17.6	5.5	3.2	31.8	6.8	0.1
<b>  지 역  </b>												
도 시[동 부]	18.8	27.7	9.8	17.5	28.1	30.3	16.0	6.1	3.3	32.5	8.0	0.1
농어촌[읍면부]	14.8	25.5	9.9	16.4	35.1	32.8	17.8	5.2	3.6	30.2	6.9	0.0
<b>  연 령  </b>												
20대 이하	22.3	22.9	9.7	17.9	26.2	31.2	10.5	8.6	4.0	36.1	8.5	0.1
30대	22.6	27.6	9.8	19.3	23.6	31.6	10.3	6.5	2.9	34.7	9.1	0.1
40대	19.5	27.8	9.7	18.5	26.1	33.8	12.0	7.0	2.4	33.1	8.0	0.3
50대	17.2	29.1	10.5	16.0	29.3	32.4	14.0	5.5	4.1	31.7	8.4	0.1
60대 이상	12.9	28.4	9.6	16.1	36.1	27.0	26.9	3.8	3.4	28.0	6.2	0.0
<b>  학 력  </b>												
중졸 이하	12.5	31.1	8.1	15.2	39.3	25.2	30.2	3.1	3.2	25.0	5.4	0.1
고졸 이하	17.7	26.0	10.5	17.2	30.0	31.7	16.1	6.0	3.2	32.2	7.3	0.0
대졸 이하	20.1	27.3	10.0	18.3	25.8	31.8	12.0	6.9	3.6	33.7	8.9	0.1
대학원졸 이상	20.3	23.2	7.7	14.5	21.6	30.1	11.3	5.8	3.1	51.1	10.5	0.4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4.4	29.1	6.2	13.9	20.2	35.7	10.1	6.5	1.8	39.8	10.3	0.7
사무직	21.3	30.4	10.4	19.3	25.9	29.7	12.0	7.1	2.7	31.0	8.5	0.1
서비스/판매직	17.1	25.7	12.2	16.8	29.0	31.1	14.7	6.6	4.1	33.4	7.0	0.1
생산/기술직	15.7	23.4	8.5	15.1	33.9	42.0	11.0	5.9	4.5	30.6	8.0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7.7	28.2	10.7	13.3	40.3	26.8	26.8	4.5	3.6	27.3	9.3	0.1
단순노무직	15.7	29.8	8.1	17.1	28.9	35.8	25.8	2.0	2.2	28.0	4.8	0.0
기타	10.7	18.5	3.1	44.1	0.0	29.7	49.0	0.0	0.0	44.9	0.0	0.0
무직	17.5	26.9	9.2	18.3	31.7	26.5	20.4	5.4	3.5	31.3	7.6	0.1

34-1)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3.7	96.3
<b>  성 별  </b>		
남자	3.8	96.2
여자	3.6	96.4
<b>  지 역  </b>		
도 시[동 부]	4.3	95.7
농어촌[읍면부]	1.3	98.7
<b>  연 령  </b>		
20대 이하	3.9	96.1
30대	4.0	96.0
40대	5.1	94.9
50대	4.1	95.9
60대 이상	2.3	97.7
<b>  학 력  </b>		
중졸 이하	1.1	98.9
고졸 이하	3.2	96.8
대졸 이하	4.8	95.2
대학원졸 이상	11.0	89.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7.9	92.1
사무직	6.5	93.5
서비스/판매직	3.4	96.6
생산/기술직	1.3	98.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8	99.2
단순노무직	3.4	96.6
기타	6.9	93.1
무직	2.2	97.8

34-2)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4.0	96.0
<b>  성 별  </b>		
남자	3.9	96.1
여자	4.2	95.8
<b>  지 역  </b>		
도 시[동 부]	4.2	95.8
농어촌[읍면부]	3.1	96.9
<b>  연 령  </b>		
20대 이하	3.7	96.3
30대	3.0	97.0
40대	6.1	93.9
50대	4.5	95.5
60대 이상	3.2	96.8
<b>  학 력  </b>		
중졸 이하	1.8	98.2
고졸 이하	3.7	96.3
대졸 이하	4.9	95.1
대학원졸 이상	7.7	92.3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9.4	90.6
사무직	6.0	94.0
서비스/판매직	3.5	96.5
생산/기술직	1.3	98.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0	99.0
단순노무직	5.7	94.3
기타	6.9	93.1
무직	2.8	97.2

### 34-3)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7.2	92.8
<b>  성 별  </b>		
남자	6.2	93.8
여자	8.2	91.8
<b>  지 역  </b>		
도 시[동 부]	7.0	93.0
농어촌[읍면부]	8.2	91.8
<b>  연 령  </b>		
20대 이하	7.4	92.6
30대	7.7	92.3
40대	10.7	89.3
50대	7.6	92.4
60대 이상	4.6	95.4
<b>  학 력  </b>		
중졸 이하	2.1	97.9
고졸 이하	6.6	93.4
대졸 이하	9.0	91.0
대학원졸 이상	19.2	80.8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6.2	83.8
사무직	8.4	91.6
서비스/판매직	7.6	92.4
생산/기술직	6.2	93.8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7	97.3
단순노무직	7.9	92.1
기타	4.4	95.6
무직	4.8	95.2

34-4)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2.2	97.8
성 별		
남자	2.1	97.9
여자	2.2	97.8
지 역		
도 시[동 부]	2.3	97.7
농어촌[읍면부]	1.4	98.6
연 령		
20대 이하	2.7	97.3
30대	2.3	97.7
40대	2.4	97.6
50대	2.2	97.8
60대 이상	1.6	98.4
학 력		
중졸 이하	0.7	99.3
고졸 이하	2.1	97.9
대졸 이하	2.7	97.3
대학원졸 이상	2.6	97.4
직 업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5.1	94.9
사무직	3.3	96.7
서비스/판매직	2.0	98.0
생산/기술직	0.8	99.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5	99.5
단순노무직	1.8	98.2
기타	1.3	98.7
무직	1.5	98.5

34-5)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4.6	95.4
<b>  성 별  </b>		
남자	4.9	95.1
여자	4.4	95.6
<b>  지 역  </b>		
도 시[동 부]	5.0	95.0
농어촌[읍면부]	2.8	97.2
<b>  연 령  </b>		
20대 이하	6.4	93.6
30대	5.4	94.6
40대	6.1	93.9
50대	5.2	94.8
60대 이상	2.0	98.0
<b>  학 력  </b>		
중졸 이하	0.7	99.3
고졸 이하	4.1	95.9
대졸 이하	6.1	93.9
대학원졸 이상	13.7	86.3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0.0	90.0
사무직	6.8	93.2
서비스/판매직	4.1	95.9
생산/기술직	2.5	97.5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8	98.2
단순노무직	4.0	96.0
기타	0.0	100.0
무직	3.5	96.5

34-6)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6.1	93.9
<b>  성 별  </b>		
남자	6.1	93.9
여자	6.1	93.9
<b>  지 역  </b>		
도 시[동 부]	6.6	93.4
농어촌[읍면부]	3.9	96.1
<b>  연 령  </b>		
20대 이하	8.0	92.0
30대	8.0	92.0
40대	7.5	92.5
50대	6.0	94.0
60대 이상	3.2	96.8
<b>  학 력  </b>		
중졸 이하	1.1	98.9
고졸 이하	5.5	94.5
대졸 이하	7.9	92.1
대학원졸 이상	14.6	85.4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14.1	85.9
사무직	8.0	92.0
서비스/판매직	5.7	94.3
생산/기술직	4.0	96.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1.8	98.2
단순노무직	4.7	95.3
기타	1.3	98.7
무직	4.6	95.4

34-7)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1.7	98.3
<b>  성 별  </b>		
남자	1.7	98.3
여자	1.8	98.2
<b>  지 역  </b>		
도 시[동 부]	1.8	98.2
농어촌[읍면부]	1.2	98.8
<b>  연 령  </b>		
20대 이하	2.2	97.8
30대	2.5	97.5
40대	1.4	98.6
50대	1.7	98.3
60대 이상	1.3	98.7
<b>  학 력  </b>		
중졸 이하	0.6	99.4
고졸 이하	1.9	98.1
대졸 이하	1.9	98.1
대학원졸 이상	4.3	95.7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6	96.4
사무직	1.9	98.1
서비스/판매직	1.5	98.5
생산/기술직	0.8	99.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0.3	99.7
단순노무직	2.4	97.6
기타	0.0	100.0
무직	1.7	98.3



### 35-a.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1순위)

(단위: %)

	각 개인의 노력	법률/제도 마련	인권침해/차별 조사대응	인권교육 강화	캠페인, 홍보 활동	기타
전 체	24.7	31.2	18.1	15.8	10.1	0.0
<b>  성 별  </b>						
남자	24.5	31.5	18.7	15.5	9.8	0.0
여자	24.9	31.0	17.5	16.2	10.4	0.0
<b>  지 역  </b>						
도 시[동 부]	24.2	31.3	18.2	16.0	10.3	0.0
농어촌[읍면부]	26.9	30.8	17.8	15.3	9.1	0.0
<b>  연 령  </b>						
20대 이하	22.7	31.3	19.9	16.5	9.6	0.0
30대	25.3	31.8	19.0	15.0	8.9	0.0
40대	23.5	33.9	16.7	14.9	11.0	0.1
50대	23.8	32.8	17.1	16.5	9.8	0.0
60대 이상	26.8	28.3	18.1	16.2	10.7	0.0
<b>  학 력  </b>						
중졸 이하	28.4	26.5	17.3	16.5	11.2	0.1
고졸 이하	24.4	30.3	19.2	16.7	9.4	0.0
대졸 이하	23.7	33.6	17.5	14.8	10.4	0.0
대학원졸 이상	22.8	30.3	15.9	22.0	9.0	0.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4.4	33.7	14.8	18.5	8.4	0.2
사무직	22.8	33.3	19.0	14.9	10.0	0.0
서비스/판매직	22.9	32.8	18.8	15.6	9.9	0.0
생산/기술직	26.7	33.6	16.7	14.0	9.0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24.8	27.0	19.4	17.4	11.2	0.2
단순노무직	26.6	26.3	21.6	16.2	9.4	0.0
기타	33.5	22.2	29.4	15.0	0.0	0.0
무직	26.4	28.8	17.4	16.3	11.1	0.0

## 35-b.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1순위+2순위)

(단위: %)

	각 개인의 노력	법률/제도 마련	인권침해/차별 조사대응	인권교육 강화	캠페인, 홍보 활동	기타
전 체	40.1	55.4	42.9	35.5	22.7	0.0
<b>  성 별  </b>						
남자	40.1	55.4	42.1	35.7	22.9	0.0
여자	40.1	55.4	43.6	35.3	22.5	0.0
<b>  지 역  </b>						
도 시[동 부]	39.3	55.4	43.1	35.9	22.6	0.0
농어촌[읍면부]	43.8	55.5	41.5	33.6	23.1	0.0
<b>  연 령  </b>						
20대 이하	38.2	57.4	43.9	34.8	21.7	0.0
30대	39.5	55.9	44.2	36.2	21.3	0.0
40대	37.5	58.9	40.5	35.5	24.5	0.1
50대	39.3	55.1	44.8	34.8	22.6	0.0
60대 이상	43.6	52.0	41.7	36.0	22.9	0.0
<b>  학 력  </b>						
중졸 이하	45.4	50.5	41.4	35.7	24.1	0.1
고졸 이하	40.4	54.8	43.6	35.4	22.0	0.0
대졸 이하	38.2	57.5	42.9	35.3	22.8	0.0
대학원졸 이상	37.9	58.1	39.0	42.8	21.9	0.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38.0	59.3	36.7	40.8	22.2	0.2
사무직	35.8	57.8	46.8	34.8	20.8	0.0
서비스/판매직	37.1	55.8	44.7	35.5	23.0	0.0
생산/기술직	43.0	59.0	38.6	33.1	23.2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2.4	49.7	45.0	34.4	25.9	0.2
단순노무직	42.4	50.9	47.9	36.7	19.9	0.0
기타	48.2	62.2	48.6	37.8	3.1	0.0
무직	44.2	52.9	40.5	35.2	23.7	0.0

### 36-1)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보호·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단위: %)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3.7	67.3	26.2	2.8
<b>  성 별  </b>				
남자	3.9	67.3	26.1	2.7
여자	3.6	67.2	26.3	2.9
<b>  지 역  </b>				
도 시[동 부]	3.7	67.6	25.9	2.8
농어촌[읍면부]	3.8	65.8	27.5	2.9
<b>  연 령  </b>				
20대 이하	3.3	68.6	26.1	2.0
30대	3.4	64.2	28.1	4.3
40대	2.8	65.4	29.2	2.6
50대	4.8	66.9	25.6	2.7
60대 이상	4.1	69.4	23.9	2.7
<b>  학 력  </b>				
중졸 이하	3.6	70.9	23.8	1.6
고졸 이하	3.9	66.1	27.0	3.0
대졸 이하	3.5	67.1	26.3	3.0
대학원졸 이상	8.1	63.2	26.1	2.7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4.7	62.9	28.0	4.5
사무직	3.9	67.3	26.2	2.6
서비스/판매직	4.1	66.6	26.0	3.3
생산/기술직	3.0	70.1	24.6	2.2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6	72.2	21.9	1.3
단순노무직	3.9	63.3	30.8	2.0
기타	3.1	24.8	65.2	6.9
무직	3.2	68.2	26.0	2.6

## 36-2)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침해·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

(단위: %)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체	5.0	47.5	41.3	6.1
<b>  성 별  </b>				
남자	5.3	47.3	41.3	6.2
여자	4.8	47.7	41.4	6.1
<b>  지 역  </b>				
도 시[동 부]	5.5	47.7	41.0	5.9
농어촌[읍면부]	3.0	46.4	43.2	7.5
<b>  연 령  </b>				
20대 이하	5.8	49.4	39.2	5.6
30대	5.2	44.1	42.7	8.0
40대	4.0	43.9	45.4	6.7
50대	5.8	49.2	39.6	5.4
60대 이상	4.6	49.3	40.5	5.6
<b>  학 력  </b>				
중졸 이하	3.7	51.1	40.7	4.6
고졸 이하	5.0	47.9	40.4	6.7
대졸 이하	5.5	46.3	42.1	6.2
대학원졸 이상	4.0	39.3	50.4	6.4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2.8	44.3	43.9	9.0
사무직	5.4	48.8	40.6	5.2
서비스/판매직	6.1	47.3	40.1	6.4
생산/기술직	6.4	47.1	39.8	6.7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4.0	51.0	40.6	4.3
단순노무직	3.1	44.1	46.2	6.6
기타	0.0	18.7	71.2	10.1
무직	4.5	47.9	41.8	5.8

### 37.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단위: %)

	정부 등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차별받는 개인/집단	언론	교육기관	국제기구	기타
<b>전 체</b>	<b>55.6</b>	<b>8.3</b>	<b>11.1</b>	<b>15.9</b>	<b>8.6</b>	<b>0.6</b>	<b>0.0</b>
<b>  성 별  </b>							
남자	54.9	8.2	11.1	16.6	8.7	0.4	0.0
여자	56.2	8.4	11.1	15.1	8.5	0.7	0.0
<b>  지 역  </b>							
도 시[동 부]	55.2	8.5	11.2	16.1	8.5	0.5	0.0
농어촌[읍면부]	57.0	7.1	10.7	14.8	9.3	1.0	0.0
<b>  연 령  </b>							
20대 이하	52.4	7.5	12.2	17.4	9.6	1.0	0.0
30대	53.5	8.9	11.8	16.3	9.0	0.5	0.0
40대	53.5	9.6	10.3	16.3	9.6	0.7	0.0
50대	55.1	8.8	11.7	16.7	7.2	0.5	0.0
60대 이상	60.0	7.2	10.3	14.0	8.2	0.3	0.0
<b>  학 력  </b>							
중졸 이하	64.0	6.7	10.5	11.1	7.4	0.2	0.0
고졸 이하	55.0	7.6	11.9	15.6	9.3	0.5	0.0
대졸 이하	53.2	9.2	10.8	17.6	8.5	0.7	0.0
대학원졸 이상	57.3	9.3	6.1	17.4	9.8	0.0	0.0
<b>  직 업  </b>							
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	60.6	8.3	6.2	17.2	7.3	0.2	0.1
사무직	49.4	11.7	12.5	18.2	7.6	0.5	0.0
서비스/판매직	52.4	9.0	12.6	16.6	8.6	0.8	0.0
생산/기술직	61.1	7.1	9.1	12.9	9.7	0.2	0.0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65.3	5.7	8.5	11.6	8.7	0.2	0.0
단순노무직	65.2	7.8	8.6	10.2	8.0	0.2	0.0
기타	33.2	0.0	16.4	38.5	11.8	0.0	0.0
무직	56.7	6.2	11.5	15.5	9.3	0.7	0.0



2023년도 인권익실실태조사 보고서

# 부록 |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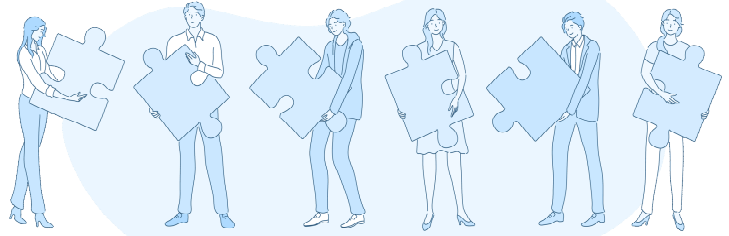






2023년

# 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리서치와 함께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느끼거나 경험한 인권과 관련된 평소 생각과 평가, 그리고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려면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조사기간(2023.7. ~ 2023. 9.)에 조사원이 귀택을 방문하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른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승인 통계입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문의처

Hankook Research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유승아 수석 02-3014-1051

(주)한국리서치 자료조사부 이희영 수석 02-3014-0145

♣ 아래 표는 조사원이 적어 넣습니다.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주소	_____시도_____시·군·구_____로(길)_____			
	_____동 _____호 ( _____동 _____아파트(APT))			
관리 사항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div></div>	<div></div>	<div></div>	<div></div>

담당사무소	구분	인원(명)
조사원 성명	전체 가구원 수	
조사원 ID	조사 대상	
가구당 조사표 부수	조사 완료	
조사표 작성 방법	불응, 불능	
	비대상	
	(만 18세 미만)	

총 ( )부 중 ( )부 성공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③ 인터넷 조사



## 조사표 쓰는 요령

- ◆ 항목별로 응답 항목에 ○, ✓표를 하거나 해당되는 숫자와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 한 항목의 기입이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입하되, 건너뛰는 표시(→)가 있으면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응답하세요.
- ◆ 항목 중 지난 1년은 2022.7.1.~2023.6.30.을 말합니다.



## I 인권 인식

인권\*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여쭙보겠습니다. 평소 생각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1

귀하는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접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접한다
- ② 비교적 자주 접한다
- ③ 가끔 접한다
- ④ 거의 접하지 않는다

2

귀하는 우리나라 헌법에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다소 알고 있다
- ③ 잘 모르고 있다
- ④ 전혀 모르고 있다

3

귀하는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좋아지고 있다
- ② 조금 좋아지고 있다
- ③ 비슷하다
- ④ 조금 나빠지고 있다
- ⑤ 많이 나빠지고 있다

4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 본인의 인권	①	②	③	④
2)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①	②	③	④
3)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①	②	③	④

5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 여성	①	②	③	④
2) 아동·청소년	①	②	③	④
3) 노인	①	②	③	④
4) 장애인	①	②	③	④
5) 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①	②	③	④

6

귀하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①	②	③	④
3)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①	②	③	④

7

귀하는 인권과 관련된 아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2) 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①	②	③	④

8

귀하는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는 사회
- ②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이 없는 사회
- ③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
- ④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 II 인권침해와 차별

9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 신체의 자유 (불법적인 불심검문, 연행, 구금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①	②	③	④
2) 사상·양심의 자유	①	②	③	④
3) 종교의 자유	①	②	③	④
4) 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①	②	③	④
5) 집회·결사의 자유	①	②	③	④
6)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7) 공공 행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②	③	④
8)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9)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②	③	④

구 분	매우 존중된다	존중되는 편이다	존중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10) 주거권(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①	②	③	④
11) 사회보장권(빈곤 해결, 소득 보장)	①	②	③	④
12)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돌봄, 영양보호, 활동 지원 등)	①	②	③	④
13) 노동권(일할 권리, 공정한 노동조건 보장,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	①	②	③	④
14) 건강권(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큰 경제적 부담없이 병원을 이용할 권리)	①	②	③	④
15) 교육권(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16) 안전권(범죄, 폭력,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17) 환경권(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②	③	④
18) 문화권(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①	②	③	④

10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① 여성               | ② 아동/청소년             |
| ③ 노인               | ④ 장애인                |
| ⑤ 한부모가족            | ⑥ 결혼이주민(가족 포함)/이주노동자 |
| ⑦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     | ⑧ 전과자                |
| ⑨ 성소수자             | ⑩ 경제적 빈곤층            |
| ⑪ 병력(질병)이 있는 사람    | ⑫ 비정규직               |
| ⑬ 기타(적을 것 : _____) |                      |

11

귀하는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공무원과 업무 처리할 때                     |
| ②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                |
| ③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입원 중일 때                |
| ④ 재판받을 때                            |
| 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
| ⑥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
| ⑦ 가정에서 생활할 때                        |
| ⑧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생활할 때                  |
| ⑨ 군대 생활할 때                          |
| ⑩ 보호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생활할 때        |
| ⑪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
| ⑫ 직장 생활할 때(구직/취업 포함)                |
| ⑬ 학교에서 생활할 때(입학 포함)                 |
| ⑭ 인터넷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할 때 |
| ⑮ 기타(적을 것 : _____)                  |

※ 다음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귀하의 경험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12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
|--------------|--------------|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다소 심각하다    |
|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

1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                         |                               |
|-------------------------|-------------------------------|
| ① 폭행이나 모욕적 언행           | ② 정치적 의사 표현의 제지, 방해, 비난, 처벌 등 |
| ③ 종교 선택이나 활동의 자유 제한     | ④ 단체 결성이나 가입의 자유 제한           |
| ⑤ 집회나 시위의 자유 제한         | ⑥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         |
| ⑦ 법집행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차별적 대우 |                               |
- .....
- ⑧ 없음

1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인권침해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안전의 위협(질병·감염병 및 자연재해 제외)
- ②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함
- ③ 일터(직장)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받음
- ④ 주변 환경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움(소음, 악취, 빛 공해, 일조량, 대기 등)
- ⑤ 편의 시설 부족 또는 거리가 멀어서 문화예술 시설(영화관, 공연장 등) 이용 못 함
- ⑥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 공개나 모욕적 대우를 받음
- .....
- ⑧ 없음

※ 13, 14 모두 '⑧ 없음' → 16 으로 이동

15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귀하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                    |                            |
|--------------------|----------------------------|
| ① 신체적 상해           | ② 재산/금전상 손해                |
| ③ 사회적 명예 실추        | ④ 정신적/감정적 피해(모욕, 분노, 울분 등) |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
- .....
- ⑧ 없었음

16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차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              |
|--------------|--------------|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다소 심각하다    |
|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었다면, 어떤 차별인지 아래의 보기를 참조하여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별 유형

- ① 폭행, 위협, 조롱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 : 폭행, 위협, 놀림이나 조롱, 폭언, 인격적 모욕, 무시
- ② 채용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 차별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정년, 퇴직, 해고 등의 불이익
- ③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당하는 차별 :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당하는 거절이나 불이익
- ④ 따돌림이나 배제 : 결혼, 친구 관계의 회피, 집단으로부터 따돌림

구 분	문17-1. 차별 경험		문17-1-1. 차별 유형 (해당사항 모두 선택)			
	없다 (해당없음)	있다	폭행, 위협, 조롱 등 신체적/ 언어적 폭력	채용 이나 승진 등 일자리 관련 차별	일상적 으로 물건을 사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당하는 차별	따돌림 이나 배제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2)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3) 종교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4) 사상 또는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①	②	①	②	③	④
5) 장애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6)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7)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8)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9)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0)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1) 키, 몸무게, 외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2) 미혼(비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3) 한부모, 미혼(비혼) 모/부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4) 질병 및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5) 출신지역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16)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①	②	①	②	③	④

→  
'②'  
있다'를  
선택한  
경우만  
응답

※ 17-1 1) ~ 16) 모두 '① 없다' → 19 로 이동

지난 1년 동안 차별을 받았을 때 귀하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신체적 상해
- ② 재산/금전상 손해
- ③ 사회적 명예 실추
- ④ 정신적/감정적 피해(모욕, 분노, 울분 등)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⑥ 없었음



① 그렇지 않다 → 20 으로 이동

① 그렇다  
↓

19-1

귀하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차별한 사람 또는 상황을 우선순위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응답하셨던 지난 1년 동안의 인권침해나 차별경험에 준하여 응답해주시요.

1순위

2순위

가족 또는 친인척	① 배우자 ②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③ (손)자녀/배우자의 (손)자녀 ④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가족 외의 친인척(손윗사람) ⑥ 기타(적을 것 : _____)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	⑦ 직장 상사나 상급자 ⑧ 이웃 또는 동호회, 동창회 등 내가 속한 집단 사람 ⑨ 학교 선후배, 친구, 동료 ⑩ 학원 강사, 학교 교사, 대학교수 ⑪ 기타(적을 것 : _____)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	⑫ 공권력을 가진 사람(경찰, 검찰, 공무원 등) ⑬ 집 또는 방, 상가의 소유주 ⑭ 고객(소비자/손님) ⑮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 ⑯ 거래처 사람(원청·하청 관계 등) ⑰ 면접관, 채용관 ⑱ 길에서 만난 행인 ⑲ 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 ⑳ 기타(적을 것 : _____)
상황이나 환경	㉑ 자연환경(미세먼지, 폭염 등) ㉒ 주변 생활환경(소음,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㉓ 기타(적을 것 : _____)

※ 19-1 에서 하나라도 ①~㉓일 경우는 → 19-1-1 로 이동

※ 19-1 의 1순위와 2순위 응답이 모두 ㉑~㉓일 경우는 → 19-2 로 이동

19-1-1

지난 1년간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한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③ 잘 모름

(2) 연령대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⑥ 잘 모름

19-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가해자(사람,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 ②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③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 ④ 공공기관에(교육기관 포함) 도움을 요청했다 → 19-2-1 로 이동
- ⑤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19-3-1 로 이동
- ⑥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 19-4 로 이동

→ 20 으로 이동

19-2-1

귀하가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어디입니까?(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국가인권위원회
- ② 대통령실
- ③ 검찰, 경찰
- ④ 지방자치단체
- ⑤ 교육기관(학교 인권센터, 위클래스 포함)
- ⑥ 기타 공공기관

19-2-2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19-2-1 , 19-2-2 응답 후 → 20 으로 이동

19-3-1

도움을 요청한 민간단체/전문가는 무엇입니까?(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시민사회단체
- ② 법률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
- ③ 언론기관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19-3-2

도움을 요청한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19-3-1 , 19-3-2 응답 후 → 20 으로 이동

19-4

귀하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 ②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③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 ④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가해자 처벌 어려움 등)
- 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 ⑥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 ⑦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19-4 응답 후 → 20 으로 이동



귀하는 다음의 인권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찬성한다**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찬성한다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찬성한다 ←————→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20-7

안전한 임신의 유지/종결(인공임신중절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 제정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0-8

노숙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주거지원(임대주택 등)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20-9

말기 환자에게 의사조력자살(의사조력존엄사)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가 약물을 처방해주면 환자 본인이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놓아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0-10

말기 환자에게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 적극적 안락사란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21

귀하는 기후위기(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증가, 생물다양성 축소, 해수면 상승 등)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21-1

귀하는 기후위기(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증가, 생물다양성 축소, 해수면 상승 등)가 심각해진다면 개인 삶에 주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두에게 똑같이 심각하다
- ②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하다
- ③ 기후위기에 따른 심각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21-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폭염, 폭우, 폭설, 태풍 등)에 취약한 노인, 영유아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 등 취약 지역 거주자 등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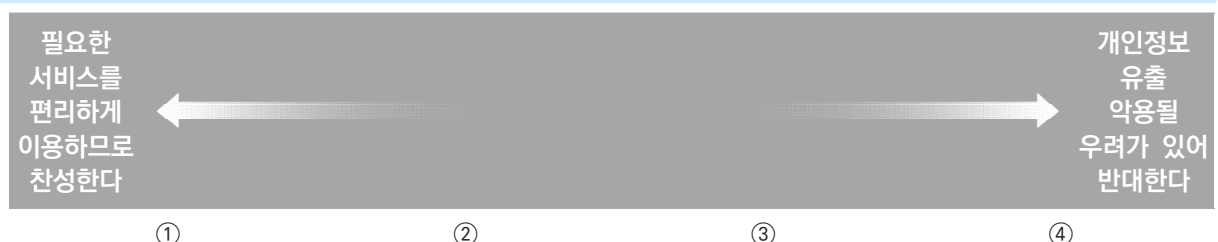
22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를 체크할 때, 관련된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나의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3)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다	①	②	③	④

22-1

개인의 금융, 건강 관련 정보를 가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23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4

귀하의 가족, 이웃, 친구 중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1) 장애인	①	②
2) 결혼이주민	①	②
3) 이주노동자	①	②
4) 북한이탈주민	①	②
5) 성소수자	①	②
6) 난민	①	②

24-1

다음의 사람이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불편하다	다소 불편하다	별로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1) 여성	①	②	③	④
2) 청년	①	②	③	④
3) 노인	①	②	③	④
4) 장애인	①	②	③	④
5) 결혼이주민	①	②	③	④
6) 이주노동자	①	②	③	④
7)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8) 성소수자	①	②	③	④

※ 다음은 혐오 표현에 대한 귀하의 경험을 여쭙보고자 합니다.

2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혐오 표현이란

성별, 장애, 나이, 지역,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 무시, 모욕, 위협,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말이나 비하 표현, 욕설을 의미합니다.

① 매우 자주 있다

② 자주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 26 으로 이동

25-1

귀하가 혐오 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친구/가족/지인

②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

③ 메신저 서비스(카카오톡, 밴드, 라인, 위챗 등)

④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⑤ TV/라디오

⑥ 인터넷 방송(유튜브, 아프리카TV 등)

⑦ 캠페인, 거리 집회

⑧ 기타(적을 것 : \_\_\_\_\_)

25-2

혐오 표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① 여성

② 남성

③ 아동 · 청소년

④ 노인

⑤ 장애인

⑥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⑦ 북한이탈주민

⑧ 난민

⑨ 성소수자

⑩ 특정 종교인

⑪ 노숙자

⑫ 특정 지역 출신인

⑬ 정치인

⑭ 연예인

⑮ 기타(적을 것 : \_\_\_\_\_)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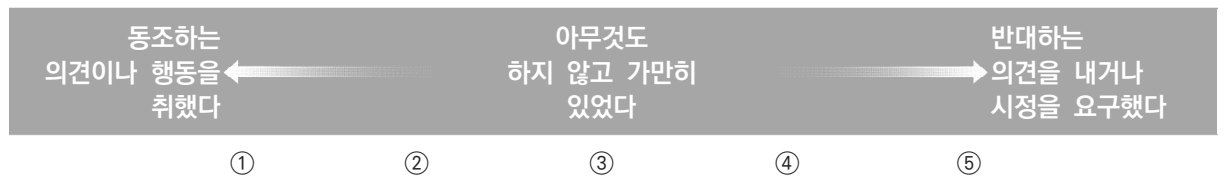
(25-2에 3개 이상 선택하였을 경우) 25-2 에서 선택하신 혐오 표현 대상 중 혐오 표현의 내용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주시요.

1순위

2순위

25-4

귀하는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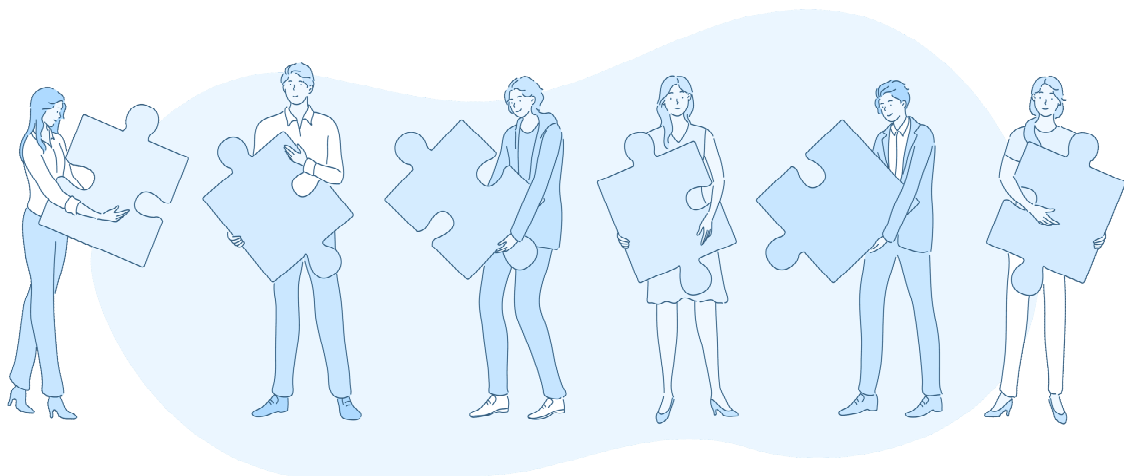
2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7

귀하는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IV 인권 교육 및 개선

28

귀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           |          |
|-----------|----------|
| ① 매우 잘 안다 | ② 아는 편이다 |
| ③ 모르는 편이다 | ④ 전혀 모른다 |

29

귀하는 본인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           |          |
|-----------|----------|
| ① 매우 잘 안다 | ② 아는 편이다 |
| ③ 모르는 편이다 | ④ 전혀 모른다 |

30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교육이란 인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인지를 교육하는 것으로,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① 없다 → **31** 로 이동

① 있다

30-1

귀하는 어디에서 인권교육을 받았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                    |                 |
|--------------------|-----------------|
| ① 국가인권위원회          | ②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
| ③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    | ④ 시민사회단체        |
| ⑤ 민간기업·사업체         | ⑥ 사회복지 관련 단체    |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

30-2

귀하는 인권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                     |                  |
|---------------------|------------------|
| ① 내부 강사/교사에 의한 집합교육 | ②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 ③ 온라인(사이버)교육        | ④ 시청각 교육         |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

30-3

귀하가 받은 인권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다소 도움이 되었다    |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귀하는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다음 중 인권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 |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

3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1) 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상담	①	②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①	②
3) 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①	②
4) 인권단체 회원 가입·활동	①	②
5) 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①	②
6) 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①	②
7) 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①	②

35

귀하는 인권 보호와 증진, 차별 해소를 위해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  
③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  
⑤ 인권 캠페인, 홍보 활동

- ②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  
④ 인권교육 강화  
⑥ 기타(적을 것 : \_\_\_\_\_)

36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다음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7

귀하는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어느 집단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 등 공공기관  
③ 차별받는 개인 또는 집단  
⑤ 교육기관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② 시민사회단체  
④ 언론  
⑥ 국제기구



## VI 개인 및 가구 관련 사항

### 배문1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미혼/비혼
- ②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 ③ 사별
- ④ 이혼(별거 포함)

### 배문2

귀하는 정규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 ① 안 받았음

→ **배문3**으로 이동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대학(교)(4년제 미만)
- ⑤ 대학교(4년제 이상)
- ⑥ 대학원 석사 과정
- ⑦ 대학원 박사 과정

- ① 졸업
- ② 재학
- ③ 수료
- ④ 휴학
- ⑤ 중퇴

### 배문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종교 없음

- ① 개신교
- ② 불교
- ③ 천주교(가톨릭)
- ④ 원불교
- ⑤ 유교
- ⑥ 천도교
- ⑦ 기타 종교(적을 것 : \_\_\_\_\_)

#### 배문4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 ‘일했음’과 ‘일시휴직’

- 일했음 : ①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했거나  
②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 등에서 보수 없이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
- 일시휴직 : 자신이나 가족의 병, 사고, 휴가(연가), 교육, 노사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으나 복귀가 가능한 경우

① 일했음(일시 휴직 포함)



② 일하지 않았음

➡ **배문5** 로 이동

#### 배문4-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종사자           |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군인                 |

#### 배문4-2

직장(일)에서 귀하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에 따라 구분합니다  
(상용 : 1년 이상, 임시 :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 : 1개월 미만).

① 임금근로자



-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④ 무급 가족 종사자  
⑤ 기타 종사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 배문5

귀하는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국가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경제 성장  
② 국가 안보 강화  
③ 참여와 권리 보장  
④ 환경 및 생태계 보호

**배문6**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배문7**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 ②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 ③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배문8**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구원은 설문을 종료합니다. 가구주는 **배문9** 로 이동





## 이 페이지는 가구주만 응답합니다.

배문9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 |             |                    |
|-------------|--------------------|
|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 ③ 연립/다세대 주택 | ④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
| ⑤ 오피스텔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배문10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세금 공제 전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기재해 주십시오.)

•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 ⑦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⑧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 ⑨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⑩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 ⑪ 1,000만원 이상          |                         |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할 내용이 더 있을 경우에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집전화	(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2023 인권의식실태조사

| 인쇄일 | 2023년 11월 30일

| 발행일 | 2023년 11월 30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02)2125-9822

| F A X | 02)2125-0918

ISBN : 978-89-6114-305-5 93310 비매품